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교류 와연대

적자생존에서상호부조로

조세현

2010년

은일부아나키스트들이뒤에서언급할사복의민성파에합류했다.¹⁷ 사회당의또다른지도자인태허는사감의죽음에큰충격을받고절간에 들어가장기간침묵하다일본으로건너갔다. 한편중국사회당의진익룡(陳翼龍)과중화민국공당의서기문(徐企文) 등과같은진보인사들도북경과상해에서각각체포되어처형당하면서사회주의운동이크게위축되었다.

중국사회당도정부의명령으로해산되었고강항호는미국으로망명했다. 미국에서쓴어떤글에서, “사회주의는반드시대동주의여야하며, 대동주의가아니면사회주의가아니다. 만약국가사회주의가국가를중심으로하고, 아나키즘이개인을중심으로한다면모두대동주의라고할수없다. 따라서(진정한) 사회주의라고할수없다.”¹⁸라고했다. 그렇다면그가말하는대동의사회주의란무엇인가? 그것은중국사회당시절자신이주장한세계사회주의와마찬가지로애매모호한개념에불과했다. 강항호의말잔치는‘혁명가’로화려하게출발한그를한날우유부단한‘정치꾼’의이미지로추락시켰다. 그래서인지국내에남아있던중국사회당원들은더이상그의말에주의를기울이지않았고, 각자뿔뿔이흩어져자신의길을찾아나섰다.¹⁹

강항호는미국에서공부하다 1920년여름잠시귀국했으며, 다시 1921년 3월러시아혁명이한창이던소련을 1년넘게여행한후 1922년 8월완전히귀국했다. 그런데그는소련의현실에실망하여‘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그는모택동보다먼저이용어를사용했다)와‘신사회주의新社會主義’라는새로운이론을들고정계에복귀했다. ‘신민참여選民參政’입법일권立法一權‘직업대의職業代議’를내용으로하는신민주주의와‘자산공유資產公有’‘지세귀공地稅歸公’‘노동보수勞動報酬’를내용으로하는신사회주의가그것이다. 1920년대의강항호는여전히사복과채원배(蔡元培), 오치휘, 진독수(陳獨秀) 등과더불어혁신파의한사람으로인식되었으나, 그의어정쩡한태도는곧사람들을실망시켰다. 강항호는중국사회당을재건(1924년 6월) 하고곧이어중국신사회민주당中國新

¹⁷ 사복이 「民聲」(1914)을출판하자사회당원성국성(盛國聲)이민성파에들어와에스페란토관련업무를주간한것이한사례이다(鄭佩剛〈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史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46면).

¹⁸ 江亢虎〈將來之中國社會黨〉, 『江亢虎文存初編』 149면.

¹⁹ 강항호가쓴〈한족韓族에대한감상〉(1922)이라는글은조선문제에대한묘한태도를보여주고있어부기해둔다. “한족韓族은실은한족漢族이다. 따라서한인韓人이망국한것은한인漢人으로서매우부끄러운일이다. 그러나한인韓人이일인日人에게망국한것은한인韓人에게는불행중다행이다. 아마도한한일漢韓日세개의민족은그혈통과문화가같고, 그이해관계역시같다. 일인日人은한인韓人을없앨수없으며, 잠시검병한것뿐이다. 이세개의민족은결코융합되어하나가될날이올것이기때문에, 한인韓人은결코망하지않는것이다. 나는일인日人이교만에빠지지말고, 한인韓人이굶주림에허덕이지말며, 한인漢人은한일韓日의일을잊지말기바란다. 모두함께융합하는즐거움을위해노력하고, 영원히검병의고통을피하도록하자. 이것이내가생각하는동아시아 3국공동의복리이다”(江亢虎, 같은책 188면).

차례

책머리에 ‘적자생존’에서‘상호부조’로	6
제 1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사회와의 만남	13
1. 프랑스에서 중국으로의 전파	13
크로포트킨주의와 세계사의 성립	13
「신세기」의 아나키즘	20
2. 일본에서의 전파	25
사회주의서적번역과 러시아허무당	25
행덕추수의 직접행동론	30
3. 일본과 중국 아나키스트의 교류	36
사회주의강습회의 성립과 「천의」의 아나키즘	36
동아시아 최초의 반제국주의 단체: 아주화친회	43
제 2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사회에서의 전개	50
1. 강향호와 중국사회당	50
삼무주의와 중국사회당의 창립	50
중국사회당의 분열과 아나키즘적 사회당	53
2. 사복과 민성파	57
언행일치의 혁명가, 사복	57
사복을 둘러싼 아나키즘 논쟁	61
사복의 제자들과 신문화운동	66
3. 일본 아나키스트의 초상: 대삼영	72
일본 아나키즘 운동의 부활	72
대삼영의 아나키즘 철학	75
중일 아나키스트의 상호 인식	80
제 3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84
1. 러시아혁명의 영향	84
러시아공산당과 아르코볼셰비키	84
러시아혁명가와 중국 아나키스트의 접촉	87

목할만하다. 이미 청말 장병린(章炳麟)의 〈오무론〉에서도 불교의 영향이 엿보이며, 같은 시대의 초기 사복(師復)의 사상에도 불교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다. 불교 말고도 유가의 대동과 평균관념을 아나키즘과 결합하거나 도가의 노자, 장자, 포경언을 중국 고대의 아나키스트로 보려는 생각들이 나타났다. 아나키스트들은 『예기禮記』(〈예운편禮運篇〉)에 실린 대동사회를 빌려 미래의 아나키즘 이상사회를 묘사하곤 했는데, 사회당 원도마찬가지였다.¹³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교의 대동, 불교의 극락,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천당과 사회주의 이상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사회주의와 종교간의 관계는 서로 밀접해서 대립적인 요소가 없다고까지 주장했다.¹⁴ 이것은 천의파의 경우와 유사하며, 근대서구 아나키즘이 중국사회에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이다.¹⁵

하지만 전통적 이상사회와 아나키즘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사회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 등에 발표된 또 다른 글에서는 종교나 미신을 격렬히 비판하며 반전통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인의 절대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봉건문화의 잔재인 강상윤리와 종법관계의 타파를 역설하면서 종교를 부정했다. 반전통주의자의 글로는 노애명(魯哀鳴)의 이상세계소설인 『극락지極樂地』(1912)가 유명하다. 이 책은 정부에 반항하다 실패해 해외로 표류한 부부가 우연히 압박과 착취가 없는 극락세계를 방문한다는 줄거리를 담은 공상적 사회주의 소설이다. 주인공은 사회빈부와 불평등의 원인을 금전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그리고 「성인이란 만세의적」으로 성인들이 만든 삼강오륜과 같은 거짓도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천부의 자유를 상실하고 인권이 불평등하게 되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인에 대한 우상숭배를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소설중의 주인공은 “무법無法·무천無天·무군無君·무성인無聖人”의 반역자였다.¹⁶

사회당은 중국사회당으로부터 독립한 후 장강남북을 중심으로 수십개의 지부를 건설했으나,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세개(袁世凱) 정부에 의해 금지명령을 받았다. 사회당의 지도자 사감은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1913년 8월 정부에 체포되어 결국 처형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당의 활동은 정지되고 「양심」도 폐간되었다.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

¹³ 〈社會黨綱目說明書〉, 「良心」第1號, 1913. 7. 20.

¹⁴ 榮鑄九 〈社會主義述古〉; 病俠 〈說平等親愛自由〉; 唐仲彪 〈社會黨之觀察〉, 「社會世界」, 1912. 4. 15.

¹⁵ 딜릭은 도쿄와 불교같은 전통사상이 아나키즘과 유사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거의 영향이 20세기 전반 중국사회에 아나키즘의 유행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阿里夫德里克 『中國革命中的無政府主義』,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中文版序).

¹⁶ 蔣俊 〈略語『極樂地』的政治思想和社會意義〉, 「近代史研究」, 1991年第1期 참조.

비록강항호가 기존정당을 개조해 보통정당을 만들려는 국가사회주의자의 입장에 반대했지만, 아나키즘경향의 당원들은 당과 결별하고 '중국' 두 글자가 빠진 독자적인 '사회당'을 만들었다.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제외 한 것은 새로운 사회당이 국제주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당시 중국 사회당의 분열을 마치 제 1 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파와 바쿠닌파의 분열처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의 존폐 여부에 따라 국가사회주의자 그룹은 마르크스파로, 아나키스트 그룹은 바쿠닌파로 각각 인식한 것이다.¹¹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자의 분열은 몇 해 전 일본 사회당이 의회정체파와 직접행동파로 분열한 사례를 연상시켰다.

신문의 암묵적인 영향 아래 중국 사회당 내 국가사회주의자가 결집되었 듯이 중국 사회당 내 아나키스트들은 신세기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치휘(吳稚暉)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 중국 사회당에 호감을 보이며, 중국 사회당 강연회에도 나가 아나키즘을 선전했다. 그는 여기서 군벌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고, 아나키즘 사회의 실현을 위해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잡지에 실린 오치휘 관련 기사에는 "예전에 강항호 군과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사회당을 정당으로 개조하는 것이 어떨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개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당이 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는 듯 보이지만 자연의 취향에 따르면 반드시 무정부로 돌아갈 것이다"¹²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처럼 오치휘는 중국 사회당이 일반정당이 아니라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단체이기를 희망했으며, 이런 생각은 아나키스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중국 사회당 잡지인 「사회세계」(사감편집)와 「인도주보」(서안진편집)의 논조 변화를 보면 당내 아나키스트들이 결집하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중국 사회당 본부 간사였던 사감이나 서안진(徐安眞)이 강항호의 대변자를 포기하고 아나키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아나키스트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들은 독자적인 사회당을 만든 다음에 「양심良心」(1913년 7월 20일)이라는 기관지를 출판했다. 이 잡지는 중국 내에서 발간한 최초의 아나키즘 잡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사회당의 아나키스트들도 개인마다 출신 성분이 달라서 인지이색적인 주장들이 난무했다. 실제로 사회당원은 중소학교원과 과자 유업인, 인쇄업자, 노동자, 유학생, 상공업자, 회당, 신군, 승려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식 아나키즘은 사회당의 한 가지 특색인데, 사회당원 태허나 화림이 자주 사용하는 양심良心이나 극락極樂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승려 출신인 태허의 사상은 불교와 아나키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사상사적 의의가 높는데, 아나키즘과 불교 간에 소통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주

2. 아나키즘-불세비즘 합작	92
북경지역	92
상해지역	96
광주지역 등	101
3. 아나-불합작의 분열과 논쟁	107
아나-불 분열의 과정	107
아나-불 논쟁의 전개	113

제 4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의 분화와 연대 활동 119

1. 일본 아나키즘의 분화	119
아나-불합작과 분열	119
대삼영의 죽음과 노동 운동의 분열	124
2. 중국 아나키즘의 분화	130
아나키즘 (혹기) 과 에스페란토 (녹기) 의 결합	130
국민혁명을 둘러싼 아나키스트의 분열	136
3. 1920년대 말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 활동	141
흑색 청년 연맹	141
상해 노동 대학과 천주민단 훈련소	145
동방 무정부주의 자연맹	149

제 5 장 한인·대만인 민족해방 운동과 아나키즘 152

1. 일제하 식민지에서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	152
2. 북경지역	159
「천고」와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	159
신대만안사	165
3. 상해지역	168
삼이협회와 「투보」	168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 조직: 평사와 대한동지회	171
4. 광주지역	175
중한호 조사와 「광명」	175
대만 혁명 청년단	177
5. 1920년대 후반 한인과 대만인 아나키즘 운동	180

제 6 장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연대 투쟁과 운동의 굴절 188

1. 파시즘 통치하의 일본인과 재일한인 아나키스트	188
일본 무정부 공산당의 건설과 붕괴	188
선택의 기로에 선 한인 아나키스트	193
2. 일본의 대륙 침략과 중국인 아나키스트	196
파금: 혁명과 문학 사이에서	196

¹¹ 太虛〈社會黨與中國社會黨之八面觀〉, 「社會世界」第5號, 1912. 12.

¹² 〈吳稚暉之社會主義談〉, 「社會黨月刊」第3號, 1912. 8.

중국인아나키스트의항일전쟁관	201
3. 항일전쟁중의재중한인아나키스트	206
유자명: 테러활동에서무장투쟁으로	206
한인아나키스트의민족전선참가	210

책을마치며 217

를실시하고영구중립지대로만들자는신선한주장을펴기도했다.⁷ 중국 사회당의민족정책에희망을 품은한인독립운동을비롯한피압박민족의대표가찾아와협조를부탁하는일도있었다. 한편으로는특정지역을선정해무정부주의의시험장을만들자는제안도있었다. 중국사회당은「사회성社會星」「사회잡지社會雜誌」를비롯한자신들의기고나지에「신세기」의기사나크로포트킨과관련된글들을적지않게실었다.

대외적으로중국사회당은일본과영국, 러시아같은세계여러나라의 사회당과연대를모색하면서만국사회당구락부라는모임을만들어교류를증진했다.⁸ 그들은중국사회당의선언서와강령등을에스페란토나외국어로번역해해외사회당에발송했으며, 국제사회주의자조직인제 2 인터내셔널에도가입하려고노력했다. 이에대해제 2 인터내셔널은비록중국사회당의가입을곧바로승인하지는않았으나그들의활동을예의주시하고있었다. 중국사회당에참여한아나키스트화림(華林)은각국사회당과연락하기위해유럽을경유해러시아로건너갔다. 여기서러시아허무당의환영을받았다는편지를보내왔다. 일부외국사회주의자들도개별적으로나중국사회당에호감을나타내어그들의집회에참여했다. 예를들어일본의아나키스트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이유럽을향하던중상해의중국사회당본부를방문해서강항호를만났다는기록과, 당시과장된수치로보이나 100 여명의국제사회주의자들이중국에건너왔다는정부측의첩보내용등이남아있다.⁹

중국사회당의분열과아나키즘적사회당

중국사회당내국가사회주의자들이결집하자이에대항하여순수사회주의를추구할것을주장하는사람들이나타났다. 그런인물들가운데는아나키즘을신봉하는사람들이많았다. 아나키스트들은평소강항호가현실정치에접근하는태도에불만을가지고있었다. 그러던중중국사회당제 2차연합대회(1912년 10월)가열리자국가사회주의자와아나키스트간에당의주요진로, 즉정치활동여부나여성참정권문제등을놓고팽팽한대결이벌어졌다. 강항호는이른바당내민주당民主黨과무치당無治黨의갈등이고조되자절충안을내놓았고, 그의제안은표대결에서 37 대 14로부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주장을당의강령에삽입하지이에분노한사감과태허등은극단사회주의를표방하며중국사회당노선에대한분명한반대를선언했다.¹⁰

⁷ 江亢虎〈社會黨籌邊策〉, 『洪水集』, 上海社會性出版社 1913, 97~102 면.
⁸ 〈萬國社會黨上海俱樂部成立記〉, 『中華民國報』 1913. 7. 17.
⁹ 〈中英社會黨之握手〉, 『人道週報』 第 3 期, 1913. 2. 16; 〈石川先生汗漫遊〉, 『人道週報』 第 7 期, 1913. 3. 16.
¹⁰ 刺虎來稿〈江亢虎之荒謬〉, 『社會世界』 第 5 號, 1912. 12.

라고 신앙하면 된다고 했다. 더구나 각종 사회주의 주장에 대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느슨한 규정 때문에 창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 내에는 자연스레 몇몇 정치파벌이 형성되었다.

중국사회당은 대략 세 가지 파벌로 나눌 수 있었는데,⁵ 첫째는 강항호 중심의 세계 사회주의 파로 개인을 사상의 중심에 놓고 교육과 선전을 주로 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그들은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권력 장악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나 정부를 거부하는 무모한 행동도 하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진정한다고 수파라고 생각했다. 둘째는 국가 사회주의 파로 기본적으로 중국사회당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에도 적극 참여해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을 시도하자는 부류로, 손문의 영향을 받은 인(殷仁) 과채정성(蔡鼎成) 등이 있었다. 셋째는 아나키스트로 공개적으로 반강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직접 투쟁을 통해 사회 혁명을 실현하자는 부류로, 신세기파의 영향을 받은 사감(沙淦) 과태허(太虛) 등이 있었다.⁶

이 정당은 처음부터 정치파벌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강항호의 세계 사회주의의 애매 모호함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아나키스트와 국가 사회주의자로 각자 분리되어 나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강항호는 세계 사회주의야말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의 장점을 흡수한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은 아나키즘과 국가 사회주의를 어정쩡하게 결합한 것으로 논리에는 자기 모순이 많았다. 그가 세계 사회주의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저술도 남기지 않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강항호가 남긴 글들이 대부분 강연록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공명심 많은 개인적인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빌리지만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당내 아나키스트 역시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간의 개념에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

중국사회당은 이념과 조직이 모두 산만하고 활동도 단시간에 그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국내외적으로 일정한 영향이 있었다. 대내적으로 중국사회당이 펼친 친보적 인사 정책과 민족 정책, 평민 학교의 개설과 에스페란토 선전,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여성 참정권 요구, 신문과 잡지를 통한 다양한 선전 활동 등은 민국 초기에 사회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그들은 만주족과 몽고족, 회족, 장족 지역을 내지와 분리하여 자치

⁵ 중국사회당내파벌을 정치가만능萬能이라고 믿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국가 사회주의파'와 정치가만악萬惡이라고 믿는 바쿠닌주의를 받아들인 '세계 사회주의파'로 나누어 구분한 글이 있다 (安眞 〈社會主義根本之探討〉, 「人間週報」第 2 期, 1913. 2. 2).

⁶ 社會黨月刊編輯部 〈中國社會黨主張社會主義之派別比較表〉, 「社會黨月刊」第 3 號, 1912. 9.

책머리에 | ‘적자생존’에서 ‘상호 부조’로

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주의 사상과 운동에 관해 탐색하려는 것이다. 서양의 고전적 아나키즘은 국가와 종교, 가족주의에 내재도니권위에 반대하며 성별과 종족별, 계급별 민족간 억압의 요소들과 대항했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도 무가족과 무종교, 무정부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상을 무강권주의 無強權主義라고 요약했다. 여성해방과 민족해방, 계급해방 등에 관해서도 전방위의 투쟁을 추구했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민족주의와 국민국가 화두로 등장할 무렵 일본에서는 아시아주의적 근대주의의 도소개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가지고 서구적 근대에 대항한 것은 일본의 아시아주의 뿐만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위로부터의 아시아주의는 무력에 의한 식민주의로 변질되면 서 제국주의적 대동아 공영권으로 나아가지만, 아나키스트들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했다. 특히 일본 중심의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를 추구하던 20세기 전반기에 일찍이 반전과 반제를 외치며 식민지 국가와 피억압 민족간의 동아시아 연대를 주장한 사실은 인상적이다.¹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 혹은 국민국가의 시대라고 불린다. 그래서인지 다수 연구자의 관점은 민족과 근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맞추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에 대

¹ 한국역사학계에서 민족이나 국가의 틀을 넘어서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를 바라보는 주장이나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보면서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주장이 있다. 창비를 중심으로 한 백영서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의 소통 —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호, 2007. 12;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식사 2004 등 다수).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21세기의 동아시아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개입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리프 딜릭의 논의가 있었다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 지역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창작과 비평』, 1993 봄 등). 특히 딜릭은 가장 뛰어난 중국 아나키즘 연구서를 쓴 저자이자 전지구적 자본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아리프 딜릭, 설준규·정남영 옮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창비 1998). 필자는 대략 이들의 주장에 기초한 동아시아 개념에 영향을 받아 이 책을 썼는데, 단지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란 추상적인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재했던 영역과 범주에 주목한다.

나인데, 아마도 행덕추수 (幸德秋水) 가 번역한 책일 것이다. 그는 아나키즘을 행덕추수, 계리언 (堺利彦) 등과의 교류를 통해 알았으며, 장계 (張繼) 와 유사배 (劉師培) 등의 사회주의 강습회와도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고록에서 중국에 아나키즘을 처음 소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힌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²

강항호가 사회주의에 심취한 시기는 다시 관비의 지원을 받아 1910년 3월부터 1911년 봄까지 유럽을 1년간 여행한 때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지를 유람하면서 사회주의가 “20세기에 가장 유행할 사조”임을 감지했고, 따라서 이주의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접촉했으며, 제 2인터내셔널에서 개최한 정치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귀국 전에는 자신이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중국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들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강항호가 유럽에 체류할 때 파리의 신세기파와 교류한 사실이다. 그는 이미 일본 유학 시절에 (서)안성 ((徐)安城)이라는 필명으로 <무가정주의 無家庭主義> <자유영업관견 自由營業官見>이라는 두 편의 글을 『신세기』 (제 93호, 제 97호)에 투고한 인연이 있었다.³ 특히 <무가정주의>라는 글에서는 가정과 종교,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른바 삼무주의를 제창했다.

삼무주의는 무종교, 무국가, 무가정의 세 가지 주장을 합쳐 부른 것으로, 무가정론에서 가족보다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전통과 대립한 것으로 곧바로 여성해방론과 연결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되었다. 기본적으로 사회와 문화의 혁신 주장에서는 아나키즘 색채가 농후했으나, 정치경제적 문제의 해법에서는 오히려 개량주의에 가까웠다. 강항호가 기록 개인주의와 경제자립 및 유산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의 사회주의의 핵심은 반가정주의 이 기반 자본주의는 아니었다.⁴ 따라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토지세와 유산의 공유화를 선전하는 선에서 그쳤다.

강항호는 귀국 후 사회주의 연구회를 만들어 사회주의 선전에 앞장섰으며, 얼마 후 중국 사회당을 만들어 상해 본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강소성과 절강성 등 동남부 지역의 여러 성과 북경, 천진에 지부를 설립했다. 한때 중국 사회당은 52만여 명의 당원을 거느린 대 규모 조직으로 급성장했지만, 사회주의 이론에 정통한 당원은 거의 없었다. 당의 규약에 따르면, 당은 우두머리를 두지 않고, 당원은 단지 사회주의를 미래의 이상이

² 江亢虎 <中國無政府主義之活動及余個人之意見>, 『江亢虎文存初編』, 上海中華書局 1932(1914), 124면.

³ 江亢虎, 같은 글 123면.

⁴ Arif Dirlik & Edward S. Krebs, “Socialism and Anarchism in Early Republican China”, *Modern China*, 1981. 4, 131면.

제 2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사회에서의 전개

1. 강항호와 중국사회당

삼무주의와 중국사회당의 창립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황제 체제가 무너졌으나 곧이은 군벌 정권의 출현으로 공화제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뒤범벅된 가운데 사회주의가 중국내에 도널리 소개되었다. 이 시기 잡지에 실린 사회주의 관련 글들은 청말에 소개된 문장을 다시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사회주의 관련 잡지들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공산주의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중화민국 초기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사회주의를 대동주의와 삼무주의(三無主義, 광의 사회주의, 협의 사회주의, 순수 사회주의, 극단 사회주의 極端社會主義, 무치주의, 무강권주의, 세계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로 다양하게 정의했다. 대체로 일반인에게 사회주의란 최신행사조로서 그냥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¹ 이런 사상적 혼란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중국사회당(中國社會黨)에서이다.

중국사회당은 강항호(江亢虎)를 중심으로 혁명이 한창이던 1911년 11월 5일 상해에서 창립되었다. 창립자인 강항호의 전력을 살펴보면 이 정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항호는 손문(孫文) 못지 않게 해외 여행을 많이 한 인물로 유명하다. 1907년 일본으로 유학갔을 때 유학생 대표 신분으로 일본사회당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때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 또한 그는 다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일본 사회주의자의 저서나 번역서를 읽으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갔다. 미국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저작을 통해 토지 공유제나 단세설(單稅說)에 흥미를 느꼈으며, 독일 사회민주주의자이자 제 2인터내셔널 지도자인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의 저작을 통해 여성 해방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베벨이 쓴 『부녀와 사회주의』는 강항호가 가장 즐겨 읽은 책 가운데 하나

한 연구도 대체로 일국사의 관점에서 서주(西州)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그 운동을 정리함으로써 아나키즘 본래의 국제주의적 성격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서 저자가 다루려는 아나키스트들, 즉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인 등의 다양한 활동은 비록 20세기의 시대 정신에 어긋난이 단적 행동이었기에 실패했다고 간단히 치부해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연히 존재했던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 현상의 하나였음은 틀림 없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동아시아라는 좀더 넓은 지역 범주를 가지고 각각 나라의 아나키스트 교류와 협력을 정리해 근현대 서기의 아나키즘을 실감나게 이해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가 어느 정치파벌보다도 민족과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은 무척이 채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제 교류와 연대라는 주제는 지금까지 별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기존 연구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한중과 한일, 중일 등 국가 간의 아나키스트 교류와 협력에 관한 논문이 몇 편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나키즘의 고유한 특징인 국제주의 정신과 그 활동을 잘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일부에서나마 동아시아 급진주의 연구의 하나로 아나키즘의 초국가주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²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대만과 일부 러시아의 경우를 포괄한 다국적 차원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한국이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의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국제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 운동조차 동아시아사회에서 광의의 민족주의 범주 내에 포섭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나키스트의 연대 정신은 20세기를 설명하는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아나키즘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한 연구자는 동아시아 사회주의의 첫 단계에서 아나키즘은 주도적인 이념이었고, 20세기 초반 20년간 전파되어 급진주의적 세력이 출현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사상은 당시 사회 다원주의에 근거한 제국주의 합법화에 또 다른 선택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³ 아울러 아나키스트는 단순히 정부의 폐지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며, 사회 각 기관 내의 권력을 분산시키려 했다고 보

² 황동연은 20세기 초 동아시아 급진주의자(특히 아나키스트)들이 서구의 '아시아'가 아닌 초민족적이며 세계주의적 전망을 찾은 새로운 아시아를 창안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개념과 관련해 구미 오리엔탈리즘과 미국 지역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동아시아라는 지역 명칭을 비판하고, 지역 시각과 초국가적 관점을 통해 동아시아를 대체할 '동부아시아'란 지역 명칭을 제안하면서, 동부아시아란 개념을 염두에 두고 20세기 전반 급진주의자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황동연 <20세기 초 동아시아 급진주의와 '아시아' 개념>, 『대동문화연구』 50호, 2005; <지역 시각, 초국가적 관점, '동부아시아' 지역 개념과 '동부아시아' 급진주의 역사의 재구성 시론>, 『동방학지』 145호, 2009).

³阿里夫德里克(Arif Dirlik) <東亞의 現代性與革命 — 區域視野中心的中國社會主義>, 『馬克思主義與現實』, 2005년 3월 9면.

¹ <吳稚暉之社會主義談>, 『天義』 第1輯, 1912.

있다. 그리고다른연구자는“동아시아의경우에한중일어나키스트들이 서로긴밀하게협력하면서‘민족’과‘국가’의경계를무너뜨리려애썼다는 점에서공산주의의국제성을그대로닮았다. 그러면서도그들은개인의자유문제나‘지도부로부터의대중의독립성’문제를제기하는등사상적스펙트럼이급진적인부분에서공산주의자들의중앙집권적운동이이루어내지못한바를이루어냈다”⁴고높이평가했다. 아나키즘의의의와더불어그한계를지적한또다른연구자는 20세기전반동아시아아나키즘에서민간차원의지역연대가나타난다고보면서도, 이런시도는일반민중의일상생활속의실감과는거리가있었기때문에단명에끝났다고보았다. 즉근대에적응하지못하면망국, 망중한다는위기의식이아나키즘의발목을잡았다는것이다.⁵ 이처럼변혁이론으로서의동아시아에주목하는연구자에게 20세기전반기아나키스트의동아시아연대사례는좋은본보기가될것이다.

동아시아아나키즘운동은민족주의사조와밀접한관련을지니는것이두드러진특색이지만기본적으로국제주의를추구한사상이다. 운동의초창기인 1900년대에아주화친회(亞州和親會, The Asiatic Humanitarian Brotherhood) 나사회주의강습회社會主義講習會활동등에서이미나타난다. 특히 1907년은상징적인해로일본과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직접교류를시작한때이다. 당시행덕추수(幸德秋水)가중국과인도를비롯한주변국가들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보이자동경에거주하던외국인혁명가들은이에호응했다. 그결실의하나로중국인혁명가들은일본인사회주의자들과함께아주화친회를조직했다. 이단체는아시아각나라의혁명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삼아혁명가연합단체를결성하고자했는데, 동아시아사회에최초로등장한반제국주의조직이라고말할수있다. 일본인과중국인들이중심이되어결성했으나, 인도와조선, 월남, 필리핀, 말레이시아혁명가들도참여했다고전한다. 20세기동아시아사회주의수용및전개과정을살펴보면, 중국과일본의경우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보다먼저사회주의운동의주류를점했던까닭에이곳의아나키스트들은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과에스페란토를매개로민족주의와제국주의이론에대한최초의강력한비판자가될수있었다.

1910년대에일본은행덕추수가대역사건大逆事件에연루되어억울하게사형을당하고정부가가혹한사상탄압으로말미암아‘겨울의시대’를맞이했지만, 중국은‘중국아나키즘의초상’이라불리는사복(師復)의정력적인활동으로전성기를맞이했다. 사복은해외아나키스트와의교류를시도했으며, 일본아나키즘운동의지도자로부상하던대삼영(大杉榮)

촉진하고, 특히월남과인도, 미얀마, 조선간의단결을촉진”하는것이였다. 그런데월남이프랑스식민지였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 어쩌면반패주의활동이전에월남사회에프랑스인들에의해아나키즘이소개되었을가능성도없지않아보인다.

⁴ 박노자 <반란자들의동아시아를위하여>, 『우리가몰랐던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18면.

⁵ 백영서 <중국에‘아시아’가있는가>, 『동아시아의귀환』, 창비 2000, 59면.

이두가지사건은겉으로는별개의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는일본정부의군국주의화에따라사회주의와민족해방운동에대한탄압이시작되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다. 다른각도에서보면 19세기말유럽사회에서유행하던권총과폭탄을이용한암살이라는새로운혁명수단이동아시아의혁명가들에게도달한사실을드러내는것이기도하다. 특히 20세기초러시아아나키스트그룹‘검은깃발’은차르체제를붕괴시키고사회혁명을촉발시키기위한조직적인테러활동을시도하고있었다.

행덕추수는감옥에서마지막저서인『기독교말론基督抹殺論』(1911)을저술해자신의무신론사상을정리했다. 이책은기독교의창시자인예수의존재에대해부정했는데, 기독교의경전인성서란후대인이조작한것이며, 기독교의교리도잡다한생각의혼합물이라고평하였다. 그는기독교의도덕을노예의도덕이자부도덕으로정의하면서, 결국기독교는세상에서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 행덕추수는옥중생활에서도자신의번호보다는아나키즘에대한오해를푸는데노력했고, 주변사람들에대한세심한배려를아끼지않아강한인상을남겼다. 대역사건은국제적인이슈로부각되었고전세계여러나라에서구명운동이전개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행덕추수를비롯한열두명은간단한재판절차를거쳐사형연도 6일만인 1911년 1월 24일에전격적으로사형이집행되었다. 이로써일본초기아나키즘운동의지도자였던행덕추수는어처구니없이형장의이슬로사라졌다. 하지만이사건의구체적인내막은여전히알려져있지않다.

대역사건으로세상이떠들썩하던즈음적기사건으로체포되었던대삼영은아직감옥에있었다. 형무소안에서대역사건과관련된조사를받았으나, 다행히감옥에있었던관계로탄압을면할수있었다. 그는 1910년 11월출소했다. 그러나대역사건후일본인들은사회주의자를공포와증오의감정으로대해이들이실자리는거의없어졌다. 이에따라일본사회주의운동은이른바‘겨울冬の시대’에들어가깊은침묵에빠져들었다.

덧붙이자면중국과일본아나키스트의합작은월남에아나키즘을수용하는계기를마련했다는주장이있다.⁹² 20세기초재일본월남급진주의자반패주는중국과일본의급진주의자들과함께활동했다. 이때받아들인반제국주의적사상은그로하여금월남인민의해방을위한반프랑스의식을고취시켰다고한다. 하지만반패주의국수주의적경향은중국아나키스트의국수주의와유사했다. 그후중국아나키즘운동의발전은월남아나키즘의발흥에자극을주었는데, 반패주가중국남방으로이주했을때중국아나키스트사복의지지를받았다고한다. 사복은경제적으로그를지원했을뿐만아니라조직활동을제안했다. 그결과진화흥아회振華興亞會가만들어졌다고하는데, 이단체의목적은“중국과아시아식민지국가의단결을

⁹² 阿里夫德里克 (Arif Dirlik) 〈東亞의現代性與革命 — 區域視野中的中國社會主義〉, 『馬克思主義與現實』, 2005. 3, 11~12면.

과도연락을맺었다. 사복의갑작스러운죽음에도불구하고그의학생들은꾸준히운동의영향력을넓혀갔으며, 1910년대말부터는시베리아나연해주등지에서건너온러시아아나키스트들과도교류가있었다. 그런데러시아혁명의성공과볼셰비키의등장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에게는새로운강력한도전자기출현했음을의미했다. 이세계적사건은동아시아사회에도영향을미쳐한·중·일사회주의운동의대립과분열을가져왔으며, 아나키즘 — 볼셰비즘논쟁을촉발시켰다. 반드시이논쟁때문에아나키즘운동이쇠퇴했다고보기는힘들지만, 논쟁을전후해운동이급격히약화된것은사실이다.

1920년대초에는중국인뿐만아니라일본인아나키스트의국제활동도두드러진다. 한예를들자면, 1920년 10월대삼영은극동사회주의자의회의極東社會主義者會議에참석해달라는한인동지의연락을받고상해로감행했고, 이때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연함문제를논의했다. 그리고다시대삼영이중국에간것은 1922년말로, 다음해베를린에서열릴예정인국제아나키스트대회에출석하기위해일본을탈출하는과정에서였다. 이두차례의중국행을통해두나라아나키스트의교류는심화되었고, 결국대삼영의주도아래일본과중국, 조선, 인도등의아나키스트들은상해에서국제조직을결성할계획을세웠다. 하지만 1923년관동대지진당시대삼영이군부에의해무참히살해되면서이계획은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20년대후반일본과중국에서의아나키스트연대활동, 즉흑색청년연맹黑色青年聯盟, 상해노동대학上海勞動大學, 천주민단훈련소泉州民團訓練所,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의결성등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연대활동이꾸준히지속되었음을말해준다.

1930년대이후일본제국주의의대륙침략, 즉만주사변과중일전쟁의발발은아나키즘운동은물론동아시아역사전개과정을크게왜곡시킨불행한사건이었다. 일본은천황제강화와군국주의성장을거쳐대외팽창으로나아갔고, 전쟁상황은국내적으로사상운동의통제를가져왔다. 중국은일제의대륙침략에다른위기감으로정치적민족주의가대두됨에따라국민당과공산당의양당구도로재편되면서아나키즘운동의입지가좁아졌다. 한국과대만도일제에의해전시동원체제로재편되면서일체의사상운동이말살되었다. 당시국제연대활동은주로항일운동의차원에서이루어졌다. 예를들어 1931년에는한중아나키스트간에공동전선이제기되어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을결성했고한인과중국인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의아나키스트도참여했다.⁶ 이시기민족주의의고양과국민국의건설이라는시대조류앞에서아나키스트들이점차궁지에몰렸다.

⁶ 줄고 〈동아시아아나키즘, 개인의절대자유꿈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09. 1 참조.

고전적이나키즘의이상주의에대한비난은정부와국가에의해끊임없이반복되었다. 주로이나키즘을테러리즘, 허무주의, 공상주의등과일치시키려는부정적인평가가그런것들이다. 하지만탈민족주의와탈국가주의시대를맞이해야이나키즘적상상력에대한적극적인평가가필요한때가아닌가싶다. 민족주의와국민국가의신화가붕괴되는현재상황과관련하여어떻게민족과국가의존재를무시하고우리가생존할수있는가라는현실논리에따른반복적인질문을하기에앞서민족과국가도대체우리에게어떤의미를가지는가라는더욱근본적인질문을던져야할때인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몰락과자본주의가신자유주의라는이름을빌려전지구적으로확산되는현실과관련하여이나키즘이그대항논리를제공할가능성이높기에더욱그렇다. 예를들어동아시아이나키스트들이가장선호했던크로포트킨사상은인간의무절제한욕구에대한비판에서부터친환경적공동체의건설에이르기까지여전히풍부한상상력을제공하고있다.

지금우리는민족주의의과잉으로말미암아파생되는국가주의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법세계적협력의필요성을되새길필요가있다. 그런의미에서동아시아의이나키스트들이내셔널리즘의시대조류에맞서드물게나마국경을넘어동아시아평민연대를주장한것은무척인상적이다. 비록중앙집권적권력의출현에대한적절한대안과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고원리원칙을고집한것이운동의패인으로종종지적되지만, 그래도그들이제시한이상주의적전망은오늘날여전히유효한듯하다. 왜냐하면그들이던진본질적인문제들에대해우리는아직도그해답을찾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어쩌면망각되어가는한세기전의과거속에서현재의대안적희망을찾을수있을지도모른다.

이책에서는 1900년대초반부터 1940년대중반까지시기를제한해시간의추이에따라여섯장으로나누어개별주제를다룰것이다.

제 1 장에서는 1900년대이나키즘이동아시아사회에수용되는과정을다룰것이다. 프랑스이나키스트와중국인유학생의교류를통해세계사世界社가성립되고 「신세기新世紀」가출판되는과정과일본에서사회주의서적이번역되는과정, 행덕추수가미국여행을통해직접행동론을받아들이는모습, 일본이나키스트의영향아래재일중국인의사회주의강습회가만들어지고이들을중심으로동아시아최초의반제국주의단체인아주화친회가결성되는내용을서술할것이다. 제 2 장에서는 1910년대중국과일본에서이나키즘이정착하는과정을다룰것이다. 우선중국에서강항호(江亢虎)의중국사회당中國社會黨성립을통하여이나키스트세력이결집되고독자적인‘이나키즘’적사회당을만드는과정과사복이코뮌적이나키즘을선전하고그의제자들이신문화운동시기에전성기를구가하는모습을묘사할것이다. 그리고일본에서대삼영이행덕추수를이어받아아

1907년이라는상징적인해는중일이나키스트들의교류가매우활발한시기였다. 그런데그해말미국에서사회혁명당을조직한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이천황제를반대하는글을일본각지에배포해정부를긴장시켰다. 게다가러일전쟁후국내통합이라는시급한문제에직면하자일본정부는사회주의운동에대한적극적인탄압에나서면서상황이돌변했다. 1908년 1월 17일에열린제 20차참요강습회에서경찰이해산명령을내리자분노한군중들이가두행진을벌이고다시회의장옥상에올라가연설을하는등소란을피웠다. 이옥상연설사건으로말미암아대삼영을비롯해계리안과죽내선삭등은치안경찰법을위반한혐의로체포되어동경감옥에투옥되었다. 이때중일이나키스트의교량역할을담당하던장계에대해서도체포령이떨어졌는데, 당시그는청조로부터혁명파의우두머리로지목되어현상금 3천금이걸려있었다. 비록장계는일본동지들의도움으로프랑스파리로망명하는데성공했지만, 그가사라지면서중일이나키스트간의연대는급속히와해되었다.⁹⁰ 그후장계는파리의신세기파와합류해활동했고, 구미의이나키스트들이만든이상촌을방문하기도했다.

일본이나키즘운동을더욱위축시킨것은 1908년 6월 22일에일어난적기사건때문이었다. 산구고검(山口孤劍)이라는한사회주의자의출옥환영회가금휘관錦輝館이라는곳에서열렸는데, 이모임은분열된사회당의좌·우파의화해를목적으로마련된자리였다. 그런데경찰이환영회를진압하려들자대삼영을비롯한일부사회주의자들이‘무정부*무정부공산*혁명’이라쓰인적기를휘두르며경찰과난투극을벌였다. 이유명단적기사건으로말미암아대삼영을비롯한다수의일본이나키스트들이또다시체포, 투옥되었다. 사회적충격이적지않아이사건의책임을지고내각은총사퇴했으며일본정부는더욱보수화되었다.⁹¹ 적기사건을계기로일본의사회주의운동이침체에놓이자아주화친회나사회주의강습회도이들과운명을같이했다.

1910년은대역사건大逆事件이일어나행덕추수를비롯한다수의사회주의자가체포된해이다. 평민사를들락거리던궁하태길(宮下太吉)등몇몇젊은이들이천황제를노골적으로비판하다가그가운데일부가천황암살을꿈꾸었다. 결국그해 5월에궁하태길이폭발물제조혐의로체포되는것을시작으로무려 26명이나되는사람들이당국의올가미에걸려기소되었다. 그가운데에는이사건과무관한행덕추수와그의처관야수하자(菅野須賀子)도있었다. 그보다몇달전인 1909년 10월동양평화론을주장한안중근(安重根)이이등박문(伊藤博文)을암살한사건이발생하고, 다음해 2월사형판결을받자마자곧이어 3월사형이집행되었다.

⁹⁰ 아주화친회의좌절은그주요원인이가장열성적인조직가이자연설가였던장계가프랑스로망명가고, 적기사건후각국의동지들이흩어졌기때문이라고한다.

⁹¹ 小松隆二, 앞의책 52면.

당이 상호연대하게 될 경우, 민당의 혁명은 식민지 독립의 기회가 되고 식민지의 독립은 또 민당 혁명의 기회가 된다. 아시아 인민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러한 방침을 실행하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식민지에 행해지고 있는 강권이나 인민을 속박하고 있는 정치가 모두 동시에 전복되어 인류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⁸⁶

〈아주현세론〉에서는 아나키즘에 가까운 중국에서 시작해 아시아 약소국가와 연락하고 구미의 아나키즘 정당과 연대해 백인의 강권과 정부를 전복하자는 논리를 전개한다. 특히 아나키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제국주의도 반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아시아 약소민족이 서로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역설했다. 여기서 백인종뿐만 아니라 침략 정책을 펴던 일본 정부 역시 ‘아시아의 공적’으로 본 것은 흥미롭다. 즉 일본을 아시아에서 강권을 행사하던 백인종의 일원으로 본 것이다. 작자는 세계 정세와 아시아 정세, 중국 정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월남, 인도 등의 식민지 망명 개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약소국의 동시 독립과 정부의 폐지를 역설한다든지, 아시아 약소민족의 독립을 서로 돕고 나라의 독립 후에는 아시아 연방을 결성한다든지, 아시아 혁명에서 세계 혁명으로 나아가는 혁명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내용이었다.⁸⁷ 이 글은 아시아 인민의 연대를 통한 반제국주의를 주장한 점에서 아주화친회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민보」에도 아주화친회의 주장과 유사한 논조의 글이 실려 역시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⁸ 이처럼 아시아주의가 반제민족해방운동을 향한 국제연대로 나아가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한편 행덕추수는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사회주의자 및 식민지 민족혁명가들을 규합해 ‘동경 사회주의 자유지회 결의’ 명의로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을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대관평민신문」(1907년 7월 21일자)에 싣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자유 독립 자치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제국주의 적방책은 만민 평민 계급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언질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⁸⁹ 고 했다. 대체로 일본인으로서 행덕추수는 대외적으로 반제국주의를 중시하고 대내적으로 반천황제를 주장하면서 아시아 문제에 주목했다면, 중국인으로서 유사배는 반만민족주의에서 출발해 민족해방을 주장하고, 그것이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아시아와 반제국주의 문제로 나아가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⁸⁶ 유사배, 박재균 옮김 〈아시아 현정세와 연대론〉,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145~46, 158면.

⁸⁷ 劉師培 〈亞洲現勢論〉, 「天義」第 11~12 合冊, 1907. 11. 30.

⁸⁸ 〈亞洲和親之希望〉, 「民報」第 23 號, 1908. 8. 10.

⁸⁹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의 독립운동 — 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2008, 49면 재인용.

나키즘 운동을 부활시키고 중일 아나키스트 간에 교류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⁷

제 3 장에서는 1920년대 초 중국의 ‘사회주의 자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아나키즘 — 불세비즘 합작과 분열 과정을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러시아 혁명가들이 중국인과 접촉하는 과정과 중국 공산당 창립 시기의 아나 — 불분열과 논쟁의 내용을 그레고리 보이틴스키 (Gregory Voitinsky) 일행의 행적을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정리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우선 1920년대 중반 일본에서의 아나 — 불합작과 분열, 그리고 대삼영의 죽음에 따른 노동운동의 분열을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국민혁명을 둘러싼 아나키스트 내부 분화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 일본의 흑색 청년 연맹, 중국의 상해 노동대학과 천주인 단 훈련소,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연대 활동을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⁸

제 5 장에서는 한인과 대만인의 민족해방 운동과 아나키즘과의 관계를 교류와 비교의 방식을 통해 다룰 것이다. 1920년대 초 양국의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 1920년대 중반 중국 대륙에서의 재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과 신대만안사 新臺灣安社를 시작으로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 조직인 평사부社 등을 소개하고, 1920년대 말 양국의 아나키즘 운동을 기술하는 순으로 정리할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우선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의 일본인과 재일한인의 반파시즘 투쟁을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파금 (巴金) 과 유자명 (柳子明) 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과 이에 따른 항일 무장 투쟁 중의 교류와 연대를 소개할 것이다.⁹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⁷ 필자는 아나키즘에 관해 『清末民初無政府派的文化思想』(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과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책세상 2001) 을 출판했다. 앞의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이며, 뒤의 책은 한중일 아나키즘을 일반 독자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 쓴 논문과 판이다. 대체로 제 1 장과 제 2 장의 내용은 이 두 권에 실린 내용에 기초해 작성했다. 그리고 국제주의와 관련한 상호부조론과 에스페란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쓴 논문으로는 〈동아시아 3국 (한중일) 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 ‘상호부조론’ 을 중심으로〉(『역사외경』 63 호, 2007) 이 있다.

⁸ 제 3 장은 〈보이틴스키의 중국 방문과 ‘社會主義者同盟’〉(『중국사연구』 제 36 집, 2005); 〈중국 5·4 운동 시기 아나키즘 — 불세비즘 논쟁〉(『역사비평』 2000 가을) 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최근 이 주제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불세비키 및 한인 사회주의자와의 관계에 대해 쓴 글로는 〈중국 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미친 한인 사회주의자들〉(『한중관계 2000년 — 동행과 공유의 역사』, 책세상 2008) 이 있다. 제 4 장은 〈일본 아나키스트의 초상 — 대삼영 (大杉榮)〉(『한일연구』 15 호, 2004) 등을 참조해서 작성했다.

⁹ 제 5 장은 〈1920년대 전반기 재중국 한인 아나키즘 운동〉(『한국 근현대사연구』 35 호, 2003); 〈1920년대 재중국 대만인의 아나키즘 운동〉(『한국 민족운동사연구』 제 52 집, 2007) 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아울러 대만내의 아나키즘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 〈1920년대 대만내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시론〉(『동북아 문화연구』 13 호, 2007) 을 썼다. 제 6 장을 작성하기 위해 시론적 성격의 논문 〈1930년대 한중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투쟁과 국제연대 — 바진과 柳子明 을 중심으로〉(『동북아 문화연구』 17 호, 2008) 를 썼다.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을 정리하면서 21세기 아나키즘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볼 것이다.¹⁰

필자는 중국 근현대사 전공자로서 비록 한국과 일본 등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동아시아 아나키즘이라는 주제의 연구서를 고집하는 까닭은 적어도 아나키즘과 같은 국제주의 사상은 국가보다 좁더 넓은 지역 범주를 가지고 파악해야만 균형감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과 개별 국가의 범주를 적절히 결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다소 목차가 깔끔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책은 번잡함을 무릅쓰고라도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아나키즘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나키즘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아나키즘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 이런 과욕이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길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왜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볼 때 아나키즘은 복원될 가치가 있는지 혹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나키즘은 어떤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덧붙이자면 이 책의 출판역시 세상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아 비로소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옹호 받은 분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것은 필자의 부족한 글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명성에 흠이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좀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분투하겠다는 약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

2010년 12월

부경대 연구실에서

조세현

¹⁰ 이 책은 서남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이며, 필자가 지금까지 진행한 동아시아 아나키즘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열거한 논문 중에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이나 부경대학교 등의 지원을 받은 논문들이 있다.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일의 국민들이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는 일이 위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단체의 존재는 20세기 초에 이미 일정한 규모로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인과 중국인, 인도인 등 다양한 민족의 인물들이 서로를 동지로서 인식하고 제국주의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한 것은 분명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아주화친회는 아나키즘의 국제 연대 정신을 가지고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이를 초민족적 사고로 발전시키면서 아시아인의 해방 운동에 세계주의적 전망을 불어넣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⁸¹ 비록 약자의 연합이라 오래 버티지는 못했지만 그 연대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아주화친회에 한인이 참가했는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조소앙(趙素昂) 등 일부 유학생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⁸² 대삼영의 회고에 “7~8년 전에 일본, 중국, 조선, 월남, 필리핀, 인도 등의 동지가 서로 계획하여 아주화친회를 설립했던 일이다. … 이미 2~3 회의 회합을 갖고 여러 종류의 확실한 활동을 이루려 했으나 적기 사건 赤旗事件 때문에 일본의 동지들이 감옥에 투옥되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해산하고 말았다.”⁸³ 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 유학생 반패주(潘佩珠)의 기록에는 아주화친회의 참가국으로 조선을 첫 번째로 지명하고 있고, 한인 조소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⁸⁴ 중국인 다음으로 한인 유학생이 많았으므로 일본 사회주의자와 교류가 잦았을 터이지만, 어쩌면 한인들은 일본인들이 주로 아시아 문제 혹은 중국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식민지 조선의 해방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데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다.⁸⁵

아주화친회의 이념과 관련해 유사배가 쓴 〈아주현세문亞洲現勢論〉(1907년 11월 30일)이라는 장문의 글이 「천의」에 실려 있어 참고할 만하다.

동경에 거주하는 (조선과 월남) 학생에게 사회주의를 이야기 하면 모두 기꺼이 찬성한다. 사회주의의 진흥은 이들이 그 효시가 될 것이다. … 페르시아, 중국, 조선에서의 암살 사건도 역시 무정부주의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다. … 수년간에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는 반드시 아시아에서 큰 세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아시아 식민지의 인민과 구미 및 일본의 민

⁸¹ 황동연 〈20세기 초 동아시아 급진주의와 ‘아시아’ 개념〉, 『대동문화연구』 50호, 2005, 154~155면.

⁸² 죽내선삭의 회고에 따르면, 한인은 일본인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하여 모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꾸로 이 기록은 한인과 아주화친회와의 일정 관련성을 암시하는 대목으로도 읽을 수 있다 (竹內善作 〈明治末期における中日革命運動の交流〉, 『中國研究』 第5號, 1948. 9).

⁸³ 大杉榮 〈事實と解釋〉, 『近代思想』, 1915. 11.

⁸⁴ 李京錫 〈平民社における階級と民族 — 亞洲和親會との關聯を中心に〉, 『帝國を撃つ』, 論創社 2005, 104~10, 113~14면.

⁸⁵ 嵯峨隆, 앞의 책 139면.

(1)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외래인의 해침략당해 어육이 되었거나, 이 민족의 지배를 받아 노예가 되었거나, 그비참함이 매우 심하다. 본회의의 무는 서로 협력해서 각자 독립과 자유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2) 아시아 여러 나라 중 만약 한 나라에 혁명이 있으면 나머지 나라의 회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모든 능력껏 돕도록 노력한다.

...

조직:

(1) 회원들은 반드시 매월 한 차례 모임을 갖는다.

(2) 각 회원들은 반드시 전체 회원의 명부에 주소지를 남긴다. 개회할 때 신입 회원을 명부에 가입하고 각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

(3) 본회에는 회장과 간사의 직이 없고, 각 회원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각자 친목 평권의 정신을 가지므로 서로의 능력을 다해 본회의 뜻에 부합한다.

...79

이약장에 따르면, 아주화친회는 반제국주의 입장이 선명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나아가 아시아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연합을 결성하고자 했다. 또한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를 불문하고 모두 입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침략적 민족주의자를 제외한 진보 세력의 연합을 추구했다. 그리고 규약 중에 “본회에는 회장과 간사의 직책이 없고, 각 회원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대목은 아나키즘의 영향을 추측케 한다. 본래 아나키스트 조직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한 특색이다.

아주화친회는 매달 1 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07년 여름에 개최된 두 번의 모임뿐이다. 인도회관에서 열린 제 1 차 회의에는 계리언·산천균·수전유추(守田有秋)·죽내선삭(竹內善朔), 인도인·중국인·월남인들이, 유일신교의 교당에서 열린 제 2 차 회의에는 계리언·삼근운평(森近運平)·대삼영·죽내선삭, 월남인·중국인·인도인·필리핀인들이 참석한 것이 확인된다.⁸⁰ 이 단체의 회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저지와 아시아 민족의 독립을 논의했으며, 고립된 혁명은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식민지 민족 해방을 넘어 혁명적 민중의 국제적 연합으로 나아가 것을 구상했다. 대삼영은 이 모임에 참석해 비군비주의의 非軍備主義를 고취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강습회가 공개적인 조직이었던 것과는 달리 아주화친회는 비공개적인 조직이라는 인상이 짙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⁷⁹ <亞洲和親會約章>(湯志鈞 <關於亞洲和親會>), 『辛亥革命叢刊』第1輯, 中華書局 1980, 148 면 인용).

⁸⁰ 玉川信明 『中國の黒い旗』, 晶文社 1981, 61 면.

제 1 장 아나키즘, 동아시아 사회와 의 만남

1. 프랑스에서 중국으로의 전파

크로포트킨주의와 세계사의 성립

아나키즘 Anarchism 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제도나 국가 조직을 부정한다. 게다가 권력의 교체에 불과한 정치혁명에는 반대하며 더욱 근본적인 사회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 정치사상으로서의 아나키즘은 개념정의에서부터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아나키즘 자체가 다양한 색깔의 주장을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나키스트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아나키즘은 국가와 종교, 가족주의의 내재된 권위에 반대한다든지, 혹은 성별, 종족별, 계급별, 민족별 차이에 내재된 억압의 요소들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는 운동을 위해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나 폭력수단의 사용 여부 등에 있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라는 번역어보다 더욱 익숙한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아나르코스 anarchos 라는 어원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은 ‘지배자가 없다’ 혹은 권력이나 정부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아나키스트의 여러 파벌이 공유하는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자면 무정부주의보다는 강요된 일체의 권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무강권주의 無強權主義’가 좀더 그럴싸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강요된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태도는 대부분의 아나키스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과 민주, 자유연합, 국제연대, 다양성 등의 특징은 무정부주의라는 범주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개념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아나키즘의 올바른 이해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된다.

근대 서양의 아나키즘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출현했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피에르 프루동 (Pierre J. Proudhon), 미하일 바쿠닌 (Mikhail Bakunin),

표트르 크로포트킨 (Pyotr Kropotkin), 에리코 말라테스타 (Errico Malatesta) 등이 대표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ана키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¹ 프루동은 사유제와 공산제를 넘어 개별 생산단위들이 중앙 권력 없이 연합체를 결성하는 '상호부조적' ана키즘을, 바쿠닌은 카를 마르크스와 의 논쟁을 통해 노동자의 자발성과 자유로운 연합에 근거한 '집산적' ана키즘을, 크로포트킨은 진화론의 새로운 해석인 이른바 상호부조론 相互扶助論에 기초한 '코뮌적 ана키즘 (Anarco-Communism, 無政府共產主義)'을 주장했다. 어떤 ана키스트는 노동자의 혁명 역량에 주목해 ана키즘과 생디칼리즘을 결합한 '노동조합적 ана키즘 (Anarco-Syndicalism, 無政府工團主義)'을 주장했다. 이런 사회적 ана키즘은 '개인적 ана키스트'로 분류하는 윌리엄 고드윈 (William Godwin) 이나 막스 슈티르너 (Max Stirner) 등과 어느 정도 구별된다. 사회적 ана키즘은 사회문제의 공동체적 해결과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적 ана키즘은 사회문제의 개인주의적 해결과 사회에 대한 개인주의적 비전을 갖고 있다.²

국제 ана키즘 운동의 출발점이자 주요 무대였던 프랑스는 19 세기 중반 이래 프루동과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이 폭넓게 활동했고, 20 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곳의 ана키즘 운동은 생디칼리즘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 세기 후반부터 말라테스타를 중심으로 '봉기를 통한 직접 행동'을 전개해 혁명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성취되는 것을 입을 강조했다. ана키스트들은 1905 년과 1917 년의 러시아 혁명에도 깊숙이 개입했으나 크론슈타트 수병의 봉기와 우크라이나에서 마흐노 운동이 볼셰비키에 의해 진압되면서 쇠퇴했다. 1930 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에서 도 ана키즘의 이상이 자주 관리의 형태로 부분적이나마 실현되었으나 프란시스코 프랑코 (Francisco Franco) 의 반혁명에 의해 소멸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엠마 골드만 (Emma Goldman) 과 알렉산더 버크만 (Alexander Berkman) 이 유명한데, 그들은 페미니즘 운동과 동성애 해방 운동, 반전 운동, 언론 자유 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다.

위에서 열거한 서양의 ана키스트들 가운데 동아시아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크로포트킨을 꼽을 수 있다. 크로포트킨의 코뮌적 ана키즘은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진다. 한중일의 대표적인 ана키스트 — 일본의 행덕추수 (幸徳秋水) 나 대삼영 (大杉榮), 중국의 이석증 (李石曾) 이나 사복 (師復), 한국의 신채호

¹ 서양 ана키즘의 사상과 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는 조지 우드코크, 하기락·최갑룡 옮김 『아나키즘』 (사상편/운동편), 형설출판사 1989/1994 참조.

² 사회적 ана키즘과 개인적 ана키즘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자본주의적 착취와 권위주의적 국가를 폐지하기를 바라는 반국가주의와 반권위주의, 반자본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에서 있다 (안상헌 『아나키즘 르네상스』, 백용식 옮김 『아나키즘』, 개신 2009, 284 면).

동아시아 최초의 반제국주의 단체: 아주화친회

행덕추수가 ана키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민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결여되어 있었다. 사회주의자 시절에 그는 서양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압박 민족의 민족주의 경향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민족해방 운동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의의를 홀시했다. 하지만 ана키즘을 받아들인 후 제국주의가 애국심과 군국주의를 무기로 삼아 세계로 확산될 것을 경계하면서,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던 중국인과 한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중국의 혁명가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행덕추수는 「평민신문」에 글을 실어 중국 혁명가와 일본 사회주의자가 서로 합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호응한 장병린과 장계, 유사배 등은 동아시아 각국의 혁명가를 규합하여 1907 년에 아주화친회 亞洲和親會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조직된 구체적인 시기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사회주의 강습회가 결성된 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⁷⁸ 우선 4 월경 중국인과 인도인 망명객을 중심으로 설립을 준비했다가 사회주의 강습회를 통해 중일 사회주의자와 각국 활동가들의 교류가 심화되자 여름에 본격적인 출발을 한 듯하다.

아주화친회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반제국주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활동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의의가 매우 높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지역은 일국차원의 혁명을 넘어 세계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차적으로 설정된 범주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금요 강습회의 일본인과 사회주의 강습회의 중국인, 특히 유사배와 장계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회원은 인도인과 월남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한인 (?) 등이 고루 참가했다고 전해진다. 단체 설립 후 몇 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며 장병린의 이름으로 작성된 선언문 〈아주화친회 약장〉은 1907 년 가을 무렵에 발표되었다. 장계와 유사배가 이 단체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장병린이 선배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선언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약장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본회는 '아주화친회'라고 이름한다.

목적: 본회의 종지는 제국주의에 반항하여, 아시아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들이 각자 독립하도록 한다.

회원: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를 막론하고 모두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

⁷⁸ 아주화친회의 성립 시기에 대해 탕지균 (湯志鈞) 은 1907 년 4 월경 (18 개월 정도 활동했다고 추측), 부전승 (富田昇) 은 봄과 여름 사이, 석무전정은 7 월 20 일경, 죽내선삭 (竹內善朔) 은 여름경, 옥천신명 (玉川信明) 은 사회주의 강습회가 발족한 지 2 개월 후만 만들어졌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제도화된가부장제의종식을추구했다면, 국가폐지야말로제도화된가부장제의대행자를폐기하는것으로인식했다. 이런점들은자유주의자의정치혁명론이나마르크스주의자의계급투쟁론과도구별되는것이였다.

동아시아의전통적가족제도는남자를중심으로한대가족제였다. 그 특징이라면가장권위의절대화로설명할수있으며, 부자·부부·장유의혈연관계를기초로어느한쪽이다른한쪽을강요하여일방적인복종을요구한다는것이다. 과거에는이런가족제도가법률이나관습의형태로굳어져여성들을철저하게지배할수있었다. 그래서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에게가족제도란공리公理에대립하는강권強權의기초로인식되였다. 그들이비판한가족이란단지가족성원간에압제와복종이이루어지는곳일뿐만아니라, 나아가국가와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반사회적인존재였다. 동아시아의아나르코-페미니즘운동은서양의경우처럼처음에는정치운동과어우러져진행되었으며, 점차정치운동이발전함에따라더욱심층적인변혁즉사회혁명으로나아갔다. 이때남녀교육의평등과여성의노동참여, 여성참정권획득등이주요화제로떠올랐다.

그런데 「천의」에서는극단적인수준의남녀간절대평등을요구해서흥미롭다. 예를들어하진은“초혼의남자는초혼의여자와결혼하고, 재혼할남자는단지재혼하는여자와결혼할수있고, 여자가재혼할경우에도단지재혼하는남자와결혼할수있다”⁷⁷는당당한주장을 폈다. 행덕추수는잡지에실린이런하진의남녀혁명론에흥미를느꼈다. 그는여성문제전문가인계리언을만나도록주선하여이문제에대해토론하도록제안했다. 하지만하진은계리언을만난후에도일본사회주의자들이인류의완전한‘자유’를실현하는것을추구하는데비해, 자신은인류의완전한‘평등’을이루는데뜻이있으므로서로입장이다르다고고집했다.

중국의아나키스트들은가정이란‘만악萬惡의근원’이라주장했으며, 한걸음더나아가결혼제도야말로‘만악의근원의근원’이라는독특한관점을가지고있었다. 이에따라어떤사람은전통적혼인제도에굴종하는것은역사의노예가되는것이라고말했고, 심지어어떤사람은연애문제에서남녀쌍방이모두애정의만족을느끼기위해서는반드시남녀공동연애를실행해야한다고까지주장했다. 이들은자유주의경향의지식인들과는달리대가족제뿐만아니라소가족제조차부정했다. 아울러혼인제도가폐지된후자녀문제에대해서는공공기관에서공동양육할것을제안했다. 지나치게과격하게보였던결혼제도폐지문제는 5·4 운동을전후해서는이미아나키스트의주장을넘어당시진보적인사들의화두가되였다.

(申采浩) 나유자명(柳子明) 등 — 들이모두크로포트킨주의자라는사실에서도쉽게알수있다. 왜크로포트킨사상이동아시아사회에강력한영향을미쳤을까라는문제는약간의이해를필요로한다.

우선크로포트킨의코뮌적이나키즘이당시국제적으로가장광범하게유행한아나키즘이론이자운동이였다는사실을지적할수있다. 따라서동아시아인들이그이론을손쉽게접할수있었을것이다. 특히피압박자의국제적연대주장은군국주의로나아간일본뿐만아니라, 전제군주제가유지되던중국이나심지어일본의침략에시달리던한국에서도고루이용될여지가있었다. 다음으로사상의친근성을들수있다. 러시아의풍토에서배태한크로포트킨의사상은동아시아의정치문화환경과친근해반들이기가쉬웠다. 예를들어그의윤리학중심의사회주의이론은전통적으로윤리정치를추구한동아시아의정치사상과가까운것이였다. 게다가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에는유럽중심주의색채가적었다. 끝으로크로포트킨의이른바‘과학적’아나키즘은사회변혁을위한새로운방향을제공했다. 사회진화론의적자생존발상은약자인동아시아지식인들에게심각한위기를불러일으켰는데, 상호부조론에기초한사회혁명의방향제시는그들을이론적근경에서빠져나올수있는돌파구를마련해준참신한사상이었음이틀림없다.³

특히크로포트킨의명저인『상호부조 — 진화의요인』(1902)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에게경전의지위를가진다. 이책은찰스다윈(Charles Darwin)의『종의기원』같이거의전편이사실의나열이며, 책의제목에서나타나듯생물계진화의요인으로서생존경쟁과함께상호부조원칙이있다는것을실증한연구서이다.⁴ 어쩌면좁지루해보일수도있는이런책의출현에왜동아시아의급진주의자들은열광했을까? 진화론의창시자다윈은주로자연계의진화만이야기했을뿐, 인류사회의진화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 그후‘다윈의불독’임을자처한토마스허슬리(Thomas Huxley)는적자생존의생존경쟁을인류사회에까지적용했다. 허슬리는〈생존경쟁과그것이인류에게미치는영향〉(1888)에서인간사회의생존이란피도눈물도없는투쟁이라는주장을 폈다. 그에따르면투쟁은비단진보의조건으로서바람직할뿐만아니라또한불가피한것이다. 그리고‘종합철학’의주창자허버트스펜서(Herbert Spencer)도생존경쟁의의미를서로다른종의동물간의싸움뿐만아니라같은종끼리의생존을둘러싼격렬한싸움으로이해했다. 그런데허슬리나스펜서의사회진화론의이면에는우생학적편견과더불어제국주의를정당화하는논리가숨어있

³ 참고 『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 책세상 2001, 41~42 면.

⁴ 상호부조론에관한국내번역서와해설서로는포트르크로포트킨, 김병범 옮김 『만물은서로돕는다 — 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 르네상스 2005; 하승우 『세계를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참조.

⁷⁷ 〈幸徳秋水來函〉, 「天義」第3號, 1907. 7. 10.

었다. 우월한백인의제국주의가다른지역과인종을식민지배하는것은당연하다는논리로작용한것이다.

혁슬리가 <생존경쟁과그것이인류에게미치는영향> 을발표했을때, 크로포트킨은혁슬리를비롯한사회진화론자들을근본적으로반박하기로마음먹었다. 이에따라 1890 년부터 7 년간다섯차례에걸쳐영국의「19 세기」 라는잡지에일련의논문을연재했다. 그제목을열거하면동물간의상호부조, 원시인의상호부조, 고대인의상호부조, 중세도시의상호부조, 근대사회의상호부조등이다. 이논문의내용들을보완해몇년후『상호부조』 라는제목으로출판했다.⁵ 책의내용에따르면인간사회든동물사회든간에상호부조없이사회생활을영위할수없으며, 모든사회제도의주변에서상호부조를발견할수있다고했다. 여기서기억할점은상호부조원칙을진화의주요한한요소로서인간의삶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사실을주장했지만, 진화의유일한요소라고주장한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은불변의진리로인식되던잔혹한‘적자생존’의원리대신인류의연대의식에기반을둔따뜻한‘상호부조’라는가치를발견할수있었다. 그리고이새로운사상으로제국주의와구체제에대항할수있는무기를마련했다.

『상호부조』 에서제시한원리는크로포트킨의또다른저서 『빵의쟁취』(1892), 『전원·공장·작업장』(1899) 등에서그려진코뮌적아나키즘의사상체계를구성하기위한기반을제공하고있었다. 그렇다면코뮌적아나키즘이란무엇인가? 이것은 1880 년대이래크로포트킨과엘리제르클뤼(Élisée Reclus) 등으로대표되는사상으로, 국가를초월해개인의자유에기초한상호부조의정신으로만든사회를확립하려는혁명이론이다. 단순히보면아나키즘의국가폐지주장과공산주의의생산수단, 사회적생산물의공유주장을중합한것으로볼수있지만, 그역사적과정은중복잡하다.⁶ 크로포트킨의『빵의쟁취』는코뮌적아나키즘의과학적기초를제공한책으로알려져있는데, “모든것은모든사람을위한것이다”라는유명한말이담겨있다. 그리고“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구호처럼생산에서소비로흐르는기준의경제체제를뒤집어, 소비를기준으로생산을결정하는시스템을구상했다. 『근대과학과아나키즘』(1903)에서는‘사회생리학’이라는이름으로이를설명했다. 크로포트킨은임금제도의폐지를통해노동소외를극복하고산업의분산을추구했는데, 중세도시의길드조직을모범으로삼았고농업을중시했다. 그는초기에는노동자조직에관심을갖지않다가점차노동조합의발전에주목했다.

⁵ 克魯泡特金, 李平瀾譯『相互論』, 商務印書館 1963, 序文.

⁶ John Crump, 碧川多衣子譯『八太丹三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15 면.

계는경쟁을원칙으로하고, 인류는호조를원칙으로한다”는절충적인주장을펴서약간의차이를드러냈다.⁷⁵

「천의」는 <사회혁명대풍조> 라는항목을만들어만국사회당대회와관련된소식은물론외국의노동운동농민운동을소개하는글을자주실었다. 특히마르크스의『공산당선언』이나프리드리히엥겔스의『가족·사유재산·국가의기원』 등을절역해실은것은이채롭다. 파리의 <신세기>에서는거의찾아볼수없는마르크스주의에대한관심은일본사회주의자의영향을보여주는대목이다. 프랑스아나키스트는바쿠닌및마르크스와의논쟁이후마르크스주의자와는분명한선을그은반면, 일본아나키스트는마르크스주의에대한반감이별로없었다. 특히톨스토이의글이일본사회에소개되자유사배는큰관심을가졌는데, 아마도서양자본주의를비판하고중국의전통적농업사회를찬양하는내용이흥미를끈듯싶다. 「천의」에는일본사회당의분열소식이나금요강습회, 사회주의강습회의기사및광고등도실렸다. 특히행덕추수관련기사는자주발견되는데, 그의강연내용을잡지에실는것은물론 <행덕추수선생연설고> 라는제목을달아별도로제본해출판했다.

당시사회주의자들이에스페란토를공부한것은운동의국제화에편리했기때문인데,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다수가에스페란토를운동의한방편으로배운것도여기에서출발한다. 「천의」의후반부에실린에스페란토기사중에는대삼영이중국인에게에스페란토를전파하는대목이있다. 그리고「천의」의후속편인「형보衡報」(1908)에실린에스페란토기사는좀더구체적으로대삼영과중국인아나키스트의교류를보여준다. 「형보」의 <대삼영군의세계어 Esperanto 강습회개회연설사>에따르면,⁷⁶ 1908 년대삼영은중국인을위해에스페란토강습회강사로일했으며, 유사배의에스페란토지식도그와의교류를통해얻은것임을알수있다. 「형보」에는에스페란토도있어서이신문이아시아최초의에스페란토를제창한간행물이라는설이있다. 1908 년상해에서유사배가세계어전습소世界語傳習所를설치했다는주장도있으나분명하지않다.

앞서언급했듯이「천의」는아나키스트잡지인동시에진보적인여성잡지였다. 따라서일본의「사회주의연구」「독립평론」「신시대보」같은사회주의잡지가번역연재된것말고도「세계부인」「부인문제」「가정잡지」등과같은여성계몽지의기사가소개되었다. 특히「천의」는「세계부인」의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잡지는초기동아시아여성해방운동과아나르코-페미니즘 Anarco-Feminism 의특징을읽을수있어서무척유용하다. 대체로서양의페미니스트들이남성적권위가

⁷⁵ 줄고 <동아시아 3 국(한중일)에서크로포트킨사상의수용—‘상호부조론’을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 39 집, 2005, 246 면.

⁷⁶ <大杉榮君世界語 Esperanto 講習會開班演說詞>, 「衡報」第 2 號, 1908. 5. 8.

국수주의와아나키즘은의면상하나민족주의와전통주의의색채가 짙고다른하나국제주의와반전통주의색채가농후해서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듯하지만, 동아시아사회에거의동시에등장한이두사조는실제로는서로복잡하게얽혀있는경우가많았다. 심지어한인물에게서이두가지사상이동시에나타나기도했는데, 대표적인인물이바로천의파의유사배를들수있다. 그가해석한‘중국식’아나키즘은기본적으로는유가적평균平均사상이나도가적무위無爲사상같은전통적요소를듬뿍지닌것이며, 루소의사회계약설이나크로포트킨의새로운진화론같은서구적인이론의자극을받아만들어진것이다. 엄격한의미에서유사배에게있어서아나키즘이란국학國學의부흥을위해선택한도구에불과했으며, 필요하면언제라도포기할수있는것이였다. 중국의전통사회를“유정부이나실은무정부와다름이없다”면서중국자본주의가발전하지않은것이오히려서구적근대화의단계를초월하여아나키즘사회의실행에유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주장한대목에서그의독특한면모를읽을수있다. 여기서나타나는서학수용방식의한가지특징이라면, 서양의근대를초월하려는지나친‘조급성’을들수있을것이다.

「천의」의후원자이자유사배보다더욱민족주의성향이강했던장병린에게서도구분진화론俱分進化論이라는독특한해석이엿보인다. 그는상해시절부터사회진화론의문제점을자각하여도덕에서선善과악惡이함께진화하고, 경제에서도낙樂과고苦가함께진화한다는구분진화론을주장한바있다. 일본에건너와서는행덕추수, 대삼영등과교류하면서상호부조론을받아들였는데, 이를통해진화와도덕의이율배반적인모순을해결하는데도움을받았다. <오무론五無論> (1907년 9월), <국가론國家論> (1907년 10월) 등에서이런영향이나타나는데, “백이(伯夷)의 행동은오늘날톨스토이와같고, 도척(盜跖)의 행동은바쿠닌과같다”는식의주장을 폈다. 하지만그에게있어서서양에서건너온진화론은오래지니고있을사상이아니었다. 실제로장병린은신세기파의오치회와개인적인불화가있었으며, 그래서인지 <사흑론四黑論> (1908년 7월)에서는한걸음물러나크로포트킨주의를비롯해일체의진화론에대해비판적인태도를취했다.

장병린의경쟁자였던손문에게서도상호부조론의영향이나타나흥미롭다. 그는상호부조의진화론으로사회진화론에내재된우승열패와약육강식의논리를비판할수있다고믿었다. 일체의악은모두인류의몸속에남아있는동물성에서기원한다면서, 일체의선이나인의도덕은인류의호조라는천성에서기원한다고보았다. 그는인류의도덕진화는부단히동물성을극복하고호조의인성을증진하는과정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크로포트킨이상호부조가모든생물의본성과본능으로본데반해, 손문은“생물

크로포트킨은지리학자출신이어서자연과학의귀납법적방법론을근거민었으며, 자신의사상을과학적아나키즘이라고주장했다. 그래서크로포트킨을전통적아나키즘에근대과학의해석을적용시켜아나키즘이론을집대성한인물로평가하거나, 혹은바쿠닌의정신을이어받으면서도그의파괴의이론을건설의논리로바꾸어놓았다고평가한다. 크로포트킨은적자생존이라는사회진화론자의개념은물론계급투쟁이라는마르크스주의자의개념에도동의하지않았다. 마르크스주의를‘권위적’사회주의라고비판하는과정에서“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정신노동과육체노동의결합”등과같은유명한명언들이쏟아져나왔다. 마르크스의최후대표작이『자본론』이라면크로포트킨의최후대표작은『윤리학』이라는말이있다. 이것은코뮌적아나키즘이도덕과윤리를중시하는특징을잘보여주는데, 『상호부조』도일종의윤리학교과서라고말할수있다. 현대의진화생물학에서인간의본성이‘이타적유전자’로구성되었는지, 아니면‘이기적유전자’로구성되었는지하는해결되지않은오랜논쟁의초기모델이크로포트킨과마르크스사이에서나타나는것이다. 어쨌든자본주의가충분히발전하지않은동아시아사회에서크로포트킨의경제와관련한몇몇주장들은이해하기곤란했지만정치문화같은다른맥락에서는매우신선하게받아들여졌다.

19세기말유럽에서풍미했던암살풍조가쇠퇴하고새로운세기를맞이하면서크로포트킨의코뮌적아나키즘이크게유행했다. 특히프랑스에서는크로포트킨의철친한친구이자동지인르클뤼와장그라브(Jean Grave)가아나키즘운동을주도하고있었다. 20세기초는프랑스아나키즘운동의전성기로파리한곳에만적어도수십종의아나키즘관련신문잡지들이출판되었다. 이런신문잡지야말로국경을넘어전세계적인차원에서정보의공유를가능케했다.

르클뤼는사회주의의거대한흐름속에서아나키즘이분리되어오던 1870년대부터유럽아나키즘운동에큰공헌을한인물이다. 그는저명한지리학자로『인간과대지』『세계신지리』『진화와혁명, 아나키즘이상』같은저서를 썼으며, 크로포트킨과함께코뮌적아나키즘의이론적대틀을세웠다.⁷ 르클뤼의글들은여러나라언어로번역되었으며, 특히그의고매한성품은많은추종자들을만들었다. 그는크로포트킨이「반역자」에기고했던글들을모아『반역자의말』(1885)이라는제목으로편집출판했으며, 크로포트킨의명저『빵의쟁취』프랑스어판서문을쓰기도했다. 일설에는‘코뮌적아나키즘’이라는용어를처음만든인물이바로르클뤼라

⁷ 엘리제르클뤼의아나키즘에대해서는 Marjie Fleing, *The Anarchist Way in Socialism—Elisee Reclus and Nineteen-Century European Anarchism*, London: Croom and Helm 1979 참조.

고도한다.⁸ 르클뤼는대표저서 『진화와혁명, 아나키즘이상』에서“진화는곧혁명”이라는관점에서혁명엔진화를전제로하며진화가곧혁명을만든다고해석했다. 그는과학의진보에대한신뢰가무한했으며, 평생채식주의를실천한청교도적혁명가였다.⁹

그라브는프랑스아나키즘운동을대표하는잡지「신세기 Les Temps Nouveaux」의편집자였다. 이잡지는크로포트킨이 1879년부터스위스제네바에서발행하던「반역」을 1885년에파리로옮겨와발행하면서「반역자」로개칭했으며, 다시 1895년에잡지명을「신세기」로개칭한것이다. 그라브는크로포트킨의코뮌적아나키즘을선전하는것 말고도새롭게대두되던노동조합적아나키즘을지지하여잡지의논조에큰변화를가져왔다. 「신세기」는장기간발행하다가제 1 차세계대전이일어나면서정간되었다.

사실상 1902년부터 1908년까지프랑스의노동자들사이에서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영향력은그정점에이르렀다.¹⁰ 이사상은정당과의회정치를민지않고, 중앙집권보다연합조직을선호했으며, 조직형태를중시한것이이전의아나키즘과는달랐다. 19세기말아나키스트는테러와봉기를선호해통치자나자본가를암살해서대중에게혁명의식을고취한다는‘행동을 통한선전’을시도했다. 그러나 1890년대프랑스등지에서아나키스트의적들에대한무차별적인공격은시민봉기를불러온것이아니라오히려그들을자초했다. 그런배경아래생디칼리슴에서의노동조합모델이아나키즘의새로운출로로인식된것이다. 프랑스아나키스트의영향력은노동총연맹 CGT 이선언한아미앵선언(1906)에서나타난다. 이선언에는첫째, 노동계급의해방투쟁은경제투쟁이다, 둘째, 노동조합은오늘의경제투쟁을주도하는것은물론, 미래의생산과분배의주체이다, 셋째, 총동맹파업은경제투쟁의유일한수단이다, 넷째, 노동조합은정당이외에독립적으로노동운동을영도한다등의내용을담고있다. 아미앵선언을통해노동총연맹은기존정당의존재를부정하고직접행동에의한사회혁명실현, 노동조합에의한생산과분배의조직을주장했다. 비록일부아나키스트들은노동운동에참여하는것이운동의순수성을훼손하는것으로보아반대했지만그라브등은노동조합의혁명성을인정했다.

르클뤼와그라브가해석한크로포트킨사상은파리에거주하던중국인유학생들에게깊은영향을미쳤다. 그대표적인인물이파리에서생물학을공부하던이석증이라는청년이다. 이석증에게아나키즘을처음소개한인물은엘리제르클뤼의조카인폴르클뤼(Paul Reclus)였다. 이석증연보

⁸ 石川三四郎〈日本無政府主義の由來〉,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第1卷, 黒色戰線社 1979, 1면.

⁹ 막스네틀라우, 하기락 옮김 『전세계인민해방전선전개 - 아나키즘약사』, 형설출판사 1993(1932), 175~82면.

¹⁰ 路哲 『中國無政府主義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90, 82~86면.

제목으로연설하면서동양자유평화동맹을만들자며아시아의연대를주장한사실은인상적이다.⁷²

이시기장병린과유사배등은일본아나키스트의도움을받아중국동맹회의동경본부를접수하여새로운조직으로만들려고시도했다. 그과정에서순문의영도권을쟁탈하기위한갈등과대립이일어났고중국동맹회의분열로이어졌다. 이사건에대해일본의아나키스트들은자신들의경험에비추어중국동맹회의분열은혁명운동의발전과정에서피할수없는것으로보아천의파를지지했다.

동경의「천의」에서소개한아나키즘도기본적으로파리의「신세기」와마찬가지로크로포트킨사상에바탕을두었다. 이잡지에는크로포트킨의〈유쾌한노동〉(『빵의쟁취』제 10 장), 〈미래사회생산의방법과수단〉(『빵의쟁취』제 8 장제 2 절), 〈빵의약탈〉(『빵의쟁취』제 1 장 1~3 절), 〈아나키즘의철학과이상〉등을번역소개했다. 여기서알수있듯이천의파는주요행덕추수의『빵의쟁취』일역본에근거하여중국어로다시번역게재했는데, 신세기파처럼크로포트킨저작에대해두루번역한것은아니었다. 하지만유사배는「천의」에〈크로포트킨학설요약〉을두차례연재해그의사상을소개했는데, 『상호부조』에대해서는“크로포트킨학설가운데가장핵심은『호조』”⁷³라고높이평가했다. 동시에스펜서나허슬리의사회진화론이제국주의이데올로기의하나임을비판하고, 상호부조를핵심으로하는크로포트킨사상이가장원만한사상이라고주장했다.

천의파는바쿠닌과슈티르너, 톨스토이의아나키즘에도흥미를보임으로써다른유럽아나키스트이론에대해서도호기심이가득찬모습을보였으며, 개인의자유보다는절대평등을최고목표로삼았다는점이특색이다. 특히국학자출신의유사배가소개한크로포트킨주의는이른바전통과혁명이결합된것으로, 철저한반전통주의를내세운신세기파의그것과는뚜렷한차이를드러냈다. 예를들어유사배는아나키즘이근대서양의산물이아니라중국의전통사회에도있다고보아노자(老子)를중국최초의아나키스트라고평가했으며, 이탁오(李卓吾)를러시아아나키스트바쿠닌과비교했다. 이석증이과학자로서의크로포트킨을높이평가했다면, 유사배는크로포트킨의귀납적역사방법론에관심을보였다. 결국‘국수國粹’의처리문제에대해서만큼은두잡지는뚜렷한차이를보였다.⁷⁴

의회의를열었다(蔣俊·李興芝『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山東人民出版社 1991, 40면).

⁷² 이강연은「天義」의후속잡지인「衡報」第1號에서소개되었다(富田昇, 앞의글 243~44면).

⁷³ 申叔〈苦魯把特金學術述略〉2, 「天義」第13~14合冊, 1907. 12. 30.

⁷⁴ 曹世鉉〈二十世紀初의「反對國粹」和「保存國粹」〉, 「文史知識」, 1999年第11期 참조.

만들었다. 제 1 회강습회가 8 월 31 일에열린것을기준해이날정식성립 되었다고본다. ‘강습회’라는명칭에서도쉽게알수있듯이이모임은일본 의금요강습회영향아래조직되었으며, 주로일본사회주의자들이강사로 초빙되었다. 사회주의강습회는 (1) 아나키즘과사회주의이론, (2) 아나 키즘의역사, (3) 중국의민생문제, (4) 사회학등을다루겠다면서스스로아 나키스트단체임을자부했다. 당시유사배의처하진은여자복권회女子復 權會를조직하고 1907 년 6 월 10 일 「천의」라는여성잡지를간행하기 시작했는데, 아나키스트들은이여성지를자신들의기관지로삼았다. 따 라서 「천의」는진보적인여성잡지인동시에아나키즘잡지라는이중적인 성격을띠게되었다. 동경의 「천의」는파리의 「신세기」보다약간빨리 발간되었는데, 보통잡지의이름을빌려천의파(天義派, 혹은동경그룹) 라고부른다. 마치프랑스의저명한아나키스트르클뤼나그라브의영향아 래신세기파가만들어졌듯이일본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행덕추수, 대삼 영등과의교류를통해천의파가만들어진것이다.⁶⁹

사회주의강습회에는행덕추수와계리언, 대삼영등이정기적으로참 석해강연했다. 강습회의첫모임에는 90 여명이참석했고행덕추수가연 사로나와강연했다. 그당시의상황이 「천의」에자세히기록되어있다. 여 기서행덕추수는아나키즘의기원과다른사회주의파별과의차이점을강 연했으며, 행덕추수의안전을위해기사에는그의이름을표기하지않고기 호로처리했다. 이강연기사는지구반대편에있던파리의 「신세기」에도 두차례에걸쳐연재되어서로간의연대의식을과시했다. 강습회에는대삼 영도여러차례강연 (5, 6, 8 회) 한것으로나타나는데, 강연주제는‘바쿠 닌의연방주의’였다. 현재남아있는자료에따르면사회주의강습회는대략 8 차례열린것으로보인다.⁷⁰

얼마후사회주의강습회가경찰의압력으로열수없게되자강습회회원 들은 1908 년 4 월 12 일부터제민사齊民社라고단체명을바꾸어강연회 를계속열었다. 제민사의이름으로열린강연회는대략 5 차례였던것으로 보인다.⁷¹ 특히제 1 차강습회에서대삼영이‘프랑스반란의정신’이라는

⁶⁹ 마틴버널의지적에따르면, 천의파와신세기파의출현은 1905 년이후노동조합적아 나키즘을추구하던국제적운동의흐름과관계가있다고한다. 그는 1906~1907 년사이의중 국사상계는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보다주류를이루고있다고보았다. 그리고동아시아아 나키즘의수용과정에서제일러시아혁명객의영향을지적했다 (Martin Bernal, Chinese Socialism to 1907,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참조).

⁷⁰ 제 1 차사회주의강습회 (1907 년 8 월 31 일) 에서행덕추수강연, 제 2 차강습회 (1907 년 9 월 15 일) 에서계리언강연, 제 3 차강습회 (1907 년 9 월 22 일) 의강사는알 수없고, 제 4 차강습회 (1907 년 10 월 6 일) 에서산천균강연, 제 5 차강습회 (1907 년 11 월 10 일) 에서대삼영강연, 제 6 차강습회 (1907 년 11 월 24 일) 에서대삼영강연, 제 7 차강습회 (1907 년 12 월 8 일) 에서산천균강연, 제 8 차강습회 (1907 년 12 월 22 일) 에서대삼영강연등이있었다 (富田昇, 앞의글 236 면).

⁷¹ 제민사는제 1 차강습회 (1908 년 4 월 12 일), 제 2 차강습회 (1908 년 4 월 26 일), 제 3 차강습회 (1908 년 5 월 10 일), 제 4 차강습회 (1908 년 5 월 17 일) 등 5 차례

에따르면, “당시이석증이파리속소주변의식당에서우연히지리학대가 르클뤼를만났다. 그는크로포트킨의호조론, 라마르크 (J. B. Lamarck) 의생물호조병존론, 마리장귀오 (Raire Jean Guyau) 의자연도덕론등 을소개했는데, 이를듣고즐거워했다”는기록이나타난다.¹¹ 이것은중국 인청년급진주의자와프랑스아나키스트의상징적인만남이었다. 이석증 은르클뤼로부터상호부조론같은아나키즘사상은물론개인적인감화도 받았다. 그는르클뤼의청교도적인생활방식을받아들여자신도채식주의 를실천했다. 얼마후이석증은영국에거주하던망명객오치휘 (吳稚暉) 를만나사상단체를만들것을제안했다. 오치휘는소보안蘇報案에연루되 어영국으로망명온후진화론과고인류학에매료되어있었는데, 결국이석 증의권유로프랑스로건너왔다. 이석증과오치휘를중심으로일본에서건 너온유학생저민의 (楮民誼) 와유럽에서사업하던장정강 (張靜江) 을끌 어들여조직을결성했다. 그결과중국최초의아나키스트그룹의하나인신 세기파 (新世紀派, 혹은파리그룹) 가탄생했다.¹²

중국인급진주의자들은 1906 년말파리에서세계사世界社를조직하 고사상전파를위해인쇄소를차렸다. 그리고다음해에 「세계世界」와 「신세기新世紀」라는두가지출판물을간행했다. 「세계」는서구의과학 기술문명을중국에소개하려는목적으로만든화보집이었는데, 당시로서 는놀라운수준의호화판인쇄물이었다. 그러나겨우두권만을간행하고정 간되었다. ‘세계’와‘세계사’라는명칭에서나타나듯이그들은세계주의를 추구했다. 또한 「신세기」는아나키즘을선전하기위한목적으로창간되 었다. 「신세기」는 1907 년 6 월 22 일프랑스파리에서주간지 (후에월 간) 로시작했고, ‘라템포노바 La Tempo Nova’라는에스페란토부제를 달고간행되었다. 1910 년 5 월 21 일정간될때까지무려 121 회발행했 다. 아나키즘사상은물론영국과프랑스, 독일, 포르투갈등세계각국의혁 명상황을잡지에게재하여중국지식인사회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

「신세기」를출판한인쇄소의중국어명칭은‘중화인자국中華印字局’ 이었고, 프랑스어명칭은‘라리베라트리스 (La Lieratrice, 자유)’였으 며, 주소는파리의브로카로 4 번지였다. 이주소는다름아닌그라브가발 간한 「레템파누보 (신세기)」가인쇄된곳과같은장소였다. 이와같이신 세기파의인쇄소가프랑스아나키즘기관지를출판하는곳과같은건물에 있었다는사실만으로도중국인혁명가들과그라브를비롯한프랑스아나 키스트간의밀접한관계를알수있다. 게다가 「신세기」의프랑스어제호

¹¹ 박제균, <중국‘파리그룹’(1907~1921)의무정부주의사상과실천>, 경북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6, 40 면.

¹² 1910 년에작성한프랑스정보문서에는“4 년전부터파리가중국인지식인들의집결 지로변하고있으며, 이들중상당수가혁명의전위대임을자처하는진짜아나키스트들이다” 라고쓰여있다 (吳章煥 <在佛中國無政府主義運動 (1903~1907)>, 『박영석교수화갑기념 — 韓國史學論叢』 (下), 1992, 1190 면).

가 '레딤파누보' 여서그라브의 그것과 같다는 사실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¹³

「신세기」의 아나키즘

「신세기」는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기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이나 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오치휘와 이석증, 저민지가 편집을 맡았고, 장정강이 재정을 담당했다. 오치휘는 연燃·연료燃料·이夷·사무四無 등, 이석증은 진眞·진민眞民 등, 저민지는 민民·천야千夜 등의 필명으로 글을 썼다. 필명을 사용한 까닭은 혁명파의 간행물이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량한 인물들이 투고한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신세기」의 특징이라면 과학주의를 보편의 진리로 인식하고 진화론을 무기로 삼아 중국의 봉건주의와 전통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 있었다.

우선 「신세기」에 실린 유럽 아나키스트들의 저작 관련 번역문을 살펴 보면, 프루동이나 바쿠닌의 글이 불과 몇 차례 소개된 것과 달리 크로포트킨의 글은 〈크로포트킨의 학설〉을 비롯해서 십차례나 게재되었다.¹⁴ 이런 간단한 한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세기파는 크로포트킨주의 자임을 이 잡지에 소개된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은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이석증은 〈크로포트킨의 학설〉(1907년 9~10월)이라는 글을 통해 중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크로포트킨을 소개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중국 사회에 처음 번역 소개한 것도 이석증이다.¹⁵ 『상호부조』의 전반부 내용을 번역해 〈호조론 互助論〉이라는 제목으로 「신세기」(1908년 1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16회)에 실었다. 그는 번역서문에서 “크로포트킨은 생물학과 학으로서 인류의 사회를 논증했다. 러시아 박물학자 카를 카이슬러(Karl Kaisler)의 호조론을 넓혀 진화의 원인으로 삼아, 다윈의 생존경쟁의 결함을 보완했다. 이것은 실로 과학의 새로운 이치이자 사회의 정수이다.”¹⁶라고 극찬했다. 이 잡지에서는 기존의 사회진화론은 인류를 포함한 동물계의 진화법칙이 생존경쟁이라고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크로

프랑스와 일본에 유학 중인 청년들과 망명 중인 혁명파 대다수가 이미 만주인을 배척하고 중국을 회복하며 헌정을 창립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공화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른바 민생주의, 즉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더욱 급진적인 사람들은 공산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 청년들은 심지어 열성적으로 개인적 무정부주의를 제창한다. 그들은 수만 권의 잡지나 소책자를 비밀리에 계속해서 본국으로 수송하고 있다.⁶⁴

중국 최초의 아나키스트로 평가받는 장계는 1899년 일본으로 건너와 조도전대학 早稻田大學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다 혁명파가 되었는데, 당시 제일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격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일찍이 『무정부주의』(1903년 말)라는 책을 번역, 출판한 바 있었다.⁶⁵ 1906년 말 동경에 다시 왔을 때 북일회(北一輝)의 소개로 행덕추수를 알게 되었고, 다음해 3월 행덕추수에게 편지를 써서 교류를 희망했다. 장계는 행덕추수를 만나면서 그의 학문에 탄복했고,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 만남은 중국 아나키스트의 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⁶⁶ 장계는 행덕추수로부터 롤러의 『사회적 총동맹과 공론』을 빌려 『총동맹과 공總同盟罷工』(1907년 11월)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생디칼리즘을 중국 사회에 소개했다. 후자는 행덕추수의 일역분을 중역한 것이라고도 한다. 다음해에는 1903년에 출판한 책과 제목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무정부주의』(1908년 2월)를 번역했다. 이 책은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말라테스타가 쓴 것으로 원래 제목은 『아나키 Anarchy』인데, 백류수호(白柳秀湖)의 일역분을 중역한 것이다.⁶⁷ 말라테스타의 책은 아나키즘이 자유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임을 설명한 계몽적 성격의 글로 「신세기」나 「천의天義」에도 번역 게재될 정도로 유명했다.⁶⁸

장계는 1907년 4월 경 자신의 선배격인 장병린과 일본으로 갔던 유사배(劉師培), 하진(何震)을 행덕추수에게 소개했다. 이 만남에서 전 통학문의 대가였던 장병린과 유사배는 “유학자였다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행덕추수에 강한 동질감을 느낀 듯하다. 그 후 행덕추수와 대삼영 등이 주도하던 금요강습회에 자주 참석해 아나키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1907년 봄부터 교류를 시작한 그들은 같은해 6월 초 중국인 급진주의자를 중심으로 금요강습회와 비슷한 사회주의 강습회 社會主義講習會를

¹³ 같은 글 1187면.

¹⁴ 「新世紀」에 크로포트킨의 글은 〈克若泡特金學說〉(眞譯, 4회), 〈互助-進化之大原因〉(眞譯, 16회), 〈法律與強權〉(無譯, 6회), 〈國家及其過去之任務〉(眞譯, 23회), 〈萬民安樂〉(『빵의쟁취』제2장, 反譯, 4회), 〈獄中與逃獄〉(『크로포트킨 자서전』제1편, 眞譯, 7회), 〈俄羅斯凶惡〉(夷譯, 6회) 등 적어도 66회 이상 소개되었다. 그밖에 도민족주의에 반대한 에르베(G. Herve)의 〈反對祖國主義〉(眞譯, 2회), 군국주의에 반대한 프라탈(Prattall)의 〈徵兵之悲境〉(眞譯, 4회) 등도 실렸다.

¹⁵ 신세기파의 상호부조론 인식에 대해서는 박제균, 앞의 글 37~48면 참조.

¹⁶ 眞譯 〈互助論〉, 「新世紀」第31號, 1908. 1. 25.

⁶⁴ 幸德秋水 〈病中放語〉, 「高知新聞」1908. 1. 1(福田昇 〈社會主義講習會と亞洲和親會〉, 「東洋學集刊」第64號, 1990, 239~40면 재인용).

⁶⁵ 석무전정(石母田正)은 장계가 진정한 코민적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본다(石母田正 〈辛亥革命與幸德秋水〉, 「國外中國近代史研究」第2號, 1981, 339면).

⁶⁶ 竹內善作 〈本世紀初日中兩國革命運動的交流〉, 같은 책 참조.

⁶⁷ 嵯峨隆, 앞의 책 254면.

⁶⁸ 말라테스타의 책은 「新世紀」에 〈工人之無政府主義談〉이라는 제목으로, 「天義」에 〈無政府共產主義之工人問答〉이라는 제목으로 부분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인물은 인쇄공출신인산록태치(山鹿泰治)가 있다. 대삼영과산록태치 두사람은에스페란토를매개로평생을함께하는동지가되었으며, 특히지식인의전유물이었던에스페란토를노동자들에게화산시키는공헌을했다.⁶² 여기서우리가주목할점은아나키즘운동과에스페란토운동은동서양을막론하고상호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는사실이다.

대삼영의청년시절을보여주는것으로그의『자서전』이남아있다. 어린시절부터학교생활을지나사회주의운동에투신하기까지의과정을섬세하게묘사하고있다. 이책에따르면, 대략 1906년부터 1910년까지그의초기사상이완성되었다. 이시기대삼영은세가지일에열중했다고말한다. 첫째는에스페란토계몽활동에적극참여한것이고, 둘째는비군비론非軍備論을적극지지한것이며, 셋째는직접행동론에공감한것이다. 그는서양의아나키즘을흡수하는데만족하지않고, 인간과사회를포괄하는새로운이론을확립하려는야심을가지고있었다. 즉서양의아나키스트가도달할것을배우는것에만족하지않고, 스스로그런결론에도달하는과정을체험하고확인하려는충동을지니고있었던것이다.

3. 일본과중국아나키스트의교류

사회주의강습회의성립과 「천의」의아나키즘

행덕추수의영향으로일본사회당제 2 차대회에서새롭게등장한직접행동파가기존의회정책파를압도했다. 그들은 1907년 9월금요강습회를만들어매주금요일강연회를개최하며사회주의세력을결집해나갔다.⁶³ 행덕추수가아나키스트로전환한소식은일본인은물론일본에게주하던동아시아급진주의자들에게도아나키즘이널리알려지는계기를마련했다. 특히중국에대한행덕추수의우호적인태도는재일중국인유학생과망명객에게강한호감을불러일으켰다. 이시기일본에유학온중국인학생은 1만여명에다다랐으며, 유학생이가장많았던동경은사회주의운동이왕성하던도시였다. 중국동맹회원들도일본사회주의자들의집회에 자주참석했고, 일본사회주의자들도중국인들의조직과활동에적극참여했다. 그런데행덕추수의관심을끈것은중국동맹회의지도자손문(孫文)이아니라동맹회내에서새로운사상적출로를탐색하던장계(張繼)와장병린등이었다. 그가중국인들의동태를예의주시하고있었음은다음같은기사에서알수있다.

⁶² 向井孝 『山鹿泰治, 人とその生涯』, 青蛾房 1974 참조.

⁶³ 금요강습회에대한중국인의기록으로는경매구의회고기념어있다(景梅九 『罪案』, 國風日報社 1924. 4, 906~907 면).

포트킨의관점을인용해생존하기위해필요한것, 나아가생존하면서진보하기위해필요한것은생존경쟁이기보다는상호부조라고주장했다.¹⁷

우리가여기서주목할점은신세기파의아나키즘에는르클뤼가재해석한크로포트킨주의가반영되어있다는사실이다. 그들은르클뤼의『진화혁명론』을받아들여진화란사물의점진적변화과정을말하며, 혁명이란점진적변화의중단이자급격한변화를수반하는과정이라고보았다. 다시말하면진화와혁명이란동일한과정속에서나타나는두가지현상이라는것이다.¹⁸ 그래서이석증은개량이점진적으로변화하는것이라면혁명은돌발적으로변화하는것이라면서, “혁명은곧진화를방해하는존재를제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혁명의어원을해석하면서 ‘revolution’을‘Re’와‘Evolution’으로나누어‘Re’는‘다시’혹은‘더욱’을의미하고 Evolution 은‘진화’를의미하므로, 혁명이란모든사물이더욱새롭게되는‘급격한진화’의한형태라고설명했다.¹⁹ 「신세기」에는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이나르클뤼의진화혁명론말고도다윈의진화론이나라마르크의유전설등도일부소개되었다.

신세기파의오치휘는아나키즘에대해“무정부주의란인민의공덕심公德心을환기시키는것이며, 개인과사회의호조를중시하는것으로, 일체의권리를버리고공동의행복을도모하는것”²⁰이라고정의했다. 또한“사람들마다진리와공도公道에따르면통치자와피치자가없게되는데, 이를무정부”라면서, “무정부사회란도덕이있을뿐법률은없고, 각자능력에따라일하지만의무가아니며, 각자필요에따라소비하지만권리를말하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²¹ 그리고이석증도아나키즘이론의특징을자유와평등, 박애, 대동, 공도, 진리, 개량, 진화등의다양한개념으로묘사하면서아나키즘사회를“각자능력에따라일하고각자필요에따라소비한다(各盡所能各取所需)”는여덟자로요약했다.²²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아나키즘의이상을실현하기위해먼저기존질서에대한저항을호소했는데, 그구체적인공격대상으로군국주의, 조국주의(= 애국주의), 가정주의, 사산주의(= 사유재산주의), 종교주의라는오대주의五大主義를내걸었다. 그들은잡지를통해이런다섯가지주의를비판할것이라면서이것들을다시‘강권주의強權主義’라는말로요약하

¹⁷ 「新世紀」와동시에발간한「新世紀叢書」에서는세계 7인의아나키스트가운데한사람으로크로포트킨을뽑고, 그의『互助論』을『告少年』이나〈秩序〉라는글과함께소개했다(李石曾 〈革命〉, 「新世紀叢書」第 1 輯, 1907).

¹⁸ Élisée Reclus, 畢修勺譯 『進化與革命』, 平明書店 1947, 5 면.

¹⁹ 李石曾 〈혁명〉, 앞의책.

²⁰ 吳稚暉 〈各盡所能與各取所需〉, 「新世紀」第 49 號, 1908. 10. 24.

²¹ 吳稚暉 〈談無政府之閒天〉, 「新世紀」第 49 號, 1908. 5. 30.

²² 李石曾 〈革命〉, 앞의책.

고, ‘강권주의반대’가 자신들이아나키즘이라고 선언했다.²³ 이에따라기존국가와정당에대해서는반군국주의와반조국주의를, 기존전통과봉건에대해서는반가정주의와반종교주의를, 사유재산제도와관련해서는이를부정하는반사산주의反私産主義를각각주장했는데, 당시중국사상계에서는가장급진적인주장을담고있었다.

신세기파는정부와국가의관계에대해“정부란대동세계의최대장애” 혹은“어떤형태든지모든정부는자유와평등의적”²⁴이라면서, 이것은인민의대표기구가아니라소수특권층이조직한단체에불과하며, 특권층 스스로자신에게이로운법률을마음대로제정하여사회를운영하는데, 이를국가라고했다. 따라서국가는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기관에불과하며, 정상적인사회를파괴하는근본원인으로인식되었다.²⁵ 자본주의에대해서도같은맥락에서비판하고있다. 즉자본주의란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고강한중층이약한중층을지배하는구조이며, 이를비호하는기관이정부이고정부는곧국가를대표하므로결국국가와정부는특권층의이익을보호하고인민을해치는‘만악萬惡의근원’이라는것이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이타도해야할국가혁명의첫번째대상은바로청조淸朝라는황제체제였다. 그들에게있어배항혁명排皇革命, 즉청조의전복은아나키즘혁명의시작을알리는것이며, 배항혁명은배만혁명排滿革命보다우월하며, 사회혁명은배만혁명을포괄한다고믿었다. 「신세기」에는황제는물론황실귀족과고위관료들의정책에대한비판기사, 황족의무능과부패를조롱하는기사들을자주볼수있다. 아울러청조에대항하여봉기를시도하다처형된혁명가들, 예를들어서석린(徐錫麟) 과추근(秋瑾) 등을찬양하는기사에많은지면을할애했다. 이런논조는표면적으로신해혁명辛亥革命시기에해외에서발간된여러혁명파선전물과큰차이가없어보인다. 하지만신세기파의배항혁명론의출발점이공화파혁명가들처럼중층주의적정서, 즉배만혁명론에입각했다기보다는전제군주제라는국가체제에대한반발심리에서출발했다는점에뚜렷한차이를드러낸다. 다시말하면민주주의지배에대한한족의분노와증오의산물로서청조의전복을주장한것이아니라, 왕조라는전근대적전제군주제에대한부정이라는맥락에서혁명을주장한것이다. 그들이군주제를반대한까닭은이제도야말로인간의자유를억압하는가장야만적인체제라고보았기때문이다.

신세기파는정당정치와의회제도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부정하는 입장을보였다. 심지어대의제를군주제못지않은나쁜제도라고평화했다.

²³ 신세기파는「新世紀」의광고에서자신들은종교와전통, 가족, 방종, 엘리트, 통치, 군벌, 국가를반대할것이며, 자유와과학, 인도, 혁명, 공산, 국제등을찬성할것이라고했다(〈木館廣告〉, 「新世紀」第 52 號, 1908. 6. 20).

²⁴ 李石曾〈來書附答〉, 「新世紀」第 6 號, 1907. 7. 27.

²⁵ 李石曾〈答軍魂氏第二次書〉, 「新世紀」第 8 號, 1907. 8. 10.

들어졌지만, 자본주의가성숙하지않은중국사회에서는노동자계급이충분히형성되지않아생디칼리즘에대한관심이부족하지않았나싶다.

일본아나키즘운동의차세대지도자가될대삼영은행덕추수가미국에체류중이던 1906 년초전차요금인상을반대하는시민대회에참가했다가체포되어그해 6 월에서야풀려났다.⁵⁹ 이사건은평생계속되는옥중생활의서막이었다. 그는프랑스의한아나키즘신문에실린〈신병제군에게드림〉(1906 년 11 월) 이라는글을「觀光」에기고했다가문제가되어거소되었으며, 다시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1907 년 3 월) 을「평민신문」에일부분번역해실었다가또다시기소되어몇달간복역했다. 특히『청년에게고함』이라는짧은팸플릿은크로포트킨의저작가운데가장많이읽힌글이자일본내가장일찍번역된크로포트킨의글가운데하나다. 얼마후「평민신문」에〈유럽사회당운동의대세大勢〉라는글을 6 회에걸쳐번역게재해유럽사회당과노동운동을소개하기도했다. 앞의기사들이대부분유럽아나키스트의글이라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대삼영은이미아나키스트투사로바뀌고있었다.⁶⁰ 그런까닭에그는행덕추수의아나키즘을가장빨리받아들인사람가운데하나로별다른갈등없이직접행동론을열렬히지지할수있었다.

대삼영은청년시절부터여러차례감옥에들어갔는데, 자칭감옥대학안에서아나키즘이론은물론어학공부에열중하여자신만의사상적기초를마련해나갔다. 그는옥중생활을매우중시했는데, 자서전에서“감옥생활은넓은세상생활의축소판”이라며자신에게미친영향을자세히언급했다. 대삼영은“일범일어一犯一語”라는유명한말을남겼다. 이뜻처럼한번투옥될때마다감옥에서한가지외국어를배우고나와서나중에는 10 여가지의외국어를할수있다고자부했다. 특히그는에스페란토에대해남다른열정을가지고있었다.

에스페란토는폴란드의안과의사라자루스루드비크자멘호프(Lazarus Ludwig Zamenhof) 가만든‘희망’이라는뜻을가진세계공용어로, 일본사회에서는세계어라고불렸다. 일본에스페란토운동사에따르면『진화론강화』(1900) 를쓴구천차랑(丘淺次郎) 이독일유학도중에에스페란토를배워일본에처음으로소개했다고전한다.⁶¹ 그런데대삼영이에스페란토에대해큰감명을받고감옥에서배운후출옥하면서일본에스페란토역사의첫페이지를장식하는인물이되었다. 그는에일본에스페란토협회(1906 년 6 월) 가설립되자창립대회에서직접에스페란토로글을낭독하기도했으며, 일본최초의에스페란토학교를만드는데참여해강의도했다. 일본사회에에스페란토가수용되는데공헌을한도다른

⁵⁹ 多田道太郎〈生と反逆の思想家大杉榮〉, 多田道太郎編『大杉榮』, 中央公論社 1984, 25~26 면.

⁶⁰ 鎌田慧『大杉榮自由への疾走』, 岩波書店 1997, 94 면.

⁶¹ 大島義夫·宮本正男『反體制エスペラント運動史』, 三省堂 1975, 6~7 면.

의미래』라는제목의소책자로등사되어관현의눈을피해비밀리에배포했다.⁵⁶ 이작업을담당한삼강영치(森岡榮治)라는인물은얼마후저기사건赤旗事件에연루되어감옥에들어갔다가출소후사망했지만, 그가비밀리에인쇄한이책자는몇사람의손을거쳐대정大正시대로전해졌다. 그후일본사회주의운동에중요한영향을미쳤으며, 특히노동조합적이나키즘의발전을가져온초석이되었다. 그런데일본사회에서코뮌적이나키즘과노동조합적이나키즘의대표저서인『빵의쟁취』와『사회적총동맹과공론』이『상호부조』보다먼저완역되었다는사실은나름의상징성을가지지않을까싶다. 아마도일본이중국보다자본주의가발전하여노동자계급이어느정도성장했기때문에가능했던일인지도모른다.

한편행덕추수의동료인산천균(山川均)이〈동물계의도덕〉(1908)을번역했는데, 이것이현재까지알려진『상호부조』의최초일본어절역본이다. 이번역은‘평민과학’총서(6책)시리즈의하나로계획되었으며, 본래행덕추수가담당하기로했다가산천균에게인계된작업이었다.⁵⁷ 비록『상호부조』의완역본은아니지만, 그래도이책의번역이일본이나키즘운동의초기에나타난다는사실은그사상적비중을다시금집착케한다. 행덕추수는『상호부조』번역에직접참가하지는않았으나이미1906년8월「광光」에실은글에서“누가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가오늘날생물학상, 사회학상일대발견이자일대저술이라고하지않겠는가”⁵⁸라며칭찬을아끼지않은바있다.

일본학계에서는행덕추수가활약한이시기를직접행동파의시대라고부르기도한다. 이때는격렬한투쟁을통해국가권력에맞섰고, 비밀출판이하나의특색을이루었으며, 평민을통해역사를만들려고한시기라고묘사한다. 일본에서아나키즘수용과정의특징이라면우선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등과같은다양한사회주의이론과뚜렷한구분없이동시에받아들여졌다는점이다. 이런특징은중국의신세기파가프랑스에서코뮌적이나키즘을수용하면서마르크스주의와뚜렷이거리를둔것과는차이를보인다. 다음으로크로포트킨주의를받아들일때에도생디칼리슴과혼합된상태로수용되었다. 아마도자본주의가어느정도발전한일본사회에서는노동운동을전개할수있는토양이마련되어서곧바로생디칼리슴이받아

⁵⁶ 『社會的總同盟罷工論』의번역과정에대해서는田中ひかる〈『社會的總同盟罷工論』成立前史〉, 『初期社會主義研究』第15號, 2002, 235~57면에자세하다.

⁵⁷ 이총서의제1편인〈인간발생의역사〉는게리언이담당하고, 제2편인〈식물의정신〉을산천균이담당했다. 그리고제5편인〈동물계의도덕〉은행덕추수가담당해『상호부조』의〈동물의상호부조〉(제1장)를번역해실을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변경되어산천균이담당하게되었다. 제6편인하워드무어(Haward Moore)의〈萬物の同根一族〉이라는진화론논문은대삼영이번역했다(山川菊榮·向坂逸郎編『山川均自傳』, 岩波書店1963, 286면).

⁵⁸ 幸徳秋水〈無政府黨鎮壓〉, 『平民主義』, 隆文館1907(『幸徳秋水』(平民社百年記念), 論創社2002, 73면에서재인용).

군주제가절대소수에의한절대다수의지배구조라면, 대의제는다수의지배계급이평민들을지배하는구조이므로결국평민은더욱압박받는다는논리를 폈다. 그래서저민의는“소위민권民權이라는것은사실상부권富權이다. 민주가최고의평등이고공화가최고의자유라고여기는것은자유가부유한자의자유이며평등이부유한자의평등임을모르기때문이다. 빈민이근경에처했는데자유평등이어디에있단말인가?”²⁶라고했다. 이것은대의제선거를통해뽑은의원들은가난한인민의이익을위해서가아니라돈과권력이있는자들을위한것이라고본것이다. 따라서대의제정치는오히려사회의불평등만가속화한다고생각했다.²⁷

그런데청조라는봉건왕조의지배아래있던중국은전제국가로아직까지정당정치나의회정치를경험하지않았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따라서그들이비판한대의제는실제로중국사회에는존재하지않았으며, 단지서구아나키즘을받아들이는과정에서선전차원에서혹은공화파와의경쟁속에서이론적으로만제기된것이다. 유럽의아나키즘운동이대의제정치의모순을경험하면서전개된것과달리초기중국인아나키스트는이를겪지않고막연히반대했다. 같은맥락에서파리그룹의자본주의경제체제에대한비판도아직까지산업화가이루어지지않은중국사회에서는다소설득력이떨어지는것이였다. 사실그들이아나키즘을수용한배경에는청조라는군주제를타도하기위한이론적무기의성격이강했으며, 대의제나자본주의에대한비판동기는상대적으로미약했다.

「신세기」의가장뚜렷한특징이라면중국의전통문화에대한신랄한비판에있었다.²⁸ 청조타도라는국가혁명의1차목표는중국사회의낡은전통과봉건사회에대한비판과도깊은관련을맺고있었다. 그래서인지여기서는교육보급과부녀해방, 가족해방, 노동중시등의사상을열심히전파했다. 국수國粹에대한신세기파의반대나물질문명에대한찬양은반전통주의자혹은서구화론자로서의전형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그런데엄격히말하면이들이수용한아나키즘은서양아나키즘의전체가아니라자신들의현실적필요에따라선택한것들이다. 키워드를열거하자면서양의아나키즘가운데테러와노동, 무정부, 무국가, 반제등의논리보다는상대적으로교육과도덕, 과학, 진화, 반전통등의논리를주로받아들였다. 게다가그들에게있어서의서양문화란주로프랑스의지적전통과관련된것들이었으며, 일부는다소왜곡된것들도있었다. 물론그들역시중국의전통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었지만, 당시로서는전통의굴레로부

²⁶ 褚民誼〈伸論民族·民權·社會三主義之異同再答來書論「新世紀」發刊之趣旨〉, 『新世紀』第6號, 1907. 7. 27.

²⁷ 李石曾〈與友人論種族革命黨及司誨革命黨〉, 『新世紀』第8號, 1907. 8. 10.

²⁸ 신세기파의전통문화비판은曹世鉉, 『清末民初無政府派的文化思想』,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3, 제3장참조.

터가장멀리벗어나있었다. 이때문에 「신세기」를신문화운동시기에발간한 「신청년」의기원가운데하나라고평가한다.

이석증은크로포트킨의 〈역사에서국가의역할〉을번역하면서후기에서말하기를, “크로포트킨은전통학문에지나치게빠져, 그런관념들이이책의곳곳에나타나는데, 실로그의약점이다”²⁹라고했다. 이구절은크로포트킨주의자를차렷던신세기파가거의유일하게크로포트킨의생각을비판한대목이다. 이석증은철두철미한반전통주의의입장에서서어나키즘은옛날부터있었던것이아니라최근사회진화의산물이라고굳게믿었다. 그래서인지크로포트킨의역사학적접근방식에약간의의문을제기한것이다. 하지만이런과학주의신앙역시실제로는크로포트킨의철학에서기원한것으로볼수있다.

아나키스트는자신들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언어의장벽을무너뜨리고국경을철폐하는데기여할에스페란토에대해열렬한지지를표시했다. 아나키즘과더불어국제에스페란토운동의중심은역시프랑스였다. 이곳파리에서활동했던신세기파도중국에가장먼저그리고가장열심히만국신어萬國新語를소개했다. 여기서만국신어란바로에스페란토의최초의한역명칭으로발음에따라애스不難讀이라고표기하기도했으며, 같은시기일본에서는세계어世界語혹은세계신어世界新語라고번역했다. 「신세기」가간행된지오래지않아이미에스페란토를소개하는글을발견할수있다. 여기서오치휘나이석증등이한자를폐지하고에스페란토를수용하자고주장한것은그들의반전통주의를극명하게잘보여준다. 이런과격한주장은국학자인장병린(章炳麟)과의논쟁으로까지발전했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국가나정부말고사회의최소단위인가족이나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종교등에대한혁명도주장했다. 이것은마르크스주의자들이경제관계에기초해모든것을설명하려는것과차이점이다. 다시말하면마르크스주의자들이계급투쟁을중심에놓고가족이나종교문제를여기에중속시켰다면, 아나키스트들은계급은물론종교와전통, 가족, 국가등주요사회문제에대해선후경중의차별을가지지않고근본적인비판을했다는점에서구별된다. 혁명을실천하기위한방법에서도차이점은발견된다.

크로포트킨은아나키즘을실현하기위한방법으로교육을통해인간의도덕을향상시키는비폭력적인수단과테러, 총동맹파업, 무장봉기같은폭력수단사이에서갈등했다. 중국의아나키스트들도마찬가지였지만단체로비폭력과폭력의두방법가운데전자의방법이중국혁명에훨씬효과적이라고믿고있었다. 혁명방법과관련한대표적인주장이오치휘의 〈무

²⁹ 克若泡特金, 眞譯 〈續國歌及其過去之任務〉(附記), 「新世紀」第 81 號, 1909. 1. 23.

금권정치로노동자에게참정권이주어지더라도정당은자신들의이익을대변하는후보들을뽑지도노동자들의회의로볼러들이지않을것이라고했다. 게다가개인의자유의지와권리를빼앗는대의제정부는필연적으로권위주의적이될것이라보았다. 이들의대립은일본사회당의분열을가져와온건한의회정책과인편산잡과강경한직접행동과인행덕추수를지지는그릅으로나누어졌다. 본래유럽에서도 19 세기말부터아나키스트는마르크스주의자가의회와선거에집착하는것을비난하고거부했는데, 제 2 인터내셔널의의회주의노선에반대한것이그것이다.

일본사회당제 2 차대회 (1907 년 2 월) 에서직접행동과가압도적우세를보이자일본정부는사회당을해산하고 「평민신문」도폐간시켰다. 그후의회정책과는사회주의동지회를만들고 「사회신문」과 「동경사회신문」을창간했으며, 직접행동과는금요강습회金曜講習會를만들고 「평민신문」과 「대판평민신문」을창간해각자독자적인길을걸었다. 그런데행덕추수는귀국후얼마동안정당정치와보통선거에대항푸러한입장표명이없었다. 게다가아나키즘의근본을이루는국가권력의부정에서도다소불분명한태도를취했다. 아마도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의분기점인혁명에서의과도기문제, 즉프롤레타리아독재에대한명확한이해에도달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행덕추수는크로포트킨의 『빵의쟁취』를번역하는과정에서코뮌적아나키즘에더욱접근했으며, 이를통해이론적모호함을극복할수있었다.⁵⁴

『빵의쟁취』는앞서언급했듯이크로포트킨이유럽에서활동하던시절아나키즘잡지 「반역」 등에게재한원고들을 1892 년에단행본으로출판한것이다. 여기서그는개인재산을만인에게반환할것과경제제도를소비위주로재편할것을주장하면서코뮌을그물망처럼연결해국가를대체하는조직으로만들자고제안했다. 행덕추수는크로포트킨의승낙을얻은후 1907 년부터 『빵의쟁취』에대한번역에착수하여그일부를 「평민신문」과 「웅본평론熊本評論」에발표했다.⁵⁵ 그후병치료를위해고향으로돌아온후, 현지에서번역을계속한끝에 1908 년 7 월에작업을완료했다. 『빵의쟁취』는비록책의일부가압수되는우여곡절을겪기도했으나, 일본에크로포트킨주의가수용되는전기를마련했을뿐만아니라얼마지나지않아아나키즘의경전이되었다.

행덕추수는생디칼리슴의대표적인텍스트가운데하나인아널드롤러 (Arnold Roller) 의 『사회적총동맹파공론』 (The Social General Strike, 1907 년 5 월) 을크로포트킨의저서보다먼저일본어로번역했다. 이책은미국에서구입한영문판을기초로번역한것인데, 『경제조직

⁵⁴ 이번역은대삼영과산천균 (山川均) 이할계획이었으나대삼영이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투옥되자행덕추수에게인계된것이라고한다 (John Crump, 앞의책 44 면).

⁵⁵ 幸德秋水 〈麵麩の略取〉, 『幸德秋水』, 中央公論社 1984, 譯者引 497 면.

접하게 되었다. 먼저 크로포트킨의 코뮌적이나 키즘이다. 행덕 추수가 탐독한 『빵의 쟁취』를 비롯한 크로포트킨의 여러 영문본 저작들은 앞으로 일본 사상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다음으로 미국 체제 기간 중에 현지의 아나키스트, 특히 노동조합적이나 키즘과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당시 구미의 아나키즘 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즉 생디칼리즘과 결합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다. 본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생디칼리즘은 권력을 정당의 손에서 노동자 단체로 옮기고자 한 사조인데, 프랑스 노동총연맹의 아미앵 대회에서 아나키스트와 생디칼리스트의 연합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런 새로운 사조가 미국의 급진적인 노동단체인 세계 산업 노동조합 IWW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집회에 참석한 행덕 추수가 자연스레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의 이른바 ‘직접 행동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서 직접 행동론이란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총동맹 파업을 통해 혁명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었다. 끝으로 행덕 추수는 정치적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인 아나키스트 말고도 러시아 망명객들과도 교류했는데, 러시아 혁명가들의 헌신적인 테러 활동을 들으면서 사상의 깊이를 더해 갔다.⁵²

그런데 행덕 추수가 미국에 체류 중 일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대지진(1906년 4월 18일)이 일어났다. 온 시내가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혹자는 이 혼란 속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강렬한 연대의식을 보고 행덕 추수가 아나키스트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⁵³ 이런 재해 상황을 이상적으로 보았을 리는 없지만 혼란 중에 겪은 어떤 경험이 변신의 계기로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귀국 환영회(1906년 6월 28일)에서 행덕 추수는 일본 아나키즘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직접 행동 선언’을 했다. 이유명한 연설 내용을 담은 <세계 혁명 운동의 조류>에서 보통 선거와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혁명 수단으로 총파업을 제안함으로써 아나키스트임을 자처했다. 다음해 「평민 신문」(1907년 초)을 일간지로 복간하고 여기에 <나의 사상의 변화>라는 글을 발표하여 “보통 선거와 의회 정책으로는 결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오직 일치 단결한 노동자의 직접 행동에 의지해야 한다”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론을 소개했다. 그는 총파업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극적인 수단이자 진정한 사회 혁명의 대개체로 주목했다.

행덕 추수와 함께 활동했던 편산 잠은 <사회당 운동의 방침>을 써서 행덕 추수의 직접 행동론을 비판하면서 의회 정책을 병행하며 노동자의 훈련과 교육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덕 추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⁵² John Crump, “The Anarchist Movement in Japan”, ACE Pamphlet, No. 8, Pirate Press 1996, 4면

⁵³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23~25면.

정부주의는 교육으로 혁명을 이루는 설>이라는 글이다. 여기서 그는 “중국에서 사회 혁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혁명 사상을 선전해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전파하면 사람들마다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자각할 것이다”³⁰라고 했다. 다른 여러 편의 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글에서는,

무정부주의 혁명이라는 교육으로 혁명을 제창하는 것이요, 교육으로 혁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교육으로)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상 매일의 교육이 매일의 혁명이다. 교육의 효과가 적어서 사회의 작은 습관만을 고칠 수 있다면 이는 작은 혁명인 것이다. … 교육의 효과가 커져서 전체적으로 넓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곧 큰 혁명인 것이다.³¹

라고 했다. 신세기파는 사회 변혁의 방법과 변혁 주체의 창출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혁명이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을 조금씩 개량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아나키즘 사회를 추구하려는 온건한 태도는 신해 혁명이 발발하여 중화민국이라는 공화 정부가 성립하자 이를 부정하지 않고 과도기적 체제로 인정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다. 신세기파의 세계사는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에도 또다시 국내에 조직되어³² 교육(유학) 운동을 중심으로 아나키즘 활동을 재개했다.

2. 일본에서의 전파

사회주의서적 번역과 러시아 허무당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明治維新의 서구화 과정에서 다양한 서양서적을 번역했다. 그가운데가 등홍지(加藤弘之)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소개하면서 스펜서 철학의 자유주의적 측면보다는 보수주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른바 ‘우승열패 優勝劣敗’의 신화를 만들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는 사회주의를 비판할 목적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다.³³ 보통가 등홍지의 저서 『진정대의

³⁰ 吳稚暉 <無政府主義以教育爲革命說>, 「新世紀」 제 65호, 1908. 9. 19.

³¹ 吳稚暉 <各盡所能與各取所需>, 「新世紀」 제 70호, 1908. 10. 24.

³² 1912년 신세기파는 상해에서 세계사를 다시 조직해 교육 문화 방면의 사업을 전개했다. 그 후 원세개의 복벽으로 중국을 탈출해 프랑스 파리로 망명한 이들은 1915년 파리에서 또 다시 세계사를 조직했다. 당시 세계사의 규정을 보면, 출판·연구·유학·선전의 네 분야의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李石曾 <世界社之簡章>,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編 『李石曾先生文集』(上), 中央文物供應社 1980, 218~19면).

³³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역, 이수정 옮김 『일본 근대 철학사』, 생각의나무 2001, 222면.

眞政大意』(1870)에서 처음으로 ‘Socialism’이라는 용어를 ‘사회주의’라고 번역했다고 전한다. 사회진화론을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수용되었다. 1898년에는 촌정지지(村井知至)와 행덕추수등에 의해 사회주의 연구회가 만들어졌고, 다시 1900년에는 사회주의 협회로 개칭했다. 1901년에는 편산잠(片山潛)과 행덕추수등에 의해 사회민주당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초기 사회주의는 단순히 신사상의 하나로 소개되었지만 점차 운동차원의 사회주의는 아니었다.

이 시기 일본 학자들이 서양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는 무척 많은데, 사회주의 말고도 ‘사회진화론’ ‘상호부조론’ ‘무정부주의’ 등이 모두 일본식 번역어였다. 이런 번역어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 널리 보급되면서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일으켰다. 여기서 중국의 경우를 잠시 언급하자면,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중국인 잡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1년 재일 중국 유학생 잡지인 「역서회편譯書彙編」에 유하장웅(有賀長雄)의 책 『근세정치사』가 번역 연재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양계초(梁啓超)가 “사회주의가 곧 인군주의 人羣主義”라고 하면서부터 이 용어는 재일 중국인 사회를 넘어 중국 대륙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촌정지지의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러권의 일문사회주의 관련 서적이 중국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다.³⁴ 같은 시기에 상해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출판물인 「정예통보政藝通報」 「대륙보大陸報」 「국민일일보國民日日報」 「아사경문俄事警聞」 등에서 사회주의를 소개하는 글들이 연재되었다. 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를 재일 중국 유학생이나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간행물에서 인용하고 다시 본국에 전파했다. 단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중국이 일본보다 먼저 개항했고, 양무운동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고안한 적지 않은 번역어가 일본에 전파된 사실이다.

동아시아 사회주의의 전파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 모두 러시아의 나로드니키 Narodniki 운동과 허무당 虛無黨 활동을 활발히 소개했다는 점이다. 허무당과 허무주의의 소개는 아나키즘의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사회에 아나키즘이 처음 수용될 때에는 러시아에서 풍미하던 테러리즘이나 허무주의가 아나키즘과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을 테러리즘이나 허무주의와 동일시하는 습관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유럽 사회에 풍미했던 각종 테러와 암살 활동을 벌인 사람들에게 대해 유럽의 언론이 그들의 정치 성향을 나로드니키와 니힐리스트, 아나키스트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섞어 쓴 버릇에서 기인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

³⁴ 村井知至, 羅大維譯 『社會主義』, 上海廣智書局 1902. 4; 幸德秋水, 趙必振譯 『長廣舌』, 商務印書館 1902. 11; 福井準造, 趙必振譯 『近代社會主義』, 上海廣智書局 1903. 2; 西川光次郎, 周子高譯 『社會黨』, 上海廣智書局 1903. 3 등이 대표적이다.

아니라 이른바 애국주의, 군국주의이다. 그렇다. 애국주의와 군국주의는 제군과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⁴⁷

당시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게오르기 V. 플레하노프(Georgii V. Plekhanov) 의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기관지 「이스크라」를 통해 행덕추수의 편지에 호응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 2 인터내셔널 제 6 차회의(1904년 8월 14일)에서 일본 사회당 대표 편산잠과 러시아 사회민주당 대표 플레하노프가 반전의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행덕추수는 이 사건을 <일러사회당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평민신문」에 실어 “이 악수는 실로 세계당발전 역사에 영원히 대서특필될 중대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⁴⁸ 평민사회원들이 반전을 굽히지 않자 당국은 1905년 1월 신문을 폐간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행덕추수는 「평민신문」의 폐간 직후에 일어난 한필화 사건에 연루되어 약 5개월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다. 감옥에서 크로포트킨 저작을 읽었는데, 훗날 이때를 회고하며 “나는 마르크스파의 사회주의자로서 투옥되었으나 출옥할 때는 과격한 아나키스트가 되어 돌아왔다”⁴⁹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구울견귄촌(久律見厥村)이라는 인물이 『무정부주의』(1906)라는 책에 <크로포트킨의 특색>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이 크로포트킨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소개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특징을 과학적 귀납 방법론과 상호부조론이라고 설명하면서 프루동이나 슈티르너의 사상과 비교했다고 전한다.⁵⁰ 그런데 『무정부주의』라는 책자는 곧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구울견귄촌은 “나는 일본 유일의 아나키스트”라고 선언할 만큼 아나키즘이론에 밝았다고 전해지지만, 개인 중심의 철학적 허무주의 색채가 강해 크로포트킨의 자라고 보기에 곤란하다는 평가가 있다.⁵¹ 일본 초기 아나키즘 운동의 두 지도자로 꼽히는 구울견귄촌 및 행덕추수와 관련한 단편적 기록에 근거한다면 적어도 1906년 무렵 일본 사회에 크로포트킨의 원서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덕추수는 출옥한 후 1905년 11월에 미국 방문의 길을 떠나 다음해 6월에 귀국했다. 불과 반년에 불과한 외국 여행이었지만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 아나키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사상을 좀더 심도 있게

⁴⁷ 幸德秋水 <與露國社會黨書>, 「平民新聞」 1904. 3. 13(박양신 <메이지 사회주의자의 반전론 - 고토쿠슈수의 비전론을 중심으로>, 『반전으로서의 동아시아』, 해안 2008, 112 면 재인용).

⁴⁸ 小松隆二, 앞의 책 31면.

⁴⁹ 路哲, 앞의 책 4면 재인용.

⁵⁰ 이 글은 재일 중국인 유학생 왕공권(王公權)이 번역하여 <苦魯巴特金之特色>이라는 제목으로 「天義」 제 3호(1907. 7. 10)에 실었다. 재일 중국 동맹회의 기관지 「民報」에도 요중개(廖仲愷)가 구울견귄촌의 『歐美의無政府主義』와 연산전태랑의 『近世無政府主義』를 부분 번역해 게재했다.

⁵¹ 小松隆二, 앞의 책 23~26면.

행덕추수의직접행동론

일본아나키즘의출발을알기위해서는행덕추수의움직임에주목해야한다. 그는 1901년 「만조보萬朝報」에글을써서자신이사회주의자라고선언했으며, 그해 『20세기의괴물제국주의』를서서제국주의와군국주의에대한예리한비판을전개했다. 이책은영국인로버트슨의 『애국심과제국』(1899)에근거해쓴것이라고하는데, 일본에서출판한다음해중국어로곧바로번역되었다. 여기서계리언(堺利彦)과함께처음제국주의적침략전쟁을반대하는비전문非戰論을주장했을뿐만아니라, 최초로천황을논리적으로비판했다. 『사회주의신수』에이르러본격적으로사회주의를선전하기시작했다. 그런데행덕추수는피압박민족의민족해방운동에대해서는단순한민족주의나애국주의로이해해부정적으로보는한계를드러냈다. 예컨대그는평민사平民社시절이전까지만해도조선을일본의세력권에편입시켜야한다고생각했다. 아마도조선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일본이조선을침범한침략자라는사실을파악하는데시간이걸린것으로보인다.⁴⁵ 하지만평민사에참가한후에는일본의조선침략정책을격렬하게비판했다.

행덕추수는평민사에서발행한 「평민신문平民新聞」(주간지, 1903년)을중심으로러일전쟁(1904~1905)을준비하는정부에대항해반전운동을전개했다. 이신문은전쟁의무모함을반대하고정부의군국주의정책을비판하면서계급차별을타파하고모든압제와속박을제거하기위한평민주의, 생산·분배·교통수단의공유를위한사회주의, 군비반대와전쟁근절을위한평화주의등을주장했다.⁴⁶ 러일전쟁이일어나자세상이온통전쟁의열기로들떠있었으나, 「평민신문」만홀로모든전쟁을부정하는반전의논리를폄다. 그들은러일전쟁의배경에는정치가와자본가의음모가숨어있으므로전세계의평민들은국제적으로연대해반전운동을펼쳐야한다고주장했다. 실제로평민사의동인들은러시아사회주의자들에게군국주의를반대하기위한반전연대투쟁을제의해큰충격을던졌다. 1904년 3월행덕추수는러시아사회민주당에편지를보내국제연대를통해전쟁을막자고제안했다.

러시아와일본양국정부는제국적욕망을달성하기위해전쟁을개시했다. 그러나사회주의자의안중에는인종과지역, 국적의구별이없다. 제군과우리는동지이다. 형제자매이다. 결코싸울이유가없다. 제군의적은일본인이아니라이른바애국주의, 군국주의이다. 우리의적은러시아인이

⁴⁵ 石坂浩一〈朝鮮認識における幸徳秋水〉, 『史苑』第46(1~2)號, 1987, 153~54면.

⁴⁶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編)』, 형설출판사 1978, 59면.

은본래러시아에는허무당이라는이름의조직은없었으며, 실제로는나로드니키를비판하기위해만들어진용어에불과했다는사실이다. 그소개과정에서허무당인을아나키스트와동일시한것은착오이지만완전히잘못된사실만은아니었다. 왜냐하면허무당인의범주에는바쿠닌주의자로분류할수있는아나키스트도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³⁵

일본사회는서구의사회주의와러시아의허무당을소개하면서아나키즘을수용했다. 허무주의와허무당인을아나키즘과아나키스트같은것이라는인상을남긴대표적인저작은연산전태랑(煙山專太郎)의 『근세무정부주의』(1902)를꼽을수있다. 이책은전후 2편으로구성되었는데, 전편은〈러시아허무주의〉라는제목으로러시아허무주의계통을차례로 소개했고, 후편은〈구미열강에서의무정부주의〉라는제목으로구미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를소개하고개별국가의사상운동현황을소개했다. 당시동경제국대학학생이던작자가이책을저술한본래목적이아나키즘을보급하는데있었던것이아니라오히려비판하려는데있었다는사실은아이러니하다.³⁶ 어쨌든『근세무정부주의』는널리유통되어사회적영향력이비교적컸으며, 우리가아나키즘을‘무정부주의’라고부르게된것도바로이책의제목에서비롯되었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³⁷ 그렇다고해서연산전태랑이무정부주의라는용어를처음만든것은아니다. 1900년에쓴양계초의논문에서도이미‘무정부당’이라는표현이나타나는것으로보아적어도 19세기말일본에는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어쨌든이번역어가중국인을비롯한동아시아인들에게그대로수용되어널리통용됨에따라그의미는더욱각별해졌다.

『근세무정부주의』가출판되자마자일본에있던중국인들은이책(주로전편)의일부분을발췌하여번역소개했으며, 중국내의신문잡지에도여러차례실렸다.³⁸ 그리고김일(金一)은『자유혈自由血』(1904)이라는제목으로의역출판했다. 이번역본은전편만을번역했기때문에구미의아나키즘보다는러시아의허무주의를주로소개했다. 김일은서문에서“허무당이란무엇인가? 자유의신이요, 혁명의급선봉이자또한전제정치적의적”이라면서, “내가허무당을번역하는것은우리국민이그투쟁할바를알기원하기때문”이라고적고있다.³⁹ 이처럼이책은원래의저술의도

³⁵ 路哲, 앞의책 44면.

³⁶ 嵯峨隆『近代中國の革命幻影—劉師培の思想と生涯』, 研文出版 1996, 241~42면.

³⁷ 小松隆二『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青木書店 1972, 23~62면.

³⁸ 『近世無政府主義』는「大陸」「童子世界」「浙江潮」「國民日日報」「警鐘日報」등에부분번역되어실렸다. 장계(張繼)가번역한『無政府主義』(1903)와진랭(陳冷)이번역한『虛無黨』(1904)도이책을기초로만들었다고한다. 참고로중국에서최초로아나키즘학설을소개한것은마군무(馬君武, 필명獨立之個人)가번역한『俄羅斯大風潮』(廣智書局 1902)이다.

³⁹ 金一譯『自由血』, 東大陸圖書譯印局 1904, 序文 2면.

와달리중국인들에게허무당에대한동경과아나키즘에대한계몽효과를 불러왔다. 러시아와중국이모두전제군주국이라는유사한정치문화적환경이중국인에게더욱호소력이있었던듯싶다. 중국내급진주의자들이만든상해의「소보蘇報」나「경종일보警鐘日報」에는허무당관련기사들이적지않은데, 여기서는중국에서도허무당원의출현을기대하는바람과더불어허무당원이아나키스트와거의같은의미로쓰였다. 그런가닭에 1903년의소보안蘇報案을기점으로중국내에처음으로아나키즘이유행했다거나「경종일보」가중국아나키즘의원류의하나라는견해가있다.

행덕추수도일본사회에아나키즘을가장먼저소개한사람가운데하나이다. 그가출판한정치평론집『장광설長廣說』(1902)은모두 32 편의글이실려있는데, 그가운데〈무정부당의제조〉라는글에서아나키즘을 언급하고있다. 여기서행덕추수는“무정부주의가성행하는것은사람들이오늘날국가사회에대해절망했기때문이며, 전제정부가말로무정부주의의제조창”이라는유명한말을남겼는데, 이구절은한때사람들의입에 오르내렸다. 이책도출판되자마자같은해말상해상무인서관에서『광장설廣長說』이라는약간바뀐제목으로번역, 출판되었다. 당시그는아직아나키스트가아니었으며따라서중국인에게아나키즘을전파한것으로 알려진〈무정부당의제조〉라는글은실은테러리즘을소개한것이며, 그것도테러리즘자체보다는테러리스트가등장한사회적요인, 즉“국가사회에대한절망”에대해서였다.⁴⁰ 허무주의와아나키즘이혼합된것과유사한현상인것이다. 다음해행덕추수는명치시기최고의사회주의저작이라고평가받는『사회주의신수社會主義神髓』(1903)를펴냈다.

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가처음에는신선하게들렸는지모르지만, 이 용어는머지않아동아시아사회에서아나키즘에대한잘못된이미지를각인시켜적지않은문제를초래했다. 이번역어가널리유통되는과정에서아나키즘은테러리즘과허무주의와동일시되어원래의의미가심각하게왜곡되었을뿐만아니라, 일체의정부나조직을부정하는혼란과폭력의대명사가된것이다. 게다가무정부주의라는어휘에담긴부정적인이미지가그들의경쟁자에게쉽게이용되어불리하게작용하는경우가많았다. 그래서 무정부주의라는신조어가만들어진지오래지않아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사이에서는무강권주의無強權主義나무치주의無治主義같은새로운번역어로바꾸려는시도가있었다. 하지만한번통용된개념은쉽게바뀌지 않는법이다.⁴¹ 본래아나키스트는폭력과파괴를맹목적으로선호하지않는다. 오히려아나키스트가운데비폭력주의자들이많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지금까지도무정부주의와‘무정부상태’를동일시하는편견은아나키즘에대한가장잘못된오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20 세기에들어오면서일본은동아시아급진주의자의주요활동무대가되었다. 아시아각지에서유학생과망명객이모여들었는데, 특히동경은사상계가비교적개방되어서아시아의혁명가들에게피난처를제공하고있었다. 서양서적의상당수가이미일본어로번역되어있어서이들은번역서를통해자국에서는접하기어려운급진적인사조를자유로이얻을수있었다. 예들들어크로포트킨에관한정보는 19 세기말부터소개되었는데, 현재까지알려진바에따르면자유민권운동이한창이던시절에서하통철(西河通徹)이나궁기몽류(宮崎夢柳) 등이주관한「자유신문」에서크로포트킨이처음소개되었다고한다.⁴² 하지만이때까지만해도앞서언급했듯이허무당이나허무주의와뒤섞여소개되었다. 실제로일본사회에서크로포트킨사상을본격적으로수용한시기는프랑스의신세기파와비슷한것으로보인다.⁴³

아나키즘의전파와관련해프랑스와러시아의영향을강조하는견해와달리최근의한연구에서는필리핀의민족주의운동이아나키즘을비롯한유럽의급진적운동과쿠바를비롯한식민지의저항적민족주의가서로결합해진행되었다는주장과함께그런흐름이일본과중국에도전파되었다는견해가제기되었다. 필리핀의대표적인민족주의자호세리잘(Jose Rizal) 과이사벨로데로스레예스(Isabelo de los Reyes) 는일찍부터아나키즘과매우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으며, 특히스페인아나키스트나유럽에서의반제국주의선전및암살활동에영향을받았다고한다.⁴⁴ 이런 견해를받아들인다면적어도사상의전파에서다양한루트의가능성을얼어놓아야할것이다. 만일그렇다면당시일본이나중국의지식인들은세계정보가교차하는동경에서필리핀에서전해오는여러가지운동소식에영감을얻었을것이다.

⁴² 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編輯委員會『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 株式會社ぼる出版 2004, 233 면.

⁴³ 중국사회에처음으로크로포트킨이라는이름이소개된것은청말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에서편찬한『西國近事彙編續編』(1882)에서이다. 재일중국인아나키스트장계가 쓴『無政府主義』라는소책자에서도‘가락파도금哥樂波度金’이라는이름으로크로포트킨을소개한사례가보인다(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別冊), 綠陰書房 1994, 122 면).

⁴⁴ 필리핀의민족주의운동에아나키즘이영향력을발휘할수있었던것은아나키즘이민족주의에대해이론적편견을품지않은열린사상이기때문이라고한다(베네딕트앤더슨, 서지원옮김『세깃발아래에서 — 아나키즘과반식민주의적상상력』, 도서출판길 2009, 해제).

⁴⁰ 嵯峨隆, 앞의책 245~46 면.

⁴¹ 아나키즘이라는용어가‘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로오역되어말썽을일으킨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무정부주의란역사용어를쉽게폐기할수는없다. 왜냐하면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자체가생명력을얻어공정적이든부정적이든역사적작용을했기때문이다.

죽음은여전히의문의베일에싸여있다. 그가죽기직전 「민성」에기고한 글인 〈러시아동지 V. Stropani 가보내온편지〉의전문을읽기면아래와같다.

나는무정부주의에적극찬성하며, 나는무정부야말로진정한행복과자유를실현하는길이라고믿습니다. 그러나우리당이현재처해있는자본주의제도아래, 인류의이기적사상이이처럼견고하고지혜가이처럼결핍되어있는상황에서는아마도얼마동안은실현되기힘들것입니다. 무정부가우리의목적이기때문에이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는어쩔수없이각방면의운동에종사해야하고무수한곡절을겪어야하며결코단숨에도달할수는없을것입니다. 나는불세비키당원이기도한데, 불세비즘은우리의목적에도달하기위한첫번째단계에불과합니다. 중앙집권은결코목적이 아니며, 단지한때경과해야할단계일뿐입니다. 레닌역시무정부주의에반대하지않으며, 오히려그것이실현될수있다고굳게믿고있습니다. 만약무정부주의가일반인민에게선전하고깨우치는데에불과하고, 혁명하는데에적합하지않다면곤란합니다. 따라서우리들은무정부주의의성공을이루기위해어쩔수없이다른여러가지방법을사용해야합니다.

최근 (러시아) 공산당의선언은그들의목적이무정부주의와거의같다는것을보여줍니다. 그들이프롤레타리아독재를한가지방법으로받아들이는까닭은실제로러시아인민대다수의각오가부족하기때문입니다. 결국소수의사람에게운이따라주어정권을탈취할수있었다는이유만으로우리들은결코러시아혁명이잘못되었다고비판할수는없습니다. 그런데소수인이정권을장악하던사람의손에서권력을빼앗고산업을소유했기때문에매우쉽게다시금새로운자본가들이등장할위험을가지고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는혁명의방법에대하여우선대다수인민의공감을얻어야합니다. 비밀기관을조직하여혁명과제를실행하는것은무정부당도찬성하는데, 예를들어바쿠닌의‘공민회公民會’가그런것입니다. 그러나무정부당이추구하는목표는반드시지방별직업별로자치의전권을얻어각지방과개인정신이자유로운발전을얻어일종의자유연합사회조직을건설하는것이므로, 중앙집권적국가에는반대합니다. 이것이무정부주의와불세비즘의가장큰차이점입니다.⁷¹

위의기고문은언뜻읽어보면아나키즘과불세비즘의합작을주장하는것으로보인다. 작자는“아나키즘을적극찬성”하지만현실적으로아나키즘적이상사회가곧장실현될수없기때문에“불세비즘을우리의목적에도달하기위한첫번째단계”로생각해받아들였다고한다. 그리고레닌정권은아나키즘과적대적이지않으며, 그들의프롤레타리아독재는러시아의불가피한상황때문에출현한것이라고수증한다. 게다가“소수인이정권을장악하던사람의손에서권력을빼앗았기때문에매우쉽게다시금새로

社會民主黨으로개명 (1925년 1월) 하면서이런저런강령과정책들을제시했지만, 중국공산당이창당되어아나키스트와경쟁하며세력을확산하는상황에서그의말은더이상호소력이없었다. 게다가북경정변에따른선후회의善後會議 (1924년 10월) 와관련된다든지, 이른바갑자복벽甲子復辟 (1925년 8월) 의추문에연루되면서정객으로낙인찍혔다.

2. 사복과민성과

언행일치의혁명가, 사복

사복의본래이름은유소빈 (劉紹彬) 이다. 민족주의자시절에는만주족을타도하고광복을생각한다는의미에서유사복 (劉思復) 으로개명했고, 아나키스트시절에는봉건적가족주의를반대한다는의미에서아예성씨를없애고사복으로개명했다. 이처럼그의이름이 바뀌는과정은사상의변화과정과일치한다.²⁰ 광동향산출신으로어린시절전통학문을공부했으며 15세때수재가되었다. 그러나과거를통해관리가되는것에대해혐오감을가졌던그는과거의길을포기하고사회활동에참가해 1901년고향에서연설사라는단체를만들었다. 유학시절러시아허무주의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이며, 암살활동에매료되어러시아인으로부터폭탄제조기술을배웠다고전한다. 사복은귀국한지오래지않아고향에서여자학교를세워교육운동을전개했다. 당시진보적지식인들이여성운동에관심가지는것은흔한현상이었다. 1907년에는청조의고위관리이준 (李准) 을암살할것을계획했다. 그는폭탄을제작하던중실수로폭약이터져왼쪽손이절단되는큰부상을입고체포되어향산감옥에수감되었다.

사복은감옥에서불교관련서적과아나키즘잡지들을읽었다.²¹ 하지만그의의식에는강렬한민족주의열망이충만해여전히배만혁명론자가 가까웠다. 옥중생활가운데여러편의글을 썼으며, 「향산소보香山旬報」를창간하는데일조했다. 이신문에투고한글을보면강렬한남녀평등과도덕의식, 불교에대한심취와유학에대한불만, 문자학과사회학에대한관심등을읽을수있다. 사복은철저한남녀평등론자라고말할수있었다. 예를들어〈조자造字시대의남녀평등관〉이나〈불교의남녀평등관〉에서는문자학과불교지식을활용해남존여비의봉건사상과봉건예교때문에

²⁰ 사복에관한대표적인연구로는 Edward S. Krebs, Shifu, Soul of Chinese Anarchis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이있다. 여기서는사복의초기 암살활동이나불교에대한관심에서부터사후신문화운동에의명향까지구루다르고있다.

²¹ 文定 〈師復先生傳〉, 『師復文存』, 革新書局 1927 1~8 면.

⁷¹ 〈러시아동지 V. Stropani 가보내온편지〉, 「民聲」第 13 號, 1921. 4.

여성들이속박당하는것을비판하며남녀평등의정당성을역설했다.²² 특히사복이불교에관심을나타낸것은청말지식인들이불교에서사회적출로를찾던경향과관련있는듯하다.

출옥한후부터신해혁명전까지사복의주요활동은두가지였다. 하나는「신세기」에서선전하나키즘을연구한것이고, 다른하나는암살활동에적극참가한것이다.²³ 그는 1910년봄홍콩에서일체의강권을타도한다는명분으로지나암살단支那暗殺團을조직했다. 이무렵부터중국동맹회에서이탈해어나키즘의신념에따라행동하기시작했다. 이준저격사건(1911년 6월)과봉산(鳳山)장군폭살사건(1911년 9월)이일어나자, 이에자극받은사복도동료들과함께섭정왕재풍(載灃)을암살하기위해북경으로향했다. 상경도중에무창봉기가일어나고신해혁명이성공하자, 목표로삼았던전제정부가전복되었다고판단해암살활동을중지했다. 그는 1912년봄암살단을해체하고어나키즘을전파하는데주력했다.

신해혁명으로마침내청조가전복되자잠시동안관적인정서가지배했다. 아나키스트역시새롭게건립된공화정부를부정하기보다는일단신입하는태도를보였다. 그들은폭력행위를자제하고개인도덕의수양을통한새로운사회도덕의창출을추구했다. 1912년 2월구신세기파의오치휘와이석증(李石曾), 저민의(褚民誼), 장정강(張靜江) 등은해외로부터귀국한후오랜동지인채원배, 장계등과함께진덕회進德會나육불회六不會같은개인도덕을수양하는단체를조직했다. 이런활동이전형적인아나키스트의모습이라고단정하기에는약간무리가있었지만유럽의아나키스트들사이에도청교도적금융주의는널리퍼져있던전통이었고사복도이들에대한적극적인지지의사를밝혔다. 그리고자신도 1912년 7월광주에서뜻을같이하는동료들과함께진덕회와유사한심사心社라는단체를조직했다. 그는구신세기파의도덕계몽운동에동참하면서갓태어난공화정부에대해노골적인비판을제기하진않았다.

사복은 1912년 5월광주에서사회혁명을선전하기위해회명학사晦鳴學舍를만들었는데, 유석심(劉石心)과정피안(鄭皮岸), 정패강(鄭佩剛), 여창인(黎昌仁) 등이가입했다. 그들은함께노동하고함께학습하는공동생활을하면서어나키즘선전을자신들의사명으로삼았다. 이조

²² 師復〈造字時代之男女平等觀〉, 『香山旬報』 1908. 10; 〈佛教之男女平等觀〉, 『香山旬報』 1908. 10(張磊整理『師復集外文(一)』, 『中國哲學』第 12 輯, 1984, 507~508 면).

²³ 사복의혁명활동은동맹회시대(同盟會時代항산감옥수감시기), 지나혁명단시대(支那革命團時代, 출옥후암살활동을하던신해혁명시기), 민성시대(『民聲』時代, 암살단해산후『民聲』을통해어나키즘을선전하던시기) 등세시기로나누는견해가있다(石川洋〈師復と無政府主義—その理論と價值感を中心に〉, 『文學雜誌』第 102 卷第 8 號, 1993. 8, 143 면).

를제고해야한다. 오직공산당에가입해야다른조직은일절승인하지않겠다”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 이에충격을받은광주의유석심은상해의정패강에게편지를보냈는데, 정패강은답장에서“물을필요도없다. 전국이모두같은상황이다. 당신이공산당에가입하기를원하지않으면그만두라”고회신했다.⁶⁸ 광주의아나키스트들은결렬한전쟁끝에모임을떠났고, 「노동자」도정간되었다. 얼마후아나키스트와마르크스주의자간의협력이다시논의되었지만, 결국진독수의공산당에가입하든지 아니면합작을포기하라는주장과아나키스트의프롤레타리아독재반대주장이서로침에하게맞서양자의협상은결렬되었다.

1921년 3월에스토야노비치와베슬린이참가하고진독수와담평산, 담식당, 진공박을중심으로한광동공산주의소조(이하광동소조)가새롭게만들어졌다. 진독수의지원아래담평산이서기, 담식당이선전, 진공박이조직을담당했는데, 여기에다시상해소조의일부인원이내려와가담했다. 그해초상해소조의기관지였던「신청년」은프랑스조계의수사를받자광주로옮겨와진독수의거처에자리잡고있었다. 이때는보이팅스키일행이러시아로돌아간후여서진독수에게모든권력이주어진상태였다. 다시만들어진광동소조는유명무실화되었던광주사회주의청년단을재조직했다. 이무렵청년단의담평산은구성백, 양병헌등과수차례만나마르크스주의지도아래청년단을만들것을요구했다. 하지만청년단대표회의는결렬되었고아나키스트들은곧바로청년단에서탈퇴했다.⁶⁹ 이에따라광동사회주의청년단은 1921년봄에사실상해산되었다가 1922년 5월에야다시조직된다.

광주에서한치의양보없는양측의대립은상해, 북경등의분열로확대되어, 중국각지의아나-불합작은끝났으며따라서사회주의자동맹도차레로해산되었다.⁷⁰ 진독수의프롤레타리아독재조항을강요하는권위적이고강압적인태도가아나키스트의반감을가져와광주를시작으로전국적인사회주의자동맹의붕괴를가져온사실은분명하다. 하지만아나-불논쟁이시작되고사회주의자동맹이해체된시기는당시레닌정부가아나키스트를포함한기타의정치파벌에대한탄압을시작하던때와거의일치한다. 따라서단진독수개인성향때문에분열이일어났다고보기에는어려운측면이없지않다. 이와관련해특히 주목되는것은러시아공산당제 10 차대회(1921년 3월)에서불세비키가아나키스트와생디칼리스트의배격을최종결정한사실이다.

아나-불합작이분열되었을때, 상해에서에스페란토를전파하던러시아청년스테파니가돌연자살(혹은타살) 했다. 이아나르코불세비키의

⁶⁸ 劉石心, 앞의글 936 면.

⁶⁹ 唐宝林·林茂生編『陳獨秀年譜』, 上海人民出版社 1988, 147~48 면.

⁷⁰ 馬連儒, 앞의책 128 면.

다른마르크스주의자도코민적이나키스트보다는개인적(혹은중국식)이나키스트를비판하는경우가많았다. 적어도 1920 년말까지는중국식이나키즘의주류인코민적이나키스트를대상으로비판하는경우는드물었고, 비판의수준도그리심각하지는않았다. 그렇다면마르크스주의자와코민적이나키스트사이의아나-불논쟁이본격적으로펼쳐진때는언제일까?

중국의마르크스주의자들은상해소조이름으로「공산당」을창간(1920 년 11 월 7 일) 하고여기에〈중국공산당선언〉의초안을실었는데, 이를기점으로자신들의세력을결집하기시작했다. 얼마후장동손이「시사신보」에〈내륙여행에서얻은교훈〉이라는글을게재하여거대한인사회주의의길을제안하자, 이에반발한마르크스주의자들이길드사회주의를비판하는「사회주의논쟁」을개시했다. 곧이어광주법정학교에서있었던진독수의사회주의비평강연(1921 년 1 월 15 일)에서는과거의수준을넘어마르크스주의를제외한기타사회주의사조에칼을겨누었다. 이강연에서진독수는사회주의를아나키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조합주의, 길드사회주의등 5 개파별로나누어설명했다. 그중아나키스트에대해“비록무정부주의는몇가지파별로나눌수있으나, 각파의공통된핵심은개인혹은작은단체의절대자유를존중하는것”에있는데이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주의라고전제했다. 그들이경제분야에서현대적공업발전을주장하지만“통일된조직이강제력을사용해간섭조절하지않으면, 자연스레생산물이남거나혹은부족한폐단이나타난다”고지적하고, 정치분야에서도“사람에대한불간섭을주장하고근본적으로법률을폐지하자는것은큰착오”라고비판했다. 이런강연내용은아나키스트의강한불만을샀으며, 결국본격적인아나-불논쟁의도화선이되었다.

광주는과거사복이활동했던근거지이자중국식이나키즘의본부로인식되던곳이다. 따라서이곳에서진독수가아나키즘을비판했다는사실은그자체가이미중요한정치적의미를지니는것이였다. 진독수는북경대학의사제시간이자광둥출신인진공박과담평산, 담식당(譚植棠) 등을광주로불러들여「광둥군보廣東群報」를창간했는데, 바로이신문 1921 년 1 월 19 일자기사에광주법정학교의강연이실렸다. 그리고이강연내용이공개되자마자구성백이 1 월 22 일자같은신문에진독수에게편지를써서강연내용에의문을제기함으로써문제가불거지게되었다. 이처럼아나키스트와마르크스주의자의분열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대체로 1920 년말과 1921 년초사이의일이다. 알려진바와같이그후전개된아나-불논쟁은주로「프롤레타리아독재와마르크스주의국가론문제」개인의자유와당의기울문제*생산과분배문제’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진독수는광주의사회주의자들과가진모임에서, “다른지역의사회주의자동맹은모두취소되었고, 무정부주의또한무슨정당이아니다. 사상과행동의통일을위해반드시조직을통일시켜공산당을만들어사회주의

직은중국내에서아나키즘을전문적으로선전한최초의단체로, “몇년전에「신세기」에서뿌린종자가(마침내) 회명학사를통해가꾸어지고성장한것”²⁴이였다. 이때사복은본래의이름유사복에서성씨를없애고사복이라부르기시작했다. 당시가족주의와종족주의를반대하는의미에서성씨를폐지하는것은중국아나키스트의한가지특징이었는데, 민족국가의의상을버리고철두철미한아나키스트가되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회명학사와심사의성립은중국내아나키즘운동이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는표지였다. 이두단체의활동범위와임무는구별되는데, 전자가대외활동에비중을두었다면후자는개인의도덕수양에주력했다. 회명학사는(1) 공산주의, (2) 군국주의반대, (3) 생디칼리즘, (4) 종교주의반대, (5) 가족주의반대, (6) 채식주의, (7) 언어통일, (8) 만국대동²⁵ 등여덟가지강령을내세웠다. 이에비해심사는(1) 육식을하지않는다, (2) 음주를하지않는다, (3) 흡연을하지않는다, (4) 용역을부리지않는다, (5) 가마나인력거를타지않는다, (6) 결혼하지않는다, (7) 족성族姓을쓰지않는다, (8) 관리가되지않는다, (9) 의원이되지않는다, (10) 정당에가입하지않는다, (11) (해군과육군과같은) 군인이되지않는다, (12) 종교를믿지않는다²⁶ 등열두가지규약을제출했다. 이양자를비교하면종교주의와가족주의를반대하는것은공통적이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회명학사가성립한후부터「회명록晦鳴錄」이창간(1913 년 8 월) 될때까지 1 년여동안사복은주로「신세기」에연재된글들을모아앰플릿을만들어출판하는일에종사했다. 회명학사에서펴낸『무정부주의명저총간』(1913 년 4 월)에는〈크로포트킨학설〉〈법률과강권〉〈청년에게고함〉〈질서〉등이실려있었다. 자칭철두철미한크로포트킨주의자를자부했던사복은“크로포트킨학설이야말로실로우리당의위대한경전”²⁷이라고극찬했다. 그는코민적이나키즘을“첫째, 경제상의자유로일체의자본세력의속박을벗어나공동노동의생산물을자유롭게취하는것이다. 둘째, 정치상의자유로정부의속박에서벗어나각종노동조합과단체를자유롭게조직하는것이다. 셋째, 도덕상의자유로종교의도덕속박에서벗어나의무와제재가없는자유에도달하고사회생활을호조의정신으로유지하는것이다”²⁸라고요약했다. 그리고아나키즘의도덕은‘노동’과‘호조’라는두단어로압축할수있다고했다.²⁹ 사복은「회명록」의제목을바꾸어「민성민聲」을발간했으며, 여기서크로포트킨사상을널리소개

²⁴ 師復〈致無政府社會黨萬國大會書〉, 「民聲」第 16 號, 1914. 6. 27.

²⁵ 師復〈編輯緒言〉, 「晦鳴錄」第 1 號, 1913. 8. 20.

²⁶ 師復等〈心社趣意書〉, 「社會世界」第 5 期, 1912. 11. 15.

²⁷ 師復〈克魯泡特金之爲人及其言論〉, 「民聲」第 8 號, 1914. 5. 2.

²⁸ 師復〈克魯泡特金無政府共產主義之要領〉, 「民聲」第 17 號, 1914. 7. 4.

²⁹ 上海無政府共產主義同志社〈無政府共產黨之目的與手段〉, 「民聲」第 19 號, 1914. 7. 18.

하면서, 동료양빙현(梁冰弦) 과함께 『빵의쟁취』를직접번역해몇차례 신기도했다. 이번역은그가말년에노동조합적이나키즘에관심을가지는 계기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민성과활동을보면아나키즘과에스페란토와의결합을다시한번확인 할수있다. 사복은에스페란토를보급하고아나키즘을선전하기위해광주 서관西關화림사華林寺안에평민공학(1912년여름)을만들면서세계 어야학을부설했다. 여기에는청년아나키스트구성백(區聲白) 과황존생(黃尊生), 정피안, 정패강등 60여명이학생으로참가했으며, 프랑스 에서유학하고돌아온허론박(許論博)이교수가되어가르쳤다. 그해가 을, 사복은허론박과함께광주동제東堤동원東園에서광주세계어학회를 만들었는데, 허론박이회장을사복이부회장을각각맡았다. 이단체회원 들은광주고등사범학당내세계어강습반을만드는등여러학교에서세계 어강습반을만들었다.³⁰ 사복은「회명록 La Krio de Koko」과「민성 La Voco de la Popolo」에별도로에스페란토란을두었다. 이잡지의 한회 16쪽가운데 4쪽가량이에스페란토로꾸며졌는데, 중국어는사복 이, 에스페란토는허론박이각각담당했다.³¹ 기사중에는에스페란토운 동을전세계의금주및채식운동과함께소개한것이적지않다.

사복이에스페란토를주목한까닭은다른아나키스트처럼국제주의정 신에따라언어의통일을희망해서였겠지만, 다른한편으론에스페란토를 이용해전세계에중국사회의실상을알리고자한목적도있었다. 실제로사 복과그의동료들은에스페란토기사를통해세계혁명소식을꾸준히중국 에소개하는한편, 자신들의활동도에스페란토로번역해해외로발송했 다. 그리고에스페란토의역사와문학, 단체를간략히소개하거나각국의 에스페란토단체와잡지교환상황을알리는글들을실었다. 사복이쓴〈세 계어와무정부당〉은영국아나키즘잡지에실린글을일부번역한것이다. 여기서“세계어를사회당이아무정부당이제창하므로세계어를공부하 는것은문제가있지않은가”혹은“세계어의목표는평화이나무정부당의 목표는파괴이므로서로융합할수없지않은가”라는한중국인의질문을게 재하면서에스페란토는국제간의교류에편리하며중립적인문자이므로 배우는데두려움을가질필요는없고, 아나키스트도평화를추구하는사람 들이라는사실을설명했다.³²

사복은원세계정권의탄압을피해이곳저곳을전전하다가 1814년 7 월상해프랑스조계의한사무실에세계어강습소라는간판을내걸고아나 키즘활동을재개했다. 이때만들어진단체가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無政 府共産主義同志師이다. 이조직은국내아나키스트와의연락은물론외

「신청년」은 1920년 9월부터상해소조의기관물이되었다. 일반적 으로진독수가여기에실은〈정치를말한다〉(8권 1호, 1920년 9월 1 일)라는글이나나키즘을공개비판한이나-불논쟁의서막으로본다. 이글 에서그는정치를말하지않는세계의집단, 즉학계(호적, 장동손등), 상 계(상해등지의상인집단), 무정부당을지목하면서문제를제기했다. 진 독수는앞의두집단은단지현실정치문제로부터도피한이탈자로보았으 나, 아나키스트에대해서는본래일체의정부조직을타도하는것을목적으 로하는집단이라고따로구분했다.⁶⁵ 그는여기서국가·정부·법률을단번 에폐지할수없으며, 현실적으로노동자가권력을집권하는과정이필요하 다면서아나키즘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했다.

〈정치를말한다〉가발표된지얼마지나지않아정현중(필명鄭太朴) 이이글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편지를「신청년」에연재하면서논쟁이 시작되었다. 정현중은주검지와함께「분투」에서불세비즘에대해공개 적인비판을한인물이기도하며, 진독수가자신의글에서‘중국식무정부주 의’의대표인물로지목한사람이기도하다. 그는편지에서중국인에게는중 앙집권적정치조직이적합하지않으며, 중국사회에서는프롤레타리아독 재를실행할수없다고주장했다. 그가주로비판한것은‘당의건설’또는‘당 의독재’보다이런조직을추구하는‘주의’와‘목적’에집중되었다. 정현중은 자신이주장한중국식아나키즘이란중국사회와중국인의정서에걸맞은 것으로, 서양이론을추종하는크로포트킨·바쿠닌·프루동주의자와는다 른것이라고주장했다.⁶⁶ 이에대응해진독수는「신청년」에〈국가·정치· 법률〉〈노동전쟁〉등과같은글들을잇달아연재했고, 이에만족하지않 고다시〈중국식무정부주의〉〈하품下品の무정부당〉등의글을써서자 신의논제에대한비판의강도를높여갔다.

그런데진독수가이번논쟁에서비판하고자한직접적인대상은코민적 아나키스트라기보다는개인적아나키스트(혹은중국식아나키스트)였 다는사실은별로알려져있지않다. 그가표적으로삼은사람은정현중을포 함해「분투」의주검지, 「자유」의경매구⁶⁷ 등이었다. 진독수의논에는 주검지가우주혁명을운운하며자살과자유연애를주장한다든지, 경매구 가노자와장자를운운하며허무주의를선전하는것이청년들을타락시키 는행위로보였다. 특히중국식무정부주의를운운하는것은그가가장혐오 하던전통문화의부활로비쳐졌다. 진독수가분노한것은개인적아나키스 트들이자신이주도하던신문운동의민주와과학이라는계몽운동을전 면적으로부정한것은물론, 최근에자신이받아들인마르크스주의나러시 아의불세비키혁명에대해서조차비난을퍼부었기때문으로보인다. 사실

³⁰ 王炎〈無政府主義與世界語〉, 『廣州文史資料』第5輯, 1962, 547~48면.

³¹ 侯志平『世界語運動在中國』, 中國世界語出版社 1985, 24면.

³² 師復案語〈世界語與無政府黨〉, 「民聲」, 1914. 4.

⁶⁵ 陳獨秀〈談政治〉, 「新青年」第8卷第1號, 1920. 9. 1.

⁶⁶ 鄭賢宗〈國家·政治·法律〉, 「新青年」第8卷第3號, 1920. 11. 1.

⁶⁷ 경매구는신해혁명이전부터아나키즘활동을한인물로, 5·4운동시기에슈티르너 의영향아래개인의절대자유를노자와장자의전통사상과결합했다.

이전에는아나키즘을공산주의와동일어로, 마르크스주의를집산주의의 동의어로이해하는경향이있었던사실을상기할필요가있다. 그리고 「신청년」의 〈마르크스연구〉 특집호(6권 5호, 1919년 5월)에게재한 〈마르크스학설의비평〉에서다시한번프롤레타리아독재는물론인여가치설, 유물사관, 변증법등에대해개괄적인비평을전개했다. 그밖에광주에서출판되는 「민풍」 등에도마르크스주의를공격하는글들이보인다. 이렇게사복의뒤를잇는구성백과황릉상, 양병현등코민적아나키스트들은크로포트킨의관점에근거해마르크스주의의문제점을지적했지만, 아나-불논쟁이개시되기전까지그들의비판은원론적인수준에머물렀다.

그런데아나-불논쟁이시작되기전부터마르크스주의, 특히러시아불세비즘에대해집중적으로비난을퍼부은그룹이있었다. 중국아나키스트의비주류라고할수있는이른바개인적(허무적) 아나키스트가바로그들이다. 대표인물인주겸지(朱兼之)는 『현대사조비평』(1920년 1월)이라는책에서마르크스-레닌주의를변형된국가주의이며, 과거의화석이라고몰아붙였다. 그는마르크스주의가과학이라는주장에대해과학은혁명과대립한다는독특한관점으로반론을제기했다. 과학의시대이미끝났으며, 과학역시하나의권위에불과하다는것이다. 그리고혁명은과괴이지만과학은건설이며, 혁명은사상의절대자유를주장하지만과학은나날이보수화된다고지적했다. 그는혁명이란본능의충동이라고믿었으며, 과학은그런욕망을충분히채워주지못한다고도주장했다. 이런비판은마르크스주의나불세비즘은물론호적(胡適)의실용주의나심지어코민적아나키즘에도적용되었다. 주겸지는허무주의철학이야말로과학주의에기초한혁명론보다더욱진보적이라는독특한주장을 폈다.

주겸지는북경대학동료인역가월(易家鉞), 곽몽량(郭夢良) 등과함께 「분투」(1920년초창간)를창간하여러시아혁명과불세비즘에대해집중적으로비판했다. 이들분투파는 「분투」제 2호에이미 〈우리들은‘불세비키’를반대한다〉를실어불세비즘을공격하기시작했다. 그리고 「분투」제 8~9 합호를아예‘불세비키반대특집호’라는제목으로간행해당시불세비키혁명에호기심을가졌던대다수사회주의자들과는달리대담한비판을마다하지않았다. 그들은 〈불세비키와세계평화〉 〈왜불세비키를반대하는가〉 등의글을통해러시아 10월혁명은불철저한혁명이며, 불철저한혁명은개량과다름없으므로부정해야한다고선언했다. 분투파가제기한이른바분투주의는과학과혁명, 과학과철학을대립관계로설정해불세비즘과코민적아나키즘을모두부정했다. 이들의비판은코민적아나키스트인황릉상을자극해서로논쟁을벌이기도했다.⁶⁴

⁶⁴ 참고 〈중국 5·4 운동시기아나키즘 — 불세비즘논쟁〉, 「역사비평」 2000 가을, 330~31면.

국과도교류를시도했다. 대표적인사례로세계무정부당만국대회(1914년 8~9월)가런던에서개최되자사복은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명의로만국대회에편지를보냈다. 여기서는중국에서의아나키즘현황을설명하고, 대회에서다섯가지건의안을제출했다. 즉 (1) 만국기관을조직할것, (2) 동아시아에의전파에주목할것, (3) 노동단체와연계하여운동을진행할것, (4) 세계적규모의총파업을할것, (5) 에스페란토를채용할것등이그것이다. 그의활동은해외아나키스트의주목을받아크로포트킨과프클뤼, 골드만, 대삼영등으로부터편지가왔다고한다. 이와같은사복의국제교류에대한관심은주목할만하지만, 기본적으로그는중국의현실을감안해국내에서의아나키즘선전에주력했다.

제 1차세계대전이일어나자크로포트킨을비롯한르클뤼와그라브등은아나키즘의반전주의의원칙을버리고영국과프랑스, 러시아의연합국을지지했으며독일과오스트리아의동맹국을비판했다. 독일의군국주의가유럽의사회운동을위협한다는이유에서였다. 이에대해말라테스타를비롯한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은그들이전쟁의정당성을인정한사실을비난하고나서며나뉘었다. 본래아나키스트에게전쟁이란자본가들이권력과이권을위해대중을충알받이로삼은행위로인식되었다. 그렇다면중국의아나키스트는어떤태도를취했을까? 원세개정권의탄압을피해마침유럽에망명해있던구신세기파는크로포트킨의입장을지지했는데, 이사실은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얼마나크로포트킨주의에충실했는가를잘보여준다. 사복의경우는어떠했을까? 그가쓴마지막글에는크로포트킨의연합국지지에대해다소당혹스러운모습을보이며유보적인태도를취했다. 하지만그의갑작스러운죽음으로최종적인입장을알수없다. 요컨대사복의가장뚜렷한특징이라면생각과행동이일치하는비타협적인혁명가라는점이다. 이런사실은그를둘러싼몇차례의논쟁에서도잘나타난다.

사복을둘러싼아나키즘논쟁

중국사회당이분열되었을때, 사감은사복에게새롭게만들어질사회당에가입할것을희망한적이있었다. 이때사복은완곡하게사양하면서도중국사회주의운동이유아기이므로사회주의자들이어느파벌에속하든자신은그들을변호할것이며, 상대방을비난하는행위는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 그러던사복이오치휘가정치에접근하고장계가의회에진출하자큰충격을받고태도가돌변했다. 그는장계와오치휘에게각각편지를보내아나키스트가정치에참가한사실을비판했으며, 오치휘가장계를변호하

는 글을 발표하자 곧 두 사람 사이에서 공개편지의 형식을 빌려 논쟁이 일어났다.³³

오치휘와 이석증의 중화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원론에 충실한 젊은 아나키스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들 혈기왕성한 아나키스트로서는 도덕계몽 운동이나 유학을 통한 인재의 양성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목표를 성취하기에 턱없이 부족해보였다. 사복은 일찍이 “우리는 오치휘 선생이 무정부주의의 선봉장으로 무정부주의를 선전하길 기다렸으나 평담을 일삼고 적극적인 고취를 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³⁴고 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었다. 그는 진덕회나 유법검학회 留法儉學會 같은 소극적 운동만으로는 아나키즘의 이상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구신세기파 아나키스트와 논쟁하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은 청말 일본과 프랑스에서 아나키스트로 활동하던 장계가 정계에 진출한 사건 때문이었다.

신해혁명 시기 누구보다 과격한 혁명파의 한 사람이었고, 민족초진덕회의 발기인이자 유법검학회를 지원하던 장계가 정치에 참여한 배경에는 원세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그는 아나키즘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어서 중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장계가 참의원에 참가하여 의장으로 취임하자 이 사건은 곧바로 사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장계에 게보낸 글에서 “무정부주의는 정치라는 것이 사회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 신념으로 한다. 선생은 과거에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홀연히 정계에 투신한 것은 과거의 사상을 버리고 변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선생은 진덕회의 발기인이자 병중 三種 회원으로 관리나 의원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지금 중화민국 참의원의장이 된 것은 결국 스스로 진덕회의 병중 회원 자격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³⁵

사복은 장계뿐만 아니라 오치휘에게도 편지를 보내 장계의 정치 참여를 비판했다. 여기서 “장계가 참의원에 참가해 의장으로 취임한 것은 아나키즘의 뜻에 배치되며 진덕회의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장계 선생은 곧바로 참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 아나키스트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변절했으니 스스로 진덕회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동지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치휘가 장계에 참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했다.³⁶ 이런 사복의 비판에 대해 장계를 대신해 오치휘가 그를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정치 참여를 둘러싼 아나키스트 진영 내부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논쟁은 사복의 질의서신에 대한 오치휘의 답장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회명록」에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³³ 師復〈致吳稚暉書〉；〈再致吳稚暉書〉；〈致張繼書〉，『師復文存』，革新書局 1927，131~38 면.

³⁴ 師復〈答道一書〉，『民聲』第 3 號，1913. 12. 20.

³⁵ 師復〈再致吳稚暉書〉（〈致張繼書〉），『晦鳴錄』第 2 號，1913. 8. 27.

³⁶ 師復〈再致吳稚暉書〉（〈致吳稚暉書〉），같은 책.

있다.⁶² 대체로 중공상해발기조, 지나공산당, 동방공산당 東方共產黨은 별개의 조직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자동맹은 중공상해발기조는 물론 지나공산당의 뿌리인 진(리) 사, 진화사 등의 아나키스트가 참가한 연합조직이라고 한다. 대동당은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 후에 동방공산당으로 불리지만 같은 아나키스트 계열인 지나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였다. 사상적 유사성 말고도 대동당의 황개민과 오작빈 등은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유일 학생 구국단 단원이었는데, 지나공산당의 장목지도역시 같은 단원이었다. 이 두 단체는 모두 한인 사회주의자 혹은 아나키즘 경향이 강한 볼셰비키를 통해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호 교류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진독수의 중공상해발기조가 노동자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대동당원과 연락했다거나 군대에 침투하기 위해 진리사를 이용했다는 단편적인 사건들만 일부 확인될 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⁶³

3. 아나-불합작의 분열과 논쟁

아나-불분열의 과정

1920년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도 비록 시기는 조금 달라지만 모두 아나키즘-볼셰비즘 논쟁(이하 아나-불논쟁)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중국 사례에 제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공산당이 창립할 무렵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 간에는 논쟁이 벌어졌다. 중국 학계에서는 아나-불논쟁을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해하는데, 이 논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 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가 필요한 가등을 놓고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논쟁을 당사 黨史 위주의 역사 해석 방식에 따라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및 공산당의 창립 과정과 곧바로 연결하고자 하는 강한 지때문에 본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소홀했다는 점이다. 아나-불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보자.

아나-불합작 시기에 아나키스트가 마르크스주의자의 출현에 대해 우호적 태도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사복은 1914년 경에 마르크스주의를 집산 사회주의 혹은 국가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사복의 학생인 황릉상도 「진화」(1919년 2월)에서 사복의 관점이 이어받아 아나키즘을 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를 집산주의로 분류한 후, 마르크스주의는 국가 사회주의라는 시각에서 비판했다. 중국의 경우 1920년대

⁶² 같은 글 56면.

⁶³ 李丹陽·劉建一〈革命局辨析〉，『史學集刊』，2004. 3, 48면.

긴밀한관계를맺고있었고, 그의비서와재정부장도대동당당원이었다는 흥미로운기록이있다.⁵⁸ 그리고일본측정보에따르면대동당은“인도인, 조선인, 지나인, 일본인등모두 3 천인”이라고하는데, 아마도과장된수치이겠으나국제주의를지향한조직임에는분명하다.⁵⁹

지나공산당은여러아나키스트단체의연합으로알려져있다. 1918 년 천진에서강반약을중심으로진사眞社가만들어지고「신생명」이라는잡지를출간했다. 1919 년남양지역에서는진사라는같은이름의조직이만들어졌는데, 이것은중국의남북아나키스트들이연합해만든조직이었다. 그런데다시장주에서도진리사眞理社라는유명한이름의단체가만들어졌는데, 이진리사는전국각지에서진형명의사회주의실험에동참하고자모인아나키스트들이만든것이었다.⁶⁰ 이러한진(리)사가지나공산당의전신으로보인다. 한때「대한독립보」의기자를역임했던장목지는 1920 년 4 월장주에와서진형명통치하의교육국의고문이되었다. 앞서 언급한포타포프장군일행이장주에내려오는것도이때의일이다. 포타포프가장주에온목적은진형명을이용해동아시아사회주의자들의연합단체를만들고, 중국현지에공산당을건설하는것이었다. 이때만들어진공산당이아마도장목지가주도한지나공산당이아닐까싶다. 이미 1919 년 여름전국아나키스트단체가모여지나무정부공산당支那無政府共產黨을만들려는시도가있었으나실패했다고한다. 비록이때성립되지는못했으나그명칭이후에도쓰였을가능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 장목지가돌연장주에서상해로돌아온것도창당공작과관련이있어보이는데, 이즈음진형명의위탁으로상해에서신화학교내세계어학교가만들어졌다.⁶¹ 장목지는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의외곽조직이었던신화학교에서활동하던육식해, 스테파니등과함께활동했다.

대체로지나공산당은상해·복건·남양일대에서활동한아나키스트와에스페란토주의자가만든것으로추측된다. 그리고장목지를중심으로한일련의움직임이곧지나공산당의활동일것이다. 육식해와스테파니등은상해혁명국(중공상해발기조) 과사회주의자동맹소속의우신인쇄소를통해아나키즘과에스페란토관련서적들을출판하고있었다. 한편사회주의청년단의대표인물유수송도아나키즘에공감하고있던인물로아나키즘과불세비즘의합작을추구하고있었고역시에스페란토를배운적이있었다. 이처럼각단체들간의복잡한관계는지금도풀기어려운난제로남아

⁵⁸ 〈波塔波夫給契切林的報告〉, 모스크바 1920 년 12 월 12 일.
⁵⁹ 시존통의진술에따르면, “상해의공산당은두가지가있었다. 하나는진독수가창건한것으로순수한마르크스주의를신봉했고, 다른하나는황개민파가조직한것으로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가혼합된것이다”(石川禎浩, 앞의책 123 면재인용).
⁶⁰ 李丹陽, 앞의글 44~51 면.
⁶¹ 李丹陽, 앞의글 63 면.

오치휘는답장에서“민국은만청정부와는달리공공의것이다”라는전제아래난동과파괴가없는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현재의국가체제를안정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³⁷ 공화제에대해서는비교적좋은제도이며사회발전이있어서반드시거쳐야할단계라고언급했다. 그는단도직입적으로민국의정치에는정당이필요하다고말했다. “정치나정당이미래에자연스럽게소멸되더라도현재의과도기적인단계에서는불가피하게필요하다”³⁸는것이다. 이처럼오치휘는정당을정부가존재하는시대의필요악으로해석하여아나키즘의사상적순수성을유지하는동시에정당활동허용문제를동시에해결하려고했다.³⁹ 사복은다음같은말로논쟁의마침표를찍었다.

최근반면적半面的사회주의를종게말하는자는왕왕정치의능력을벌어사회주의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말한다. 이러한거짓주장은사회주의의오점이기에족하다. 장계와오치휘는모두중국에서무정부주의를일찍이선전한사람들로수년간「신세기」에서전개한논지는격렬했다. 그러나장계는이미의원이되고오치휘도국민당의주변을맴돌며정당에날로접근하고있으니사회당·무정부당으로부터이탈하는것이다. … 무정부주를주장하는자가유정부의전투를주창하는것은사람을놀라게하는일이다. 기자(사복)는무정부를위하여비통을금할수없다.⁴⁰

사복과오치휘의논쟁에대해이석증은일절말이없었으며, 따라서비판대상이되지않았다. 이석증은손문의프랑스공사직요청을거절하고이른바관직에나가지않는‘불관주의不官主義’원칙을고수하고있었다. 그래서인지이석증과사복사이에오고간서신은주요운동의실천방식에관한의견을교환한것이었다. 이석증은사복에게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노동조합을성급하게조직하기보다는먼저노동자에대한교육에착수할것을충고했다.⁴¹ 사복은이에대해동의하면서이석증을선구적아나키스트로높이평가하고“선생(이석증)은최근과학교육과주의선전을하는데노력한다”⁴²고우호적으로소개했다.

구신세기파아나키스트들이정치참여한것에크게실망한사복은이전의온건한모습을버리고중국사회당에대해서도공격적인태도를취했다. 사복은강항호의사회주의정책에대해신랄하게비판했는데,⁴³ 중국사회

³⁷ 吳稚暉〈書某報短評後〉, 「民立報」1912. 6. 24.
³⁸ 吳稚暉〈致江亢虎討論政黨函〉, 같은곳.
³⁹ 吳稚暉〈續政府問題〉, 「民立報」1912. 7. 26.
⁴⁰ 師復〈再致吳稚暉書〉, 「晦鳴錄」第2號, 1913. 8. 27.
⁴¹ 李石曾〈眞民先生與師復書〉, 「民聲」第5號, 1914. 4. 11.
⁴² 師復〈眞民先生與師復書〉(師復附識), 「民聲」第5號, 1914. 4. 11.
⁴³ 師復〈孫逸仙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第6號, 1914. 4. 18. 〈答江亢虎〉, 「民聲」第8號, 1914. 5. 2; 〈論社會黨〉, 「民聲」第9號, 1914. 5. 9; 〈驗江亢虎〉, 「民聲」第15號, 1914. 6. 15; 〈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第17號, 1914. 7. 4 참조.

당이 토지와 자본의 국유를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정치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토지세만을 징수하겠다는 정책도 단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개량적인 수단이지 혁명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나아가 중국 사회당의 여덟 가지 당의 강령역시 사회 정책에 불과하지 사회주의 정책은 아니라고 문제 삼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제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손문을 추종하는 국가 사회주의자에게도 향해졌다. 사복은 손문의 민생주의가 국가 권력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해, “손문이 말하는 국유화 정책을 사회주의라 한다면 청 조 정부와 원 세 개 정부의 국유화 정책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⁴⁴ 그의 비판은 사회당 내 아나키스트 조차 사회주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민성」에는 사회당원의 질문과 사복의 답변 형식으로 사회당원의 사회주의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는 기사가 있다. 한 예로 사복과 태허(필명樂無) 간의 사회주의 개념에 관한 편지 왕래를 들 수 있다. 태허가 무정부주의를 ‘무강권주의’라는 말로 바꾸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사복은 답장에서 사회당의 명칭 문제를 화제로 삼았다. 여기서 그는 사회주의는 사회에 대한 학설이 정치에 대한 학설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학설은 아니키즘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회당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지금의 사회당이 일반 정당과 유사한 정강과 조직을 가진 것은 잘못되었으며, 지도자 중심의 당 운영은 적절하지 않고, 사회당 강령의 세부적인 내용에 모순이 많다면 서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허는 사회란 “가족 이상, 국가 이하”의 조직으로, 사회당원이 주장하는 무정부의 목표는 국가를 폐지하는 것이며, 공산의 목표는 가족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복은 즉각 반론을 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가 성립한 이후에 가족과 국가가 출현하므로 가족과 사회, 국가라는 세 가지 개념은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복은 사회당이 아나키즘을 전통 사상과 결합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⁴⁵ 당시 중국인 가운데 사회주의 이론에 가장 정통해 있던 사복의 지적은 비교적 예리한 것이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다. 그가 중국 사회당이 사회당에 대해 비판할 때 기본적으로는 동류이파(同類異派)의 우호적인 관점을 취했지만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사복이 구신세기파 아나키스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아나키즘의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여 중화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가 정치와 권력을 거부하고 더욱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⁴⁴ 師復〈孫逸仙江亢虎之社會主義〉, 「民聲」第 6 號, 1914. 4. 18.
⁴⁵ 師復〈答樂無〉, 「民聲」第 7 號, 1914. 4. 25; 〈答樂無(續)〉, 「民聲」第 9 號, 1914. 5. 9; 〈答樂無〉, 「民聲」第 13 號, 1914. 6. 6; 〈答樂無(續)〉, 「民聲」第 15 號, 1914. 6. 20 참조.

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1916 년 봄 동경의 한 중국 음식점에 모여 신아동맹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상부상조하며, 민족 내부의 평등 및 국가 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조직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으로 알려진 한인사회당보다 빨리 조직되었으나 선과 중국, 대만 3 개국 연합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아시아의 이름을 걸고 출현한 급진주의자의 국제적 조직으로 1900 년대에 아주 친화회가 있었다면 1910 년대에는 바로 신아동맹당이 있었던 것이다. 신아동맹당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 상해로 근거지를 옮겨 1916 년에 바로 대동당을 조직했다. 따라서 대동당은 신아동맹당이 중국에서 재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중국과 인도, 대만,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연대를 추구했으며, 그 핵심 멤버인 황개민은 조선의 독립 운동가 와도 친분이 깊었다.⁵⁴ 신아동맹당 조선지부는 1920 년 6 월 서울에서 사회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황개민은 청년 시절 신해혁명에 참가한 후 일본 동경으로 유학했다. 이 때 신아동맹당 결성에 참여해 한인 유학생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1918 년 귀국해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 1919 년에는 중화공업 협회 中華工業協會와 중화전국 공계 협진회 中華全國工界協進會를 발기했고, 노동자들과 함께 5·4 운동에도 참가했다. 그의 동료인 요작빈(姚作賓)은 중화 전국 학생 연합회 中華全國學生聯合會의 대표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건너가 러시아 공산당과 중국의 학생 운동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했던 학생 운동의 지도자였다.⁵⁵ 그들은 자칭 아나키스트로 한인 혁명가의 경제적 도움 아래 노동 단체를 매개로 대동당을 만들었다. 장국도의 회고에는 “중화공업 협회의 상무이사인 황개민이 현재 대동당이라는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는 중국 전체의 사회주의자와 연합하고, 조선의 혁명가와 합작하자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⁵⁶ 라고 기록했다.⁵⁷ 황개민과 요작빈은 보이틴스키 일행 이상해에 오기 전부터 재상해 러시아 혁명가들과 연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러시아 측 첩보에 따르면 손문은 대동당과

⁵⁴ 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일조각 2003, 151~54 면.
⁵⁵ 〈俄共(布)中央委員會西伯利亞局東方民族部就本部組織與活動向共產國際執行委員會的報告〉, 이르쿠츠크 1920 년 12 월 12 일.
⁵⁶ 張國燾, 앞의 책 82, 130 면.
⁵⁷ “(대동당의) 발기인인 황개민의 말에 따르면 대동당의 전신은 1915 년 7 월에 성립한 신아동맹당이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던 자신과 조선 유학생인 신익희(申翼熙), 장덕수(張德秀), 중국 유학생인 진기우(陳其右), 왕희천(王希天) 등이 함께 조직한 것이다. … 신아동맹회 성립 후 오래지 않아 그는 당의 중지를 실행하기 위해 일부 조선 유학생과 조선에 건너갔다. 여기서 조소앙(趙素昂) 등과 같은 조선 독립 인사 및 사회주의자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했다. (1920 년) 당시 신아동맹당 시기의 동지 신익희, 조소앙 등 조선 독립 운동지사는 임시 정부와 중한 호조사 中韓互助社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피압박 민족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동당 지도자의 한 사람인 황개민이 조선 독립 운동을 지지한 것은 사상적으로 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石川禎浩, 앞의 책 116~18 면).

그후광주에서구조직을대신할새로운공산주의소조를건립하는일이늦어졌다.

1921 년초 (대략 1~2 월쯤) 보이틴스키는귀국해업무를보고하라는 밀명을받아러시아로돌아가게되었다. 귀국도중보이틴스키는북경에들러이대조, 장국도등과몇차례만났다. 그런데그는원래출발했던러시아극동의블라디보스토크가아닌서쪽의 이르쿠츠크로갔다. 왜냐하면코민테른집행위원회가 1921 년 1 월경원동국을갓설치했으며, 이곳에서그를필요로했기때문이다. 그는코민테른원동국의서기를맡음으로서반년가량에걸친중국방문의사명을무사히마쳤다.⁵²

그런데보이틴스키가심혈을기울여만든상해의혁명국은얼마지나지않아소멸되었다. 이조직이사라진원인은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영도기구의조정과관련이있어보인다. 빌렌스키에따르면상해의동아서기처는원래부터임시기구였으며, 이르쿠츠크의원동서기처가동아시아사업을주도하면서상해의조직은사라졌다. 따라서동아서기처의하부조직인혁명국의운명도마찬가지였다. 이것은러시아정부가각기구의대중국정책과관련한정치투쟁의결과였다. 당시러시아공산당시베리아국과러시아공산당원동국, 당의성급위원회,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외교인민위원회등당정기구와코민테른기구가중국, 조선, 몽고혁명의주도권을놓고서로다투며비방했다. 그가운데시베리아국과원동국간의투쟁이가장격렬했다. 그런데상해의동아서기처가코민테른중앙의공식적인승인을받았는지의문의여지가있다.⁵³ 빌렌스키는코민테른제 2 차대회기간인 1920 년 7~8 월동아서기처를공식적으로승인해줄것을당중앙과코민테른에요청했으나, 코민테른은이들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 뿐만아니라빌렌스키와보이틴스키간에도창당방식을놓고사회주의세력의연합단체를만들것인가아니면순수한공산당을만들것인가에대해이견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상해지역에서는상해소조중심의중국공산당창립움직임이외에도아나키스트들이대거관여한또다른공산당창당움직임이있었다. 대동당大同黨과지나공산당支那共產黨이그것이다. 이조직들의동향을간단히소개하면아래와같다.

대동당의전신은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인데일본에서조직되었다. 이단체의결성이추진된것은 1915 년가을이었다. 당시일본유학생인김철수(金綴洙)와최익준(崔益俊), 하상행등은중국인유학생들과반제국주의운동을결의했다. 이들은동경의중국기독교청년회에서중국인황개민(黃介民), 나활(羅豁), 등결민, 대만인팽화영(彭華榮) 등과만났

⁵² 于俊道編著 <維經斯基>, 『中國革命中的共產國際人物』, 四川人民出版社 1986, 213 면.

⁵³ <威廉斯基 — 西北利亞科夫致共產國際執行委員會的信>, 모스크바 1920 년 9 월 1 일.

과정에서원세개의독재는물론손문의국민당이나강항호의중국사회당을비판한것이다.

사복은 1914 년무렵부터생디칼리슴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평소에도“무정부주의의도덕은노동과호조일뿐이며, 이두가지는모두인류의본능”⁴⁶이라고줄겨말했다. 이것은코민적어나키즘에생디칼리슴이결합하면서운동의새로운방향을 모색했음을 암시한다. 그는“코민적어나키즘을목표로, 생디칼리슴을수단으로”삼아광주에초보적인노동조합을만들기시작했다. 보통프랑스아나키즘운동사에서 1894 년부터 1914 년까지를혁명적생디칼리슴의시대라고말한다. 특히 20 세기에들어오면서개인적어나키즘이나테러리즘은소수파가되었고, 코민적어나키스트와노동조합적어나키스트가주류가되어서로경쟁하고있었는데, 그영향이 자본주의가조금씩발전하던중국에도도달한것이다.⁴⁷ 하지만제 1 차세계대전의발발은유럽아나키즘운동에심각한충격을주어많은조직들과잡지들이해체되고폐간되었다.

사복은 1915 년초폐병을얻어더이상활동할수없었고, 그해 3 월 27 일 31 세의젊은나이로사망했다. 그는병으로쓰러지기직전까지「민성」을편집하는일과에스페란토저작을번역하는일에매달렸다. 마지막유언이담긴 <사복군이마지막으로친구에게보낸편지> 중에는, “문명과학은본래부자들의전리품일뿐이다. 톨스토이가통탄해마지않는것도이때문이다. 현재‘민성’은위기를맞아어쩌면끝날지도모른다. 내가민성을 걱정하는것은병을걱정하는것보다더욱심하다. 아! 만약민성이어쩌면 다면, 나또한진실로폐결핵을치료할수없다면, 사복은장차무정부주의와함께중국의황토에묻힐뿐이다.”⁴⁸라고비장하게쓰고있다.

사복의제자황릉상(黃凌霜)은“선생의주의는어떠한주의인가? 간단히말하면무정부공산주의이다. 상세히말하면세계어주의이며종교주의에반대하는것이다”⁴⁹라고요약했다. 사복사후싱가포르에서활동하던양병헌과정패강이「민성」을이어받았으나 1916 년 11 월결국정간되었다. 하지만사복과그의학생들의헌신적인노력으로말미암아신문화운동시기이전에아나키즘은사회주의단체로서는중국에서거의유일하게독자적인세력을갖출수있었다. 사복의급진적인저작들은모택동을포함한중국의진보청년들에게영향을미쳤으며, 그의논조는진독수가창간한「신청년」에도반영되어다음시대를풍미하기에이른다.

⁴⁶ 上海無政府共產主義同志師 <無政府共產黨之目的與手段>, 「民聲」第 19 號, 1914. 7. 18.

⁴⁷ David Berry, A History of the French Anarchist Movement 1917 to 1945, AK Press 2009, 28 면.

⁴⁸ 「民聲」, 1915. 5. 5.

⁴⁹ 黃凌霜 <師復主義>, 「民聲」, 1919. 3.

사복의제자들과신문화운동

1910년대 후반북경이아나키즘의선전장이라면, 상해는아나키즘의신경중추에 해당하며, 광주는그실천의장이라고 말할수있다. 사복의민성파가광주와상해를중심으로활동하던중, 사복의갑작스러운죽음은잠시중국아나키즘운동을침체에빠뜨렸다. 상해에서다시 「노동(勞動)」(1918년 3월)이출판될때까지 3년동안청년아나키스트들은북상하여북경및천진으로학업이나취업의길을찾아나섰다. 그들이북상한배경에는구신세기파의오치휘와이석증등이원세개사후다시귀국해북경에자리잡고활동을재기했기때문이다. 특히채원배의북경대학교장취임(1917)은신문화운동의출발과더불어젊은아나키스트에게새로운활력의장을제공했다. 이시기의북경은중국아나키즘운동의새로운중심이었으며, 그가운데에서도북경대학은그중심의중심이었다.⁵⁰

채원배가북경대학에자리를잡자이석증을생물학교수로, 오치휘를학감으로초빙했다. 이들의영향력아래아나키즘은북경대학에서유행했는데, 사복의제자였던황릉상과구성백도북경대학학생이었다. 대학내에는구신세기파의진덕회나사복의심사의영향을받은또다른진덕회가발족되었다. 채원배는경사대학당시절의나쁜습관을타파하고개인의도덕을향상시킬목적으로이단체를만들고과거진덕회규약과유사하게갑·을·병세가지중류로계율을나눈뒤개인의사에따라참여하도록권장했다.⁵¹

북경대학내학생조직으로청년아나키스트를중심으로실사實社(1917년 5월)가조직되어부정기간행물「자유록自由錄」을출판했다. 이잡지의주요필자는새로운세대로분류될수있는황릉상과원진영(袁振英), 구성백, 화림등이었다. 이들은크로포트킨사상을기본이념으로삼았으며, 사복의민성파를이어받아“도덕을진보시키고지식을습득하는것”을목적으로삼았다.

실사의「자유록」은처음으로미국의여성아나키스트엠마골드만(Emma Goldman)의저작을중국사회에소개했다. 황릉상은〈애국주의〉〈무정부주의〉〈조직론〉같은글을번역했고, 원진영은〈결혼과연애〉와골드만의편지를번역게재했다. 본래골드만은해방대상여성으로만국한하지않고남성과여성 모두해방된사회에서살아야한다는전망을가지고있었다. 이런믿음을토대로가부장제와자본, 국가라는삼중의억압을뛰어넘는남녀협동의공동체사회를지향했다. 여성해방은단지

자신은공산당소조에가입한적이없으며, 공산당원이아니었다고분명히기록했다.⁵⁰

이아나키즘적공산당은사실상“어떤조직이나기울의속박을받지않는”단체였는데, 상해에서진독수가만든공산주의소조와는차이가있었다. 여기서공산당이라는용어는당시불세비키뿐만아니라아나키스트도자주사용했다는사실을기억할필요가있다. 보통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을코뮌적(=공산주의적)아나키즘이라고부르거나, 사복이아나키즘을공산주의로, 마르크스주의를집산주의로각각분류한것도같은맥락에서볼수있다. 어쨌든광주에온러시아인들이정보부족으로아나키스트와접촉했다는생각은잘못된것이다. 왜냐하면북경과상해처럼광주에서의활동은보이팅스키의중국방문목적과크게위배되지않기때문이다. 단지아나키스트조직에러시아공산당원이참여하는아나키즘적공산당이라는형태였던것은광주라는도시가원래아나키즘적성향이매우강했던 까닭이다. 이러한합작에변화가나타난것은진독수가상해에서광주로내려온다음의일이다.

1920년말광서성군벌을격파하고광주를점령한진형명은진독수를광주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초빙했다. 그의초빙을받아들인진독수는원진영과함께광주로내려와위원장을맡았다. 그리고정치적지위를이용해광주의진보인사들을만나마르크스주의를전파하는데힘썼다. 이즈음진독수는상해에서의경험을통해내심아나키스트와의협력관계를청산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보이팅스키가파견한스토야노비치일행이아나키스트에의해포위되었다고판단한진독수는 1920년겨울담평산(譚平山)과진공박(陳公博), 양병현, 구성백, 황준생, 유석심등이참석한가운데광주소조모임을주최했다. 그런데이모임에서회원간에격렬한의견대립이일어났다. 그결과초보적공산주의자들과아나키스트사이에넘지 못할골이생겼고, 그후자연스레러시아인들과광주아나키스트간의접촉역시소원해졌다.

상해에있던보이팅스키도 1920년 12월중순광주로내려왔다. 그는아나키스트와의갈등, 광주소조의건설, 손문과의회담, 진형명에대한담색등의문제를해결해중국혁명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려했다. 그런데보이팅스키는진독수와마찬가지로“비록공산당이조직되었으나공산당이라고부를뿐실은아나키즘적공산당”⁵¹이라고판단해광주소조모임에참석해기존의노동운동성과는높이평가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소조의구성원들에게프롤레타리아독재강령에찬성하라고요구했다. 이에대해대다수의성원들은거절했고, 결국조직은해산의길을걸을수밖에없었다.

⁵⁰ 路哲『中國無政府共產主義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90, 185 면.

⁵¹ 진덕회는갑중은기녀·도박·철을금지하고, 을중은앞의세가지이의예국회의원관리가되는것을금지하고, 병중은앞의다섯가지이의예술·담배·고기를금지했다.

⁵⁰ 〈譚祖蔭的回憶〉, 『共產主義小租』(下),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762 면; 〈劉石心的回憶〉, 같은책 722~23 면.

⁵¹ K. B. 세비노프 〈中國共產黨成立史〉, 「極東問題」第 4 期, 1980.

했다. 광주의아나키스트들은이미노동운동에도깊숙이참여해공인구락부工人俱樂部나공회工會조직등을만들어활동하고있었다.⁴⁸ 이곳에도 1920년 9월러시아공산당에서파견한밀사가나타난다. 보이틴스키가 파견한스토야노비치와사하야노바두명이천진에서광주로내려왔는데, 그들의임무는보이틴스키의상해활동과같았다. 즉공산주의소조의건립을돕는일, 지식인조직을건립해노동자와연계하는일, 아나키스트국민당원등다른혁명파의활동을돕는일이었다. 이들은북경에서이대조를통해아나키스트황릉상을소개받아함께내려왔으며, 곧광주에서러시아신문사지사를만들었다.

러시아인들이광주에내려와접촉한인물로는황존생(黃尊生) 과담조음(譚祖蔭), 유석심, 양빙현, 양일여(梁一余), 양우천(梁雨川), 구성백등이다. 그런데이들은모두아나키스트였다. 스토야노비치일행이 처음부터아나키스트와접촉한까닭은광주올때황릉상과함께내려왔기때문일것이다. 같은해 9월이들러시아인두명과중국인일곱명은광주공산당소조를만들었다. 그리고광주소조는앞서잡지언급했듯이「노동자」라는잡지를발행했는데, 유석심과양빙현, 양일여등이출판을담당하고, 러시아기자가경비를제공했다. 이잡지는사실상광주아나키스트의기관지로서프롤레타리아독재와계급투쟁에반대하면서전형적인크로포트킨주의혹은노동조합적아나키즘을선전했다. 「노동자」의편집자들은중국최초의노동잡지이자아나키스트잡지인「노동」에도참가한바있으며, 광주의하남협동화기창河南協同和器廠에공인구락부를세워활동하고있었다.

그런데광주소조구성원의한사람이었던유석심의회고에따르면, “(1920년가을) 그들은광주에서사회주의를찬성하는동지들을모아사회주의자동맹을조직했다. 당시천진과상해, 항주에도이런조직이있었다. 예를들어정패강은상해동맹의회원이며, 심중구(沈仲九)는항주동맹의발기인이었다”⁴⁹라고했다. 이회고에따르면광주는광주사회주의자동맹과같은단체임에의심의여지가없다. 아울러기록은아나키스트심중구의해항주에도사회주의자동맹이만들어졌다는새로운사실도알려준다. 그리고담조음의회고에따르면, 광주에온러시아인들은자신이접촉하는사람들이아나키스트라는사실을알고있었으며, 공산당을조직하는문제에대해서는전혀대화를나누지않았다고한다. 뿐만아니라

⁴⁸ 광주의노동운동에대해서는〈無政府主義者在廣州搞工會活動回憶〉, 中國人民大學中共黨史系教研室編『中國無政府主義資料選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2, 507~21면참조.

⁴⁹ 劉石心〈關於無政府主義活動點滴回憶〉,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936면.

여성만의과제가아니라사회적과제라는것이다.⁵² 그녀는중국의청년들과편지를주고받으며여성해방운동에큰영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 러시아혁명의실상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었다. 이잡지에는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조선과대만의독립운동가및일본사회주의자와연합해일본을견제해야한다는글도실려있다.

그리고주검지(朱謙之)와역가월(易家鉞)등을중심으로분투사奮鬪社라는조직이만들어져「분투奮鬪」(1920년 1월)를발간했는데, 이들은중국에서는독특하게도개인적아나키즘을선전했다. 이잡지는허무주의색채를띠며불세비즘과코민적아나키즘양자를모두비판했다. 또한주검지와황릉상, 구성백등에의해편집된「북경대학학생주간北京大學學生週刊」에는크로포트킨뿐만아니라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인막스슈티르너와관련된논문들도종중게재되었다. 아마도주검지라는열혈청년의영향때문이었을것이다. 같은시기북경에는호조단互助團같은아나키스트단체나「사회운동社會運動」같은아나키스트잡지도연이어출현했다.⁵³

얼마후실사는민성사民聲社와평사平社, 군사群社등다른아나키스트단체들과연합해진화사進化社를만들었다. 황릉상은진화사의기관지「진화進化」(1919년 1월)의창간사에서「신세기」에서언급한“Revolution(혁명)은 Re-Evolution(진화의연속)이다”라는표현을재인용하면서자신들잡지의정체성을소개했다.⁵⁴ 실사나진화사같은조직은신문화운동시기대표적인코민적아나키즘단체였다.

신문화운동이전개되면서북경의「자유록」「분투」「북경대학학생주간」「사회운동」말고도상해에서는「진화」「자유自由」, 광주에서는「민풍民風」「민성民聲」, 북경에서는「민성閩星」, 산서에서는「혁명조革命潮」「태평太平」, 사천에서는「반월간半月刊」, 천진에서는「신생명新生命」, 남경에서는「인군人群」등과같은아나키스트잡지들이쏟아져나왔다. 불완전한통계에따르면, 이시기에아나키즘선전잡지는 80 여종, 단체는 50 여개에다다랐다고한다.⁵⁵ 신문화운동시기는중국아나키스트가사회주의운동의주도권을가지고있던때로, “각파의사회주의사상이운데무정부주의가우세를점하고있었다”⁵⁶라는기록을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

⁵² 이윤희〈아나르코-페미니즘의이론적지평 — 엠마골드먼을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호, 2003, 271면.

⁵³ 魏定熙『北京大學與中國政治文化』, 北京大學出版社 1998, 161~62면.

⁵⁴ 黃凌霜〈本志宣言〉, 葛懋春·蔣俊·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上), 北京大學出版社 1984, 379~82면.

⁵⁵ 蔣俊·李興芝『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山東人民出版社 1991, 80면.

⁵⁶ 梁漱溟『憶往談舊錄』, 中國文史出版社 1987, 41면; 許德珩『五四運動回憶錄』(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212~13면; 張國燾『我的回憶』際 1卷, 東方出版社 1991, 40~41면참조.

당시시대의화두라면윤리에있어서의‘호조(상호부조)’, 인간의본능에있어서의‘노동’이라말할수있다. 사복이널리제창한호조와노동은진보적지식인이라면새로운사회를건설하기위해서반드시가져야하고실천해야할가치로인식된것이다.⁵⁷

중국사상계에서는제 1 차세계대전을사회진화론과상호부조론의대결로보는경향이있어서인지생존경쟁과상호부조의우열을가리는글들이많이쏟아져나왔다.⁵⁸ 구성백이「민풍」에호조론을다시소개한것을비롯해「북경대학학생주간」「학회學彙」「민중民鐘」등에여러차례번역문들이실렸으며,「자유록」「진화」등은공개적으로상호부조주의를자신들의중지로삼았다.⁵⁹ 이새로운진화론적해석은아나키스트를비롯한진보적청년들에게군벌정권과제국주의문제를넘어설수있는전망을제시해주었다. 이시기 주목할만한크로포트킨관련서적이라면천진이나키스트그룹진사眞社에서출판한『크로포트킨의사상』(1920)을들수있다.⁶⁰ 그가운데「호조론대강」은『호조론』의내용을 25 쪽분량으로요약한것이다. 경쟁과호조를비교해호조의우월성을여러차례강조한바있는황릉상은, 이책이말하고자하는것은우리가서로협력하면할수록완전한민주의목적에도달할수있다는사실이라고했다.⁶¹ 그는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반대해공산주의자와같음을일으켰지만한편으로는레닌의러시아혁명과크로포트킨의궁극적인목표는같다는주장도했다. 그밖에『크로포트킨의사상』에는크로포트킨의여러저서와논문들이부분번역되어실렸다.

신문화운동시기에호조라는개념은아나키스트뿐만아니라대부분의진보적인지식인들이받아들이고있었다. 예를들어채원배는크로포트킨의호조론을전통적중용과대동론을매개로수용하면서호조론을마르크스의계급투쟁론보다높이평가했다. 그는‘호조’란개념이이석증의번역

⁵⁷ 이석증의『互助論』이여러잡지에소개되어큰호응을불러일으켰는데, 본인도『互助論』의전반부네장을다시번역해「東方雜誌」第 16 卷第 5~10 號(1919 年 6~10 月)에연재했다.

⁵⁸ 대표적인글로는三無〈克魯泡特金主義之評論〉,「東方雜誌」第 17 卷第 12 號, 1920. 6. 25; 周建人〈生存競爭與互助〉,「新青年」第 8 卷第 2 號, 1920. 10. 1; 愈之〈克魯泡特金與無治主義〉,「東方雜誌」第 18 卷第 4 號, 1921. 2. 25 등이있다.

⁵⁹ 「自由錄」第 1 輯(1917 年 7 月)에는화림의〈與克魯泡特金氏相見記〉가실려있어이채로우며,「進化」第 1~3 卷(1919 年 1~3 月)은매호마다크로포트킨의저서와근황, 체포소식에대해전하고있다.

⁶⁰ 이책에는크로포트킨의초상화를포함해주요사상및저작에대한요점이고루소개되어있는데,〈克魯泡特金略傳〉〈克魯泡特金藝術觀〉〈克魯泡特金文學觀〉〈無政府黨的道德〉〈無政府主義及其發展的力士〉등의글을비롯해『빵의쟁취〉〈무정부공산주의〉〈임금제도〉『농장·공장·작업장〉〈현대과학과무정부주의〉『호조론』『청년에게오함』등의요약문이담겨있다(天津眞社『克魯泡特金의思想』, 1920, 72 면).

⁶¹ 兼生〈克魯泡特金的道德觀〉,「解放與改造」第 1 卷第 6 號, 1919. 11. 15.

어진배경에는보이팅스키일행의임무가운데하나인“모스크바동방대학에서공부할진보적인청년들을물색해서러시아로보낸다”는것과관련이있었다. 외국어학사의교장은양명재, 비서는유수송이였으며, 여기서중국인청년들에게주러시아어를가르쳐러시아유학을준비시켰다.⁴⁶ 양명재와보이팅스키부인쿠즈네조바가러시아어, 이달(李達)이일본어, 이한준이프랑스어, 원진영이영어, 한러시아신문기자가에스페란토어를담당했다. 외국어학사는사회주의를지향하는모든청년들에게개방되어외부로부터청년단원확충하는통로도도활용했는데, 주로개인적인네트워크를이용했다. 그런데여기서기억할점은에스페란토를가르친러시아신문기자가바로스테파니라는사실이다. 이대목에서우리는천진과북경에서러시아어를가르치며아나-불합작을주도하던폴레보이의역할과상해에서에스페란토를가르치며아나키스트와초보적공산주의자들사이를왕래하는스테파니의역할이서로유사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외국어학사는 1921 년볼러시아어교육을받은 20 여명의청년들을모스크바동방대학으로유학보냈다. 당시러시아는볼셰비키혁명의성공으로말미암아급진적인청년들에게는혁명에대한호기심과아울러선망대상이된곳이었다. 하지만유소기(劉少奇)와임필시(任弼時)같은공산주의성향의청년들만이러시아로유학간것은아니며, 아나키스트들도여럿있었다. 예를들어상해사회주의청년단에가입한포박(抱朴), 화림등과같은청년아나키스트는외국어학사에서러시아어를공부한후러시아로떠났다. 그런데그들은오히려혁명러시아의현실에실망해귀국후볼셰비키반대에앞장섰다.⁴⁷ 이학사는 1920 년말보이팅스키일행이광주로이동하자재정적어려움에봉착했으며 1921 년전반부터이미활동이부진해졌다. 게다가 1921 年 5·1 절행사에불온전단이부러진사건에연루되어프랑스조계경찰이외국어학사를조사하자결국학생들을해산하고문을닫았다. 이즈음사회주의청년단도외국어학과와마찬가지로활동이침체되어점차유명무실해졌다.

광주지역등

중국아나키즘운동의본거지인광주는민국초사복의활동이라아나키스트들이막강한세력을유지하고있었다. 1919 年여름북경대학의구성백(區聲白)과황릉상등이고향인광주로내려와「민풍」을창간해신문화운동을선전하고, 얼마후사복의죽음으로폐간되던「민성」을복간

⁴⁶ 외국어학사에대해서는華林〈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黨史資料叢刊」, 1980. 1, 43~45 면참조.

⁴⁷ 抱朴〈赤露旅行記〉; 華林〈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 玉川信明·坂井洋史·嵯峨隆編譯『中國アナキズム運動の回想』, 總和社 1992, 223, 246 면.

양자간의 차이는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청년단의 결성에 대해서도 회고록 가운데 초보적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창당과정의 하나로, 아나키스트들은 사회주의 자동맹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의 선전활동을 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상해소조나 사회주의 청년단의 선전활동을 위해 만들었다는 우신인쇄소의 경우 실은 아나키스트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패강이 상해로 와서 진독수를 만난 다음 서로 의기투합하자, 그는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함께 진독수의 일을 도왔다. 정패강은 진독수가 보이틴스키의 자금 지원으로 인쇄소를 차리려고 하자 광주의 민성사 인쇄기를 가져와 상해에 우신인쇄소를 세웠다. 그리고 인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처와 사복의 여동생인 유무등(劉無等)을 광주에서 데려와 직접 인쇄업무를 맡겼다. 이처럼 우신인쇄소는 사실상 아나키스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둘째, 우신인쇄소는 「신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간행물을 출판했는데,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 관련 서적들을 고무출판했다. 이달(李達) 주편의 「공산당」이나 진망도가 번역한 「공산당 선언」을 출판한 것 말고도 경매구 주편의 「자유」를 출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목지와 정패강이 관련한 「정보正報」라는 잡지와 상해 신화학교의 에스페란토 약학의 간행물인 「중화세계어월보 中華世界語月報」도 간행했다. 상해의 아나키스트와 초보적 공산주의자들이 1920년 5·1 절 행사에 함께 참여해 살포한 선전용 만화전단도 여기서 찍었다.

셋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속간행물도 아나키스트와 초보적 공산주의자의 합작품이었다. 상해에서는 진독수 주편의 「노동계 勞動界」(1920년 8월 15일)가 창간되어, 여기에 보이틴스키의 연설문이 실렸다.⁴³ 북경에서는 황릉상 주편의 「노동음 勞動音」(1920년 11월 7일)이 창간되었다. 진독수는 정패강과 원진영에게 편집을 담당하도록 했고, 이대조역시 황릉상과 진덕영에게 주편을 맡도록 했다. 광주에서도 「노동자 勞動者」(1920년 10월 3일)를 창간했는데, 양빙현(梁冰弦)과 유석심(劉石心)이 주편했다. 이 세 가지 잡지는 모두 아나키스트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노동자들에게 널리 환영받았다.⁴⁴ 정패강이 이 잡지들은 공산주의 소조가 아니라 모두 사회주의 자동맹의 잡지라고 회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⁴⁵

상해 사회주의 청년단은 주위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외국어 학사라는 간판을 달았다. 상해소조의 외곽단체라고 알려진 외국어 학사의 경우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나키즘의 한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사가 만들

과소개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⁶² 채원배의 호조론에 대한 가장 자세한 언급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촉발된 두강연, 즉 〈유럽전쟁과 철학〉(1918년 10월)과 〈암흑과 광명의 소장 消長〉(같은해 11월)에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암흑의 강권론이 소멸하고, 광명의 호조론이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왔으며, 이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톨스토이와 니체의 사상보다 크로포트킨의 호조론이 우월하며 진화론의 공리라고 평가했다.⁶³ 진독수와 이대조(李大鈞), 주작인(周作人), 모택동(毛澤東) 등 거의 모든 진보적인 인사의 글속에서도 『호조론』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호부조의 정신은 중국 초기 공산주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인 인민주의적 정신과 윤리 중심적인 경향에 기여했다.

중국 각지에서 호조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인 잡지들이 다수 등장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새로운 사상이 얼마나 광범한 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17년 10월 운대영(惲代英)이 조직한 호조사 互助社와 1920년 청년 아나키스트들이 창간한 「호조 互助」, 1920년대 초 중국인과 한인 유력인사들이 만든 중한호조사 中韓互助社 등의 명칭이 그렇다. 이즈음 중국 사회를 풍미했던 유법근공검학운동 留法勤工儉學運動과 공학운동 工學運動, 공독호조단 운동 工讀互助團運動, 신촌운동 新村運動 등도 호조의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호조 말고도 노동개념역시 크로포트킨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결합”이라는 사상에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 사상이 결합해 나타난 것이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거리를 마련해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생각은 중국인 청년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이것은 구신세기파와 사복의 민성과가 제창한 “노동 勞工과 노심 勞心의 차별 폐지” 혹은 “공공과학 學의 차별 철폐”라는 신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실제로 오치휘와 청년 아나키스트들이 창간한 「노동」(1918년 3월)에서 잡지 이름으로 노동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용어는 채원배의 교육철학에도 나타나 1918년의 노공신성 勞工神聖⁶⁴이라는 구호와 어울려 널리 유포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아래 오치휘와 이석증, 장정강, 오옥장(吳玉章) 등은 프랑스에 근공검학회 勤工儉學會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본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이었는데, 젊은 노동자에게 노동하며 공부하는 이른바 반공반독 半工半讀의 방법을 교육시키며 동시에 아나키즘 사상을 전파했다. 이석증

⁴³ 吳廷康 〈中國勞動者與農議會的俄國〉, 「勞動界」第 13 冊, 1920. 11. 7.

⁴⁴ 馬連儒, 앞의 책 126~27 면.

⁴⁵ 鄭佩剛, 앞의 글 957~60 면 참조.

⁶² 蔡元培 〈五十年來中國之哲學〉, 『最近五十年』, 申報館 1923.

⁶³ 蔡元培 〈歐戰與哲學〉, 「新青年」第 5 卷第 5 號, 1918. 11. 15; 蔡元培 〈黑暗與光明消長〉, 『蔡元培全集』第 3 卷, 204~18 면.

⁶⁴ 蔡元培 〈勞工神聖!〉, 「新青年」第 5 卷第 5 號, 1918. 11. 15.

등은 다시 화법교육회 華法教育會를 설립해 프랑스에 있던 중국인 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도와주었다. 이런 단체들은 파리에서 「여구잡지 旅歐雜誌」(1916년 창간)와 「화공잡지 華工雜誌」(1917년 창간)를 출판했는데, 모두 “노동과학의 결합”을 선전하는 잡지였다.

이석증은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채원배와 오옥장 등과 더욱 발전된 형태의 근공검학운동 勤工儉學運動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직된 유법근공검학회 留法勤工儉學會는 과거와 달리 주로 젊은 지식인 과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단체는 화법교육회와 함께 지식인 과학생들을 프랑스로 유학시켜 노동과학을 병행하게 하는 유명한 유법근공검학운동 留法勤工儉學運動을 전개했다. 근공검학회는 유법근공검학을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담당했고, 화법교육회는 유법근공검학회의 사무업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⁶⁵ 1919년 중국 내에는 10여 곳의 유법준비학교가 세워졌고 1920년에 이르러서는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유법근공검학회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석증과 오치회 등이 유법근공검학회를 통하여 근공검학운동을 추진한 것은 사복사후 강력한 구심점이 없었던 중국이나 키즘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고 실제로 많은 아나키스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⁶⁶ 유법근공검학운동은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유학운동으로 전형적인 아나키즘 운동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아나키즘의 이상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아나키스트들은 공학주의 운동과 공독호조단 운동, 신춘운동에 도 참가해 학생들에게 일과 공부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을 신성시하는 새로운 풍조를 일으켰다. 공학주의의 최초 주창자는 아나키스트 광호생(匡互生)이다. 그는 북경 사범고등학교에서 「공학 工學」(1919년 12월) 잡지를 창간해 헤르포트킨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결합”이나 톨스토이의 법노동주의를 실행했다. 이 운동은 근공검학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석증과 오치회, 채원배 등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공학회 회원들 모두가 아나키스트였던 것은 아니었다.⁶⁷ 같은 시기 왕광기(王光祈)도 <도시속의 새로운 생활>을 「북경신보 北京晨報」에 발표하면서 공독호조단 운동을 시작했다. 공독호조단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이상 사회를 추구했다.⁶⁸ 주작인에 의해 창된 신춘운동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신춘운동은 일본에서 유래

⁶⁵ 江天蔚 〈回憶留法勤工儉學〉, 『五四運動回顧錄』(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994면.

⁶⁶ 박제균 〈중국 ‘파리그룹’(1907~1921)의 무정부주의 사상과 실천〉, 경북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6, 15면.

⁶⁷ 박제균 〈「工學」잡지와 오사시기 무정부주의 사조〉, 「중국현대사연구」 제1집, 1995, 34~35면.

⁶⁸ 일본 학계에서는 오사 운동이 사실상 아나키스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환산송행(丸山松幸) 등의 주장이 돌리싸고 논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학회 같은 조직이나 공독주의의 讀主義 같은 사조가 아나키즘 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坂井

명, 일본에 한명, 중국령에 세명이었다고 한다.⁴⁰ 특히 보이틴스키가 일본에 파견한 한인이 누구인지는 오랜문이었는데, 최근 일본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부장이던 이춘숙(李春塾)이라는 설이 유력하다.⁴¹ 이 말사는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임무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과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있었다. 그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이자 아나키스트인 대삼영에게 접근했으며, 재일 한인 유학생들과도 접촉했다.

1919년 겨울 러시아에서 온 신문기자 스테파니가 중국인 육식해(陸式楷), 장목지, 호유지(胡愈之) 등과 모종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짧은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육식해와 장목지, 호유지 등은 모두 아나키스트이자 에스페란토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로, 이들이 만들었다는 모종의 조직은 아마도 에스페란토와 관련이 깊은 단체였을 것이다. 상해의 아나키스트들이 만든 세계어 전습소 世界語傳習所가 문을 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신화학교 新華學校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육식해와 장목지 등이 관련된 아나키스트의 외곽 조직이었는데, 후자는 상해 소조의 외곽 조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진독수와 심현려(沈玄廬) 등도 이 학교를 방문해 강연하곤 했으며, 상해 소조의 활동과 종종 중복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스테파니와 중국인들이 만들었다는 모종의 조직이란 당시 신화학교내 에스페란토야학을 개설한 일을 말하는 듯 싶다.

중국 공산당 당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사회주의 자동맹을 둘러싼 이런 인물과 조직이 상해 소조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서는 상해 소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알려진 사회주의 청년단과 외국어 학사 外國語學社의 경우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자.⁴²

알려진 바와 같이 상해 소조를 만드는 일과 동시에 1920년 8월 22일 진독수와 보이틴스키, 양명재 등은 여덟 명의 청년, 즉 이한준, 유수송, 시존통(施存統), 심현려, 진망도(陳望道), 원진영, 김가봉(한인), 엽천저(인도인) 등을 모아 상해 사회주의 청년단을 설립했다. 청년단의 서기는 나이가 가장 어린 유수송(21세)이 담당하고, 외국어 학사의 학생 30여 명이 주요 회원이었는데, 일본인 판서 다랑(坂西多郎)과 한인 박모(栢某), 안모(安某) 등도 모임에 자주 참가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청년단은 뚜렷하게 어느 한파의 사회주의를 신앙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나키스트가 수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여러 회고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 사회주의 청년단의 활동은 사회주의 자동맹과는 통일 전선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⁴⁰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199~203면.

⁴¹ 川上哲政 〈大杉榮のみた中國〉, 「初期社會主義研究」 第15號, 2002, 72면.

⁴² 석천정호는 사회주의 자동맹과 사회주의 청년동맹 및 사회주의 청년단을 통일한 단체로 이해한다. 사회주의 동맹은 아나키스트의 회고록에 만나 나타나며, 동맹이나 청년단이나 여러 파벌이 섞인 것은 사실이다. 청년동맹은 보이틴스키의 1920년 8월 보고에 나타나는데, 러시아어 표기가 청년단과 같다(石川禎浩, 앞의 책 170~71면).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일부 중국 공산당 사관련서적에서 상해 소조와 상해 사회주의 자동맹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³⁷

보이팅스키가 러시아 공산당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중국 기사 말고도 조선과 일본에 관한 기사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보이팅스키 일행의 중국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상해에 코민테른 동아시아 지부 설립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3국에서 사회주의 선전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 중앙 기관을 만들었다. 이 단체의 명칭은 코민테른 임시 동아시아 부서로, 단체의 설립과 동시에 그 하부 조직으로 중국부와 조선부, 일본부의 3개 민족별 지부를 두었다.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 소조 건설과 관련된 일이 중국부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내용은 조선부와 일본부의 활동 단면을 보여준다.

(1920년 8월 17일의 보고에는) 중국의 상해 혁명국과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에는 조선 혁명국이 있는데, 인쇄소를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들 대표가 파견한 첫 번째 연락원이 이미 동경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가 가고 온 보고는 편지에 덧붙입니다. 연락원의 구두 보고에 따르면 아래의 상황이 분명합니다. 1. 일본 사회당은 현재 중앙 위원회가 있다. 2. 이당의 청년 중에는 노동 조합에 참가해 지하 공작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3. 이당에서 인쇄한 소책자와 전단지 병사들에게 뿌려져, 당과 병사들 사이에 점점 밀접한 관계가 맺어진다. … 나는 연락원 (조선인)에게서 적일부를 주어 동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경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작을 위해 다시 두 사람을 한성 (서울) 과 만주로 파견할 것입니다.³⁸

이 보고는 보이팅스키가 조선 혁명국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고, 일본 사회주의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기존 연구를 참고해 조선 혁명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보이팅스키는 상해 임시 정부 내 이동회의한인사회당³⁹과 연락해 한인사회당을 한국 공산당으로 개조할 것을 건의했으며, 마침내 1920년 5월 경 한국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그 과정에서 저명한 한인 사회주의자 여운형을 공산당에 가입시켰다. 따라서 재상해 한국 공산당은 코민테른 임시 동아시아 부부의 조선부와 동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공산당은 조직과 선전, 군사 방면에서 일련의 활동을 펼쳤는데, 이것은 상해 소조의 활동과 유사했을 것이다. 아울러 상해 이외의 지역에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다섯 명의 밀사를 각지에 파견했는데, 한국 내에 한

³⁷ 줄고 〈보이팅스키의 중국 방문과 「社會主義者同盟」〉, 『중국사연구』 제 36집, 2005, 224면.

³⁸ 中共中央黨史研究室編 『共產國際聯共(布)與中國革命檔案資料叢書』 第1卷,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33면.

³⁹ 한인사회당의 한갈래인 장도정(張道正)의 일세당-일세당을 코민테른이나 키즘의 이념을 가진 비밀정당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반병률 〈한국 사회주의 운동기원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업적 —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 의기원』〉, 『역사학보』 184호, 2004, 354면).

한 것으로 신촌을 건설해 모두 평등하게 노동하고 서로 도와 계급 투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어떤 단체나 인물이 아니라 키즘인가 아닌가에 여부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나키스트들이 시작한 ‘호조’와 ‘노동’의 구호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이다.⁶⁹

한편 1910년대 후반에는 에스페란토가 중국 사회에 활발하게 전파된 시기이기도 하다. 사복의 제자가운데 에스페란토를 열성적으로 전파한 대표 인물로는 구성백을 들 수 있다. 구성백은 광주에서 『세계어독본』(1916)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상해와 북경, 천진, 상숙, 불산, 강문 등지에서 에스페란토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로 널리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 의해 에스페란토 독서실·클럽·전파소 등도 만들어졌으며, 이런 단체들은 아나키즘의 선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⁷⁰ 구성백은 북경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신청년」과 여러 아나키즘 잡지에 에스페란토 관련 글을 실었으며,⁷¹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에스페란토를 전파하는 주요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다.

상해에서 「화성華星」(1916년 1월)이 창간되었다. 「화성」은 순수하게 에스페란토로만 만들었는데, 성국성(盛國聲)이 주편하고 정패강이 인쇄를 담당했다. 이 잡지는 중국 에스페란토 잡지를 대표하며 훗날 「녹광綠光」이라고 제호를 바꾸면서 장기간 발행되었다. 그밖에 북경 대학의 「자유록」⁷²과 「북경 대학 학생주간」⁷³을 비롯해 같은 시기에 나온 「자유」「인군」「진화」「민성」 등과 같은 잡지에도 에스페란토란이 마련되었다. 이때는 이미 만국신어 萬國新語라는 용어보다는 세계어 世界語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나 볼셰비키 같은 과격파가 에스페란토를 배운다고 인식해 점차 에스페란토 운동에 대해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신문화 운동 시기에는 해외에서도 중국인 아나키스트 그룹이 출현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공여사工余社, 일본의 홍사紅社·인인사人人社,

洋史 〈近年の中國アナキズムの研究をめぐって〉, 『中國社會と文化』, 東大中國學會 1988, 266~69면).

⁶⁹ 최근에는 5·4 시기 직업 단체를 중심으로 민의 기구를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길드 사회주의 못지 않게 아나키즘의 노동관이 그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유용태 〈5·4 운동과 직업주의의 대두〉, 『중국 근현대사연구』 제 43집, 2009, 22면).

⁷⁰ 王炎, 앞의 글 548면.

⁷¹ 區聲白 〈通信〉, 『新青年』 第5卷第2號, 1918. 8. 15; 第6卷第1號, 1919. 1. 15.

⁷² 실사의 「自由錄」에는 자멘호프의 전기인 〈世界語發明家 Zamenhof 博士史略〉과 계급 제도를 타파하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에스페란토를 노동자에게 권유하는 〈世界語與無政府黨〉 등이 실렸다 (「自由錄」 第1輯, 1917.7; 「自由錄」 第2輯, 1917).

⁷³ 「北京大學學生週刊」에는 노동자들이 에스페란토를 배워 전 세계적인 노동자 연합을 만들어 사회 혁명을 추구하자라는 〈世界語與工黨〉과 자멘호프의 언어가 소비에트 정부에 정식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Bolchevisme 和 Esperanto〉 등이 실렸다 (「北京大學學生週刊」 第14號, 1920. 5. 1; 「北京大學學生週刊」 第17號, 1920. 5. 23).

미주지역의 평사平社, 캐나다의 캐나다목와업화공연합회加拿大木瓦業華工聯合會, 동남아지역의진사眞社 (1919)·아나키동지사安那其同志社·인쇄공동맹印工同盟등이그것이다. 특히동남아지역의경우사복이만든「민성」의씨앗이이곳에뿌려지면서시작되었는데, 양병현이마닐라에서「평민平民」(1914)을창간하고노동자조직을만들었다. 얼마후동남아지역최초의아나키스트조직진사가결성되었다. 이단체는유석심등이참여했으나, 식민지정부에의해핵심멤버가추방당하면서운동이잠시위축되었다. 1922년에는허주(虛舟)등이동남아에와아나키즘활동을전개했다고전한다. 1923년에는애진(愛眞)이동방무정부주의자동맹東方無政府主義者同盟의대표로이곳에서주의를선전했다는기록이있어흥미로운데, 그는동맹의지부를만들고아나키스트대회를개최하려다역시추방당했다.⁷⁴ 현재까지중국밖의화교들의아나키즘활동은별로알려져있지않다.⁷⁵

3. 일본아나키스트의초상: 대삼영

일본아나키즘운동의부활

행덕추수가대역사건으로처형되자일본의사회주의운동은암흑상태에들어갔다. 이른바‘겨울冬の시대’에서사회주의자들은글을대신써준다거나번역일을하면서생계를겨우꾸려나갔다. 몇해동안대삼영도생활고에시달리며악전고투하지않을수없었다. 대삼영과그의동료들은대역사건으로처형된동지들의시신을동경감옥에서인도받았으며, 대삼영은행덕추수를추모하는모임에서그를기리는시를낭독하기도했다.

대삼영은황전한촌(荒畑寒村)과함께「근대사상近代思想」(1912년 10월)이라는잡지를만들어학생과지식인을대상으로출판사업을시작했다. 이일을한것은기존사회주의자들의어정쩡한태도에더이상만족할수없었기때문인데, 여기서그는명치시기사회주의운동의“권위주의적·정치주의적체질”에대한반역을시도했다. 이러한반역은곧대정시기사회주의운동의새로운출발을알리는것이였으며, 전국각지에흩어져있던동지들도큰힘을얻었다.⁷⁶ 이잡지는정치적발언이어려운상황에서문

⁷⁴ 歐西〈南洋無政府主義運動之概況〉, 「民鐘」第2卷第1期, 1927. 1. 25.

⁷⁵ 한연구자는비록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은최종적으로추구했던이상사회를만드는데에는실패했을지모르지만, 그들은살아있을때자신들이희망했던사회문화방면의다양한가치들이실현되는것을직접목격한승리자였다는생각을가지기도한다 (Peter Zarrow,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258면).

⁷⁶ 多田道太郎, 〈生と反逆の思想家大杉榮〉, 多田道太郎編『大杉榮』, 中央公論社 1984, 39면.

이「중국공산당선언」인것은이런이유에서다. 그런데상해소조가중국공산당이라고명칭을결정한후에도광주공산주의소조(이하광주소조)는광주공산당(혹은광주공산당지부), 북경소조는공산당소조(후에북경공산당지부), 호북소조는무한공산당지부등으로일관성없이따로불렸다.

흥미로운사실은중국아나키스트의회고에는상해사회주의자동맹의활동과앞의상해소조창립과관련한여러활동이서로중복되어나타나는점이다. 그한예를들어보자.

(1920년여름) 어느날밤우리들은어양리 1호진독수의집에서사회주의자동맹회의를열어, 코민테른의정신을소개하고사회혁명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하는문제를토론했다. 출석자는 Stromisky, 양명재, 진독수, 이한준, 위극수, 원진영, 유수송(兪秀松), 김모(金某 - 조선인), 그리고한인도인과나였다. 회의의제가매우많았는데, 주로선전공작에관한것이였다. 사회주의자동맹은마땅히자신의인쇄소와선전거점을갖추어야한다고인식하고, 먼저강력한전투력을가진인쇄소를만들것을의결해나가전체책임을위탁받았다. Stromisky 군은진군을통해나에게 2천원을주어인쇄소준비금으로삼도록했다. 공장편의와자력갱생을위해이인쇄소는공개적으로운영되었는데, 외부의주문을받았지만비밀리에서사회주의동맹의책자, 문건, 전단등을인쇄했다.³⁶

기왕의고중에따르면, 회고에서등장하는 Stromisky 는보이틴스키이고, 김모라는한인은김가봉(金家鳳)이며, 인도인은엽천저(葉天底)라는사실은거의틀림없다. 여기서보이틴스키일행과진독수를제외하면모두아나키스트이거나아나키즘적성향이강한인물들인데, 그들가운데일부는마르크스주의연구회(1920년 3월)나사회주의청년단성원과도중복된다. 그런데이모임에서결의한인쇄소의설치와사회주의관련서적의발행문제는보통상해사회주의청년단의활동(혹은상해소조의활동)으로알려진것이다. 그렇다면도대체상해의사회주의자동맹과공산주의소조및사회주의청년단과는어떤관련성을가지는것일까? 우선아나키스트를비롯한각종사회주의자들의연합체로서사회주의자동맹을결성하고, 그가운데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의입장을따르는인물들을골라공산주의소조를성립시키는수순을밟고있다고볼수있다. 그과정에서일부아나키스트는모임에서탈퇴했고, 다른일부아나키스트는잔류했던것이다.

상해사회주의자동맹이성립한것은분명하지만구체적인조직과정은알수없다. 게다가상해의아나키스트들은마르크스주의연구회의활동이나공산주의소조를준비하는일련의과정을사회주의자동맹의활동으로기록하고있고, 이른바초보적공산주의자들은이과정을중국공산당창립

³⁶ 鄭佩剛, 앞의글 958면.

불철저한혁명이므로당연히오래지속될수없고, 개인자유의경향에도위배된다. 사회주의와무정부주의는본래혈연관계에있으므로우리들은러시아의새로운조직에대해반대하지않으며, 오히려그것을형제처럼바라본다. 러시아의새로운조직이무정부혁명의선구라고믿는다. 새조직이빨리현단계를넘어서우리의이상에도달하길희망한다.³⁴

여기서알수있듯이중국의아나키스트는러시아혁명에대해아나키즘혁명의선구라는측면에서일단긍정적인태도를취하지만자유공산주의원칙에어긋나는프롤레타리아독재에대해서는분명히반대하고있다. 동시에비록러시아혁명이불완전한혁명이지만소비에트정부가하루빨리발전해자유공산주의의이상에도달하기를희망했다. 이처럼레닌의불세비키정부에대한우호적인시각은아나키스트와불세비키의만남을가능케했다. 러시아불세비키가중국아나키스트에게사회주의자동맹을만들자고건의한시기는러시아혁명이일단락울고한상태이므로앞으로아시아의혁명세력과연계하기를희망한것이다. 사회주의자동맹의출현은이런배경아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상해지역

1920년 4월말보이틴스키부부와통역양명재(楊明齋) 등은진독수를만나라상해로내려왔다. 보이틴스키는「상해아문생활보」를중심으로활동하던러시아인들의도움을받아신문기자신분으로이곳에안착했다. 그는진독수를만나라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에대해소개하고중국아나키스트와국민당을포함한사회주의자들의연합단체혹은공산주의소조를만들자고제안했다. 진독수는보이틴스키접촉이후에야비로소공산주의에심취한것으로보이는데, 그런의미에서 1920년여름쯤그가마르크스주의를신앙하게되었다는설은근거가있다. 동시에보이틴스키일행은아나키스트정파강, 장목지, 원진영, 위극수, 비철문(費哲文), 황벽혼등과도교류했다. 이런와중에상해에서중국최초의공산주의소조(이하상해소조)가만들어졌다.

상해소조는처음에는‘사회당’이라불렀다가나중에진독수가북경의이대조와상의한끝에‘공산당’으로바꾸었고, 곧이어다시‘중국공산당’으로고쳤다. 이대조는젊은시절중국사회당에가입한적이있었고, 강항호(江亢虎)가조직한이정당이용두사미꼴로몰락했기때문에사회당이라는명칭에대해좋은감정을가지지않았다고한다. 더구나러시아가공산당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었으므로사회당보다는공산당이라는명칭으로할것을제안했다.³⁵ 그들의기관지가「공산당」이거나그들의선언문

예의형식을빌려개인주의를선전했다. 여기서개인주의는개인의내면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사회의식이강렬한이론바사회적개인주의였다.

그리고대삼영의발의로생디칼리슴연구회(1913년 7월)를열었는데, 이시도역시좋은반응을얻었다. 생디칼리슴연구회는일본인은물론중국·조선의유학생들과간담회를개최해구미의사회주의사상을선전했다. 이연구회는나날이발전하여나중에는평민대학강연회가되었다. 평민대학강연회는매월 2회가량열렸고매회 30여명이모였는데, 강연회의주제는애국심의해부와대의정치론, 생디칼리슴, 크로포트킨의사상 등이었다고한다.⁷⁷

대삼영은「근대사상」(1914년 9월)을스스로편집했다. 이잡지가문단에유명해져서자신이사회명사가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런안락함을포기하고새로운모험속으로뛰어들었다. 그는노동자를대상으로한월간「평민신문平民新聞」(1914)을발간하고, 노동운동관련모임을개최함으로써대역사건으로침체된사회주의운동을부활시키고자했다. 「평민신문」은〈노동자의자각〉이라는창간사를통해“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자신으로부터한다”는표어아래“노동자의노예적지위를개선하고, 이개선을방해하는일체의사회적제도에대해계급전쟁의반역을하자!”고호소했다.⁷⁸ 이신문은행덕추수의정신이이어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입장에서경제적직접행동을주장했으나, 아나키즘색채가 지나치게선명한탓에황천한촌같은동지들의강력한반발에직면했다. 게다가계속되는발행금지처분으로말미암아재정적어려움을겪었으며, 다시복간한「근대사상」마저단지 4호만발간하고폐간되었다.

1917년의러시아혁명의일본의사회주의자를흥분시키기에충분했다. 혁명의발발은사회주의자로하여금연구와계몽의단계를넘어노동조합을통한실천과투쟁의길로나아가도록자극했다. 이에대삼영과이등야지(伊藤野枝), 동료인촌목원차랑(村木源次郎)·화전구태랑(和田久太郎)·구판묘지조(久板卯之助) 등은「문명비평文明批評」(1918년 초)을창간하고생디칼리슴연구회도다시정기적으로열었다. 점차생디칼리슴에기초한노동운동이힘을얻었으며, 평민대학강연회의후신인노동문제좌담회를통해본격적으로노동자에게접근했다. 대삼영은동지들과함께「노동자신문」을발행했으나곧바로발행금지처분을받았고, 「문명비평」조차폐간을당했다.⁷⁹ 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기는제 1차세계대전의특수로말미암아일본자본주의가급속히발전한때여서노동운동은매우활성화되었다.

³⁴ 眞社譯 『克魯泡特金的思想』, 天津眞社出版社 1920, 編輯同人的旨趣 3 면.

³⁵ 『李大釗研究事典』, 紅旗出版社 1994, 162 면.

⁷⁷ 近藤憲二 『私の見に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麥社 1969, 13 면.

⁷⁸ 多田道太郎, 앞의글 56 면.

⁷⁹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勞動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47~48 면.

대삼영의좌파회는또다른단체인아나키즘연구회와연합해북풍회北風會를결성했다. 여기서‘북풍’이라는이름은이단체를결성하기직전에페렴으로사망한아나키스트도변정태랑(渡邊政太郎) 의호에서따온것이다. 대삼영과근등헌이(近藤憲二) 등이이끈북풍회는‘노동운동의정신’이라는주제로강연회를개최했다. 여기서대삼영은노동운동은임금인상이나노동시간단축과같은단순한생물적·경제적요구에그칠것이아니라인간해방을목표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 그리고노동자는북풍의습관과노예의생활에서해방되어야하는데, 이런해방은비단자본가의질곡에서해방되는것뿐만아니라, 노동운동지도자의권위로부터도해방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 노동자들의자발적의지적행동이야말로노동운동의기초이자새로운사회의초석이라는것이다. 이처럼북풍회는자유로운사람들의자유로운연합을실험했다.

러시아혁명을견제하기위해일본이시베리아출병을강행하자일본내에서는계급모순이격화되고물가폭등이야기되어어른바쌀폭동(1918년 7월) 이일어났다. 일본군이스베리아로출병하는과정에서쌀을중개하던상인들의농간으로말미암아쌀가격이폭등했는데, 이것이전국차원의폭동으로이어진것이다. 쌀소동을무마하는과정에서정부가사상탄압을잠시완화하자노동운동과사회주의운동이더욱활기를떨수있었다. 이에대삼영과화전구태랑, 근등헌이등의노력으로노동운동사勞動運動社를만들고「노동운동勞動運動」(제 1 차 1919년 10월 ~1920년 6월) 창간호를발행할수있었다. 창간사에서“일본의모든방면에서노동운동의이론과실천을충실히소개하고, 그내용을비평하는것이본지의목적”이라고설명했고, 〈노동운동의정신〉(1호) 이라는글에서는“노동운동은노동자의자기획득운동이자자주자치적생활획득운동이며, 인간운동이자인격운동”이라고자신들의운동을규정했다.⁸⁰ 「노동운동」(제 1 차) 은운동의이론과실제를충실히소개한것으로유명한데, 노동자와대중의자발성을강조하고노동자대중의인격획득에주목했다. 특히대삼영이주도한지도자이론의비판과지식인계급의배척을내용으로하는직접행동론은노동조합적이나키즘의발달을가져와기존제도를부정하는자치적조직론으로나아갔다.

일본아나키즘운동사에서‘겨울의시대’에는코민적이나키즘과노동조합적이나키즘이비슷한것으로인식되었다. 그런데그후노동조합적이나키즘의세력이강화되는현상이나타난다. 이에대해영국학자존크럼(John Cump) 은다음같은몇가지이유를제시한다. 첫째, 일본아나키즘이론의중심이었던크로포트킨의위상이혁명가들사이에서약화되었다. 일본의아나키스트들은행덕추수시대부터반전反戰을주장했던데반해, 크로포트킨은제 1 차세계대전때프랑스와그동맹국을지지했기때문

름이있었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북경동맹과북경소조는매우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음에틀림없다.³³

당시북경대학에는아나키스트가마르크스주의자보다훨씬많았다. 아나키스트는자신들이마르크스주의자와서로다르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으나, 부르주아정권을타도한다든지자본주의체제를전복시키는사회혁명에대해서는서로공감하고있었다. 그런데나장룡과유인정등이북경소조에가입해마르크스주의적색채가강화되자아나키스트와의입장차이가두드러졌다. 결국진덕영을제외한나머지아나키스트들이북경소조에서탈퇴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흥미로운점은아나키스트들이소조에서물러날때에도별다른충돌없이화기에애해게탈되었다는사실이다. 그후아나키스트들은(무정부당) 호조단互助團이라는모임을중심으로모였고, 북경소조는중국공산당북경지부(1920년 11월말)로바뀌게되며, 곧이어북경사회주의청년단北京社會主義青年團도만들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의개인적인우의는얼마가유지됐는데, 서로독자적인모임을가지면서도경우에따라당밖에서는협력했다. 예를들면북경대학의아나키스트들이정양문에서군벌정부를반대하는전단을살포하다가북경당구에몇사람이체포되자, 이소식을전해들은마르크스주의자들이적극적으로구명활동에나선경우가있다.

북경사회주의자동맹과(무정부당) 호조단의관계도서로밀접해보이나동일한조직인지여부는현재로서는확인하기어렵다. 게다가그들의활동이북경소조나사회주의청년단의활동과혼재되어있어명확한구별이힘들다. 이런복잡한상황은상해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중국의아나키스트가러시아인들이주도한사회주의자동맹에별다른충돌없이손쉽게가입할수있었던가답은무엇때문일까? 그들은당시레닌의소비에트정부에대해아무런반감이없었던것일까? 우리는천진진사에서출판한『크로포트킨의사상』(1920) 이라는번역서의서문을통해청년아나키스트들의생각을일부나마읽을수있다.

우리들은러시아의사회혁명에대해무산계급이전쟁(제 1 차세계대전) 에대응한첫번째소리가자만국혁명의선구라고생각한다. 그것은 19세기이래사회주의에대한의문에한가지해답을주었다. ‘소비에트정부 Soviet Government’는‘노동자정부 Government of Workers’ 이지자본주의적·민주주의정부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가아니라는사실이다. 그러나우리들이주장하는것은자유공산주의로, 세계의평민들이잘알고있듯이모두이방향을향해전진하고있다. 따라서(우리는) 대담하게선언하노니강권공산주의의‘프롤레타리아독재 Dictatorship of Proletariat’는찬성하지않는다. 이것은불평등하고

⁸⁰ 多全道太郎, 앞의글 56면.

³³ 장국도의회고북경소조내의아나키스트상황을이해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張國燾, 앞의책 105~106면).

활동하고 있었다. 북경대학의 이대조역시대학내청년이나나키스트와밀접한관계를맺었다. 보통이대조의초기사상에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영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는사실은널리알려져있다. 그런데그의이나키즘적경향은일본유학경험깊고도북경대학에있던이바노프같은러시아교수의영향도간과할수없을것이다.³⁰ 그래서인지이대조가 1920년 3월 마르크스학설연구회馬克思學說研究會를만들어학생들과공부할때어떤사회주의파벌에대해서도배타적인태도를취하지않았다.³¹ 보이틴스키일행은천진에도착해중국통폴레보이와접촉해중국상황을파악했으며, 그와이바노프의도움으로북경의이대조를만날수있었다. 또한이대조의주선으로학생들과좌담회를열었고, 이를통해북경의진보적인청년들과교류할수있었다.

현재로서는자료부족으로천진과달리북경지역사회주의자동맹의건립상황은자세히알수없으나, “북경의이대조, 황릉상, 화림(華林), Broway 등”이북경사회주의자동맹공작을담당하는주요인물이라는단편기록이남아있으므로결성여부는의문의여지가없다.³² 하지만북경의사회주의자동맹과이미천진에서결성되었던사회주의자동맹이어떤관계인지는불분명하다. 어쩌면천진과북경의지리적근접성과회원의중복사실등을감안한다면사실상같은단체였는지도모른다. 게다가이동맹이비슷한시기이대조가만든북경공산주의소조(이하북경소조)와어떤관계에놓여있었는지도분명하지않다. 그런데얼마후장신부(張申府)가북경대학총장채원배(蔡元培)를따라프랑스로유학가자북경소조는이대조와장국도(張國燾) 두명밖에남지않아유명무실해졌다. 이때돌연여섯명의젊은이나키스트들이북경소조에가입했다. 즉황릉상과진덕영(陳德榮), 원명웅(袁明熊), 장백근(張伯根), 화림, 왕경림(王景林)(혹자는다섯명이라고함) 등이그들이다. 이청년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조항에는반대하지만프롤레타리아계급의혁명에는찬성한다는취지아래가입했다. 이로써사실상북경소조는이나키스트를중심으로여덟명으로확장되었다가, 다시모택동(毛澤東)의친구인나장룡(羅章龍) 과운대영(揮代英)의후배이자 5·4 운동을촉발시킨유인정(劉仁靜) 이추가되었다. 그런데사회주의자동맹의구성원명단에황릉상과화림등의이

³⁰ 李丹陽, 앞의글 89~90 면.

³¹ 북경대학마르크스주의연구회에대해서는羅章龍 <回憶北京大學馬克思學說研究會>,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室編『五四運動回憶錄』(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참조.

³² 鄭佩剛 <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事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61 면.

에다소실망한것이다. 둘째, 일본이나키스트들이보기에정부폭력에대해별다른저항수단이없었던지식인들과달리공장과탄광의노동자들은혁명적역량과노동조합이라는조직을가지고있었기에운동의주력으로 주목한것이다. 셋째, 일본은유럽으로부터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었던가닭에정보부족이라는변수가노동조합적이나키즘의유행에한몫을했다. 실제로는프랑스노동총연맹(CGT)이제 1차세계대전외의중세력이약화되었으나, 일본의이나키스트들은프랑스노동총연맹의세력이확대일로에있다고착각하고열광했다. 넷째, 대삼영의노동조합적이나키즘에대한개인적인열정이동지들을감화시켜운동의활성화를가져온것이다.⁸¹

당시일본정부는이나키즘사상을매우위험하다고여겼으며, 러시아혁명의전과를극단적으로두려워했다. 그런분위기도불구하고이나키즘은지식인이든노동자이든농민이든간에어떠한편견을품지않고특유의열린사상체계로접근했기에널리받아들여졌다. 한편비슷한시기하상조(河上肇)의「사회문제연구」의창간(1919년 1월)을시작으로일본마르크스주의연구의전통이구축되면서다양한마르크스주의문헌의번역이이루어졌다. 얼마후일본사회에마르크스주의자들이대거출현했다.

대삼영의이나키즘철학

대삼영은「근대사상」의발간시기(1912년 10월 ~1914년 9월)중에서사상적기초를닦았다고평가받는다. 이잡지의성공으로지식계에서높은위치를차지했으며, 점차지적자립을추구하는길로나아간다. 「근대사상」의마지막호에는그의인생관과사회관을잘보여주는구절이있다.

연구와사색은유희가아니다. 우리는일상생활에서반드시무언가를생각하고, 또그생각을끝까지진보시켜나가지 않으면안된다는어떤요구에직면한다. 아무리해도방치해서는안되는어떤사실에부딪히는것이다. 우리의사색과연구는이사실에대한우리자신의어쩔수없는내적요구인것이다. 우리는자신의내적요구를어떤다른사람의저서에따라, 즉다른사람의관찰과실험과판단에따라만족하는게으름뱅이가되어서는안된다. 만약이미받아들인어떠한판단이있다해도, 더욱스스로의관찰과실험에따라다시판단하지 않으면안된다. 진실로스스로각고의노력으로뵙속까지사무치도록우리스스로의판단을정립해야만한다. 이런개인적인사색의성취에있어서우리는시작부터자유로운인간이되어야한다.

⁸¹ John Cump, 碧川多衣子譯『八太丹三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51~52 면.

아무리자유주의를주장한다할지라도, 그자유주의가념의판단에서빌려온것이라면, 그사람은마르크스혹은크로포트킨의사상적노예일뿐이다. 사회운동은일종의종교적열광을수반하는동시에어쩌면이러한노예를만들어내는경향이있다. 우리는어떠한경우에도노예가되어서는안된다.⁸²

대삼영은개인이자립적인존재라는사실을강조하며, “생의확충擴充”이라는표현을통해자아의지를통해개인의인격을형성하는과정을무엇보다강조했다. 그는“생의확충에서생의최상의미를본다는이반역과이파괴에서만오늘날생의최상의미를본다”라고외쳤다. 자아가주도하는인격을강조하며신조차자신의안에있는것이라고믿었던점은마르크스주의자들이사회적환경이인간의의식을전적으로지배한다고주장하는것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⁸³ 하지만동시에인격이외적환경에종속되는비자립적인측면도일부지적했다. 대삼영사상의핵심가운데하나가자유라는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에게자유란생과동의어였다. 위의구절처럼사상의노예가되는것에반대하여크로포트킨조차반성대상으로삼는것이야말로대삼영의아나키즘사상의특징가운데하나였다. 그리고그것은일본아나키즘의새로운장이열리는것을보여준다.⁸⁴

그는자아가개인의바깥에있는외적환경및개인의내부에있는내적환경의속박에서모두벗어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했다. 대삼영에게정부와자본가, 지주등의정치적·경제적지배로나타나는외적환경의속박에대한투쟁은중심적인과제였다. 하지만이에못지않게개인의내적환경속에자리잡고있는풍속과습관, 종교, 이데올로기의속박에서탈피하는것도무척중요했다.⁸⁵ 당시가속사상이나부부사상의발달을사회의적으로 믿은사실이나, 상식적인남녀관계를나쁜인습으로인식해부정하고극단적으로자유로운남녀관계를주장한것도이런맥락에서다. 그래서인지평소에밥을먹을때나글을쓸때도전혀남을의식하지않았고, 선후배에게아무렇게나반말을하는등철저히예의범절을무시하는것이보통이었다.

〈사회적개인주의〉(1915)라는또다른논문에서는제목그대로사회적개인주의라는역설적인표현을썼다. 일반적인상식으로사회주의와개인주의는대립적인구도이다. 그런데대삼영은사회주의의계급철폐와국가소멸말고도개인의노예근성으로부터의해방과권위에대한반항을동시에주장했다.⁸⁶ 일단이것은민중적개인을의미하는것으로, 공리주의자의개인과는구별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그렇게간단히규정하기에개인적사회주의는여전히해석하기어려운문제가남아있다. 어쩌면대

라는기관을설립했다.²⁷ 해외공작처는반지하조직상태에있었던원동국의유력인물인쿠슈나레프(Kushnarev)와사하야노바(Sahayanova)가중국혁명가들과연락을맺겠다는구상을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에보고하고그비준을요청한결과 1920년 2~3월중국동의블라디보스토크에설립된조직으로서실상중국공작전담기구였다.

같은시기북경에서는폴레보이의소개로하하로푸친이라는러시아인이이대조를만나공산주의조직건설을제안했다. 그의요청에대해이대조가진독수에게편지를쓰고진독수가이에동의하자, 하하로푸친은이소식을러시아로돌아가보고했다. 빌렌스키는해외공작처의업무를맡자마자중국에대표단을보내기로결정하고, 대표단의책임자로젊은공산당원보이틴스키를선발했다. 빌렌스키는보이틴스키에게중국에서활동하는다양한국적의사회주의자들을중국부와조선부, 일본부를만들어흡수하고이를통괄하는‘중앙기관’을설치하라는사명을내렸다. 이중앙기관을빌렌스키는임의로‘코민테른(임시) 동아서기처’라고불렀다.²⁸

1920년 4~5월경보이틴스키일행은러시아기자단신분으로위장해천진을거쳐북경으로왔다. 보이틴스키에게주어진임무는“중국국내의상황을이해하고, 중국의진보세력과관계를맺으며, 동시에상해에코민테른동아서기처건립여부를고찰하는것”이었다. 여기서“중국의진보세력과관계를맺는다”는부분은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이 1920년초부터중국에서공산당창당과통일전선형성이라는두가지임무를동시에전개했다는역사사실과관련시켜볼때, 이들이중국에서의합작대상을물색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상해에코민테른동아서기처건립여부를고찰한다”는부분은코민테른이국제사회주의운동의하나로한·중·일 3국에서사회주의선전조직을만들려는것과관련해그타당성여부를조사하려던것이다. 그들은중국국내의상황을파악한후대략다음세가지목표를세웠다. “첫째, 공산주의소조를건립하는것에협조해장차이러한소조들을모아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을수립한다. 둘째, 지식분자조직을통해노동자와관계를맺는다. 셋째, 각혁명파벌의활동에협조하는데, 여기에는아나키스트와국민당을포함한다”등이다.²⁹

보이틴스키일행이북경을방문할즈음신문화운동이한창이었으며, 아나키스트의활동도매우활발했다. 이시기중국의아나키스트단체는전국적으로 90여개, 잡지는 70여종에다다랐다는불완전한통계가있다. 그가운데북경의경우북경대학을중심으로실사와분투사등여러조직이

⁸² 大杉榮 〈個人的思索〉, 『大杉榮』 152~153면.

⁸³ 板垣哲夫 『近代日本のアナキズム思想』, 吉川弘文館 1996, 4~5면.

⁸⁴ 小松隆二 『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青木書店 1972, 76면.

⁸⁵ 板垣哲夫, 앞의책 10면.

⁸⁶ 多田道太郎, 앞의글 41~42면.

²⁷ 서상문, 앞의책 201~202면.

²⁸ 〈威廉斯基 — 西北利亞科夫致共產國際執行委員會的信〉, 모스크바 1920년 9월 1일 (李玉貞譯 『聯共·共產國際與中國(1920~1925)』 第1卷, 大東圖書有限公司 1997, 8~9면).

²⁹ K. E. 舍維廖夫 〈中國共產黨成立史〉, 『一大'前後』 第3卷, 人民出版社 1984, 155면.

각말았다.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신문사와 통신사는 중국공산당 창립을 위한 근거지를 제공했다.

1920 년 초부터 재상해 러시아 볼셰비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아가레프라는 인물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혁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한때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아가레프는 리제 로비치, 이한준(李漢俊), 여운형 등과 면식이 있었으며, 「상해 아문 생활보」의 편집도 담당했다. 특히 그는 앞서 언급한 호도로프, 세메슈코프, 클라싱 등과 함께 상해 주재 러시아 총영사의 일을 대행할 임시 위원회를 만들고 자신이 위원장이 되었다. 아가레프 등은 러시아 혁명을 경축하는 콘서트(1920 년 3 월 15 일)를 개최해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아마도 아무렵 아가레프는 리제 로비치를 통해 한인 독립 운동가를 소개받으려 했는데, 결국 이런 인연이 앞서 언급한 사국 연합회의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²⁶

위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에 거주하던 러시아 혁명가들은 그레고리 보이틴스키(Gregory Voitinsky) 일행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런 배경 아래 중국공산당 창립 공작이 진행되었다.

2.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

북경지역

중국사회에서 아나-볼 합작의 상징인 사회주의 동맹의 실체와 그 활동을 밝히기 위해 1920 년 한 러시아인 일행의 행보를 따라 중국을 여행하는 방식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아나-볼 중국공산당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보이틴스키 일행이다. 보이틴스키 일행이 처음 도착한 북경에서부터 상해를 거쳐 광주로 이동하는 일련의 여행 과정과 그들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에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중국에서의 아나-볼 합작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공작은 러시아 공산당이 코민테른보다 더 일찍 착수했다. 러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1919 년 9 월 극동에서의 정보 수집을 포함한 혁명 업무를 전담할 대표를 파견했는데, 빌렌스키 시비라코프가 바로 그 인물이다. 정치국은 러시아 공산당원 동국산하 블라디보스토크 분회를 빌렌스키 시비라코프에게 맡겼고, 이 분회를 모태로 삼아 해외 공작처

²⁶ 1920 년 봄 상해에서 한인 혁명가들이 러시아인, 중국인과 함께 삼이 협회 三二協會라는 아나키스트 단체를 만들어 선전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 단체가 사국 연합회 四國聯合會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50~51 면).

삼영이 독학으로 공부했기에 사상사의 상식으로 부터 자유로웠을 수 있고, 개인과 사회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지향성을 보여줬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⁸⁷ 훗날 그가 쓴 〈노동운동의 이상주의적 현실주의〉라는 논문(1922 년 12 월)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역설의 논리가 나타난다.

대삼영은 아나키즘 사회로 가는 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자본가 사회는 그 경제 제도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를 테면 사회적 생산과 개인적 분배의 모순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서 마침내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만 하는 필요에 부딪히게 된다. 이 개혁은 오늘날 사회 제도에 따라 어떤 특권이 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장 불이익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사회의 원동력을 생산하는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 그들은 오직 가지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⁸⁸

여기서 그는 혁명 방법으로 의회 활동이 아닌 노동자 조직의 자주적 행동을 강조한다. 노동자 조직을 사회 전체의 조직으로 확대하려는 직접 행동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 행동론이란 의회 등 기존 정치 기구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과 공장 점거, 무장 봉기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대삼영은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비중을 매기고 계열화해 정치 운동을 첫 번째로 놓는 사고 방식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정치 혁명과 경제 혁명을 합쳐 사회 혁명이라 불렀으며, 문화 혁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체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라 보았다.⁸⁹ 이런 관점을 대삼영식 혁명론의 독창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가 이처럼 노동자의 자주성을 중시하고 노동자 이외 사람들의 간섭 행위를 배제한 사실은 얼마 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부가 노동 조합을 통제 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로도 작용했다.

보통 1918 년을 전후해 대삼영의 사상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색채를 벗어나 생디칼리즘에 더욱 가까워진다고 본다. 1919 년 한 해는 대삼영으로서는 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한 시기이며, 다음 해인 1920 년에도 불경기로 말미암아 노동쟁의가 빈번해지자 여전히 바빴다. 그는 「노동운동」(제 1 차) 중간호에서 반권위주의의 입장에서 각 개인의 실험적·실증적 자세로 모든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백지주의의 白紙主義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생은 백지의 책과 같으며, 노동자는 백지의 책에도 노동 문제라는 인생 문제를 한자 한 줄 한 장씩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했다.⁹⁰

⁸⁷ 大澤正道 『大杉榮集』, 筑摩書房 1974, 解説 418~19 면.

⁸⁸ 大杉榮 〈勞動運動と個人主義〉, 『大杉榮集』, 筑摩書房 1974, 205~206 면.

⁸⁹ 大澤正道 『大杉榮集』, 앞의 책 解説 426 면.

⁹⁰ “인생은 결코 사전에 결정된, 이를 테면 완성된 권의 책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한글자 한글자 써 내려가는 백지의 책이다. 인간이 살아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다. 노동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인생 문제다. 노

대삼영은 프래그머티즘의 번역어인 실재주의 實際主義라는 용어를 약간 변형시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생디칼리즘이야말로 실재주의에서의 인식과 이론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다.⁹¹ 어떤 글에서 “생디칼리즘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회학적 설의 영향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생디칼리즘은 그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기보다 오히려 노동자가 단지 살아가려는 본능을 좇아서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가거나, 앞으로 가고 혹은 뒤로 가서, 마침내 그들의 생활의 자각과 경험을 통해 끊임 없는 변화를 거쳐 창조한 것이다”⁹²라고 썼다.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를 끊임 없이 평가하여 인식을 심화시키고 이론을 추출하는 것 말고도, 행위를 한 후에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방식을 주장한 것이다.

대삼영은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인격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물질적인 이해득실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싸움 속에서 느끼는 인격적인 만족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는 유쾌함과 동료들 간의 연대감에서 느끼는 유쾌함, 적과 우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유쾌함, 자신의 인격이 향상되는 것에서 느끼는 유쾌함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상은 운동의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운동의 과정 중에 모양을 새겨 나가는 것이다. 자유와 창조는 미래의 우리가 동경하는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현실 속에서 포착해야 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획득해야만 한다”⁹³고 역설했다. 대삼영은 반역자에게는 고정된 사회적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란 생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조금도 누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모험을 계획했다. 이를 사람들은 대삼영의 도박근성 賭博根性이라고 말한다.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일부 소개되었던 『상호부조』는 1917년에 대삼영에 의해 완역되었다.⁹⁴ 대삼영은 청년 시절부터 자연 과학 이론 가운데 진화론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생물학에 관한 연구와 번역에 몰두했다. 이미 다윈의 『종의 기원』을 완역한 바 있으며,⁹⁵ 나중에는 파브르의 『곤충기』(1922) 등 생물학과 진화론에 관한 저작들을 번역했다. 그는 어린 시절 처음 진화론을 접하면서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

동자는 노동문제라는 백지의 거대한 책에 노동에 대한 자포자기, 한 줄도 한 줄, 한 장도 한 장 씹어 내려가는 것이다”(大杉榮 〈社會的理想論〉, 앞의 책 222 면).

⁹¹ 板垣哲夫, 앞의 책 20~21 면.

⁹² 大杉榮 〈個人主義者と政治運動〉, 앞의 책 193~94 면.

⁹³ 大杉榮 〈生の創造〉(板垣哲夫, 앞의 책 25~26 면 재인용).

⁹⁴ クロボトキン, 大杉榮譯 『相互扶助論』, 春陽堂 1917. 이 책은 후에 『クロボトキン全集』에 다시 실렸는데, 부록과 주를 모두 번역해 실었다(山泉進 〈大杉榮著書目録〉, 『初期社會主義研究』第15號, 2002, 171 면). 대삼영은 크로포토킨의 저서가운데 『빵의 쟁취』 『상호부조』 『한 혁명가의 회상』을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꼽았다.

⁹⁵ Charles Darwin, 大杉榮譯 『種の起源』, 新潮社 1614~15.

해임 정사의 절단으로 레닌 정부에 소개해 거액의 모스크바 자금을 받도록 주선한 사람이기도 하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추방되어 상해로 건너와 러시아 혁명기 니콘서트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포타포프는 상해에 체류하던 몇 달 동안 신문 기사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당 인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1920년 4월 말에는 여운형(呂運亨), 포포프 등과 함께 진형명이 장악한 장주에 내려가 레닌의 친서를 전달하고, 소비에트 정부에 대해 소개했다.²²

1919년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상해로 세메슈코프와 호도로프(Hodoroff), 클라싱(Klassing), 톨스토프(Tolstoff) 등 네 명의 불세비키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들은 상해에도착하자마자 그해 9월경 세메슈코프를 중심으로 「상해아문생활보」라는 신문출판에 참여했다.²³ 러시아 공산당 블라디보스토크 책임자로 새로 부임한 빌렌스키 시비랴코프(V. Sibiryakov)²⁴와 상해의 세메슈코프는 협의 후 5천불에 이 신문사를 전격 인수해 불세비키의 신문으로 만들었다. 신문사의 사무실을 거점으로 러시아 불세비키들이 갖은 왕래를 가지며 동아시아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한 공작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1920년 3월 하순 이 신문에는 중국과 일본, 조선의 운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외국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같은 시기 여운형이 주편을 맡았던 「신한 청년新韓青年」에도 “조선,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 인민들이 긴밀하게 단합하여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하자”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실린 지 오래지 않아 러시아 인과한 중일인사간에 중일아한사국연합회 中日俄韓四國聯合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군벌을 타도해 자유와 평등, 호조, 행복의 목표에도달하자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 사국연합회에 누가 참여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러시아 측에서 포타포프와 스테파니(V. A. Stepany) 등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²⁵ 한편 「상해아문생활보」에서 출판한 각종 선전물은 한중일언어로 번역되어 동아시아 각 도시에 보급되었다.

세메슈코프 일행 중의 호도로프는 러시아 재중통신사 수석대표이자 통신원 신분으로 활동하며 중국에 러시아 통신사를 설립하는 사명을 맡았다. 그는 북상하여 천진에서 통신사를 세웠으며 천진과 북경의 건당 공작에 주력했다. 톨스토프는 재상해 러시아 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클라싱은 극동 공화국에서 북경 정부에 파견한 유린사절단의 대중국 교섭 업무를 각

²² 石川禎浩 『中國共產黨成立史』, 78 면.

²³ 「上海俄文生活報」에 관해서는 李丹陽 〈「上海俄文生活報」與布爾什維克在華活動〉, 『近代史研究』, 2003. 2 참조.

²⁴ 본명은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비치 빌렌스키로, ‘시비랴코프’라는 가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198 면).

²⁵ 〈過激派在滬活動之查禁 — 在滬組織中日俄韓四國聯合會〉, 『新聞報』(上海), 1920. 5. 5(李丹陽, 같은 글 17~18 면 재인용).

영국출신유대계러시아인리제로비치는 1917년부터상해로와서생활하고있었다. 그는 10 월혁명후소비에트정권을옹호하면서상해를오고가던포포프, 아가레프등여러혁명가와연락했다. 실제로러시아혁명가들은상해에장기거주한리제로비치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는데, 그는중국인급진주의자나한인독립운동가들과두터운친분이있었다.¹⁸ 리제로비치는비록볼셰비키는아니었지만공산주의를선전한것은물론영국제국주의를반대하는운동에심혈을기울이면서한중혁명가의지지를이끌어내려했다.

1918년 5월러시아적군소속포포프라는밀사가러시아외교인민위원회지지를받아정보수집을목적으로상해에왔다. 이때그가가명으로〈한러시아무산자로부터의호소〉라는글을한영문잡지에실었는데, 이것이러시아가중국에서 10 월혁명을선전한최초의문헌이라고한다. 1920년봄다시상해에왔는데, 이때그는블라디보스토크의러시아학생이중국과한인학생에게보내는글을휴대하고있었다. 당시포포프는중국인친구이자저명한아나키스트인장묵지(張墨池)와경매구(景梅九)의도움을받았다고한다. 장묵지는중국공산당의하나인지나공산당支那共產黨을대표하는인물이자한인혁명가와친분이깊었던사람이며, 경매구역시청말일본유학시절부터아나키즘활동을전개한인물이다.¹⁹ 포포프는중국공산당창립과관련이깊은「上海俄文生活報」편집에도참여했다.²⁰ 실제로그는중국에서정보국을세울계획이었으며, 상해에거주하던신문을만났고, 나중에는장주漳州에있던‘사회주의장군’진형명(陳炯明) 도만났다. 뿐만아니라상해의여러사회단체의책임자및국민당의고위인사들과관계를맺어그들에게러시아공산주의를선전했다. 포포프는아나키즘적성향이강하다고알려져있으며일본사회주의운동과도일정한관련이있었다고전한다.

1919년 12월상해에온러시아공산당당원이자해군중장인포타포프장군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²¹ 그는한인사회당의한형권(韓馨權) 을상

¹⁸ 李丹陽〈紅色俄僑李澤洛維奇與中國初期共產主義運動〉, 「中山大學學報」, 2002. 6, 61~62 면.

¹⁹ 장묵지와경매구는조선독립운동과깊은관련이있다. 장묵지는한때「新大韓獨立報」의기자를역임한바있으며, 경매구는박은식과깊은우정을나누었다. 포포프와이두사람은항일운동을매개로상해임정의한인독립운동가와관계를맺은것으로보인다(李丹陽·劉建一〈英倫航稿— 早期來華的蘇俄重要密使考〉「中共黨史研究」, 1998. 5, 92 면.

²⁰ 李丹陽·劉建一〈早期來華的蘇俄重要使者— 波波夫〉, 「檔案與史學」, 2002. 6, 54~56 면.

²¹ 포타포프는 1903~1904년동안한성주재러시아공사관에서무관으로근무한경력있으며 1917년러시아 2 월혁명에참여한후시베리아에서활동하면서많은한인들과교류했다. 그와친분이있던한인가운데이름이확인되는사람은이동휘와안창호, 한형권, 장건상, 문창범, 이광수, 여운형, 김복등이있다. 당시국내의「독립신문」(1920년 3월 1일자)에는포타포프회견기가실려있다(이애숙〈상해임시정부참여세력의대소교섭〉, 「역사와현실」 32호, 1999, 6면.

다. 오래된것은쓰러지고새로운것이솟아나는것이다. 지금권위를세우고있는것따위가무엇인가. 하루빨리그것을무덤속에묻어버려야하는게아닌가?''⁹⁶라며새로운세계에눈을떴다. 대삼영은인간을생물계의한종으로보았고, 인간사회의현상을생물계의한현상으로보면서관찰했다. 동물계에서진화의선두에선종족은투쟁보다는협동을선호한다는사실에 주목해인류가오늘날동물계의선두에선까닭도이처럼이해했다. 그는인간사회내부의협동이야말로진보의원동력이라고굳게믿었다.

대삼영은기존에발표한몇편의논문들을모아『크로포트킨연구』(1920)라는책을출판했다. 이책에는〈크로포트킨총서〉〈크로포트킨의생물학〉〈크로포트킨의사회학(상)〉〈크로포트킨의사회학(하)〉〈크로포트킨의경제학〉(이등야지의글), 〈크로포트킨의교육론〉(이등야지의글) 등이실려있다.⁹⁷ 이가운데〈크로포트킨의생물학〉에서는상호부조설을생존경쟁에대항새로운학설이라면서다윈주의의올바른해석이자보충이라고설명했다. 그리고크로포트킨이상호부조설의창시자는아니지만젊은시절부터이미다윈주의의생존경쟁설에의문을 품었다고소개했다.

이논문집에서는『상호부조』말고도『농장·공장·작업장』같은저서를 통해아나키즘의경제학에대해소개했고, “두뇌운동과근육운동과의조화”를핵심으로하는크로포트킨의교육론도언급했다.⁹⁸ 얼마후대삼영은청년시절감옥에서탐독하던크로포트킨의『한혁명가의회상』(1920)도완역, 출판했다. 마치중국의문학가이자아나키스트인파금(巴金)이 1930~40년대에크로포트킨의주요저작을대부분번역했듯이일본의대삼영도『뺑의쟁취』를제외한『상호부조』『한혁명가의회상』및『청년에게고함』등크로포트킨의주요저작을고루번역했다. 그번역수준이뛰어나지금까지도사람들에게읽히고있다.

대삼영은청년시절크로포트킨을우상시하다가적기사건으로투옥된 후생각의변화가일어났다. 크로포트킨저작을왕성하게번역할때, 역설적이게도크로포트킨을무조건추종하는것에반대하는태도를취한것이다. 이것은아마도당시일본아나키즘운동에서크로포트킨의위상이다소약화된상황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대삼영은사회적개인주의를생디칼리즘의목표와수단에잘결합해노동조합을통해크로포트킨의추상적인이론을명료화·구체화했으며, 이런생각을가지고일본의노동운동을

⁹⁶ 오스기사카에, 김응교·윤영수옮김『오스기사카에자서전』, 실천문화사 2005, 201면.

⁹⁷ 『クロボトキン研究』는『大杉榮·伊藤野枝選集』(黒色戦線社 1986) 의제 1 권으로나왔다. 이책은당시『大杉榮叢書』의하나로혜림(惠林) 이번역해중국에도소개되었다(大杉榮, 惠林譯『克魯泡特金研究』, 1924). 국내에도이책의번역본이 나왔다(이 지환편역『아나키즘의생물학·사회학·교육학·경제학』, 형설출판사 1979).

⁹⁸ 山泉進, 앞의글 163면.

이끌었다. 비록크로포트킨주의가경전이었던중국사회와는다소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역시크로포트킨의 저작들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대정시기에크로포트킨사상과관련해 주목할만한 또 다른 사건이라면 이른바삼호사건 森戶事件을 들 수 있다. 동경대학경제학부 조교수인 삼호진남(森戶辰男)은 학부의 학술지 「경제학연구」 창간호에 <크로포트킨의 사회사상 연구> (1920) 를 발표했다가 학내 우익 교수 및 단체들에 의해 불온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잡지가 회수되었으며 삼호진남은 휴직 처분을 받았다.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삼호진남과 편집 발행인을 기소했으며, 몇 차례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두 사람은 동경대학에서 해직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잡지에 그의 논문이 번역 소개되었다.⁹⁹

중일 아나키스트의 상호 인식

1910 년대는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에 아나키즘이 뿌리 내리는 시기로, 양국 간 교류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비록 중일 사회주의자의 교류는 정제되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복이나 대삼영은 꾸준히 상대방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두 나라의 잡지를 보면 돈독한 연대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 직후부터 중국인들의 눈에 대삼영은 이미 일본을 대표하는 아나키스트로 비치고 있었다. 사복생전에 「민성」에는 대삼영 관련 기사 4 호, 제 17 호, 제 18 호, 제 21 호에 걸쳐 네 차례 소개되었다. 「민성」 제 4 호에 실린 <일본 무정부당의 근황>에서는 행덕추수의 피살 및 일본 정부의 탄압 상황과 더불어 “대삼영과 몇몇 동지들이 「근대사상」이라는 잡지를 출판했는데, 은어와 암시의 방법으로 무정부주의를 선전”한다고 소개했다.¹⁰⁰

「민성」 제 17 호에는 “일본의 대삼영은 행덕추수의 옛 친구로, 그는 행덕추수의 운동에 모두 참가했다. 일찍이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최근에는 「노동자」라는 새로운 잡지를 창간해 직접 노동혁명을 제창하고 세계 어딘가에 도가입하려 한다. 일본 정부가 사회주의 아나키즘을 금지하려 하는데, 유난히 이 신문 하나만은 출판하려고 해서 분명 금지당하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삼영을 질시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친구들이 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러시아 볼셰비키와 중국 아나키스트의 직접적인 접촉이 늦어도 1919 년 이전부터 시작했으며, 천진 아나키스트 그룹인 사眞社의 강반약(姜般若)이라는 인물이 아마도 중국에서 가장 일찍 볼셰비키와 접촉한 인물일 것이라는 점이다.¹⁶ 실제로 1918 년 천진에는 진사라는 아나키스트 단체가 출현했으며, 다음 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신생명 新生命」이라는 잡지를 출판했다. 이 단체는 천진에서 활동하던 강반약이 남경의 아나키스트 그룹인 사眞社의 양지도(陽志道), 허진풍(許眞風) 등과 함께 처음 조직했으며, 북경의 아나키스트 그룹인 사眞社의 황릉상(黃凌霜)도 천진에 와서 「신생명」을 편집하는 데 참여했다. 그렇다면 천진의 진사는 천진과 남경, 북경의 아나키스트들이 연합한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이 청년들이 러시아 혁명과 일찍부터 접촉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1920 년 2 월 중순 황릉상이 이대조와 진독수를 데리고 천진에 왔는데, 일단 경찰에 쫓기는 진독수를 선박을 이용해 상해로 피신시킨 후, 어느 날 저녁 폴레보이를 방문했다. 이때 폴레보이의 제안과 이대조의 동의 아래 황릉상과 강약반, 장지, 호유현 등이 ‘사회주의 자동맹 社會主義者同盟’ 결성을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것이 아나-불합작의 상징인 사회주의 자동맹이라는 조직 명칭이 중국 공산당사에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다.¹⁷ 중국 학계에서는 이 동맹의 결성을 통해 이대조와 진독수가 중국 공산당 창립을 위한 탐색을 시작했으며 공산주의(사회주의) 소조의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사에 널리 알려진 “남진북이 南陳北李, 상약건당 相約建黨”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회주의 자동맹은 러시아인 폴레보이의 제안으로 중국 아나키스트 및 진보인사들이 함께 만든 연합 조직으로, 이대조와 진독수가 주동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아시아 급진주의자의 거점이던 국제도시 상해도 천진과 북경처럼 러시아 조계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920 년 무렵에는 수천여 명에 다다랐다는 통계가 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기차를 통해 합이빈 哈爾濱과 천진 등을 거쳐 상해로 오거나 혹은 선박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해로 곧바로 올 수 있었다. 상해는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론 일본을 연결하는 다양한 항로가 있어 러시아인은 물론한중일 혁명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북경 지역에 이바노프나 폴레보이가 있었던 것처럼 상해 지역에는 더욱 많은 러시아 혁명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리제로비치(Lizerovitch)와 포포프(M. G. Popov), 포타포프(A. S. Potapov), 세메슈코프(Semeshkov) 일행, 아가레프(A. F. Agareff) 등이 있다.

⁹⁹ 森戶辰男, 于樹德譯 <克魯泡特金社會思想之研究>, 「建設」第 2 卷第 3 號, 1920. 3; 森戶辰男 枕江譯 <克魯泡特金之社會思想研究>, 「解放與改造」第 2 卷第 9~16 號, 1920.

¹⁰⁰ <日本無政府黨之近況>, 「民聲」第 4 號.

¹⁶ 李丹陽, 앞의 글 45~46, 53 면.

¹⁷ 章志 <關於馬列主義在天津傳播情況>, 北京大學圖書館·北京李大釗研究會編『李大釗史事綜錄』, 北京大學出版社 1989, 544 면.

에서 활동한 북경대학교수인 이바노프(A. Ivanof) 등 몇 사람이 이런과 격당의 일일일 것이다.¹² 러시아공산당은 보트만과 견하기 전에 이런 재 중국 러시아 교민을 통해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 연구자의 고증에 따르면, 이바노프야말로 대조와 최초로 접촉한 러시아 혁명가라고 한다. 이바노프는 코민적이나 키즘과 노동조합적이나 키즘 사상을 가진 인물로 1907~17년 사이 프랑스에서 크로포트킨과 함께 활동했다고 전한다. 그는 1917년 2월 혁명 후 러시아로 돌아온 다음, 같은 해 9월 프랑스에서 배운 중국어 실력 때문에 케렌스키 정부의 외교 대표로 북경에 파견되어 러시아 공사관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이바노프는 중국 문화를 연구하는 한 학자이자 재북경 프랑스어 사회주의 잡지 「북경보」의 편집주필이었다.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자 혁명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1919년 9월부터 북경 대학에서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강의했다. 이 무렵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아나키스트 말고는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바노프 같은 러시아인의 영향 아래 북경 대학에 재직했던 이대조가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

그런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천진에 있던 폴레보이이다. 그 도 여러 단편적인 기록에서 러시아공산당원이자 아나키스트로 묘사되고 있다. 천진의 구 러시아 조계에 거주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조와 보트만 이 만나는데 중계인 역할을 했다. 폴레보이는 이바노프처럼 러시아 학자로 중국 고전문학특시 『시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인들과 왕래하며 중국어를 배웠고 1918년 후반에 천진 대학교수로 부임했다. 폴레보이는 천진의 영자신문 「화북명성보」와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얼마 후 이대조와 알게 되어 그의 소개로 북경 대학 러시아어 강사를 하며 천진과 북경을 오가며 중국 상황을 파악했고, 일부 급진적인 중국인들과 꾸준히 접촉했다. 그는 러시아공산당원이 북경에 오기 위해서 거치는 중요한 연락 거점이자 영향력 있는 소개인이었다.¹⁴ 폴레보이는 이대조에 게 모스크바에서 보내 온 마르크스주의 관련 소책자를 건네주었고, 청년들이 러시아로 유학을 가는 문제를 상의해주었다. 특히 중국 아나키즘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산발적이거나 그의 존재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보트만과 이대조의 만남이 전에 러시아 혁명과 중국 급진주의자와의 접촉이 이미 있었음을 알려준다.¹⁵

¹² 馬連儒 『風雲際會 — 中國共產黨創始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63 면.
¹³ 李丹陽 〈最早與李大釗接觸的蘇俄代表 — 伊萬諾夫〉, 『中共黨史研究』, 1999, 4, 88~90 면.

¹⁴ 馬連儒, 앞의 책 82 면.
¹⁵ 폴레보이는 천진에 온 보이딘스키를 만나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현황과 진보인사들을 소개했으며, 두 편의 중국 상황에 관한 보고문을 썼다. 1920년부터 1921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 창당 공작에 참여하여 코민테른 (임시) 동아서기처 북경 혁명국의 중요 인물이다 (張國燾 『我的回憶』 第 1 卷, 東方出版社 1991, 85 면; 寺山恭輔, 앞의 글 199~203 면),.

리지만 대삼영은 여전히 그 계획에 뜻을 두고 있으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도 뜻을 세워 희생하려 하기 때문이다”¹⁰¹라고 했다.

「민성」 제 18 호에는 대삼영이 새로 온 신문인 「노동자」를 출판하려 했으나, 같은 제목의 간행물이 있어서 「평민신문」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판할 계획이며 10월 출간에 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덧붙여 「평민신문」은 과거 행덕추수가 창간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 대삼영이 권토중래한 것은 실로 일본 동지들의 쾌거라고 했다. 사복은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을 온건파의 안부기웅과 마르크스파의 게리언, 직접 행동파의 행덕추수로나 누고, 행덕추수의 죽음 이후 그를 잇는 것이 대삼영이라고 소개하면서 “직접 행동파에서 나아가 정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우리당의 걸출한 장수”라고 칭찬했다.¹⁰²

「민성」 제 21 호에서는 대삼영의 「평민신문」출판 상황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 잡지의 제 1 호 인쇄는 끝났으나, 곧 경찰에 의해 몰수되었다”면서 일본에서 온 편지와 함께 일본 경찰의 억압 상황을 소개했다.¹⁰³ 다른 글에서는 비록 「평민신문」이 몰수당했지만 비밀리에 그 한 부를 얻었다고 했다. 이 신문은 “노동자 혁명 운동의 기관지”임을 자처하고 있으며, 신문의 일부분은 에스페란토로 나머지 는 일문으로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는 첫호 의 기사 제목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의 각오〉라는 기사의 일부를 번역 게재했다. 이처럼 사복의 민성과 대삼영의 움직임은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도 대삼영의 「근대사상」(제 2 권 제 4 호)의 편집 후기에는 사복과 민성과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사복측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민성」에 글을 기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삼영은 생디칼리슴 연구회가 열렸을 때 (1915년 1월 15일) 회원들에게 “중국 상해에 아나키스트 모씨가 발행하는 잡지 「민성」에는 〈크로포트킨의 전쟁관〉이라는 기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중 연설회 (1915년 4월 16일)에서는 한 일본인이 사복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대삼영도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근황과 사복의 죽음을 애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¹⁰⁴

사복과 대삼영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바로 대삼영과 에스페란토 운동을 함께 전개한 인쇄 활자 공출신인 산록태치(山鹿泰治)이다. 대삼영은 1914년 봄 대련 만철발전소에서 검정관으로 일하던 산록태치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서 그는 “중국의 동지사복이 상해에 잠입하여 에스페란토-중국어 혼용 아나키즘 운동지 「민성」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응원

¹⁰¹ 〈「勞働者」之創刊〉, 『民聲』 第 17 號.
¹⁰² 〈「平民新聞」復活〉, 『民聲』 第 18 號.
¹⁰³ 〈「平民新聞」之厄運〉, 『民聲』 第 21 號.
¹⁰⁴ 樋口進 〈巴金和無政府主義〉, 『巴金研究在國外』, 湖南文藝出版社 1986, 268 면 재인용.

하러가지않겠는가?”라면서사복의 「민성」출판을돕도록제안했다. 이에산록태치는비밀리에상해로가서 「민성」의발간을 6 개월가량도왔다. 훗날산록태치는자신의일생에서가장영향을끼친인물은대삼영과사복이라고말할정도로상해에서사복과의합작이산록태치에게강한인상을남겼다.¹⁰⁵ 산록태치는평소에중국인동료들과에스페란토를사용해대화로나누었으며, 그래도불분명하면한자로필담을나누었다고전한다. 이처럼에스페란토는아나키스트의국제교류와연대를가능케하는언어적도구로이용되었다. 그후그는대삼영이 「근대사상」(월간)을창간하고 「평민신문」(일간)을복간하자, 대삼영을돕기위해일본으로귀국했다.¹⁰⁶ 사복은산록태치와이별할때, “무정부주의는무강권이지혼란이아니다(크로포트킨의말). 재산은장물이고자본주의는도적이다(프루동의말). 친애하는벗산록을위해, 사복”이라고쓴글을기념으로선물했다.¹⁰⁷

이만남을인연으로산록태치는중일아나키스트의교류에큰발자취를남겼다. 예를들어 1922 년산록태치는대삼영의위조여권을만들기위해중국에건너와북경과상해에서활동했다. 북경에서는주작인의집에서머물며경매구(景梅九) 등과접촉했으나여권구입은실패했다. 다시상해로내려온그는화광병원의등몽선(鄧夢仙) 과접촉했다. 이때중국아나키스트그룹무정부주의자동맹(AF, 1922 년 4 월)에가입하거나아나키즘성향의대동당(大同黨, 혹은홍아사나구국단과같은유사단체)이라는조직에가입한기록이남아있다.¹⁰⁸ 그리고산록태치는 1927 년상해노동대학의초청에응해에스페란토교원자격으로다시잠행했다. 이런단편적인기록들은중일아나키스트간의연대정신이행덕추수의시대를이어대삼영의시대에도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¹⁰⁹

사복이후에출간된 「민성」에도일본관련기사는계속실렸다. 행덕추수의일생을다룬번역문과 「평민신문」이 2, 3 호계속인쇄되고있다는기사, 일본에스페란토협회의주장에대한소개등이연재되었으며,¹¹⁰ 중국에온한일본인아나키스트의이야기를담은기사도있었다.¹¹¹

신문화운동시기중국아나키스트의소식은 「노동운동」등을통해일본에도전해졌다. 「노동운동」(제 2 차)복간호에는 1920 년을전후

여기서는러시아의시베리아국이나원동국내에도아나키즘적경향이농후했다는사실을지적하고자한다. 특히원동국은노동조합적이아나키즘의색채가매우강했다고전한다. 예를들어극동공화국지도자이자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원동국위원장인크라스노스코프(A. Krasnoshchkov)는미국명망시아나키즘계열의 IWW 회원이었으며, 레닌의지지에힘입어극동지역의실력자가되었다. 그는 1918 년이동휘(李東輝)를도와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1918)을탄생시킨공로자이기도하다. 극동공화국교통부장도저명한아나키스트샤토프(B. Shatoff)였다. 그는아나키스트이면서볼셰비키정부를지원한대표적인인물로 1919 년가을적군장교의신분으로백군의침입에대항해페트로그라드방어에중요한역할을했다. 1920 년크라스노스코프의요청에따라극동공화국으로건너왔는데, 그는아나키스트가「혁명의남만주의자」들이라면서인간은이상만가지고싸울수는없고현재에충실해야하는데, 지금은반혁명파를패배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믿었다.¹⁰

러시아혁명가와중국아나키스트의접촉

중국의급진주의자와러시아볼셰비키와의접촉은우선천진지역에서나타난다. 1919 년여름장차중국최초의마르크스주의자가될북경대학교수이대조(李大釗)는천진에가서보트만(N. Bortman)이라는러시아인을만났다. 보트만은러시아공산당원으로 1919 년 3 월경블라디보스토크에서천진으로와활동하고있었으며, 훗날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시베리아국동방민족처주임이되는인물이다. 이때그는이대조에게러시아볼셰비키와중국초기공산주의자와의첫번째접촉이라고알려진사건이다.¹¹ 그렇다면이대조가만난보트만이정말최초로접촉한러시아혁명가였을까? 그리고보트만이하필이면천진이라는도시에서이대조를만난까닭은무엇때문일까?

당시천진은중국최대의구舊러시아조계가있던지역으로여러부류의러시아인들이이곳에거주하고있었다. 그가운데는공산당원은물론아나키스트도있었다. 북양정부의보고에따르면, “천진에서러시아과격당이기관을설치하고활동한다”는기록이남아있다. 1918 년부터천진에서활동한천진대학교수인폴레보이(S. Broway 또는 S. Polevoy)나북경

¹⁰ 폴레브리치, 앞의책 121~23 면. 크라스노스코프는 1921 년모스크바로소환되었고 1924 년공공형량죄로총살되었다.

¹¹ 당시중국에와서활동했던러시아공산당원몰러(A. A. Muller)의회고록에서언급한사실이다. 그가 1919 년 9 월천진에왔을때이미이곳에와있었던보트만이천진과북경대의진보청년들과, 광범위한관계를맺고있었으며, 이들과운데다수가중국아나키스트였으며그중이대조도있었다는것이다(李丹陽, 앞의글 52 면).

¹⁰⁵ 大島義夫·宮本正男 『反體制エスペラント運動史』, 三省堂 1975, 32~34 면.

¹⁰⁶ 近藤憲二, 앞의책 18 면.

¹⁰⁷ 玉川信明 『中國アナキズムの影』, 三一書房 1974, 93 면.

¹⁰⁸ 산록태치의중국회고는 「平民新聞」第 49 號(1947. 11. 21)부터상해의민성사, 대삼영의여권, 동지경매구, 삼무주의, 동양의해방등의제목으로몇차례실렸다. 또한 「自由聯合」第 97 號(1964. 4. 1)부터몇차례대삼영과관련한회고록이실렸다.

¹⁰⁹ 川上哲政 〈大杉榮のみた中國〉, 「初期社會主義研究」第 15 號, 2002 참조.

¹¹⁰ 〈幸徳秋水君行畧〉, 〈最近日本黨人舉動〉, 〈日本之無政府黨世界語會〉, 「民聲」第 25 號, 1915. 6. 1.

¹¹¹ 〈日本無政府黨一瞥〉, 「民聲」第 29 號, 1916. 12. 28.

다. 여기서는 중국의 사례에 제한해이나-불합작과 분열 및 논쟁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1917년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 초까지 러시아 공산당은 시베리아 지역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1920년 초 이후에 점차 안정을 찾아 중국에 대한 불세비즘 선전이 활발해졌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공작원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타난 시점은 1920년 4월이다. 하지만 그전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내정에 관한 첩보를 탐문하는 자도 있었고, 러시아 공산당 당내의 소속은 불분명하나 손문(孫文) 등 반군벌 정치 세력에 접근하기 위해 파견되어 온 자도 있었다.⁶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국 공작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러시아 공산당계통과 외교인민위원회계통, 코민테른계통 등이 있었다. 다가 1920년 4월에 러시아 극동 지역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완충 목적으로 성립한 극동 공화국계통도 있었다. 이렇듯 러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동아시아 혁명을 추진할 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했다.⁷ 우선 러시아 공산당의 중앙 지속기구로 1918년 12월 성립한 러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시베리아국과 극동 공화국 국경내에 1920년 3월 성립한 러시아 공산당 극동 주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동 주위는 성립 초기에 시베리아국의 하급 기관이었으나 얼마 후 개조하여 시베리아국과 동급 기관인 러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동국이 되었다. 시베리아국은 1920년 8월에 이르쿠츠크에 동방 민족처를 설립했다. 그런데 동방 민족처는 극동 공화국 정부까지 휘하하는 원동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극동 공화국이 비록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독립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극동 공화국의 정식 외교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린(M. I. Yurin) 대표단이 대표적이다.⁸ 러시아 공산당이 나코민테른의 자금과 정보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반드시 극동 공화국의 경내(치타 등)를 경유하지 않으면 곤란했다. 이 두 조직의 경쟁 관계는 나코민테른의 결정에 의해 나코민테른 집행 위원회 극동 서기처를 극동 지역에만 들려했으나, 시베리아국 동방 민족처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이르쿠츠크에 극동 서기처가 겨우 성립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⁹

⁵ 아나키즘-불세비즘 합작(ab 합작)은 쌍방의 공동 목표와 계급 투쟁 대상 말고도 러시아 공산당과 나코민테른의 책략이 중요한 동인이었다(李丹陽, 앞의 글 56면).

⁶ 서상문 『프로메테우스의 별』, 백산서당 2003, 199면.

⁷ 劉孝鐘 <コミンテルン極東書記局の成立科程>,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2007, 20면.

⁸ 유린 사절단에 대해서는 寺山恭輔 <革命ロシアからの密使と中國>,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2007, 193~99면 참조.

⁹ 石川禎浩, 袁廣泉譯 『中國共產黨成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80~83면 <中國共產黨成立史>, 『一大前後』 第3卷, 人民出版社 1984, 153~54면.

한 중국 사회의 변화상을 다룬 기사와 대만의 자치 운동을 다룬 기사, 조선인의 독립 운동을 다룬 기사 등이 실렸다.¹¹² 이런 기사를 쓴 고진정도(高津正道)는 중국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기사도 썼다. 여기서는 1912년 광둥에서 유사복이 회명 학사를 만든 것을 중국 아나키즘의 출발로 잡아 1919년 5·4 운동을 전후해 아나키즘이 중국 사회에 큰 호소력을 얻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황릉상과 구성백 등의 아나키스트가 활동 중이고 여러 지역에 아나키스트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사회 운동의 양대 세력이 불세비즘과 아나키즘이라고 했다.¹¹³ 그는 “산업 발전이 늦은 중국에서 혁명도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며, 본인은 애국심이 불세비즘과 결합하는 중국의 변화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노동 운동」(제 3 차) 복간 호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진춘배(陳春培)의 <중국의 무정부주의>라는 장문의 글이 있다. 신문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허무주의 사상과 신세기파의 사상, 사복의 회명 학사 순으로 중국 아나키즘을 소개했다. 특히 사복의 「민성」 잡지와 그의 죽음, 심사의 계율 등을 설명하고, 사복의 죽음 후 광둥에서의 노동 운동과 기타 지역의 상황을 간략히 소개했다.¹¹⁴ 이 글은 일본에 중국의 아나키즘 운동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대표적인 기사이다.

¹¹² 高津正道 <新支那の勃興>, 「勞動運動」 第1號, 1921. 1. 25; <臺灣の自治運動>, 「勞動運動」 第3號, 1921. 2. 10; <朝鮮人とその獨立運動>, 「勞動運動」 第4號, 1921. 2. 20.

¹¹³ 高津正道 <支那に於ける無政府主義運動>, 「勞動運動」 第8號, 1921. 4. 3.

¹¹⁴ 陳春培 <支那の無政府主義>, 「勞動運動」 第11號, 1923. 2. 10.

제 3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러시아혁명의 영향

러시아공산당과 아나르코볼셰비키

동아시아사회는 20세기 초반에 각종 사회주의 사조를 수용했는데, 아나키즘이 마르크스주의보다 먼저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사복(師復) 과대삼영(大杉榮)은 신문잡지의 발행을 통해 아나키즘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조직망까지 구축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는데, 여기서 마르크스주의란 엄격한 의미에서 마르크스 본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레닌의 볼셰비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주의를 지향한 아나키스트나 공산주의자 모두 일국차원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혁명의 범주로 삼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과 일본에 처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한 급진주의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아나키스트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서양의 각종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나 엥겔스의 『가족·사유재산과 국가의 기원』 등을 인용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번역했다. 물론 아나키즘이 마르크스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소개가 이루어졌으나 마르크스주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혁명의 성공 이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른바 초보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등장한 다음에도 아나키스트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얼마간 우호적인 눈길을 보였다.¹ 실제로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유재산제도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공유, 사람의 개성과 자유회복,

¹ 아리프 딜릭은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받아들이는데 호조와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아나키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나키즘은 중국 공산주의의 기원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196~230 면).

착취계급과 반동정부의 타도 등이 그렇다.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투쟁 방식에 있을 것이다. 이때문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의 합작(이하 아나-볼합작)은 자주 나타나지는 현상이었다.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자 아나키스트 가운데 일부는 최우선의 과제가 볼셰비키와의 일시적인 동맹을 통해서라도 백군의 위협으로부터 혁명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아나키스트들은 백군에 포위당한 볼셰비키 정권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아나키스트들 중에는 적군에 복무하면서 레닌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 인물도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나-볼합작이 활발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혁명 자체가 아나-볼간의 합작품이었다. 혁명 직후 갈등 시기가 있었으나,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으로 내전이 시작되자 다시 양자간 합작이 이루어졌다. 레닌조차 1919년 8월 내전이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 아나키스트들을 이용할 목적에서, 그들이야말로 혁명정신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로 "소비에트 권력을 가장 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² 러시아 볼셰비키는 국외의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장기간 단결합작의 방침을 세우면서, 그들은 가장 좋은 동지이자 친구이며 가장 아름다운 혁명가라고 칭찬했다. 특히 코민적 아나키스트와의 합작을 환영했는데, 실제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 따라 이른바 '아나르코볼셰비키'들이 나타났다. 러시아에 돌아온 만년의 크로포트킨도 코민적 아나키스트와 국가주의적 집산주의자(즉 마르크스주의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요소로 잘 알고 있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연합할 수 있다고 믿었다.³

동아시아사회에 공산당이 창립되기 전에 아나키즘이 초보적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이미 정설이 되었다.⁴ 그리고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아나키스트와 초보적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 합작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양자의 연합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과 대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

² 폴 에브리치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 예문 1989, 121 면.

³ 李丹陽 <AB 合作在中國個案研究 — 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2002. 1, 68~69, 71 면.

⁴ 딜릭은 1917년 러시아혁명부터 1921년 중국공산당의 창당까지를 집중 탐구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창당 배경에 관해 러시아혁명과 코민테른의 영향을 강조하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중국내의 움직임 중시했다. 하지만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학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이대조(李大釗)와 진독수(陳獨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1917년 10월 혁명이 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던 아나키즘과 인민주의 같은 사회주의 사조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아나키즘이야말로 신문화운동의 문화혁명론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5·4 운동을 거치면서 사회주의가 중국의 새로운 출로로 비쳐자 아나키스트의 주장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한다. 이런 전제 아래 딜릭은 중국공산당의 창당은 광의의 사회주의 자조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코민테른의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나키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Arif Dirlik, *The Origins of Chinese Commu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이병주 <최근美學界의 중국사연구 동향>, 『大邱史學』 제 38 집, 1989, 381~85 면 참조).

에 체포되어 15 년형을 받았다. 다시 체포된 까닭은 불분명하지만, 어쩌면 총독부 폭파를 계획하지 않았나 싶다. 결국 1945 년 해방을 불과 몇 달 남겨 두고 일본 감옥에서 고독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⁴⁵

한편 북경에서는 1923 년에 대만 출신 학생과 조선 망명 학생들이 만든 한대혁명동지회 韓臺革命同志會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 항일 단체는 사회주의 경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책임자는 장종전(張鐘銓)이었다. 대만 학생들과 달리 조선 학생들은 모두 망명객이라 경제 조건도 다를 뿐더러 행동 방식도 서로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과격했다고 전한다. 대만 학생들은 “대만이 해방되려면 조국이 강대해 지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온건하게 생각해 무장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않자 오래지 않아 해산되었다. 이 단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짧은 기록이 전한다.

(1924 년?) 고려혁명군이 러시아 국경에서 해산당한 후, 이범석(李范奭)은 오기성(吳基星)이란 가명으로 북경에 잠입하여 대만 혁명가들과 연합해 ‘한대혁명동지회’를 발기했다. 그러나 행동 강령을 만들 때, 이씨는 폭력과 암살을 주요 수단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는데, 대만 지사들은 반대 의견을 견지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대륙과 붙어 있어서 일이 실패하더라도 도주하기 쉬우나, 대만은 사면이 바다라서 일이 실패하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몇 차례 회의 후와 해되었다.⁴⁶

이 두 조직의 결성 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단체명이 동일하고 해체한 까닭이 유사하므로 같은 사건을 담은 기록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 조직은 상해에서도 나타나다.

3. 상해 지역

삼이 협회와 「투보」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당을 조직했던 이동휘는 상해 임시 정부의 국무 총리로 선출되자 지지도 부와 함께 근거지를 상해로 옮겼다. 1919 년 9 월경 그들은 다시 한인 사회당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를 선전했다. 다음 해 초 러시아에 남아 있던 한인 사회당 당원 일부도 상해로 건너와서 이들과 합류했다. 이동휘는 러시아 공산당에서 파견한 보이틴스키의 재정 지원으로 여운형(呂運亨)을 비롯한 일부 임정 요인들을 사회당에 가입시켰다. 1920 년 9 월

⁴⁵ 장심절은 훗날 범본량을 “나는 범본량이 대만의 혁명 전선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용감한 혁명가의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진실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파괴되어 버린 무정부주의자였다”라고 평가했다(張深切 〈記范本梁烈士〉, 『臺灣近代人物集』 第 1 卷, 167 면).

⁴⁶ 石源華編著, 앞의 책 137 면.

운자본가들이 등장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낸다. 하지만 글의 후반부에서는 여전히 중앙 집권화 된 국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스테파니가 혁명이란 제 조할 수 없으며, 더욱이 독재 수단을 채용할 수 없다는 아나키스트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기고 문의 다소 자기 모순적인 내용은 아나-불분열이 시작되는 1921 년 초의 상해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른바 아나르코볼셰비키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고뇌를 드러내는 글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 1921 년 3 월 27 일 스테파니는 돌연 사망했다. 대체로 타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 당시 신문 기사대로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정신상의 고통’ 때문인데, ‘환경의 압박’을 받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와 같은 결심을 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쩌면 그의 죽음은 중국에 온 이래 전력 투구했던 상해에서의 아나-불합작이 붕괴된 것과 관련 있을 지도 모른다.⁷²

아나-불분쟁의 전개

광주에서 진독수와 구성백은 몇 차례의 공개 서신을 통해 논쟁을 계속했고, 얼마 후 진독수는 「신청년」에 〈토론 무정부주의〉(9 권 4 호)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전부 공개했다.⁷³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진독수와 정현종의 논쟁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왜냐하면 구성백은 5·4 운동 시기 북경에서 「자유록」, 상해에서 「진화」 등을 발간하던 유명한 코뮌적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식 아나키즘의 주류인 코뮌적 아나키스트에게 포문을 연 것이다.

대부분의 논쟁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사상 투쟁의 성격이 점점 분명해졌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아나-불분쟁이 일어났다. 아나키스트들은 이 시기에 「신청년」「각오」 등의 지면을 빌려 반격에 나섰다. 특히 사복이 죽은 뒤 장기간 정간되었던 「민성」을 복간해 논쟁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 잡지는 특별호(제 30 호)를 발행해 마르크스주의, 볼셰비즘,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 투쟁 등에 관

⁷² 스테파니의 의문의 죽음에 관해서 당시 상해의 여러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을 정리해 옮기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21 년 3 월 27 일 새벽 상해 동서화덕로 東西華德路 2098 번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 신문 기자 스테파니(27 세)가 6 연 발권 총으로 오른쪽 머리에 4 발 발사한 채 쓰러진 것을 발견해 공제의원 公濟醫院에 옮겼으나 다음 날인 28 일 사망했다. 러시아 총영사가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매장했다. 공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병원에서는 러시아 총영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스테파니의 침실에는 여기저기 혈흔이 있었고, 6 연 발권 총 1 정과 4 발의 탄피가 발견되었다. 시신의 우측 태양혈 머리에 4 곳의 구멍이 있었고, 탄알은 모두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방 안에서 친필로 쓴 부모형제 父母兄弟에게 보내는 편지 1 통이 발견되었다(〈자살한 신청년〉, 「民聲」 第 31 號, 1921. 4).

⁷³ 鄭賢宗·陳獨秀 〈討論無政府主義〉, 「新青年」 第 9 卷 第 4 號, 1921. 8. 1.

한비판을 쏟아냈다. 이에대응해 「공산당」 같은마르크스주의잡지에서 도아나키즘에관한여러가지비평을실었다. 그대표적인글은몇차례에걸쳐실린 〈단언短言〉이라는사설과이달(필명江春)의 〈사회혁명에대한생각〉 〈무정부주의의해부〉 및필명무해(無懈)의 〈우리는왜공산주의를주장하는가〉 〈정권을탈취하자〉 등을들수있다.

아나키스트와마르크스주의자사이의논쟁에서초점이됐던문제는대략세가지이다.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와마르크스주의국가론문제, 둘째, 개인의자유와당의규율문제, 셋째, 생산과분배문제등이다. 아나키스트는국가의해체를목표로하므로자유를억압하는강권이라는점에서는부르주아국가든프롤레타리아국가든간에크게다를바가없다고보았다. 그들에게프롤레타리아독재란단지폭력으로폭력을제압하는방식이지나지않는것이므로, 그것에동의할수없었다. 아나키스트는자유연합의원리에기초해조직과규율이개인의자유를침해할경우가차없이비판했는데, 여기에는불세비키의민주집중제같은다수인소수인의자유를억압하는원칙도해당되었다. 이에반해마르크스주의자는국가를단숨에폐지할수는없으며, 부르주아의음모를분쇄하기위해프롤레타리아독재도과도기적이거나유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그들은인간사회에절대자유란없으며, 오히려당의규율에대한절대적복종의필요성을역설했다. 나아가혁명시기에권력의집중을위해서는개인의자유를제약할수있다고했다.

아나키스트는생산자의자주관리원칙에의거해“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구호를내세웠다. 그들은경제투쟁을정치문제로부터철저히분리할것을강조하며, 노동문제를노동자 스스로해결할것을희망했다. 이에반해마르크스주의자는자주관리는애당초불가능하며, 혁명후에도생산력의한계가있으므로“노동에따른분배”를해야한다고역설했다. 그들은경제와정치문제는밀접한관계를가진것으로서로분리할수없다고믿었다. 이처럼마르크스주의자의눈에는아나키스트가공상주의자로, 아나키스트의눈에는마르크스주의자가국가주의자로비쳤다. 아나-불논쟁은러시아공산당과코민테른의지도아래중국공산당제1차대표대회가열림으로써새로운전기를맞이했다.

아나-불논쟁이전개되던중레닌의지시를받은코민테른의정식대표마링(H. Maring)이 1921년 6월중국에파견되었다. 그의지위는보이틴스키보다높았고, 러시아불세비키도아니었다. 그해 7월마링은보이틴스키를대신해파견된원동국요원니콜스키(V. A. Nikolsky)와함께전국여덟곳의공산주의소조대표 15명을모아중국공산당을창립했다. 중국공산당역사의시작이자코민테른이직접중국공산주의운동에개입하는시점이였다. 당시에발표한중국공산당강령에는아나키즘을배척하겠다는의지가엿보이지만, 공산당내에는여전히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이포진하고있었다. 그래서인지마링은훗날이른바중국공산당의‘일대

〈대만혁명운동방법〉(제 3 호, 1925 년 3 월)에서는사약社約 3 장도제시했다. 사약 3 장이란첫째, 비밀을누설하는자는사형에처한다, 둘째, 최선을다해노력하지않는자는견책한다, 셋째, 회원은각자무한책임을진다등이다.⁴² 범본량은대만혁명운동의방법을설명하면서“동포들이여바쿠닌이리용에서심문받을때외쳤던두가지주장과허무당의한가지말을잊지말자”고했다. 여기서두가지주장이란“머릿속의사상은총구의탄환이다”와“한개의폭탄은책심만권의선전보다낫다”는것이다. 그리고한가지말이란곧“목적이수단을결정한다”는주장이다.⁴³ 이처럼「신대만」에서는암살을주요수단으로삼은직접행동에의한사회혁명을주장했다. 신대만안사가폭력적혁명수단으로대만총독, 관리, 앞잡이, 자본가를암살해일본강도를몰아내자고주장한것은대만아나키즘운동의출발을알리는고독한외침이었다.

여기서궁금한사실은신채호가만든 〈조선혁명선언〉(1923 년 1 월)과신대만안사선언의유사성여부이다. 잘알려진바와같이“일제는한민족생존의적이다”“강도정치에타협기생하는자는우리의적이다”“외교준비의미움을버리고민중직접혁명을선언한다”“양병 10 만이일척의작탄만못하다”“이족통치를파괴하고신조선을건설하자”등의내용을담고있는〈조선혁명선언〉의민중의직접혁명론과개인테러중심의열투쟁론은위에서소개한범본량의주장과자못유사하다. 현재로서는두선언의인과관계를명확하게밝히기는어려우나, 두사람의개인적친분을고려한다면서로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범본량과친구였던유자명의회고에따르면, 1924 년무렵자신은신채호와함께있었던시간이가장길었으며, 대만벗들인범본량, 임병문등과도갖은왕래를했는데, 그들의소개로자신이천주회관에숙박할수있었다고한다.⁴⁴ 당시한인들은한중간의국제적재후에주력했는데, 여기에는대만동지들도포함되었다. 한인과대만인아나키스트들은 1924 년 9~10 월경경제적곤란을타개하기위해상해로이주했다. 이때범본량도상해로내려가던지의대만인에게아나키즘을선전했다. 여기서장심절(張深切)을알게되어「신대만」을대만에가지고귀국하도록의뢰했다. 이로말미암아「신대만」은상해와광둥은물론대만섬에도전파되어대북무산청년과대만흑색청년연맹이탄생하는계기를마련했다. 범본량은 1925 년경다시북경으로돌아왔으나, 장작림(張作霖)의봉천군이북경을점령하자탄압을피해대만으로귀국했다. 귀향후에도아나키즘이념을적극적으로전파했으나, 그해 1926 년 7 월치안유지법위반으로체포되어징역 5 년의판결을받았다. 그는 197 년에다시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대만당국

⁴² 박환, 앞의책 13~14 면재인용.

⁴³ 〈臺灣革命運動方法〉, 『新臺灣』第 3 號, 1925. 3.

⁴⁴ 류연산 『류자명평전』, 충주시에성문화연구원 2004, 162 면.

과에서 나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체의 권력과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려는 악과惡果인 것이다. 이런 일체의 압박과 착취를 타도하려면, 동경에서 진행 중인 유치한 대만 민선의회 청원 운동은 절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르크스파의 적색 러시아도 이미 자본가의 색채를 드러내고 잘 못된 중앙 집권을 주장하므로, 우리 무정부주의자들은 이에 대해서 굳건히 투쟁해야 한다.³⁸

우선 범본량은 대만 정치 운동의 주류인 대만 의회 청원 운동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세계 각지의 운동, 예를 들어 민족자결운동, 인도·필리핀·조선의 독립운동, 일본의 보통선거 운동과 우리 대만의 민선의회 운동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폭력으로 폭력을 대체하려는 운동에 불과하므로,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야심가들이 군중의 혁명 심리를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것이다. 가련한 민중들의 재산과 피눈물을 희생시켜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다.”³⁹라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같은 글에서 “마르크스파의 소련을 살펴보면 결국 자본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가 중앙 집권의 착오를 주장한다면 우리들 무정부주의자들은 마땅히 의연하게 분노해야 한다. 생명을 담보로 해 일체의 권력을 타파하고, 모든 자원을 쥘지 못한 제도를 전복시키며, 비과학적인 미신을 제거하여, 노동 대중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전체 피압박자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분투하자.”⁴⁰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범본량이 대만 의회 설치 청원 운동과 소련의 신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당시 대만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격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의제에 대한 비판 및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는 전형적인 아나키스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집행부 선언〉(제 2 호, 1924 년 12 월)에서는, “대만 민족이 생존을 유지하려면 일본 강도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일본 강도를 몰아내려면 폭동과 혁명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때문에 우리들은 강력히 주장하니 (1) 대만 총독과 관리들을 암살하고, (2) 전체 일본의 요인과 관리들을 암살하고, (3) 특무 앞잡이와 국민을 속이는 부패한 무리들을 암살하고, (4) 자본가와 특권 계급을 암살하고, (5) 적들의 일체 시설을 파괴하자. 암살을 끊임 없이 진행하고 폭동을 계속 일으키면, 대만 민중의 혁명은 성공할 것이다!”⁴¹라고 선언했다. 여기서는 일본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대만 동포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만 민의 혁명을 목표로 신대만 안사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一大’를 정당이어 아닌 ‘공산주의 소조’라는 용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학계와 달리 ‘일대’의 역사의의를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로 보여 미심장하다.⁷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벌의 합작은 창당을 전후해서 여러 차례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21 년 2~4 월 경 사복의 제자로 알려진 빈첸 문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파견된 한 러시아 공산당원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상해에서 노동 단체 지도자들과 삼무학사 三無學社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정부분서가 남아 있다.⁷⁵ 이 단체는 평민 혁명을 고취하여 노동자들 사이에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군인 등을 대상으로 『목병수지 目兵須知』 『소년 告少年』 등의 아나키즘 혁명 관련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1921 년 3 월 크로포트킨 이사 사망 자광동의 아나키스트는 광주에서 대규모 추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진독수와 진공박, 담평산 등도 참가했다. 같은 해 5·1 절 행사에서도 이들은 함께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시위를 했다. 이때 마르크스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초상화와 붉은기를, 아나키즘을 찬성하는 자는 크로포트킨의 초상화와 검은기를 내세웠다고 한다.⁷⁶

중국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나-불논쟁 과정에서 공산당 창립에 성공하자 독자적인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논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일부는 이석증(李石曾)과 오치휘(吳稚暉) 등에 의해 추진 중이던 유법 근공검학 운동에 참여해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 이석증 등은 중국과 프랑스에 각각 화법 교육회와 리옹 중법 대학을 만들어 유학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구성백과 화림, 유석심, 이탁(李卓), 유무위(劉無爲), 유포축(劉抱蜀) 등 차세대 청년 아나키스트 다수가 유학을 갔다. 혹자는 이로써 논쟁이 일단락 되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논쟁이 지식인 사회를 넘어서 노동 운동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논쟁은 프랑스 유학생 사회에도 번져 더한층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당시 프랑스는 사회주의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 중국인 사회에서의 논쟁은 당의 건설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관련해도 논의 수준이 높았으며, 한창 진행되던 러시아 혁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프랑스 중국 아나키스트들은 1921 년 가을 공여사 工餘社를 만들고, 다음 해 1 월에 「공여 工餘」를 창간했다. 이 잡지를 통해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비판했는데, 이것은 일당 독재일 뿐만 아니라 당내 몇 사람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은 개인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국가 곧 볼셰비키 정당과 관료 개인 사업가를 대신해 착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다. 소련 정부

³⁸ 〈新臺灣安社宣言〉.

³⁹ 같은 글.

⁴⁰ 같은 글.

⁴¹ 〈執行部宣言〉, 「新臺灣」第 2 號, 1924. 12.

⁷⁴ 劉宋斌·姚金果 『中國共產黨創建史』, 福建人民出版社 2002, 413~15 면.

⁷⁵ 〈國務院爲嚴密查緝費哲文等在滬密設三無學社鼓吹平民革命有關文書〉, 『中國無政府主義和中國社會黨』, 江蘇人民出版社 1981, 82~84 면.

⁷⁶ 鄭佩剛, 앞의 글 963 면.

신대만안사

북경의대만유학생들은북경대만청년회를결성(1922년 1월)해대만과해외의민족해방운동에호응했다. 이단체는범본량과왕열지(王悅之), 임병곤(林炳坤), 정명록(鄭明錄), 진강동(陳江棟) 등 5인이발기했다는설이있지만, 범본량은그해 8월동경에서북경으로왔기때문에나중에참가한듯하다. 그리고명예회원으로논이석증과채원배, 호적(胡適), 양계초(梁啓超) 등이있었다. 북경대만청년회발기인의정치성향은다양했으며, 창립시기만해도사회주의운동이나사회혁명의필요성에공감하지않았다고한다. 그들은주로민족자결주의의계몽활동과대만에서전개되던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에찬성하는주장을 폈다. 이단체는화북대만인대회를열어〈화북대만인대회선언〉을발표했는데, 여기서는일본의총독정치를비판하고, 대만민중과전세계피압박약소민족과함께투쟁하며, 일체의강권과부자연스러운제도를타도하자고주장했다.

대만아나키즘운동사의첫페이지를장식하는신대만안사新臺灣安社가바로이즈음결성되었다. 범본량(범명鐵牛)³⁵은북경대학철학과에청강생으로있으면서, 현지의아나키스트나대만유학생들과왕래했다. 북경대만청년회에서활동하면서중국아나키스트경매구등 190여명이참여한북경안사北京安社에도가입했다. 1924년 2월 8일연경대학의허지산(許地山) 등과신대만안사를조직했는데, 대만인이처음으로만든아나키즘조직이었다. 이사회혁명단체에는임병문(林炳文)을비롯해가명으로보이는명협(鳴俠) 과치원(致遠), 찬시(贊是), 모진(慕眞), 애양(愛陽) 등 18명이회원으로있었다.³⁶ 당시재북경대만인유학생들은주로사렴청(謝廉淸) 과사문달(謝文達) 등이주도하는공산주의운동에경도되어있어서아나키스트는소수에불과했다.

범본량은신대만안사의기관지「신대만新臺灣」 창간호(1924년 4월 15일)를발행했다. 그는〈신대만안사선언〉에서다음같이주장했다.³⁷

현재우리대만민중이열렬히희망하는것은무엇인가? 무슨목표를위해분투하는가? 우리들은감히말하니, 행복과평화를위하려면, 진리와광명을위하려면, 정의와자유를위하려면분투해야한다. 세계어느지방의약소민족과마찬가지로대만민중은일체의부자유, 불평등, 빈곤, 암흑을겪고있는데, 이모두가국가, 정부, 관료, 군벌, 귀족등강자들의죄악에서온것이며, 자본가, 지주, 공장주, 은행가등도적들이만들어놓은죄

³⁵ 楊碧川〈無政府主義者 — 范本梁〉, 『臺灣近代名人誌(3)』, 自立晚報社 1987 참조.

³⁶ 박환, 앞의책 23면.

³⁷ 〈新臺灣安社宣言〉, 『新臺灣』第1號, 1924. 4(王曉波編『(新編) 臺胞抗日文獻選』, 海峽學術出版社 1998, 289~95면).

가실행한산업국유화정책도노동자와농민의권리를박탈한것으로자본주의제도아래의압제와다름없다면생산수단을노동자에게넘겨줄것을요구했다. 특히레닌의신경제정책을자본주의의부활이라고맹비난했다. 또한아나키스트는공산주의자들이“마르크스를교주로받들고”“『자본론』이나『공산당선언』을성경처럼여긴다”고조롱하면서중앙집권적당조직을해체할것을주장했다.

이런비판에대해채화삼(蔡和森) 과周恩래(周恩來) 같은마르크스주의자는「소년少年」(1922년창간)이라는잡지를통해반론을나섰다. 그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는역사발전과정의필연적인산물이며, 현재러시아의소비에트안에서다수의노동인민이충분한민주를향유하고있다고선전했다. 그리고산업국유화정책은생산력을집중하는데서나타나는필연적인현상이고, 그안에서노동자와농민의권리가보장된다고강변했다. 또한레닌의신경제정책은현실에서출발한정책으로매우성공적으로추진중이라고보았다. 그래서그들은아나키스트와는달리소련의혁명이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평가를내놓았다. 덧붙여공산당원이지도자에게복종하는것은교도가교주에게맹종하는것과는전혀다르다면서, 당원은지휘를받으면서지도자를감시하기도한다는점을강조했다.

앞에서소개한논쟁내용을보면논쟁과정이며우격렬하게진행된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반드시그렇지만은않았다. 어쩌면그들의논쟁은동류이파同流異派의관점에서이루어졌다고보는것이오히려실제와가까울것이다. 일부마르크스주의자는아나키즘이중국에서가장오래된사회주의이며, 상당히심오한이론적기초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인정했다. 그래서인지등중하(鄧中夏) 와구추백(瞿秋白), 시준통등의글을보면, 이들모두논쟁당시아나키스트와마르크스주의자는궁극적인목적이동일하나단지그수단에서차이가날뿐이라고주장했다. 한마르크스주의자의말을빌리면, “우리들이현재주장하는것은아나키즘이아니라, 아나키즘에도달하기위한과정의하나인공산주의”⁷⁷라는것이다. 양자의구분조차매한경우도나타난다. 이달의경우, 아나-불논쟁에서레닌의불세비즘을적극옹호했던대표적인논객가운데한사람이지만노동조합적아나키즘과불세비즘의차이점을분명하게나누지않았다. 그가보기에이두집단의차이는단지채택한수단이 다르다는점뿐이었다. 그리고시준통이불세비즘의입장에서아나키즘을비판했음에도불구하고당의영도나노동연맹이필요없다고주장한다든지, 혹은사회주의를믿는학생과노동자, 군인의 3대세력이연합해서사회혁명을이룩하자고한사실은차라리불세비즘이라기보다는아나키즘의주장에더가까운것이였다.⁷⁸ 이처럼상

⁷⁷ 無懈〈我們爲什麼主張共產主義〉, 『共產黨』第4號, 1921. 5. 17.

⁷⁸ C. T. 〈我們要怎樣干社會革命〉, 『共產黨』第5號, 1921. 6. 7.

또다른인물심용해는길림성출신으로비록조선말은잘하지못했으나, 중국어와에스페란토가매우능했다고한다. 그는중국이나키스트의각종언론활동에도참여한것으로알려져있다.³³ 심용해는 1929 년길림에서한인공산주의자(일본영사관밀정)에의해암살당했다. 민국대학이나그림은이석증과오치휘, 채원배, 장계등의지원을받아 1925 년봄부터「동방잡지」를발행했다고하는데역시전해지지않는다. 앞의‘연맹’이나‘아나그림’모두이석증과오치휘같은구신세기파아나키스트의지원을받았다는사실은기억할만하다.

그후유서와심용해등을중심으로다시고려청년사(1926)가조직되었는데, 이단체는앞의흑기연맹의전통을계승한듯하다. 이들은중국어로된「고려청년」(1926년 3월)을간행했는데, 중국인들에게조선의실상을소개하고, 피압박민족상호간의단결을모색했다. 특히과금은고려청년사에공개편지를보내어서로간의깊은인연을서술하면서, “고려민중을우방민중에게소개하고, 우리민족및기타약소민족에대한적들의모든제국주의침략정책및그수단을폭로함으로써피압박민족간에강대한결합을도모하고자한다”고 썼다.³⁴

오건대 1921 년의「천고」는전형적인아나키즘잡지라고는볼수없으나 1924 년의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전형적인아나키스트단체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이조직의출현은한인아나키즘운동의시작이아니라 1920 년대초각종사회주의사조가혼재되어있던시기로서나자신만의정체성을확립한시점혹은운동에대한새로운질적인변화를가져온사건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도아나키즘활동에적극적이었다. 그는 1928 년 3 월상해에서유자명, 구양군(歐陽軍), 유림(柳林), 한일원(韓一元), 이을규, 윤호연(尹浩然) 등과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만들었고, 다시같은해 6 월윤호연, 안태근(安泰根) 등과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에참가했으며 1930 년 4 월에는남화한인청년연맹을조직하는데기여했다. 1937 년에는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을유자명, 박기성(朴基成), 이승래(李升來), 정화암, 이종봉(李鐘鳳) 등과함께만들었다. 그는항일전쟁시기언론계와교육계에서활동했으며, 해방후에도강소사법학원역사학과교수를지냈다. 1955 년조선국적을회복했고 1980 년에사망했다. 좀더연구해야할한인아나키스트의한사람이다.

³³ 심용철(沈龍哲)은〈나의회고〉에서자신의형인심용해가 1924 년경공공일보사의편집실에서두명의일본인청년과함께지낸일을회고하면서, 이들은모두“대동주의사상, 천하는모두한집안이며사해는친형제라는사상”을가지고있었다고회고했다(황동연〈20세기초동아시아급진주의와‘아시아’개념〉, 『대동문화연구』 50 호, 2005, 146 면재인용).

³⁴ 박환 『식민지시대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20~41 면재인용.

당수의마르크스주의자는동류이파의관점에서가까운시일안에각사회주의파별이동일한목적지에서만날것을희망했다.

당시어떤마르크스주의자는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의공동투쟁에찬성하면서도, “무정부당은우리의친구이지, 우리의동지는아니다”⁷⁹라고기술했는데, 이대목은둘사이의미묘한불협화음을느끼게한다. 마르크스주의자가중국공산당을창당한후시간이흐르면서그들사이의틈은더욱벌어졌으며, 합작을유지할가능성은점점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 년부터 1922 년까지이들의합작관계는어느정도유지되었다. 대체로 1922 년 7 월‘이대二大’를기점으로중국공산당이코민테른의조직적이념적원칙을전적으로수용하면서부터아나키즘과결별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중국공산당‘이대’에서조차어전히아나키스트와의임시합작방침이있었다는사실을보면아나키스트세력이당내에소멸되지않고건재했음을반증한다. 한편같은시간러시아에서는다수의아나키스트들이서유럽으로망명의길에올랐으며, 버크만이나골드만같은저명한아나키스트도“혁명은죽었다”며러시아를떠났다.

아나-불논쟁을정리하자면, 마르크스주의자가아나키스트들을반대한이유는아나키즘의이상주의그자체가아니라그들이목표에다가가기위해제시한방법과수단이충분한설득력을가지지못했다는점에있었다. 그리고자신들의우월함과과시한부분은다름아닌마르크스주의야말로이상사회건설을위해불세비키정당이나프롤레타리아독재같은현실적인방법이나수단을가지고있다는것이였다. 이런관점에서본다면중국의아나-불논쟁의진정한성격은누가더수준높은과학이나이론의출다리기라기보다는누가더중국사회의변혁문제에그럴싸한대안을내놓을수있느냐는실제적인문제로요약된다. 다시말하면, 그들의논쟁은누가서양의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혹은불세비즘이론에더욱정통한가에대해서가아니라, 단지군벌정권의억압과제국주의침탈에대항하기위한현실방안의마련에효과적인주장을내놓는가의경쟁이였다. 사실양자모두서양의사회주의에대한이해의수준을보면전면적이라기보다는부분적이었으며, 체계적이라기보다는선택적이였다.

여기서아나키즘이그이론의공상성때문에논쟁에서패배했다는역사평가에대해서다시생각해보자. 과학적사회주의라는이름아래중앙집권적혁명정당의건립을주장했던마르크스주의자에대해아나키스트는자유연합과분권적인조직원리를제시했다. 그들의조직원리가현실에적절한가에대해서는여전히이론이있을수있으나, 최소한그들은불세비즘에내재된권위주의적일당독재의출현을정확하게예측했던사람들이다. 그리고소수엘리트집단에의해주도되는프롤레타리아독재를승인했던마르크스주의자에대해, 아나키스트는이런시도는결국변질되며모든변혁

⁷⁹ 江春 〈無政府主義之解剖〉, 『共產黨』 第 4 號, 1921. 5. 17.

운동은반드시그운동주체에의해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인민을위한’사회주의가아니라‘인민의’사회주의를제창했던그들의선언은의미심장하다. 또한마르크스주의자는경제결정론과역사유물론의신봉자들이었다. 그들의결정론과목적론적인사고방식은당시로서는매우강한설득력을지녔으나, 오늘날의관점에서본다면오히려이런경직된사고방식이많은문제를불러왔다. 과학임을자랑하는이론의독재를믿느니차라리그 목적을포기하는것이낫다는생각은 20 세기의역사가우리에게가르쳐준교훈일것이다.⁸⁰

⁸⁰ 한연구자는고전적아나키즘이초기자본주의사회의모순을해결하기위해마르크스주의와결합한사례가있듯이, 21 세기의새로운아나키즘역시후기자본주의사회의모순을해결하기위해여러반세계화운동들과의연대가필요하다는전제아래다시한번마르크스와의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안상현 <아나키즘르네상스>, 백용식옮김, 『아나키즘』, 개신 2009, 318 면).

1922 년 6 월초북경의청년들이세계어학회를조직하고활동하는상황을염담해정부에보고한첩보가남아있다. 그보고서에는일본공산주의자근등광(近藤光) 과한인이정규·이을규등이세계어학회의좌담회에참가한기록이있다. 그내용중에는중국학생의인사말에이러한인의답서가있었는데, 이때이정규는조선의전국민은국토와주권을회복하려는마음에서희생을두려워하지않고해방을도모한다면서, 한중일청년들이함께협력할것을희망한다는구절이있다.³⁰ 좀더구체적인내용은알수없으나그래도한인청년이중국아나키스트와접촉하는과정의한단면을보여주고있다.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정의공보正義公報」라는순간지를발행해중앙집권적공산주의와파벌주의적독립운동을가비판하면서자유연합의조직원리에따라모든독립운동세력으로서제후할것을선전했다고고장한다. 그런데여기서프롤레타리아독재를주장하는볼셰비키혁명을비판했다는대목은이전과달리공산주의에대한뚜렷한비판의식이있었음을보여준다. 이잡지는이회영을주간으로제 9 호까지발행되었다고하나현재남아있지않다.³¹ 연맹에참여한한인운동가들이중국인과의교류를통해아나키스트가되었다는사실은북경의상황을볼때자연스러운일이다. 더구나상해임정의분열과대립에대한환멸, 새로운민족해방운동의출구로서아나키즘방법론의매력등이그들로하여금아나키스트가되도록한요인이었을것이다. 그들의회고를보면코뮌적아나키즘이당시민족해방의이론과방법으로별다른모순이없다고생각한듯하다.

한인이관련된또다른아나키스트단체로는이른바‘북경민국대학아나그룹’이있다. 이그룹은 1924 년 10 월경파금(巴金)·향배량(向培良)·고장홍(高長虹)·곽동헌(郭桐軒)·방종오(方宗鰲) 등의중국인청년과유서(柳絮)·심용해(沈龍海) 등의한인청년들이민국대학을중심으로모여만든것이다. 이들은흑기연맹黑旗聯盟이라는단체를조직했는데, 한중청년아나키스트들의합작품이라할수있다. 그가운데유서는황해도출신으로명석한이론가이자강인한실천가로한중양국의친선과협력에노력한인물이다. 앞서언급했듯이그는 <동아무정부주의자연맹을조직할것을주장함> (1926 년말) 이라는유명한글을쓴장본인이다.³²

³⁰ 葛懋春·蔣俊·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1057~58 면.

³¹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289 면.

³² 유서는유수인(柳樹人) 과동일인물이다. 원명은유기석(柳基石), 필명은우죽(友竹), 가명은유평(劉平)·등여영(鄧茹英)·유우정(劉雨亭) 등여러개의이름을사용했다. 그는황해도금천군출신으로 1905 년출생하여 1911 년(1912 년?) 에중국만주에와길림성연길에서공부했다. 1916 년중국국적을취득하고 1920 년관내로들어와남경화중공學華中公學을졸업한후민족주의단체에가입해일운동에참가했다. 북경에온그는일제의한국과중국침략을반대하고, 조선흑기단朝鮮黑旗團(민국대학의흑기연맹?) 과관련을맺었으며, 노신과도왕래가있었다. 유서는 1926 년조양대학朝陽大學경제과를졸업한후에

기서우리는유자명이라는한인이나키스트의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상해임정초대의정원의원으로선출된바있고 1921년천진에서의열단에가입한인물이다. 유자명은 1920년대초어느시점에아나키즘을받아들인것으로보이는데, 시기적으로보아신채호와비슷한시기에아나키즘에심취했던것으로여겨진다. 그의사상과활동에대해서는뒷장에서따로다룰것이다.

재중한인이나키스트에게도크로포트킨의영향은절대적이었다. 예를들어유자명은크로포트킨이자신에게끼친영향을고백하면서『한혁명가의희상』이나『상호부조』로부터큰영향을받았다고회고했다. 얼마후신채호도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이라는논문의세례를받았으면서세계 5대사상가 가운데한사람으로석가와공자, 예수, 마르크스와 더불어크로포트킨을지목했다.²⁸

한인독립운동가이회영(李會榮) 과유자명, 이을규(李乙圭), 이정규(李丁圭), 정화암(鄭華岩), 백정기(白貞基) 등여섯명이북경에서만든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은크로포트킨사상의영향아래만들어진코민적이나키즘단체였다. 이들대부분은중국인이나키스트와의교류를통해아나키즘을수용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며, 특히이석증(李石曾) 과오치휘(吳稚暉) 등구신세기파이나키스트의도움을받았다. 그가운데이정규는중국인이나키스트들과러시아인으로센코, 대만인범본량등과의교류를통해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특히북경대학생물학교수인이석증과총장채원배(蔡元培) 의호의로경제학과 2학년으로편입해 공부할시기에에로센코와의교제중에감화를받아아나키즘에공명했다고전한다. 이정규는대표적인한인이론가로‘무정부주의연맹의필봉’이라고알려져있는데, 크로포트킨의여러저작들을번역했다.²⁹ 그가번역한소책자들은영국프리덤출판사가간행한크로포트킨시리즈〈법률과강권〉〈무정부주의자의도덕〉 등을비롯해서바쿠닌과말라테스타, 르클뤼의팸플릿 10 여편이었다. 친형인이을규도‘한국의크로포트킨’이라는별명이있는데, 그도비슷한경로를통해아나키즘을수용했다. 한편이회영은이정규가아나키스트진위기(陳偉器) 와호남성의한마을에이상촌인양도촌洋濤村을만드는계획을세워그와의논할무렵아나키즘에경도되었다.

²⁸ 민족주의자였던신채호는생존경쟁과약육강식의국제사회에서강자만이살아남고약자는도태된다는자강론적발상이조선의부강을위해민중의자각을요구하는데유용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강자인일본이약자인조선을지배하는것을정당화하는논리이기도하다는사실을깨달았다. 이런자강론의모순을넘어서는데에상호부조론은결정적인대안을제시했다(김형배〈단재신채호의무정부주의에관한일고찰 -P. 크로포트킨과의사상적연계를중심으로〉, 『단재신채호선생선군 50 주년추모논총』, 1986).

²⁹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184 면.

제 4 장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의 분화와 연대 활동

1. 일본 아나키즘의 분화

아나-불합작과 분열

러시아혁명은 중국의 경우처럼 일본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나-불합작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삼영(大杉榮) 이 그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앞장에 잠시 언급했듯이 1920년 여름 중국 상해에서 한인 동지가 대삼영의 집을 방문해 그를 만났다.¹ 대삼영은 그의 요청에 따라 그해 10월 일본을 비밀리에 탈출해 상해에서 열리는 극동 사회주의 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코민테른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 조선,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대표가 모여 동아시아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 해외의 견을 교환했다. 극동 사회주의 자회의에는 각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코민테른이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도 임성격을 띠었다. 이 회의를 계획한 러시아 밀사보이틴스키(G. Voitinsky) 는 대삼영에게 코민테른 일본 지부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대삼영은 단지 정보 교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는 활동 자금을 받아 11월 말경 일본으로 귀국했다.² 이자금은 「노동운동」(제 2 차) 을 복간하는 데 사용했는데, 보통이 신문의 출간을 일본에서 아나-불합작의 출발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도 중국의 사회주의자 동맹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회주의 동맹’이 조직되었다. 1920년 12월 9일 전국 각지에서는 40여명의 사회주의자들이 대삼영의 집에 모여 사회주의 각파別の 분열을 막고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이 동맹은 대삼영, 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 근등헌이(近藤憲二) 등과 같은 아나키스트와 계리언(堺

¹ 상해에서 온 밀사는 보통 M 으로 표기되어 성이 마모(馬某) 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 부장이었던 이춘숙(李春塾) 이라는 실이 유력하다(川上哲政〈大杉榮のみた中國〉, 『初期社會主義研究』 第 15 號, 2002, 72 면).

² 대삼영의 『日本脱出記』 에는 제 1 차 상해 여행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飛鳥井雅道編 『自叙傳·日本脱出記』, 岩波書店 1971, 290-98 면 참조).

利彦), 산천균(山川均) 등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자와 국가사회주의자, 노동조합주의자 등 대표적인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고루 참여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 전선으로 “모든 색채의 사회주의를 규합해 일대 단체를 조직할 것을 목적으로”로 삼았는데, 당시 발기인의 3분의 1 정도가 대삼영의 지지자였다. 비록 일본 내 독자적인 통합 움직임이 이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자 동맹과 일본의 사회주의 동맹은 물론 그 성격도 유사하므로 우연히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험튼 측면이 있다. 실제로 보이틴스키 일행이 동아시아 3국에서 사회주의 선전과 조직 사업을 하려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일본에서의 아나키즘 불합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국과 일본의 사회주의자 간의 교류는 단편적이거나 마계속이나 난다. 예를 들어 1920년 6월 말 상해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의 일원이었던 시존통(施存統)이 일본으로 유학을 왔다. 시존통은 상해에서 출간된 아나키스트 잡지 「자유」의 주일 대표이기도 했는데, 일본 경찰은 그가 「자유」 편집부와 오고간 편지를 정탐하며 감시 활동을 펴고 있었다. 시존통은 중국과 일본의 사회주의(자) 연맹의 연결 통로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³ 북경의 이대조(李大釗)도 1920년 말 혹은 1921년 초 일본 사회주의 동맹에 가입하고 동맹의 소개 책자 50부를 구입했다고 전한다. 이 동맹에는 일본 사회주의자는 물론 중국인 인도인을 비롯해 정수홍(鄭守洪)과 강인수(姜仁秀) 등 한인 유학생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를 근거로 사회주의 동맹의 건립을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화의 출발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주의 동맹에 참가한 회원은 3천여 명이 넘었고, 각 지역에서 연설회를 개최했으며, 기관지로 「사회주의」를 발행했다. 이처럼 목적으로 출발한 사회주의자들의 합작은 출발부터 사상적 대립이 심화되어 흔들거렸고, 다음해 5월에 열린 사회주의 동맹의 제 2차 대회 직후 정부의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해체되었다. 동맹의 기관지 「사회주의」도 9월호로 폐간되었다.⁴

한편 1921년 1월 말 대삼영은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의 공동 잡지 「노동운동」을 복간했다. 제 2차 「노동운동」은 세계의 혁명 운동에 눈을 돌렸으며, 통일 전선의 사상적 모색을 했다. 창간호에 실린 〈일본의 운명〉에서 대삼영은 다음 같이 서술했다.

점차가 열리는 조선의 독립 운동은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을 다시 초래할 것이며, 신흥 중국의 남경 정부와 러시아는 동맹국이 될 것이다. … 이리하여 일본은 러시아·중국·조선을 적으로 하여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날이면 일본의 자본주의와 군국주의는 끝장이 날 것이다.

³ 李丹陽 〈AB 合作中在中國個案研究 — 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2002, 1, 65~66 면.

⁴ 近藤憲二 『私のみた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麥社 1969, 39~41 면.

민족주의와 정치적이거나 키즘이 결합된 묘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잡지뿐만 아니라 유사배(劉師培)와 경매구(景梅九) 같은 중국 아나키스트가 출간한 잡지들에서도 본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조는 철저한 반전통주의나 반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기타의 아나키스트 잡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천고」의 상징적인 의미는 만약 신채호가 조직했다고 전해지는 흑색청년동맹 黑色青年同盟 북경지부의 존재가 사료의 발굴로 실체가 확인된다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장지락은 “1921년에 비로소 ‘흑색청년동맹’이라는 무정부주의자 정당이 한국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이 정당은 조그마했으며 완전히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에 북경지부를 만들었다. 이 지부에는 소수의 중국인은 물론이요, 대만인과 일본인도 있었다. 아직도 소수의 회원을 갖는 ‘무정부주의자연맹’이 있기는 하지만 흑색청년동맹은 1924년이후 해체되었다. 공산당이 흥기하자마자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 동맹의 창설자 신채호는 현재 조선의 감옥에 갇혀 있다.”²⁴라고 회고했다. 현재 흑색청년동맹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고 불명확하지만 재중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 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실마리이기도 하다.²⁵

1920년대 초 신채호가 아나키즘적 급진 논리에 흥미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비록 1924년 4월의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연맹(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 (1924년 4월) 창립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으나,²⁶ 그전에 아나키즘에 경도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조선혁명선언〉(혹은 〈의열단선언문〉 1923년 1월)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의열단은 파괴와 테러의 직접 행동론을 주장했으며, 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열단 단주 김원봉(金元鳳)의 요청과 유자명(柳子明)의 소개로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이 선언문은 아나키즘적 테러리즘의 방법을 채용해 의열단의 폭력 투쟁을 이론화한 것으로, 당시 대중 운동이 불가능한 해외의 독립 운동가에게 매우 호소력 있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선언문 내용이 아나키스트와 민족주의자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²⁷ 같은 시기 유자명의 도움 아래 조직된 다물단(1923)은 더욱 아나키즘적 색채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

²⁴ 김산·남웨일즈, 앞의 책 95 면.

²⁵ 여기서 등장하는 조선의 ‘흑색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은 앞서 언급한 일본 및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흑색청년연맹’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앞의 동맹은 1921년에 결성되었다고 하며, 뒤의 연맹은 1926년에 결성되었으므로 일단 별개의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²⁶ 신채호는 ‘연맹’이 결성될 당시 북경 석등암 石燈庵에 거하면서 사고 전서를 섭렵하며 역사 편찬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가입하지 못했다(無政府主義運動史 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288 면).

²⁷ 존크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아나키즘과 민족주의〉, 『아나키즘 연구』 창간호, 1995, 93~94 면.

호가 일찍부터 주목되는 이유는 상해에서 북경으로 상경해 발행했다고 알려진 「천고天鼓」(1921년 1월) 때문이다.¹⁹ 한 회고에 따르면 당시 그는 역사 연구에 골몰했으며, 박승병(朴崇秉)의 집에 거거하면서 「천고」를 출판했다고 한다.²⁰ 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 역사 논문과 일제 만행을 비판하고 독립 운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 글들이 사회주의 및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주목을 끈다.

〈고고편〉(제 1호)에는 “국수는 군국 침략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규정하여 내셔널리즘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고조선의 사회주의〉(제 2호)에서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는 고조선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고조선의 정전제가 그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사회주의 전통은 조선 역사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죽음에 대한 감상〉(제 2호)에서는 크로포트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레닌과 소비에트 정부의 반대자였다고 기술했다. 여기서 자신이 아직 크로포트킨과 아나키즘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크로포트킨이 “생물계의 상호부조의 뜻을 널리 밝혀서 다윈의 생존경쟁설과 싸웠고...”라며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²¹

중국인 종수(種樹)가 기고한 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천둥소리〉(제 1호)는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와 호조의 인도주의를 제창한다는 구절 등으로 미루어 아나키스트의 글로 보인다. 여기서 작자는 “조선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관련한 최대의 문제이다. 조선인이 현재 요구하는 민족자결은 편협한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길을 찾아가려는 주의”²²라고 평가했다. 다른 주목할 만한 글로는 중국인 천애한인(天涯恨人)이 보내온 〈중국에 중한 친우회를 만들 필요에 대해 논함〉(제 1호) 과이에 대한 답장 성격을 띤 신채호의 〈한중양 민족은 마땅히 단결해야 함〉(제 2호)이라는 글이다. 앞의 글은 한중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당시 「독립보」 기자 이영렬(李英烈)의 명의로 중국 각지에 산포한 인쇄물의 제목과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글일지도 모른다.²³ 뒤의 글은 이 제안에 호응하는 신채호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연대의 분위기는 같은 시기에 장사, 안휘, 한구 등지에서 중한 호조사가 성립된 사실과 관련지어 볼 때 전국적인 항일 운동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수집 가능한 「천고」 제 1호와 제 2호만으로는 이것이 최초의 재중국한인 아나키즘 잡지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잡지는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논리가 혼재되어 있고, 신채호 자신도 민족주의와 아나키스트의 건널목에서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천고」는 문화적

... 결국 일본은 망하게 될 것이니, 이 낯은 일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려는 사상이 유력한 애국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⁵

이즈음 대삼영을 비롯한 일본의 아나키스트는 중국의 아나키스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혁명의 실상과 볼셰비키의 정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한 세계 최초의 혁명이었고, 전세계의 피압박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들과의 공동전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후자는 이런 아나키즘 불합작을 추구한 대삼영의 행동을 본인의 일생일대의 실책이라고 본다.⁶ 대삼영의 마르크스주의자와의 합작에 반대하던 아나키스트들, 즉 고미신병위(高尾新兵衛)와 암좌작태랑 등은 따로 동지 30 여명을 모아 「노동자」라는 간행물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1921년 3월경에 대삼영은 마르크스주의자와의 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크로포트킨이 1921년 2월 8일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지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2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으며, 그들은 “권위가 있는 곳, 그곳에는 자유가 없다” 또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일이다”와 같은 플래카드나 검은 깃발을 흔들며 레닌 정부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소비에트 정부의 독재에 실망한 크로포트킨도 죽기 얼마 전 레닌과의 서신 교류를 통해 볼셰비키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이상 사회의 실현을 희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볼셰비키 정권에 대항하는 크론슈타트 수병의 반란이 일어났고 곧바로 진압되었다. 대삼영은 미국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이 알렉산더 버크만이 쓴 러시아 혁명 경험담을 읽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레닌 정권이 아나키스트를 대규모로 탄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⁷ 이런 러시아의 현실이 폭로되면서 점차 일본 국내의 마르크스주의자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1921년 4월 상해에서 임모(林某)라는 한인으로부터 대삼영에게 다 시연락이 왔다. 대삼영은 신병 치료 중이라 자신이 직접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리인으로 근등영장(近藤榮藏)을 추천했다. 그래서 근등영장이 대신 상해로 건너갔다. 문제는 근등영장이 일본 공산당 결성의 지하 공작을 담당하던 인물로, 대삼영 모르게 계리언, 산천군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운동자금 6,500 원을 가지고 귀국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계리언 등과 비밀리에 공산당 건설을 모색한다는 사실

¹⁹ 이호룡, 앞의 책 152~153 면.

²⁰ 柳子明 〈朝鮮愛國史學家申采浩〉(楊昭全等編, 앞의 책 1374 면).

²¹ 최광식 역주 『단제신채호의 「天鼓」』, 아연출판부 2004, 176 면.

²² 種樹 〈爭自由的雷音〉, 「天鼓」第 1 號, 1921. 1. 1.

²³ 楊昭全等編, 앞의 책 1479 면.

⁵ 大杉榮 〈日本の運命〉, 『大杉榮集』 筑摩書房 1974, 256~257 면.

⁶ 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60 면.

⁷ “(1921년) 트로츠키는 크론슈타트의 반란자들을 ‘토끼사냥하듯 사살하라’는 명령을 적군에 내렸다. 크론슈타트 반란자들의 가족이 볼로로 잡혔고, 적군은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 이 섬을 공격해 1만 8,000 명의 아나키스트들을 살해했다. 그해 말 질러버린 골드만과 버크만은 러시아를 떠났다”(손슈안, 조준상 옮김 『우리시대의 아나키즘』, 필맥 2003, 137 면).

이신문에 폭로되었다.⁸ 대삼영은 배신감에 크게 분노했으며, 결국 그들과의 합작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1년 6월 일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동전선을 파기하자 다음달 「노동운동」(제2차)은 15호로 폐간되었으며, 마침내 일본에서의 아나키즘-불합작은 끝났다.

원래 대삼영은 공산당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그는 당과 운동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도를 비판했으며, 노동자 스스로의 운동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여기에는 코민테른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관점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아나키즘 운동에서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의 한 무리가 이른바 선민 選民이 되어, 그들의 이상인 새로운 사회를 어리석은 민중에게 강요하려는 것은 안된다. 사회혁명 일체의 과정을 예정하여 한정하고, 그 길을 민중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도 안된다. 일체를 민중 자신의 자유로운 창조력에 맡겨야 한다”⁹면서 민중에 대한 모든 지도와 강제를 명백하게 부정했다.

대삼영은 지배에 대항하는 자세와 관련해 ‘반항’이라는 기본 정신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전술의 복잡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반항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마치 “나는 주위의 압박에 민감하며, 그런 압박에 대해 강렬한 반항 본능이 있다”는 그의 개인적인 취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즈음 대삼영은 크로포트킨의 『한 혁명가의 회상』을 번역 출간했는데, 여기서도 크로포트킨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민족대회(1921년 12월)에 참석할 일본 대표단 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보다 아나키스트가 많았다. 그들 대부분은 노동단체의 지도자였으며, 대회 참석 말고도 러시아의 실상과 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대표단은 볼셰비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정권 아래서 노동자·농민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을 목격하면서 혁명 러시아의 현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¹⁰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아나키스트 잡지로 거듭난 「노동운동」(제3차)이 복간되었다. 이 잡지에는 소비에트 정부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탄압 사실을 게재했으며, 러시아 혁명을 실패한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제3차 「노동운동」의 특징은 본래의 아나키스트 잡지로 돌아와 볼셰비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다는 점인데, 볼셰비키의 중앙집권주의를 조합제 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연합파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일본의 볼셰비키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전위前衛」를 발간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즘-불노는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⁸ 多田道太郎 〈生と反逆の思想家大杉榮〉, 多田道太郎編 『大杉榮』, 中央公論社 1984, 61~62 면.

⁹ 大杉榮 〈無政府主義將軍〉, 『大杉榮』 273 면.

¹⁰ 近藤憲二, 앞의 책 43 면.

아나키즘이 식민지 해방과 독립을 위한 민족해방운동의 논리로 이용되는데 별다른 모순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어쩌면 철학적으로 빈곤한 민족주의가 다른 ‘주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나, 민족주의가 반드시 국제주의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¹⁶ 일본 아나키스트 행덕추수나 대삼영은 조선과 대만 같은 식민지의 입장을 동정하고 연대를 모색했지만 그들의 민족주의조차 충분히 공감한 것은 아니었다. 정복국가의 지식인으로서 국가나 정부조차 없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해 민족주의에 접근하는 현실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한인과 대만인의 아나키즘 운동이 민족주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¹⁷

대체로 한인과 대만인의 민족해방을 위한 아나키스트 연대 활동은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1920년대 중반 한인과 대만인 아나키스트의 활동을 단체와 잡지를 중심으로 북경과 상해, 광둥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¹⁸

2. 북경지역

「천고」와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한국의 대표적 인 아나키스트로 불리는 신채호(申采浩)는 1913년 상해로 건너간 후 크로포트킨과 행덕추수, 사복등의 아나키즘 관련 저작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임시정부의 정치 노선에 불만을 품고 상해에서 신대 한동맹단을 결성(1919년 10월)하는데 참여해 기관지 「신대한」을 발행했다. 이 잡지는 급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데, 상해 임정에 반대해 사회주의 경향의 글도 선전했다고 한다. 이때이 동회(동회)의 한인사회당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중국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출발 문제와 관련해 신채

¹⁶ 황동연은 초국가적 이상과 민족주의 사이에 있는 ‘모순’이 아말로 식민지 상황에서 급진주의가 대두되는 과정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모순 관계는 급진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황동연 〈지역시각, 초국가적관점, ‘동부아시아’ 지역 개념과 ‘동부아시아’ 급진주의 역사의 재구성 시론〉, 『동방학지』 145호, 2009, 304면).

¹⁷ 존크림은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나키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며 살아갈 능력을 가졌다는 확신이라고 했다(존크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아나키즘과 민족주의〉, 『아나키즘 연구』 창간호, 1995, 106면).

¹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한인 아나키스트가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한 신문과 잡지를 분석한 글로는 황동연의 논문이 있다. 여기서는 한인 아나키스트의 초국가적 주장과 지역적 특성에 주목한다(Hwang Dongyoun, “Beyond Independence—The Korean Anarchist Press in China and Japan in the 1920s and 1930s”, Asian Studies Review Vol.31 No.1, 2007, 3).

특히상해는국제도시로대만인급진주의자에게도활동이편리한곳이었다. 프랑스조계는더욱개방적이어서중국공산당과한인공산당韓人共產黨의활동이있었고, 대만유학생들도그런영향을받았다. 대한민국입시정부는중국국민당간부의협조아래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를조직해민간차원에서조선의독립을추구했다.¹³ 대만사회운동가들도모임에종종참가했는데, 채혜여(蔡惠如)는일본에서신민회활동을하다중국으로건너와서중한호조사가주최한한과회에참여해일본점령후의대만실상을보고했다. 얼마후상해로건너온평화영도중국국민당과접촉하고있던채혜여와연락했고, 곧이어한인및중국공산당원과왕래했다.

3·1운동후대만섬에서도무단통치가문화통치로바뀌어실시되자사회운동을전개하기가쉬워졌다.¹⁴ 동경유학중인대만유학생은민족주의자임헌당(林獻堂) 등의노력으로성응회聲應會와계발회啓發會, 신민회新民會등을만들었다. 얼마후대만청년회가성립하자「대만청년」이라는잡지도발행했다. 그후대만으로귀국한임헌당은대북에서유명한대만문화협회臺灣文化協會(1921년 10월)를만들었다. 대만문화협회는초기에는민족자결주의를이념으로삼아공동전선의방식으로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을주도했다. 그후아나키즘과공산주의가흥기하자민족주의운동에중사하던청년학생들사이에전파되어강권을타도하자는주장이나타나기시작했으며계급투쟁의입장에서민족주의운동을비판했다. 이에대만의사회운동은새로운발전단계에접어들었다.¹⁵

대만문화협회의대표인물이자사회주의자연연온경(連溫卿)은일찍부터에스페란토운동의영향을받아에스페란토야말로민족을뛰어넘어인류평화를가져다줄것이라고믿고선전에앞장섰다. 1919년소벽휘(蘇璧輝)와함께대만세계어학회臺灣世界語學會를만들어월간지「녹음綠陰」을발행했다. 그는이민족통치자들이어떤민족을말살하려면우선그들의언어를말살하려한다면서, “민족문제가있다면, 반드시언어문제가있다”는전제아래대만언어를보존하는데노력했다. 연온경은대만내초기아나키즘의전파에도관계가있으며, 무산청년과활동에열심이었다. 얼마후일본인교사산구소정(山口小靜)의소개로에스페란토행사를목적으로일본을방문할기회가있었다. 이때사회주의자산천균과왕래했으며, 그의영향을말미암아점차노농파勞農派공산주의자성향을띠었다.

¹³ 石源華編著『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5, 118 면.

¹⁴ 옥천신명(玉川信明)은 1919년대만에서일어난무장봉기인서래암西來庵사건을대만아나키즘운동의출발로삼는다. 사건의지도자인여청방(余清芳)이일본에서아나키스트의영향을받은사실에주목한것이다.(玉川信明『中國の黒い旗』, 晶文社 1981, 299~300 면).

¹⁵ 王曉波編〈日本人眼中的臺灣抗日運動〉, 『臺灣的殖民地傷痕新編』, 海峽學術出版社 2002, 97 면,

일본의아나키스트는프롤레타리아가달성해야할최대과제는일체의정치권력을파괴하는것이지만, 정치권력을파괴하기위해소위혁명적입시정부같은권력조직을만드는것은속임수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그들은만국의프롤레타리아는모든부르주아정치를배제하고사회혁명을수행하기위한연대를공고히해야한다고믿었다. 특히노동운동분야에서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의갈등이두드러졌다. 이전까지아나키스트계열노동조합과마르크스주의자계열노동조합은이론상의차이점에도 불구하고어느정도단결을유지하면서정부의탄압에저항하고있었다. 하지만전국적인노동조합의건설과정에서조직과운영방식을놓고충돌이벌어졌다. 그논쟁의요점은전국노동조합의조직형태를자율적인조합의연합으로할것이나아니면중앙집권적인통일조직으로할것이나의문제였다. 1922년전반기에양측노동단체는연합이나합동이나를놓고팽팽한대결을벌이다가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¹¹

일본의마르크스주의자는일본공산당을창립(1922년 7월 9일)하고, 자파계열의노동조합을모아‘총동맹’을결성했다. 이들은러시아공산당아나키스트와생디칼리스트의배격을결정한사항에따르고있었다. 이때마르크스주의자산천균은〈무산계급운동의방향전환〉(1922년 8월)이라는유명한논문을「전위」에발표했다. 여기서소수지식인중심의사상투쟁에서노동대중의행동과정치투쟁을중시하는것으로노선을전환해정치투쟁의중요성을강화하자고했다. 정부를거부하는것은소극적인전술이며정치를통해저항하는것이적극적인전술이라는것이다. 대삼영은이런주장을비난하면서과거의동지였던산천균을비롯한일본공산당의지도자들을격렬히공격했다. 결국아나키스트계열의노동조합도독자적인전국조직인‘총연합’을구축하고아나-불노쟁을전개했다.

일본에서좁은의미의아나-불노쟁은 1922~23년사이에대삼영과산천균사이에벌어진논쟁을말한다. 대체로산천균은노동운동이새로운단계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으며, 대삼영은노동문제도인생문제라는독특한관점을견지했다. 초기에는노동조합의전국적결집문제를놓고대립하다가그범위가확대되었다. 세부적인논쟁의내용들은중국의경우와차이가있었지만넓은의미에서산천균의현실주의와대삼영의이상주의의대립이라는측면에서는유사했다. 이런아나-불노쟁의기원은 1907년일본사회당내에서직접행동과의회정책을둘러싸고아나키스트와사회주의자간의갈등에서이미찾아볼수있다.¹² 일본공산당의출현에도 불구하고대삼영의활약으로말미암아여전히아나키스트들은일정한세력을유지했으나대삼영의갑작스러운죽음은그런균형을깨뜨렸다.

¹¹ 萩原晋太郎, 앞의책 107~12 면.

¹² 大窪一志〈アナ・ボル論爭再見〉, 『山川均大杉榮アナ・ボル論爭』, 同時代社 2005, 273~365 면해설.

대삼영의죽음과노동운동의분열

대삼영은국내에서마르크스주의자와의합작이실패하자국제어나키즘운동에관심을돌렸다. 1923년 1~2월경베를린에서개최예정이던국제어나키스트대회에의참가요청편지를받자, 그는즉각초청을받아들여다시일본을탈출하기로마음을먹었다. 마침대삼영의오랜동지인산록태치(産鹿太治) 가러시아를가기위해중국에체류중이었는데, 그는일본을탈출하려던대삼영의위조여권을만들기위해북경에서맹인시인바실리에로센코(Vasilii Erosenko)와북경대학교수주작인(周作人) 등과접촉했다. 그후경매구(景梅九)에게일을의뢰했으나실패했다.¹³ 이소식을들은대삼영은직접상해로와서일본유학출신아나키스트등몽선(鄧夢仙)의도움으로위조여권을구입했다.¹⁴ 그의여행목적은대회참석말고도러시아에서일어난크론슈타트수병의반란과마흐노운동및레닌정권의신경제정책등을자세히파악하려는의도가있었다.¹⁵ 대삼영은상해를출발해프랑스로떠날무렵, 광주에서결성되었다가상해로 옮겨온아나키스트그룹인무정부주의자동맹(AF)의존재를알게되었다. 이조직은중국공산당에대항하기위해만든단체로, 대삼영은이들과몇차례회의를열어중일양국의혁명문제를논의했다고한다.¹⁶ 이만남은중일아나키스트의국제연대를향한새로운실마리를제공한것으로보인다.

대삼영은프랑스에도착한후현지에서다양한국적의아나키스트망명객과접촉했다. 그중에는중국인아나키스트필수작(畢修勺)을만난기록도남아있다.¹⁷ 그런데 1923년 2월에정되었던국제어나키스트대회가각국정부의방해로무기한연기되었고, 우연히파리근교의한집회에참석하여연설하던중체포되었다. 경찰은처음에는중국여권을소지해중국인인줄알았던인물이조사결과일본의유명한아나키스트대삼영임을알게되자강제출국시키기로결정했다. 당시일본의신문지상에는대삼영이홀연히국내에서사라지자러시아로탈출했다는등의유언비어가무성했다. 일본선박을이용해신흠戶로강제송환될즈음에대삼영은이미러시아볼셰비키에대한일체의환상을버린상태였다. 비록본래여행목적이었던국제어나키스트대회에는참가하지못했으나여행과정에서러시아혁명에대한비교적풍부한정보를얻을수있었다. 그가유럽여행을하던기간

사상을선전하다형을받은일은이것이처음이라고보도했다.⁹ 이런기사들은국내어나키즘운동의출발을암시하는것이다. 결국 1923년 1월에이윤희(李允熙)와이강하(李康夏) 등이국내최초의아나키스트단체흑로회黑勞會를결성했다. 이조직은박열이만든일본의흑도회와깊은관계를맺고있었는데, 결성선언문도매우흡사했다고한다. 그후조선의어나키즘운동은재일아나키스트의영향을강하게받는다.

다음으로 1920년대초대만의사회운동의상황을간단히살펴보자.¹⁰

대만인의사회운동은지리적으로대만과일본, 중국등세곳에서일어났는데, 먼저재일대만유학생사회에서사회주의사조가씩났다. 1920년대초동경의대만출신유학생의다양한사회활동은대만내에도일정한영향을미쳤다. 일본명치대학明治大學에재학중이던팽화영(彭華榮)은계리언, 산천균(山川均) 등과접촉하고효민회에가입하면서처음으로사회주의사상을접했다. 팽화영이「대만청년」(제 4 호, 제 5 호)에〈사회주의개설〉이라는글을실었는데, 이것이대만인이처음으로사회주의를소개한문장으로알려져있다. 같은시기상지대학上智大學에서공부하던범본량(范本梁)도대삼영등의영향을받아어나키즘에공감했다. 1921년 6월범본량과팽화영은코스모스구락부의강연회에함께참석해대만해방문제를언급하다가경찰의제지를받았다. 효민회나코스모스구락부는한인유학생들도참여한단체이므로대만과조선유학생들이서로교류했을가능성이높다. 그런데강연회가끝난후경찰의감시가심해지자 1921년 7월팽화영은상해로건너갔고, 다음해 8월에범본량도북경으로갔다.¹¹

대만청년들에게해외유학에는일본말고도중국이있었다. 그러나일본정부는대만인들이한족이라는사실을망각하고동화를가속화하기위해중국으로유학가는것을금지했다. 따라서일본으로유학간사람들에비해숫자가적었으며, 만약중국으로유학가려면선원등으로신분을위장해야만했다.¹² 먼저일본에가서다시중국으로건너가든지, 아니면대만기류향에서상해를경유해일본으로가는배를이용하곤했다. 중국공산당이막대동할즈음북경에유학하던대만청년은불과 30여명이었으나여러사회단체들을조직했다.

¹³ 玉川信明『中國の黒い旗』, 晶文社 1981, 213~15 면.

¹⁴ 프랑스리옹중법대학의호의로그대학에유학중인중국인유학생당계(唐繼)라는학생의명을빌려위조여권을만들었다(近藤憲二, 앞의책 53 면).

¹⁵ 玉川信明『中國アナキズムの影』, 三一書房 1974, 84~99 면.

¹⁶ 鄭佩剛〈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事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67 면.

¹⁷ 1923년볼리옹중법대학의장동(章桐)이대삼영을데리고프랑스인을만났을때, 필수작이통역이되어일본어나키즘운동의상황을프랑스인에게소개해주었다(畢修勺〈我信仰無政府主義的前前後後〉,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27 면).

⁹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篇)』, 형설출판사 1978, 155~56 면.

¹⁰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 가운데「臺灣社會運動史」는일제시대대만정치사회운동사를연구하는데가장중요한자료인데 1920년대대만인의어나키즘운동을살피는데에도기초적인자료들이다. 이자료집을수정보완한王詩琅譯註『臺灣社會運動史—文化運動』(稻鄉出版社 1988)에대만인아나키스트활동에관한자료가일부남아있다.

¹¹ 楊碧川『日據時代臺灣人反抗史』, 稻鄉出版社 1988, 161 면.

¹² 林國章『民族主義與臺灣抗日運動』, 海峽學術出版社 2004, 191 면.

있고북성회에는유학생이많았는데, 결국이들의분화는한인민족해방운동의두흐름을형성했다.

흑우회는주로언론출판사업과일본및한인단체와의연대활동에주력했다. 하지만구성원간의갈등으로 1923년 8월스스로해산했다. 박열과김자문자는 1923년 4월흑우회와별도로대중단체의성격을지닌불령사를조직했는데, 불령사는처음에는한인 15명과일본인 6명으로구성되었다. 이무렵박열은다른아나키스트처럼사회변혁과민족해방의이념으로아나키즘을받아들였지만인류에대한절망을운운하는등허무주의경향이강한것이한가지특색이다. 아마도일본에서유행하던슈티르너사상의영향을집착할수있겠으나, 이런허무주의는일제에대한강렬한증오심으로표출되었다. 그는해외로부터폭탄을구입하려고비밀리에의열단의김한(金翰) 등과접촉했으나실패했다. 그러던중관동대지진(1928년 8월말) 이발생하고“조선인이방화했다”혹은“누군가우물에독약을 풀었다”는등의유언비어가난무하면서한인과일본인사회주의자에대한대량검거와학살이이어졌다. 박열과김자문자부부는지진을틀타비밀결사로폭동을계획했다는대역사건혐의로체포되었다. 이대역사건은재일한인아나키즘운동을상징하는이정표가되었다. 널리알려진바와같이박열은기나긴옥중투쟁끝에사형판결을받았다가무기징역으로감형되었으나, 그의처김자문자가옥중에서의문의죽음을맞이하다시한번세간을떠들썩하게만들었다.⁸

한편국내에서도 3·1 운동이후사회주의운동과관련한기사가급증했다. 아나키즘에관한최초의기록은신채호가법정에서증언하던중에황성신문사에재직하던 1905년행덕추수의『장광설』을읽은후에아나키즘에공명했다는기사가있다. 하지만이시절행덕추수는아직아나키스트가아니었으며, 신채호역시이주장을철회함에따라신빙성이떨어진다. 그후 1920년 4월에조직된최초의노동조합인조선노동공제회의기관지「공제共濟」나 1922년 3월에창간한최초의사회주의잡지「신생활」에보면아나키즘을소개하는기사가적지않다. 여기에는크로포트킨의코민적아나키즘말고도슈티르너의개인적아나키즘도소개했다.

1920년 7월에는무성영화변사인정한설(鄭漢高) 이아나키즘을선전하다체포되는사건이있었다. 같은날체포된장도원(張道源) 은법정에서기독교에입각해민권의평등과무정부를원한다고진술해함흥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이구형되었다. 그리고다음해 7월동양대학교철학과에재학중이던불교청년학생회소속의김경주(金敬注) 가크로포트킨과버트런드러셀(Bertrand Russell) 의사상을소개해아나키즘선전혐의로진주지청에서 6개월형을선고받았다. 신문에서는국내에서과격

⁸ 박열과김자문자에대한연구는적지않다. 예를들어김삼웅 『박열평전』, 가람기획 1996; 야마다쇼지, 정선태욱김 『가네코후미코』, 산처럼 2003 등이있다.

중아나키스트계열노동조합은전열을착실히정비하고있었다. 「노동운동」 과쌍벽을이루는잡지 「조합운동」 (1923년 2월) 도출판하며독자적인운동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다지고있었다.

귀국후대삼영은전국적아나키스트연합조직의필요성을절감했다. 그런데전국조직을준비하던 1923년 8월말관동대지진이일어났다. 수도인동경은아비규환의지옥으로변했으며, 재일한인들이우물에독극물을넣었다는유언비어가돌면서다수의한인들이일본인들에의해무참히학살당했다. 지진의혼란속에서벌어진한인학살책임을피하기위해일본정부는재일한인아나키스트박열(朴烈) 과거의처김자문자(金子文子) 등을대역사건에연루시켜체포, 투옥시켰다. 뿐만아니라이번기회에일본인사회주의자에대한대대적인검거열풍도불었다. 혼란의와중인 9월 16일대삼영은부인인이등야지(伊藤野枝), 어린조카와함께헌병대위감박정언(甘粕正彦) 의부하들에게연행되었다. 그런데이번구속은이전과는상황이달랐다. 그들은모두무참히피살되어우물속에던져졌다.

비록대삼영의살해용의자로감박정언등이체포되어군사재판에서유죄판결(징역 10년, 후에감형) 을받았으나, 법원은군대에책임을묻기보다단순한개인범죄로결론을내렸다. 대삼영의죽음에정부나군대가개입했는지여부는피의자들이입을굳게다물어서지금까지도수수끼로남아있다. 하지만그의살해에가담한한병사가“사령부의명령”이라고진술한사실에근거한다면, 학살배후에는군부가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¹⁸ 자유연합파의노동조합및 20여개아나키스트단체는공동으로대삼영등세사람의함동장례식을수천명의조문객이참석한가운데盛大하게치렀다. 장례식후이들시인은이등야지의고향인복강福岡의한산중에 묻혔다.

일본정부가명치말기에직접행동론의지도자행덕추수(幸德秋水) 를교수대에보냄으로써한때정점에이른사회주의운동을붕괴시켰듯이대정말기에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지도자대삼영을살해함으로써다시한번아나키즘운동을무너뜨렸다. 호자는일본아나키즘운동이극단적인순수성을추구하는경향이있는데, 이러한비타협적인원론적아나키즘으로말미암아세계아나키즘운동사에보기드문엄청난희생을치렀다고해석한다.¹⁹

대삼영의죽음은중국아나키스트에게도큰충격을주었다. 마치크로포트킨의죽음직후아나키스트잡지에그의죽음에관한기사가자주실렸듯이대삼영의죽음이후에도여러잡지에서그의죽음을애도하는기사가 많이실렸다. 이는대삼영이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상징으로인식되었기

¹⁸ 당시대삼영의사인에대해교살설과총살설등이있었으나, 훗날공개된 <감정서> 에는외부로부터강한충격이가해진흔적이있고, 기도가막혀질식사한것으로추정하는소견이담겨있어교살설이확실한듯하다(飛鳥井雅道編, 앞의책解説 434면).

¹⁹ 鈴木靖之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 第2卷, 黒色戰線社 1979, 24, 29면.

때문인듯하다. 광주에서는대삼영추도회가열렸다. 광주진사眞社의기관지「춘뢰春雷」에는다음세대들이끌어갈아나키스트이자문학가인파금(巴金)이쓴〈위대한순교자〉라는대삼영추도시가실렸다.²⁰ 그리고광주민중사民鐘社의기관지「民鐘」에는대삼영의저작들을소개하면서“동방무정부주의의견장이며, 또한자유와인도의창도자”라고칭송했다.²¹

근등현이와산록태치, 암좌작태랑등은제 4 차「노동운동」(1923년 12월)을다시발간해대삼영의뜻을계속이어나갔다. 이잡지의한가지특징이라면중국아나키스트의기고문이많다는점이다.²² 그만큼양국간의국제교류가활발해진징표일것이다. 중일간의교류에공헌이많았던산록태치의기사도있는데, 주로중국의노동운동현황, 파업관련기사, 공산당계열노동단체와의투쟁소식을전하고있다.²³ 그리고전국적규모의아나키즘단체의연합체를만들려던대삼영의유지는 1926년 1월흑색청년연맹黑色青年聯盟의결성으로열매를맺었다. 이연맹은일본을넘어동아시아차원의아나키스트연대조직을꿈꾼조직으로, 다음절에서따로언급할것이다.

대삼영의죽음후일본에서는테러리즘이대두했다. 프랑스로혁명때사용한단두대의이름을따라로틴사가대표적인데, 중빈철(中濱鐵)과고전대차랑(古田大次郎)등의테러활동이유명하다. 고전대차랑은아나키스트그룹소작인사小作人社를설립해농민운동에가담한바있다. 중빈철이소작인사를방문하면서두사람은급격히가까워졌다. 이들은기존의운동방식에회의를포고테러리즘을받아들이게되었다. 길로틴사는 1921년 12월에결성되었으며러시아나로드니키 Narodniki 와허무주의자의영향을받은극좌적아나키스트단체였다. 중빈철은노동운동사勞動運動社의화전구태랑(和田久太郎), 촌목원차랑(村木源次郎)등과협의해항실섭정암살계획과대삼영복수계획을실행하기로합의했다. 이

²⁰ “위대한순도자여, 눈을떠라. / 너희의외침은영원히우리의심중에남고 / 너희의피가물든깃발은우리의손에있다. / 우리는그깃발을내걸고, 자유의길을걸어갈것이다.”(嵯峨隆『近代中國の革命幻影—劉師培の思想と生涯』, 研文出版 1996, 263 면재인용).

²¹ 〈等損刊大杉榮生平著作〉, 「民鐘」第 9 期, 1924. 8. 1.

²² 예를들자면천진에서오일(五一)이보낸〈支那近況〉(1924년 4월 1일)에서는중국아나키즘인론의중심은북경, 실천의중심은광둥, 운동의신경중추는상해라면서중국의상황을간략히소개한다. 또한대삼영추도회가있었다는사실도알리고있다. 자유인사의오극강(吳克剛)이보낸〈支那の同志から〉는중국에서「자유인」을출판하던오극강이일본동지에게원고와아나키즘관련자료를부탁하는내용이담겨있으며, 일본·조선·중국동지들이협력할것을주장했다. 중국에서헤림(惠林)이보낸〈民衆運動の基調指標〉(1925년 11월 1일)도실려있다. 한편「勞動運動」(제 4 차)복간은 1926년 7월 1일 제 18 호로끝난다.

²³ 山鹿太治〈上海の勞動運動〉, 「勞動運動」第 4 號, 1924. 6. 1; 〈隣接支那に注目せよ—支那民族の精神〉, 「勞動運動」第 14 號, 1926. 1. 1.

즘, 개인적아나키즘의사조도일부흡수했다. 박열과김자문자(金子文子)에게나타나는허무주의경향이나재일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을중심으로한생디칼리슴경향등이그런사례이다.

1920년대에들어와재일한인유학생들은다양한사상단체를조직했으며, 이런흐름은마침내 1921년 11월 29일암좌작태랑의집에서흑도회黑濤會를결성하는것으로결실을맺었다. 이단체도처음에는에스페란토공부를명분으로모였는데, 박열과정태신, 김약수, 정태성(鄭泰成), 서상일(徐相一), 원종린, 조봉암(曹奉岩), 황석우등이참가했다. 이조직은재일한인사상단체의출발로평가되며계급투쟁의방식으로민족해방투쟁을추구했다. 흑도회의조직과구성원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알려져있지않으나, 대략초기에 20여명이참가했고유학생과고학생들로 이루어졌다고한다. 이단체의창립에는일본사상계의영향력이적지않았는데, 그들의모임에대삼영과계리언(堺利彦)등일본사회주의자들이참석한사실에서도알수있다. 특히흑도회라는이름이나암좌작태랑의집에서결성된사실은아나키즘의경향이강했다는사실을보여주며, 핵심멤버인박열은흑도회를중국의열단같은조직으로만들려고했던것으로보인다. 기본적으로는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가합작한형태의조직이라고볼수있다.

흑도회는박열과김자문자를중심으로「흑도黑濤」(1922년 7월 10일)를발간했다. 이잡지는창간사에서“인간미를가진일본인”과연대할때조선해방과세계융합이가능할것이라고했다. 기사내용은슈티르너의자아주의, 바쿠닌의파괴와건설의논리, 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론이혼재되어있었으며, 노동자의비참한현실을여과없이폭로하고테러활동과같은폭력행동을추구했다. 흑도회의대표적인활동으로는중진천中津川댐공사장에서일어난한인노동자학살사건(1922년 7월)에대한진상조사단파견과항의투쟁을들수있다. 흑도회는학살사건조사회를만들어현지조사를벌였고, 동경의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열광적인성원속에진상보고회를개최했다. 여기서박열은일본인자본가에의한한인노동자의노동착취와학대및민족차별을적나라하게폭로했다.

그런데일본사회주의동맹의분열과아나·불논쟁의여파로흑도회는 1922년 10월아나키즘계열의흑우회黑友會와공산주의계열의북성회北星會로분열되었다. 여기서도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가논쟁의핵심이있으며국가권력의존폐문제도이어졌다. 흑우회에는박열과김자문자, 신염피(申焰皮), 홍진유(洪鎭裕), 서상일, 박흥곤(朴興坤), 장상중(張祥重)등이참가했다. 이단체는「불령선인不逞鮮人」(1922년 11월)과「현사회現社會」(1923년 3월)등을간행하면서활동을전개했다. 한편북성회는김약수를중심으로조봉암과송봉우(宋奉禹)등이가세했으며「척후대斥候隊」를발간했다. 대체로흑우회에는고학생이 많

공산주의운동의출발시기와일치하므로한인독립운동가들이아나키즘과공산주의에관한지식을함께접하는게기를마련해주었을것이다.

일본에거주하던한인유학생들은중국보다이른 1910 년대중반부터일본인아나키스트와의교류를통해아나키즘을수용한것으로보인다.⁴ 아마도대삼영(大杉榮) 이만든생디칼리슴연구회나평민대학강연회등다양한경로를통해크로포트킨(P. Kropotkin) 의사상을접했을것이다.⁵ 예를들어 1913 년나경석(羅景錫) 은대삼영, 횡전종차랑(橫田宗次郎), 장곡천시송(長谷川市松) 등과같은일본인아나키스트와교류하며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을수용했다고전한다. 그의친구정태신(鄭泰信) 이나이달(李達) 등도일본사회주의자들과교류하고있었다. 그리고앞장에서언급했듯이 1916 년김철수(金綴洙) 와최익준(崔益俊) 등한인유학생들은일본사회주의자들의지원아래중국과대만의유학생들과함께비밀결사인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을결성했다. 이단체는일본제국주의타도와새로운아시아건설을목표로삼았는데, 한국사회주의운동기원의하나이자국제조직이라는점에서 주목할만하다.

3·1 운동후에는좀더많은기록들이나타난다. 정태신과이용기(李龍基) 등이일본아나키스트가등일부(加藤一夫) 와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 이주관하는자유인연맹自由人聯盟에참가한기록, 원종린(元鐘麟) 과한현상(韓現相) 등이가장과격한단체로평가받던효민회曉民會에서활동한기록, 정수홍(鄭守洪) 과강인수(姜仁秀) 등이일본사회주의동맹창립발기대회에참가하고, 김판권(金判權) 과권희국(權熙國) 이직접창립대회에참가한기록등이있다. 특히권희국이일본사회주의단체코스모스구락부에참가한사실이흥미롭다. 1920 년 11 월에조직된코스모스구락부는“국경을넘어선신세계와신생명을창조한다”는강령을가지고중국과대만, 인도등아시아각국동지들과연락망을갖추려던단체였다.⁶ 이처럼재일한인유학생들은 1919 년을기점으로아나키즘이나사회주의경향의단체에다수가입했고, 그활동과정에서중중검거되기도했다. 박열(朴烈) 과원종린, 김약수(金若水) 등은대삼영, 암좌작태랑등과자주접촉하며그들의사상에공명했다. 그결과재일한인아나키스트는 대체로사회진화론을비판하는상호부조론을중심으로한크로포트킨주의를받아들였다.⁷ 이들은코민적아나키즘이외에도노동조합적아나키

⁴ 재일본한인아나키스트의활동에대한연구로는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독립운동 - 일본에서의투쟁』, 이학사 2008 이있다.

⁵ 近藤憲二 『私の見た日本アナキズム』, 麥社 1969, 13 면.

⁶ 김명섭, 앞의책 72~74 면.

⁷ 박석윤(朴錫胤) 은 「學之光」 第 20 號 (1920. 7. 6) 에 <自己의改造> 를실어 제 1 차세계대전의참상은인류에게커다란교훈을주었다면서, 크로포트킨의말을빌려자기를개조할것과참마음으로열정적으로감격으로남을사랑하는것이인격의발전이라고했다. 그는자기개조란아나키즘에근거해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이호룡 『한국의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30 면).

조직은영국황태자를암살하려다실패했고, 운동자금을모으기위해은행도습격했다.²⁴

고전대차랑은대삼영학살의복수를결심하고과거대삼영의동료였던화전구태랑과함께조선으로건너가의열단을통해폭탄을구하려고했다. 이들이조선에머무름렵, 일본에있던중빈철은테러자금을구하려고한회사의사장을위협하다체포되었다. 일본에빈손으로돌아온화전구태랑은관동대지진때계엄사령관이었던복전아태랑(福田雅太郎) 대장을저격했으나실패하고체포되었다. 고전대차랑도복전아태랑의집에폭탄을보내다가발각되어검거되었다. 법정에서중빈철과고전대차랑은사형선고를받았으며, 화전구태랑은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가옥중에서자살했다.²⁵ 이때길로틴사단원에게제공한폭탄과권총의일부는한인여성아나키스트김선희(金善姬) 가북간도에서가져다준것이다. 김선희도서울에서체포되어 3 년간복역했다. 당시의열단의지도자김원봉(金元鳳) 은상해에서대삼영을만났을때일본내암살과괴활등을계획한적이있으며, 실제로동경에파견한단원이약 20 여명에이르렀다고한다. 하지만그들의테러계획은정보유출로실패했고, 관동대지진이일어났을때다가희생되었다고전한다.

길로틴사는권력핵심을암살하여사회혁명의돌파구를만들어민중봉기를기다린다는전략을세웠다. 일반적으로대중운동이어려운억압의시대에는테러리즘이쉽게출현한다. 하지만일본의테러도유럽의경우처럼사회악을제거하기는커녕오히려혁명의에너지를낭비하고아나키스트에대한무자비한탄압을불러왔다.²⁶ 크로포트킨도생전에테러가억압받는민중에게유용한저항수단의하나라는사실은인정했지만, 혁명과정에서테러를어떤위치에놓느냐는항상문젯거리였다. 여기서길로틴사와대삼영과는이론적으로상당한차이점이존재한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대삼영은단순한아나키스트가아니라자신의철학을가진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라고말할수있다. 그는전국적인혁명적노동조합을결집해거대한전투력을조직해자본주의를붕괴하고새로운사회를건설하려고했다. 이와달리길로틴사의단원은단순하면서도순수한아나키스트로테러라는수단을통해국가권력의최고상층부인물들을암살하여권력기구를파괴하고자했다.²⁷

관동대지진이후일본의아나키즘운동은공산주의운동과대립하며조직재정비의과정을거쳤는데, 그와중에이른바순정아나키즘이라고불리

²⁴ 板垣哲夫 『近代日本のアナキズム思想』, 吉川弘文館 1996, 113~18 면.

²⁵ 近藤憲二, 앞의책 58~60 면.

²⁶ 板垣哲夫, 앞의책 113 면.

²⁷ 樋口進 <巴金和無政府主義>, 『巴金研究在國外』, 湖南文藝出版社 1986, 269 면.

는그들이출현했다. 대표적인인물로는팔태주삼(八太周三)²⁸과암좌작태랑²⁹이었다. 그들은이상사회를추구하는아나키즘의원칙에위배되는일체의요소를제거한다는부정의논리로일관하여마르크스주의뿐만아니라노동조합적아나키즘도비판대상으로삼았다. 한마디로아나키즘에서생디칼리슴을뺀순수한코민적아나키스트를말한다.

특히팔태주삼은행덕추수와대삼영의사상적계보를잇는새로운인물이므로기억할만하다. 팔태주삼은원래목사출신이었는데, 대삼영사후동경에서노동운동에참여하면서아나키스트가되었다. 그는아나키즘을마르크스주의의오염으로부터건져내순수한아나키즘을만드는것을목표로삼았다. 마르크스주의를비판하는과정에서노동가치설은진정한공산주의가아니라며부정하고, 변증법도인간의자유를속박하는결정론이라고비판했다. 팔태주삼은크로포트킨의영향아래절대자유주의를추구했다. 그는크로포트킨의사회생리학이론을연구하는과정에서농민들의연대성에주목했는데, 생물학적으로연대성은인간의원조적인본능이라고믿었다.³⁰

팔태주삼은〈계급투쟁설의오류〉(1929)를통해자유연합주의와생디칼리슴을비교하면서노동조합을비판적으로검토했다. 아나키스트는권력의기반인대공장제도나분업제도를혁명적으로해체해야함에도불구하고생디칼리슴과공산주의는자본주의생산양식을계승해대공장제도나분업제도를유지시키는가능을한다고보았다. 그는일본의노동운동사는실패의역사라고보았다. 노동운동이지배자와타협한참정권운동으로변질되거나, 자본가와타협하는경제적직접운동이되거나, 독재정치로변질되는강권적혁명운동이되었다는것이다. 팔태주삼은생디칼리슴과공산주의의이론적기반인유물사관과계급투쟁론을비판하는과정에서노동조합운동은혁명운동이라고불수없다는결론에다다랐다.

행덕추수의시대부터미국에서활동했던암좌작태랑도이시기에는노동조합운동에회의적이었다. 1914년미국에서귀국한그는1919년부터대삼영의노동운동에등참했으며, 대삼영과별도로「소작인」을발행했

²⁸ 팔태주삼에대한대표적인연구로는존크럼이쓴『八太周三と日本のアナキズム』(靑木書店 1996) 이었다. 작자는팔태주삼의순정아나키즘을일본식으로공산주의이념을잘설명한이론이자일본인이도달한가장우수한이론의하나로높이평가한다.

²⁹ 암좌작태랑은어린시절미국에건너가서알렉산더버크만, 엠마골드만과교류하면서아나키스트가되었다. 1907년미국에서사회혁명당을조직했으며, 행덕추수를만난인연으로대역사건때항의편지를일본에보낸바있다. 그는1927년5월을전후해중국에와서상해노동대학의강사를역임했다. 1928년가을에는천주민단훈련소에참가해1930년겨울까지있었다. 귀국후흑색청년연맹과전국공회자유연합회의지도자의한사람으로활동했다. 전후에도일본부정부주의연맹전국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樋口進, 앞의글 297면).

³⁰ 岡崎正道 〈八太周三の無政府共產主義 — 反マルクス主義原理の構成〉, 『日本思想史研究』 第16號, 1984, 145면.

그들이다. 이대조는북경대학생및북경지역의진보적청년들과정기적으로토론회를열었다. 이토론회에는고군우(高君宇)와유인정(劉仁靜), 하맹웅(何孟雄) 등중국학생이외에도한인청년김가봉(金家鳳) 등이참가했다는기록이있다. 그리고조선사회당에소속된한인청년김일학(金一鶴)과김상지(金尙志) 등 7인은평소이대조의글을읽고흠모해자주왕래가있었으며, 그들이이대조의지시에따라향산에파견되어비밀공작에참여했다고한다. 또한조선사회당소속이자북경대학청강생이던중국국적의한인왕동명(王東明, 본명王申憲)도이대조는물론북경대학의중국인아나키스트와교류하고, 상해임시정부와도왕래하면서한글선전물을전달하는일을맡았다고전한다.² 그렇다면현재이름이확인되는한인청년 — 김가봉, 김일학, 김상지, 왕동명 등 — 들은아나키스트일까아니면초보적공산주의자일까?

저명한한인독립운동가장지락(張志樂) 의회고에따르면 1920년대초북경에는약 800여명의한인이있었고, 그가운데학생이 300여명에다다랐다고한다. 그리고 1924년무렵에는1천여명정도가거주했다고기록했다. 당시한인학생들의자유와민주주의에대한강한충동이아나키즘에흥미를느끼도록만들었으며, 장씨자신도이시기에는마르크스주의에대해잘모르고레닌주의에대해선전혀물랐다고한다. 이런회고에따르면앞서열거한한인학생들은아나키즘경향이농후한학생일가능성이높다.³ 더구나이대조가북경대학내에만든마르크스주의연구회(1920년3월)에한때초보적공산주의자나길드사회주의자보다아나키스트가더욱많은수를차지했다는사실을기억한다면그가능성은더욱높아진다. 이렇듯이대조주변의한인청년들은적어도아나키즘과초보적공산주의사상이뒤섞인사상을가지고있었으리라집착되며, 그가운데김가봉이라는인물은아나키스트라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얼마후상해의활동과정에서아나키스트라는분명한기록이나타나기때문이다.

상해에서도아나키즘사조가유행하는가운데때마침이곳에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되었다. 상해공공조계당국의보고에따르면, 임정수립이되기직전인 1919년3월에는300여명에불과하던한인의숫자가임정수립시기인 4월에는700여명으로급증했는데, 이가운데상당수가조선으로부터온망명객이었다고한다. 더욱이조선총독부경무국자료에는700여명가운데200여명이독립운동세력이었다고기록하고있다. 이런통계수치는한인독립운동가의급증에따라자연스레중국인아나키스트와접촉할가능성이높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리고이시점은중국

² 楊昭全等編『關內地區朝鮮人反日獨立運動資料彙編』(下), 遼寧民族出版社 1987, 1481면.

³ 김산·남웨일즈『아리랑』, 동녘 1984, 89, 113면.

제 5 장한인·대만인민족해방운동 과아나키즘

1. 일제하식민지에서아나키즘운동의출발

러시아볼셰비키혁명은해외에거주하던한인들에게사상적으로큰영향을준역사적사건이었다. 비록이혁명과맞물려아나키즘의수용을보여주는자료는별로없으나적어도한인들이사회주의에흥미를갖는데결정적인전기를마련한것은틀림없다. 예를들어이동휘(李東輝)와김립(金立) 등을중심으로연해주지역에서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1918년 4월)이창설되었다는사실은그런분위기를말해준다. 한인사회당은러시아볼셰비키와우호적인관계를맺었으며, 어느정도아나키즘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한인사회당은다소맹목적인계급투쟁만을강조하고민족해방운동에대한명확한인식이부족해서볼셰비즘에기초한러시아식공산당조직이라고보기는곤란하다.¹ 여기서는중국과일본, 국내의순으로한인아나키즘운동의초기상황을소개하겠다.

1919년 3·1 운동이일어나전국적으로반일운동이전개되자민족주의의확산은물론사회주의의수용을가져왔다. 당시중국의대표적인신문「신보申報」나잡지「매주평론每週評論」등에서도조선의 3·1 운동을대서특필했다. 그가운데에는신문화운동의지도자이자얼마후중국공산당의대표가될진독수(陳獨秀)의글도있었다. 그는「매주평론」에〈조선독립운동의감상〉이라는시론을실어 3·1 운동을세계혁명의신기원을이룬것이라고높이평가했다. 불과두달후중국에서도항일운동의성격을띤 5·4 운동이일어났다. 그런데바로이시점은중국아나키즘운동의전성기였기에그들의잡지에서도 3·1 운동관련기사들을쉽게찾아볼수있다.[396] 이운동이중국인아나키스트들에게조선문제에관한동정과관심을불러일으킨계기였을것이다.

이때주목할만한사건은북경대학도서관장이던이대조(李大釗)가사회주의와마르크스주의를공부하던시절, 그의주변에한인사회주의청년들이나타난다는사실이다. 조선사회당소속이라는한인청년들이바로

¹ 반병률 <한국근현대사상의지평을확대한아나키즘연구 — 『한국의아나키즘(사상편)』>, 「역사와현실」 46호, 2002, 260~61면.

다. 일본사회주의동맹의중심인물이었으며, 기관지「사회주의」의명목상발행인이기도했다. 암좌작태랑은대조직권위주의화또는관료주의화를비판하며소규모조직만을취하다가점차노동조합을부정하며소수정예주의로기울었다.³¹ 그가노동조합이란산적(자본가)의친자식에불과하다고주장한이른바‘노동조합산적론’은젊은이들사이에서인기를끌었다. 이에따라노동운동에서의생디칼리슴에대해경시하거나부정적태도를취하여노동조합내분열을가져왔다. 팔태주삼과암좌작태랑은 1926년 1월경동경흑색청년연맹을만들어전국적인규모의아나키스트연합체를구성했다.

대중적노동조합조직을통한경제적직접투쟁을강조하는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는순정아나키스트의주장을뿌리부르주아의감상주의혹은관념적아나키즘이라고비판했다. 대삼영의활동을잇는이런흐름을대표하는인물로는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³²이있었다. 그는행덕추수와함께활동한명망있던아나키스트로, 행덕추수사건때옥중에있어서죽음을모면했다. 1913년일본을떠나유럽각국을유랑했는데, 잠시귀국한일을제외하면거의 10여년간유럽에머물면서아나키스트들과교류했다. 석천삼사랑은오랜프랑스경험을통해아나키즘운동은노동단체와결합해야한다는믿음을가졌기때문에귀국한후노동운동에참가했다.

석천삼사랑은강권을부정한다는측면에서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은마치부부혹은형제같은관계라고보았다. 양자모두자유연합이나치를추구한다든지, 자본과노동과의계급투쟁을인정한다는점에서서손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 따라서아나키스트는노동조합안에들어가기광적조합을혁명적조합으로바꾸고혁명적조합을아나키즘적조직으로개혁해야한다고호소했다. 그는노동조합의혁명수단으로서의중요성을인정하고, 총파업여하에따라미래사회가결정된다고보았다. 석천삼사랑은순정아나키스트와의협력을호소했으나화합에이르지는못했다.

유럽사회에서도아나키즘과생디칼리슴사이의논쟁은이미 20세기 초반부터시작되었다. 1907년여름암스테르담에서열린아나키스트국제회의에서프랑스의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인모나트와이탈리아의코뮌적아나키스트말라테스타간에는쟁이있었다. 모나트는아미앵선언

³¹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編)』, 형설출판사 1978, 84면.

³² 석천삼사랑은행덕추수와함께평민사에참가해반전론을주장한바있었던기독교사회주의자였다. 「平民新聞」이창간되자참여했다가투옥되었고, 「世界婦女」에실은글로다시투옥되었는데, 이때아나키스트가되었다. 유럽에서귀국한후노동운동에참가하다 1927년 9월중국에서사상해노동대학의강사로있으면서한달여지내다가귀국했다. 같은해 11월농민문제에관심을가져농민생활을시작했는데, 그는이른바토민생활土民生活를제창한것으로유명하다. 1929년에는공학사共學社를받기했다. 1933년중국여행후동양문화에대한연구를시작해중국학에높은경지를이루었다. 전후일본무정부주의연맹의고문을지냈다(樋口進, 앞의글 298면).

(1906) 의내용처럼노동조합이야말로부르주아체제를노동자들의천국으로전환시키는임무를지녔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말라테스타는생디칼리스트가마르크스주의의냄새를퐁기며프롤레타리아계급만을중시하는것은한계급이아닌모든인간의해방을목표로하는아나키스트의목표와는다르다고반박했다.³³ 이런코뮌적아나키스트와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간의논쟁은그후에도계속되었고, 결국아나키즘운동을약화시켰다.

일본노동계에서는‘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자련, 1926년 5월)가창립되었다. 이단체는아나키스트노동조합의최초의전국적조직으로자유연합주의를제창했다. 그런데여기에팔태주삼과암좌작태랑을중심으로한순정아나키즘이침투해얼마후자련을장악하고「자유연합」을발간하면서, 사상운동의순수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 이에대항해서천삼사랑은혁명적조합을많이만들어아나키즘단체로개조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를추종하는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그룹은자련에서탈퇴해별도로‘관동자유노동조합자유연합회의회’(1928년 7월)를조직하고「흑색노동신문」을발간했다. 이들은다시독자적으로‘일본노동조합자유연합회의회’(자협, 1930년 11월)를결성하고, 석천삼사랑과근등헌이를중심으로「노동자신문」을발간했다. 결국이런조직의분화는일본아나키스트노동운동의분열을가져왔다.³⁴ 일본노동운동의분열은재일한인노동조합의분화도초래했다. 순정아나키즘을추구하는조선자유노조와생디칼리즘을추종하는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1924년 창립)의분열이그것이다. 이런일본내아나키스트의분열현상은 1934년일본무정부공산당日本無政府共產黨(1934년 1월 30일)의결성으로일단봉합된다.

2. 중국아나키즘의분화

아나키즘(흑기) 과에스페란토(녹기) 의결합

1920년대에들어서면서중국아나키스트의신문화운동에대한관점이바뀌고있었다. 기존의문화운동이지식인운동에제한되었다는점을비판하고, 노동자를중심으로한새로운운동양식을주장했다. 실제로「민성」과「노동」등의영향을받은일부아나키스트는문화비판에서정치선전으로변화하면서노동조합적아나키즘운동을전개했다. 그들은“정치를묻지않고경제만묻는다”면서지식인들이적극적으로노동운동에참여

동아시아아나키스트연대의불꽃을지켰던유서의말에따르면,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결코명령기관이나혁명의총사령부가아니며“과대망상의광적인공허한거대조직을요구하지않았다”면서, 자유연합제도를기초로하는평등한조직을추구했다고한다. 여기서자유연합주의란“어떤종류의권위에의해서건위로부터아래로향하는조직이아니라밑으로부터위로, 주변에서중심으로향하는자유로운연합”을말한다. 본래바쿠닌은개인과단체의자유로운연합과마찬가지로자유로운이탈을가장중요한권리로규정했고, 이것이없다면중앙집권제에불과하다고보았다.⁹⁵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제국주의침략에대한반대는물론코민테른의독재에반대하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자유연합적연대기구라고말할수있다.⁹⁶ 1907년아주화친회의전통을잇는반제국주의단체였던것이다.

덧붙이자면, 유서의또다른선언문〈약소민족의혁명책략〉이얼마후대만에서발견되었다. 여기서는혁명단체의조직을역설하면서“(1) 결코적들과타협해서는안된다, (2) 결코제국주의정부가승인한정당(노동당과무산당을포함) 과합작하거나타협해서는안된다, (3) 철저히계급의식을지녀야한다, (4) 독립정신을갖추어야한다, (5) 주의를일치시키고, 책략을일치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⁹⁷ 그리고“제국주의에억압받는약소민족이해방되려면그운동은반드시건고한조직에의존해야한다. 약소민족의자유해방은결코의회운동이나제국주의의자선에의존해달성될수없으며, 오직혁명단체에의지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⁹⁸ 민족해방운동의전략을기술한그의글은아나키즘의순수성에집착한일본아나키스트의입장과는묘한대비를이루어여운을남긴다.

⁹⁵ 김명섭, 앞의책 245면.

⁹⁶ 김명섭 〈한일아나키스트들의사상교류와반제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49집, 2006, 53~54면.

⁹⁷ 楊碧川 『日據時代臺灣人反抗史』, 稻鄉出版社 1988, 172~7면이문건은재중국대만무정부주의자연맹에서발행한〈六一七臺灣島恥紀念宣言〉(1931. 6. 17) 과함께발견되었다.

⁹⁸ 王乃信等譯, 앞의책 41~51면.

³³ 폴애브리치 『러시아아나키스트 1905』, 예문 1989, 124~25면.

³⁴ 樓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134~37면.

의회고에 따르면 1927년 9월에 광둥의 아나키스트 진건(秦健)의 발의로 중국과 대만, 조선, 일본, 베트남, 인도 등 6개국 대표 120여명이 무정부주의자 동맹 연맹을 조직했다면서, 이를 흔히 A 동맹 연맹이라고 불렀다고 회고했다.⁸⁹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채호는 동맹 무정부주의자 연맹 활동의 하나로 1928년 4월 무정부주의자 동맹 연맹(A 동맹 연맹) 북경회의를 열고, 〈조선혁명선언〉을 이은 또 다른 동아시아 민중의 연대혁명을 선포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친진회의를 열고 신대만안사 新臺灣安社에서 활동했던 대만 동지 임병문(林炳文) 과 협의해 일제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한 폭탄 제조소의 설치를 결의했다고 한다. 이때 신채호가 참가한 이 조직이 앞의 연맹과 동일한 단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인지 혹은 예비적 성격의 단체인지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기억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같은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⁹⁰

동맹 무정부주의자 연맹은 각 민족의 자주성과 각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 사회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고, 서기국위원으로 중국인 모 일파와 왕수인, 일본인 적천계래, 한인이 정규등을 선출하고 「동방東方」(1928년 8월 20일)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아나키즘을 선전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한다.⁹¹ 이 잡지에는 〈동맹 무정부주의자에게 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연맹은 “첫째, 본래 이상사회는 어떤 형식의 국가 권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 조직의 뿌리는 인간과 인간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국가 권력이 인간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위대한 인간의 본질에 근거하여 자유 평등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⁹² 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과 대만 지배,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영국의 인도 지배 및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중국 오지에 아나키즘 근거지를 설치하자는 등 신선한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에서 이석규가 조선 대표로 파견되었으나 상해에도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회의가 폐회된 뒤였다. 일본에서도 대표를 파견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고 한다.⁹³ 동맹 무정부주의자 연맹의 구체적인 활동은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곧바로 탄압을 받고 1931년 무렵에는 활동이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⁹⁴

⁸⁹ 이석식 면담,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개정판), 민음사 2005, 334~35면.

⁹⁰ A 동맹 연맹에 조선 대표로 참여한 신채호가 대만 아나키스트 임병문과 별인 국제위계 사건에 대해 당시 ‘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同志被害’라는 소제목으로 소개한 잡지사가 있기에 두 조직은 동일한 단체로 보인다 (〈內外消息〉, 『黑色青年』 第6期, 1930).

⁹¹ 오장환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99면.

⁹² 玉川信明, 앞의 책 272면.

⁹³ 오장환, 앞의 책 142면.

⁹⁴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290면.

함으로써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 1920년대는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전성기로 인물과 사건들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는 흑색 깃발로 상징되는 아나키즘과 녹색 깃발로 상징되는 에스페란토와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이 시기의 상황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910년대 후반 「신청년」을 둘러싸고 전개된 에스페란토 논쟁은 1920년대에 들어와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장차 중국 에스페란토 운동의 대표 인물이 될 호유지(胡愈之)는 「동방잡지」에 실은 〈국제어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글에서 국제어와 민족어의 관계를 다음 같이 서술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국제어의 최후의 이상으로, 그것이 일체의 국어와 민족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전지구의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채용하게만 들어, 모두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 사실 국제어의 이상은 결코 이처럼 과장된 것이 아니다. 국제어는 일체의 국어와 민족어를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어를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보조하려는 것이다. 인류의 사상을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언어 문자에 의존해야 하지만, 언어가 서로 다른 인민이 교류할 때에는 번거리와 마찬가지로 무엇도 이해할 수 없는데, 국제어의 목적은 단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것 말고 국제어는 결코 인민 내부의 생활을 간섭하려는 생각은 없다. 따라서 국제어가 민족의 정신과 특징을 간섭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체국에 부친 편지가 일반인의 대화 능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을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³⁵

사실 에스페란토는 기본적으로 ‘일민족, 이언어’주의를 표방한다. 나라안에서는 자국어, 나라밖에서는 국제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한자 폐지 같은 과격한 논조는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에스페란토는 민족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국제 연대를 꾀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들이 채용한 문화 혁명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920년대에 들어서도 구성백과 황릉상(黃凌霜)³⁶ 등이 열심히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 아나키스트 가운데 에스페란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드물었다. 아래에서는 광주와 상해, 북경으로 나누어 아나키즘 운동과 에스페란토 운동의 확산 과정을 살펴 보겠다.

광주 지역의 경우, 그곳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는 양빙현(梁冰弦)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광둥 남해인으로 젊은 시절 사복(師復)의 영향으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 1910년대에 남양지역에서 화교등을 대상으로 아나키즘을 전파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정성정聲」을 출판하고 『세계공회』(I.W.W.)라는 소책자를 번역한 바 있다. 사복이 죽자 대

³⁵ 胡愈之 〈國際語的理想與現實〉, 『東方雜誌』 第19卷第15號, 1922.

³⁶ 황릉상은 1921년 말 러시아에 갔다가 1922년 6월 귀국했는데, 러시아 체중에서 크로포트킨 부인을 비롯한 국제 아나키스트와 접촉했다. 그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와 얼마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륙으로 옮겨와 활동했다. 양빙현은 유석심, 정패강(鄭佩剛) 등과 함께 상해에서 「노동」을 출판하는데 참여하고 광주의 「민풍」 발간도 주도했다. 특히 「민풍」은 광둥지역에서 신문화운동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잡지였다. 한때 양빙현은 진형명(陳炯明) 초청으로 유석심과 함께 장주漳州로 가서 「민성閩聲」을 출간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다시 얼마 후 광주로 돌아와 「민성民聲」을 복간했다. 이 시기는 중국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점차 발달해 노동운동 분야에 노동조합적이나 키즘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황릉상과 양빙현, 유석심 등은 한 러시아 아나키스트와 함께 광주기 공회를 중심으로 무정부주의자 동맹을 만들었다. 이 단체는 엄격한 조직체계를 갖춘 것이 기존의 조직과 차이를 이루는데, 광둥·홍콩·마카오 등지의 50 여명의 아나키스트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 밀고자가 있어 러시아 아나키스트가 체포되면서 그해 8 월 자진 해산했다. 그 후 이 단체는 상해로 옮겨갔으며, 등몽선이 책임을 맡았다. 대삼영이 프랑스로 가기 위해 상해로 잡입했을 때 중일 양국의 혁명 문제를 토론했다고 알려진 단체가 바로 무정부주의자 동맹이었다.³⁷ 광주 무정부주의자 동맹이 해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기(王祺)를 중심으로 20 여명의 아나키스트가 진사眞社(1923년 9월)를 만들어 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춘뢰」를 발행해 국내외 아나키즘 소식을 전파했다. 「춘뢰」에는 대삼영을 추모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대삼영이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연대의 상징이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³⁸ 사복의 「민성」이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오랫동안 출판한 광주 민중사의 「민중」도 이때 나왔다.³⁹

광주를 중심으로 한 아나키즘 운동은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으며, 사회의 주요 조직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그들은 에스페란토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광주에서 제 7 회 전국 교육 연합회의(1921)가 열렸을 때, 아나키스트 황존생(黃尊生)은 오치휘와 이석증, 채원배(蔡元培)의 지지 아래 전국 사범 학교에 에스페란토 과목을 증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를 통해 전국에서 시행토록 했다. 1912년의 첫 시도 이래 에스페란토가 정식으로 사범 학교 과정에 들어간 것은 중국 에스페란토 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황존생은 한때 광주에서 사복과 함께 허론박(許論博)에게 에스페란토를 배운 인물로,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어 전습소를 운영해 에스페란토 인재들을 배양했다. 그는 1922년부터 1925년까지 매년 국제 에스페란토 대회에도 참가했다.⁴⁰

³⁷ 鄭佩剛, 앞의 글 966 면.

³⁸ 嵯峨隆, 앞의 책 263 면.

³⁹ 민중사의 「民鐘」은 1927년 4·1 쿠데타 이후 광주에서 상해로 옮겨와 발행되었다. 오치휘의 글이 많이 실렸고, 반공반소의 관점에서 삼민주의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크로포트킨 전집의 번역을 시도하는 등 외국 저작의 번역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⁴⁰ 侯志平主編『世界語在中國』, 中國世界語出版社 1999, 71 면.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대삼영의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주장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중국 아나키스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대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대 활동을 촉진했다. 한인 아나키스트 유서는 <동아무정부주의자 대연맹을 조직할 것을 주장함>(1926년 말)이라는 글을 발표해 식민지인 인도, 조선,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의 민중 운동이 협소한 민족주의 운동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고, 애국의 광풍을 넘어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합대회를 가질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대삼영 동지가 일찍이 동아시아무정부주의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그의 죽음으로 이 중대한 제의도 무형중에서 사라졌다”⁸⁵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맹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 동지들의 파괴 운동은 때면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파괴의 수단 및 조직이 결여된 데 있다. 중국의 동지들은 그들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선, 대만 동지들은 그들과 합작하여 파괴 운동에 착수할 수 있다”⁸⁶면서 합작을 희망했다. 이런 그의 바람은 얼마 후 실현되었다.

1920년대 말은 동아시아 차원의 아나키스트 연합 단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당시 대표적인 조직이었던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보가 남아 있다. 1928년 5월(혹은 6월) 상해 이매로 李梅路 화광병원 華光病院에서 중국인과 한인, 일본인 등 5개국 대표가 모여 동방 아나키스트 대회를 열었다. 회의가 열린 화광의원은 상해 아나키즘 운동의 주요 연락처로 등몽선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개원한 병원이다. 중국인 아나키스트는 물론 대삼영, 암좌작태랑, 산록태치 등의 일본인과 다수의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드나든 곳이었다.⁸⁷ 여기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그해 6월(혹은 7월) 남경(로)에서 중국과 조선,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을 대표하는 200여명(혹은 120여명)의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연합의 조직원리 아래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는데 성공했다.⁸⁸

여기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과 비슷한 명칭으로 그보다 조금 앞서만 들어졌다는 이른바 ‘A 동방연맹’에 대해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화암

⁸⁵ 柳絮 <主張組織東亞無政府主義者大聯盟>, 「民鐘」第 16 號, 1926. 12. 15.

⁸⁶ 같은 글.

⁸⁷ 玉川信明『中國の黒い旗』186 면.

⁸⁸ 정화암의 『이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는 1928년 5월로, 이정규의 『우당이회 영약전』에는 1928년 7월로 쓰여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28년 6월 14일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유기석과 이정규 등은 적천계례, 모일파, 왕수인, 등몽선 등과 화광의원에서 회합을 갖고 6개국 대표와 동방 아나키스트 대회를 개최해 정식으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동방 A 연맹?)을 결성했는데, 한 중일 아나키스트들이 주축으로 한 반제 연합 전선이었다고 한다(김명섭 <한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 교류와 반제 연대 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 49집, 2006. 12, 51~53 면).

국각지의아나키스트들이위험을피해모여들었다. 오랫동안천주지역은아나키스트의무릉도원이라고불렸다. 1927년 5월초진망산(秦望山)은천주에농민협회를조직하고농민자위대를건립해무장투쟁의본거지를만들고자했다. 그는토비와공산주의자로부터농촌을자치적으로방위하기위해서간부급인재를양성할필요를느꼈다. 이에상해로올라와동지들에게을원을요청했다. 오극강과양용광, 암좌작태랑, 이정규, 이을규 등은천주를지원하기로결정하고, 이사업을노동대학일과병행하기로의견을모았다.⁸³ 이에따라만들어진민단훈련소는토비의피해를막기위해청장년을훈련시켜고향을스스로지키도록만든다는목표로출발했다. 실제로는중국과조선, 일본의아나키스트가중심이되어아나키스트투사를양성하던생활공동체이자군사학교의성격도가지고있었다. 훈련소의중심인물은진망산이었고, 이을규·이정규형제가참모소장으로있었다.

암좌작태랑은천주에무장근거지를확보한후‘동아무정부주의자대동맹’을조직하여동아시아각국의아나키스트와함께공동투쟁하기를희망했다. 그래서징병에반대해중국으로탈출한식자공출신의아나키스트적천계래(赤川啓來)와함께천주로내려와민단훈련소에안주했다. 이들의실험은비적들의대규모공격과지역군벌의방해로실패하고 10여개월만에해산할수밖에없었다. 결국 1928년 5월초, 암좌작태랑, 적천계래 등두명의일본인과이을규, 이정규, 정화암(鄭華岩) 등세명의한인은상해로돌아갔다. 그런데상해도착후곧바로적천계래는일본영사관경찰에체포되어일본으로압송되었고, 곧이어이정규도일경의함정에빠져국내로압송되는불운을겪었다.⁸⁴

1928년이후에도천주에서는여전히아나키스트활동이이어졌다. 교육운동의예를들자면, 여명고중黎明高中과평민중학平民中學의사례가주목할만하다. 진망산과양용광, 범천균(范天均) 등이여명고중을만들어활동을전개했다. 여기에는중국인아나키스트위혜림(韋惠林)·진범여(陳范予)·주세(朱洗), 한인아나키스트유자명·유서, 대만인채효건·정영백(鄭英伯) 등이교사로있었다. 여명고중은파금도방문학적이있었는데, 여기서파금은프루동의『소유란무엇인가』를일부번역했다. 얼마후다시소추도(蘇秋濤)가평민중학을만들었는데, 여명고중과교육이념이같은자매학교였다. 이학교의교원은프랑스와일본에서유학한인물들이많았으며, 일본과조선, 대만의망명객도참여했다. 여명고중이나평민중학은상해일달학원과도긴밀한교류를맺고있었다. 이와같이천주아나키즘운동의특징가운데하나는조선과대만, 일본의운동가들이대거참가한국제적인성격을지닌데있었다.

⁸³ 정화암 『몸으로쓴근세사』, 자유문고 1992, 78~79 면.

⁸⁴ 秦望山 〈조선과일본아나키스트들이천주에피난하여일으킨사건들〉 (박환, 앞의 책 104~12 면) 참조.

그리고아나키스트오대광(伍大廣)이광주시교육국장을맡아광동성제 6 차교육회의(1926)를열자당시광동대학에재임하던황존생이회의중두가지문제를제안했다. 첫째, 에스페란토강습을위한연구전문기관의설립, 둘째, 전성의중소학과정에에스페란토과목을증설하는것이다. 이제안이통과되면서그해여름부터준비작업에들어가광주시립사범학교내에세계어사범전습소가설치되어황존생이소장이되었다. 얼마후황존생이남경으로이주하고, 오대광조차미국으로건너가자또다른아나키스트구성백이이업무를이어받았다. 주변지역과학교에에스페란토수업이개설되면서광주의에스페란토운동은더욱활발해졌다.⁴¹ 당시광주시에만무려 20 여곳이상의대학과중학에에스페란토가선택과목이있다고한다.

상해지역의경우, 앞서언급했듯이에스페란토를전파하던러시아아나키스트스텠타파니(V. A. Stepany)가 1921년봄의문의죽음을맞이했다. 스텠타파니가족은그해가을또다른러시아아나키스트가상해로와서중국에스페란토운동사에큰족적을남겼다. 바로러시아이맹인시인이자에스페란토작가인에로센코⁴²가그사람이다.

에로센코는일본에거주하면서사회주의동맹회의에참석하고시위에참여했다가일본정부에의해추방되었다. 그는러시아일경을거절당하자호유지의요청을받아들여상해로와서에스페란토를가르쳤다. 신체적결함에도불구하고그의왕성한활동은중국인은물론일본인이나한인이나키스트에게도깊은감명을준것으로유명하다. 에로센코는“모든사회주의자는에스페란토주의자여야한다. 또모든에스페란토주의자는사회주의자여야한다”는유명한말을남겼다.⁴³ 에로센코가상해에있을때에스페란토로동화『고엽잡기枯葉雜記』를썼는데, 호유지는곧바로이글을중역해서「동방잡지」에실었다. 당시「동방잡지」에는에스페란토에관한기사들이꾸준히실렸으며, 호유지가주편한「학생잡지」에도에스페란토란이증설되었다.

전국각지에에스페란토화학회만들어졌지만가장활발한활동을펼친곳은바로상해세계어학회였다. 이학회의활동가운데한두가지를소개하자면다음같은것들이있다. 먼저, 에스페란토전문지인「화성華星」이「녹광綠光」(1922년 1월)이라는이름으로바뀌어다시출판되었다. 이

⁴¹ 王炎 〈無政府主義與世界語〉,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548~49 면.

⁴² 에로센코는우크라이나에서중농의아들로태어나네살때실명했다. 1914년부터인도와미얀마, 일본등을유랑했다. 1921년 5월그는동경에서 5·1 철시위와일본사회주의동맹제 2 차대표대회에참가했다가일본당국에체포되어추방당했다. 경찰에의해블라디보스토크에압송되어귀국하려다거절당하자어쩔수없이합이빈哈爾濱으로갔다. 그는북경대학의에스페란토강의를맡았으며노신(魯迅)의집에머물렀다(侯志平『世界語運動在中國』, 中國世界語出版社 1985, 108~109 면).

⁴³ 大島義夫·宮本正男 『反體制エスペラント運動史』, 三省堂 1974, 106 면.

잡지광고에는“무력에반대하고평화를제창하는세계어잡지로매월한차례발행하며, 논설·독본·소설·시가·소식·통신등의내용이있다. 매호마다 에로센코와성국성(盛國聲)의걸작이실린다. 이두사람은세계어잡기이자인도주의자로그들의문장은우리들에게애독되고있다”⁴⁴라는선전문구가남아있다. 그후「녹광」은무려 10 여년간가이출판되면서중국에스페란토운동사에서상징적인잡지가되었다. 다음으로, 상해세계어학회를중심으로다양한출판활동이있었다. 학회는에스페란토도서관이나서점을열었는데, 진조영(陳兆瑛)이유럽에서가져온에스페란토서적으로서점을연일이유명하다. 그리고에스페란토사전출판에힘을기울여『세계어-한문신사전』이나왔으며, 성국성편저의『세계어강의』도보급되었다. 그밖에도상해주변여러지역에에스페란토강습반을만드는데공헌했다.

상해국민대학에있던노검파(盧劍波)는중국공학의장신(蔣新)과 1924년(혹은 1925년)에에스페란토주의자를중심으로국제조직인‘국제무국가주의세계어연맹國際無國家主義世界語聯盟’이라는단체를만들었다. 이연맹은“무국가·무강권주의자, 아나키스트, 혁명적생디칼리스트가운데에스페란토가가능한자들이건립한국제적조직”이라고하며, 「자유노동자」라는잡지를출판했다고전한다. 또한상해지역의몇몇학교에는에스페란토과목이개설되었는데, 주목할만한학교로는아나키스트들이다수교수로재직하던남양중학과노동대학등이었다. 이학교들은에스페란토가필수과목이었다.

북경지역의경우, 경매구(景梅九)가주관하던「국풍일보國風日報」는국내아나키스트의주요연락처이기도한데, 이신문의부간인「학회學彙」에는크로포트킨과대삼영의저작이다수실렸으며에스페란토선전에도힘썼다. 그리고진정번(陳廷璠)이관계하던세계어전문학교도아나키스트의중요한거점이었다.

전국제 7 차교육회의의결정에따라북경대학에서는가장먼저에스페란토과목을신설하고상해에있던에로센코를초빙했다.⁴⁵ 이때에로센코는북경에올라와서노신(魯迅)과돈독한우정을쌓았으며, 노신도그의동화를번역해『에로센코동화집』이라는제목으로상무인서관에서출판했다. 에로센코는북경대학에서에스페란토를강의하면서같은학교교원이던전현동(錢玄同), 주작인(周作人)등과교류했다. 이때한인청년이정규(李丁圭), 이을규(李乙奎) 형제도에로센코를통해에스페란토를

의지원을받아만든대학이라는점이다.⁸² 이곳은신문화운동의전통을이어받아아나키즘교육이상을무려 5 년가까이실천한곳이라는점에서그의의가높다.

노동대학에참여한암좌작태랑은본래이대학에대해회의적이었다. 그가비판한요지는이석증과오치휘, 채원배등은미국민당의원로로타락한아나키스트들이라는점, 국민당의지원을받는노동대학은곧현실정치와타협해반동세력이성장할것이라는점, 아나키스트가노동대학에참여하면결국국공분열같은상황을맞아다수의아나키스트가희생되리라는점등이었다. 이에대해등몽선과심중구, 오극강등은이석증과오치휘가주장하던“연성자치, 분치합작”은아나키스트의자유연합적사회조직과유사하고, 권력과의타협은정도의문제일뿐지나친원칙주의가오하려문제라고했다. 오히려주어진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해우리의기관을만들어혁명운동을해야한다고설득했다. 이정규등도순수한아나키즘에집착하기보다는현실적인대안을추구할것에동의하며설득에나섰다.

당시장개석의국민정부는공산당의노동운동에대항하기위해아나키스트를이용하고자했다. 국민정부는노동대학을국민당의필요에맞게개조하려했고, 대학내아나키스트들은이에저항했다. 특히대학원제의실패와교육부와의알력은오랜친구였던이석증과채원배간의우정에금이가도록만들었고, 노동대학총장인역배기와교육부장장몽린간의갈등도점차깊어졌다. 게다가노동대학내부의불만은학내분규로표출되었다. 노동대학은상해사변(1932년여름)이발발하자일분군에의해교사가소실되었고, 다시회복했으나국민당은학내분규를이유로폐교시켰다. 이대학은사실상 1920년대말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의집결지였다고말할수있다.

한편노동대학주변에는 5·4 운동때활약한아나키스트광호생(匡互生)이설립한입달학원立達學園이있었다. 이학원은노동대학처럼학생들에게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결합을강조하면서공독주의를실천하도록했다. 입달학원도교육으로사회를개조하려는이상을실천에옮긴학교라고말할수있다. 이곳은노동대학에비해자유로운분위기여서암좌작태랑과석천삼사랑, 유자명(柳子明), 유서(柳絮) 등이교원이나손님자격으로체류한바있다.

북건성천주泉州는 1920~30년대중국아나키스트의활동거점의하나로, 특히 1920년대후반에이곳은국민당좌익의수중에있던까닭에전

⁸² Ming K. Chan & Arif Dirlik 의알의책에대한한서평에서는중국혁명가들이공통적으로교육을중시한것은유교적전통에서교육을중시하던것과관련이깊다고보면서, 노동대학의실패원인을현실정치에깊이개입한사실에서찾는다(박계균 <서평: Ming K. Chan & Arif Dirlik, School into Fields and Factories—Anarchists, the Guomindang, and the National Labor University in Shanghai 1927~1932>, 『동아시아역사연구』 제 5 집, Duke University Press 1991, 159~60 면).

⁴⁴ 「互助」第 1 號, 1923. 3. 15.

⁴⁵ 王炎, 앞의글 552 면.

정을담당하고있던이석중과채원배의정치적영향력아래대학은단시일만에만들어질수있었다.

노동대학은 1927년 9월상해강만江灣에서개학했는데, 노동조합의지도자를양성하는데그목적이있었으며학비는무료였다. 이대학을세우는데구신세기파가앞장섰기때문에다수의중국인이나키스트가교원으로가담했으며, 외국인이나키스트도적지않았다. 대학교장은이석중과인연이깊은역배기(易培基)가임명되었으며, 오치휘와는쟁을벌였던「자유인」의주필심중구가노동대학소속의노동농학원勞工勞農學院의원장을맡았다. 그밖에교원으로는오극강등과같은중국인은물론, 프랑스인자크르클뤼, 미국인해리하워드, 일본인암좌작태랑·석천삼사랑·산록태치, 한인이을규·이정규등이참여했다. 노동대학사업과거의동시에시작된「혁명주보」에는이대학에대한기사가적지않다. 그가운데하나인〈노동대학의목적과사명〉에는다음같이적고있다.

노동대학은장차중국농공農工운동의중심이될것이다. 이곳의목적과깊어진사명은전중국의농공의복리를도모하는것이다. 이대학은장차일체의자산계급호신부인사상을없애고, 농공으로하여금노동의진가를인식하도록만들곳이다. 이대학은장차자본주의사회의폐단을해부하여농공으로하여금격렬한혹은온건한방법으로기존사회를뒤집고, 비교적합리적이고인성에어긋나지않도록사회조직을다시만들곳이다. 노동대학은장차노동운동의방향을지도하고노동자의이상을선양하며노동자의지식을제고하고노동자의단체생활을훈련시켜노동자를자치적인인간으로양성할것이다. 이를보자면이곳의목적과사명은지극히위대하다. 노동대학이제창하는교육은새로운것으로가장중요한것은네가지인데, 첫째노동교육, 둘째생활교육, 셋째혁명교육, 넷째전인全人교육이다.⁸⁰

이대학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의조화’‘평민교육’‘교육과정치의분리’등과같은아나키즘교육원리가고스란히반영된대학이었으며, 실제로정규수업이외에도매일 3시간노동실습을했다.⁸¹ 필수과목에에스페란토와프랑스어가포함된것이특징의하나이며, 사회문제와관련한과목들도무척많았다. 노동대학에서노동의중요성을강조하고교육과노동의결합을통한사회개혁을주장한것은크로포트킨의교육철학은물론구신세기파의교육을통한혁명이라는주장과도일맥상통하는것이였다. 그런데유럽의노동대학과의뚜렷한차이라면노동자가주체가되어설립한대학이아니라, 삼민주의를매개로아나키즘을실현할수있다는발상아래국민당

⁸⁰ 碧波〈勞働大學의目的與使命〉, 『革命週報』第1冊合本, 1927. 7, 265~66면.
⁸¹ 畢修勺〈我信仰無政府主義的前前後後〉,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22~38면.

배웠다고하며,⁴⁶ 그의글은국내「동아일보」에도실렸다.⁴⁷ 에로센코는 1923년봄러시아로영구귀국했다.

북경에서에스페란토와관련해주목할만한사건이라면, 전국세계어연합대회(1922년말)가북경대학에서열려무려 2천여명이참가한가운데세계어전문학교설립안이통과된일이다. 다음해, 북경대학의책임아래세계어전문학교가북경맹단학교孟端學校내에정식성립했다. 채원배(蔡元培)가겸임교장이었고, 이사로는채원배와노신, 에로센코등이있었다.⁴⁸ 이학교는의욕적인출발에도불구하고, 오래지않아학내분규로인해채원배교장과교사책임자인마서륜이사직하면서폐교되었다. 학내분규는부교장이자아나키스트였던경매구와교무를담당하던진곤산(陳昆山)간의정치적갈등에서비롯되었는데, 이곳학생들은아나키스트와국민당, 공산당을지지하는학생들로나뉘어있었다.

1920년대에더욱활발해진에스페란토운동은파금(巴金)이라는걸출한아나키스트문학가를낳았다. 어린시절파금은「신청년」에실린에스페란토관련 기사를읽고처음흥미를느껴에스페란토를배우기시작했다.⁴⁹ 1924년무렵남경에서에스페란토를본격적으로공부할무렵, 〈대삼영저작연표〉와〈대삼영연보〉를각각발표하면서아나키스트의길로들어섰다. 특히 1928년파리유학중에는호유지를알게되어영원한우의를맺고중국에스페란토운동의새장을열었다. 파금은“세계어는현실이지이상아니다. 그것은스스로성장하며꽃을피운다. 우리세계어학자들은선전가들이아니라생명을퍼뜨리는사람들이다. 문학은바로이러한생명을퍼뜨리는데필요한도구”라면서에스페란토가반드시인류공동의언어가될것으로믿는다고했다. 그는상해세계어학회이사를맡았고, 학회잡지「녹광」의편집에도참가했다. 파금은에스페란토관련글들을꾸준히저술혹은번역하여중국에스페란토운동의상징적인인물이되었다.⁵⁰

덧붙이자면양방현과유석심, 화림(華林) 등이활동했던남양지역에선허주(虛舟)가남양아나키동지사南洋安那其同志社(1922)에서활동한기록이있고, 동방아나키스트동맹(1923)명의로아나키즘을선전한기록도있다. 게다가 1924년에는말레이반도에서아나키스트대회를개최했다고도전해져궁금하지만현재로서는구체적인상황을알수없다.

⁴⁶ 안중수『에스페란토, 아나키즘그리고평화』, 선인 2006, 98면.
⁴⁷ 에로센코〈세계의평화(1), (2), (3)〉, 「동아일보」1924년 10월 13일자, 20일자, 27일자. 중국에서활동하던또다른러시아에스페란토주의자인노센트세리세프의글도여러차례「동아일보」에실렸다(박환『식민지시대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24~25면재인용).
⁴⁸ 侯志平主編, 앞의책 111면.
⁴⁹ 1920년부터한인고자성(高子性, 본명柳林)이성도고등사범학교에세계어반을개설하여에스페란토를가르쳤다. 이때파금은그로부터잠시나마에스페란토를배웠다.
⁵⁰ 許善述編『巴金與世界語』, 中國世界語出版社 1995 참조.

국민혁명을 둘러싼 아나키스트의 분열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때 장계(張繼)의 정치참여를 둘러싸고 사복과 오치휘의 서신 논쟁이 있었다. 이후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구신세기파는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 즉 안국합작(安國合作)이라는 명분으로 대거 국민당에 가입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아나키스트의 정치참여 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1924년 1월 20일 광주에서 중국 국민당 제 1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려 국민당 개조(國民黨改組)가 실시되었다. 손문(孫文)은 오치휘와 이석증, 장계등 5인을 중앙감찰위원으로 임명하고, 채원배등 5인을 중앙후보감찰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장정강(張靜江)은 호한민(胡漢民)과 왕정위(汪精衛), 대계도(戴季陶) 등 24인의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은 젊은 아나키스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저명한 아나키스트 오치휘와 이석증이 정당에 가입했고, 아나키즘 성향이 강한 채원배와 장정강, 장계등이 집단적으로 현실 정치 무대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원론적인 정당관은 부정적인 이 사건은 곧바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논쟁은 화림의 서신에 대한 오치휘의 반박에서 비롯되었고, 심중구(沈仲九)의 비판 등이 이어졌다.

화림은 장계에게 글을 써서 “당신이 아나키스트라면 어떻게 국민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리고 오치휘에게도 글을 써서 호한민이 “오치휘와 이석증, 장계등이 아나키스트로서 국민당에 가입한 것은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이다”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⁵¹ 오치휘는 화림의 편지와 자신의 〈화림에게 보내는 글〉을 공개적으로 상해의 「국민일보」에 연재하여 화림의 비판에 대응했다. 그는 국민당에 가입한 것이 ‘주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아나키즘 혁명의 실현에 있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 오치휘는 불이나 재가 되어도 국민당원이요, 동시에 나는 불이나 재가 되어도 무정부주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오치휘는 아나키스트가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하루빨리 다른 아나키스트들도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우선 국민혁명을 완성시킨 후에 아나키즘 혁명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⁵²

오치휘의 〈화림에게 보내는 글〉에 나타나는 주장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국설(強國說)로,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업의 발전, 교육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제국주의가 확

청년연맹의 지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맹에서 1930년 10월 10일자로 발행한 〈중국 학생 청년 연맹 창립 결의서〉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국민당을 신군벌로 규정하면서 어떠한 정치 수단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다.⁷⁷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흑색 청년 연맹은 일본을 그 출발지로 하는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연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 별도로 연맹을 조직하려 한 사실은 분명하다. 이 연맹의 존재는 일본 아나키즘 운동사에서도 중요하지만 대삼영사 후 동아시아 차원의 연대 조직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연맹은 조직 내의 의견 차이로 1928년을 전후로 코민적 아나키스트와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로 분열되었다.

상해 노동 대학과 천주 주민 단 훈련소

중국 대륙에서는 아나-불 논쟁이 진행되던 1920년 전후만 해도 아나키스트의 노동 운동이 전혀 마르크스주의자에 위축되지 않았으나,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국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힘의 열세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새롭게 출현하던 젊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는 사상의 순수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⁷⁸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당과의 결합을 통해 세력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국민정부에 참가한 구신세기파는 교육을 통한 아나키즘의 확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상해 노동 대학의 건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7년 4월 중순 이석증과 오치휘, 필수작 등은 상해에서 집회를 갖고 “아나키즘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이때 오치휘와 이석증은 근공검학 운동과 유사한 방식을 띤 지식 노동의 결합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상해 노동 대학의 건립이 결정되었다. 이 대학은 신문화 운동 시기부터 전개된 공동 호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국 내에서 최초로 건립된 정식 대학이었다. 본래 노동 대학은 유럽 노동자들이 만든 사회주의 대학을 모방한 것으로, ‘학교의 농장과 공장화, 농장과 공장의 학교화’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꿈꾸었다.⁷⁹ 전국의 교육 행

⁷⁷ 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別冊), 綠蔭書房 1994, 65면.

⁷⁸ 坂井洋史〈二十年代中國安那基主義運動與巴金〉, 『巴金の世界』, 東方出版社 1996, 208면.

⁷⁹ 상해 노동 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서로는 Ming K. Chan & Arif Dirlik, Schools into Fields and Factories—Anarchists, the Guomindang, and the National Labor University in Shanghai 1927~1932(Duke University Press 1991)가 있다. 이 책의 서문에는 노동 대학의 의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⁵¹ 吳稚暉〈致華林書〉, 王有立主編『吳稚暉先生文粹』第4冊, 上海全民書局 1929, 213면.

⁵² 吳稚暉, 앞의 글 213~21면.

만에서조직된최초의아나키즘조직이라고평가받는다.⁷² 얼마후발표한 <대만흑색청년연맹선언> 에서는,

모든국가는, 공산주의자들이 숭배하는 소비에트 러시아조차도 단지 권력을 가진 국가일 뿐이다. 권력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이 있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났다. 권력은 인류의 자아를 말살시켜 하나의 기계로 만들고 노예로 만든다. 이런 사실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비참한 지옥이 된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 자유란 주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땅히 빼앗아야 하는 물건이다. 인류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직접 행동의 수단으로 폭력도 가능하며 암살, 폭행, 테러 행동이 가장 좋다. 우리들은 흑기 아래서 죽을 것을 맹세한다.⁷³

라고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고, 폭력 행위를 정당하게 받아들인 점은 이전의 대만 사회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대북 지역,彰化 지역, 가의嘉義 지역 책임자를 정하고 활동을 개시하려던 찰나 동경 흑색청년연맹의 근등현이가 보낸 편지가 발각되면서 연맹의 존재가 드러났다. 일경은 전면 검거에 나서 44 명을 체포했으며, 최종적으로 소택일을 포함한 네 명이 구형을 받으면서 조직은 와해되었다.⁷⁴

한편 중국경우, 민봉사民烽社성원들이 1928년에 만들었다는 흑색청년사黑色青年社가 일본의 흑색청년연맹과 어떤 관계였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흑색청년」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상호 관련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신문에는 “사상단체로 상해에 순수한 무정부주의 민봉연맹이 있다. 그들은 국내외에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혼란 상태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이론의 철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체의 순수하지 않은 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한 뜻으로 무정부주의의 목적을 향해 전진중이라고 표명했다.”⁷⁵라고 실려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당에 가입한 아나키스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도 했다.

중국에서 흑색청년연맹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1930년 중국 흑색청년연맹명으로 발행한 「흑색청년」(제 6호) 이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국 흑색청년연맹 사천지부에서 대삼영의 죽음 7주년을 기념하는 선언과 중국 흑색청년연맹이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선언 등이 담겨 있다. 그밖에도 바쿠닌의 사상과 농민 운동 및 선전물 문제 등에 대한 기사가 있다.⁷⁶ 잡지의 소식란에는 동지들간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천지부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도 흑색

⁷² 王乃信等譯『臺灣社會運動史—1913~1935年』第4冊, 16~17면.

⁷³ <臺灣黑色青年聯盟宣言>, 같은 책 18면.

⁷⁴ 같은 책 20면.

⁷⁵ <支那同志及團體의近況>, 「黑色青年」第10期, 1927. 7. 5.

⁷⁶ 中國黑色青年聯盟「黑色青年」第6期, 1930(坂井洋史·嵯峨隆編『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第8卷, 綠蔭書房 1994).

행하는 현재의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며 강력한 정부 통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혁명이 성공하여 정치혁명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강대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져서 아나키즘 혁명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단계설段階說로, 아나키즘 사회는 곧바로 실현되지 않으며 그사이에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혁명 단계마다 혁명의 목적을 잃지 말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나아가는 것은 한 단계이며, 현재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자 독재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았다. 아나키즘 혁명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혁명적 순수성을 지키면서 현재의 국민혁명 단계에 발맞춰 국민당의 혁명 노력을 지지하면 점차 혁명의 진보를 가져와 아나키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공동적인 설共同敵人說로,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은 공동의 적, 즉 군벌이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단결하여 공동의 적을 타도하는 것이 바로 국민혁명의 임무이며 이것은 모든 혁명가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오치휘는 1920년대의 국민당은 새로운 국민당이며 혁명에 공감하는 정당으로 인식했다. 만일 훗날 국민당이 진보적 요소를 잃으면 그때 대항해 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치휘는 이것을 “독으로 독을 공격하는 법”이라는 말로 묘사했다.

오치휘의 오치휘의 답장은 자신들의 국민당 참가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나키스트 집단의 행동이며, 국민당 개조를 기점으로 다른 아나키스트도 국민혁명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국공합작의 실현은 오치휘로 하여금 안국합작의 아이디어를 받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서신 논쟁을 기점으로 중국 아나키스트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국민혁명 찬성과 반대파로 나누어졌다.

오치휘의 국민혁명 참가 주장에 대해 적지 않은 아나키스트가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노검파·모일파(毛一波) 등의 「민봉」과 삼중구·오극강(吳克剛) 등의 「자유인」이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그룹이었다. 그중 삼중구의 「자유인」은 프랑스에서 나온 잡지 「공여」와 합병한 잡지로,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의 합작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잡지에 여러 편의 글을 실어 오치휘의 주장을 반박했다. 철조(鐵鳥)라는 필명으로 쓴 <무정부주의자와 국민당>에서는 오치휘가 아나키스트라는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작자는 “오치휘는 「신세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진정한 아나키스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⁵³라고 극언했다. 가유(賈維)라는 인물도 오치휘를 “무정부주의 이론에 문외한”⁵⁴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⁵³ 鐵鳥 <無政府主義者與國民黨>,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763~64면.

⁵⁴ 賈維 <吳稚暉의無政府主義>,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790~94면.

특히 심중구는 <무정부주의자가 국민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라는 글을 통해 오치휘의 주장에 대해 체계적인 비판을 가했다.⁵⁵ 심중구는 오치휘의 ‘강국설’을 반대하면서,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나키즘 혁명에 있어 강력한 적을 만드는 것이므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192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었으나 아나키스트는 민족주의를 평민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으로 인식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아나키스트 역시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반제국주의를 주장했으나 반제의 성공 여부는 민족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붕괴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단계설’을 반대하면서 세상에는 본래 역사 발전의 필연성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혁명과 아나키즘 혁명은 서로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치휘가 민주주의로부터 노동자 독재로 가는 것이 아나키즘으로 향한 단계의 하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동적인설’ 역시 반대하면서 아나키스트에게는 군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역시 적일 뿐이며 국민당이 혁명 정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나키스트는 원래 어떤 형식의 정부에도 반대하므로 국민당 정부도 아나키즘 혁명의 타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중구는 오치휘의 안국합작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당과 삼민주의를 공격했다. 국민당에 대해서는 “국민당의 전신인 동맹회는 혁명 정당으로 그 목적이 전제제도의 전복에 있었으므로 민국의 간판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국 성립 이후 국민당은 이미 혁명성을 상실하여 군벌간의 이권 쟁탈에 빠졌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늘날의 국민당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정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민당 개조 이후 성립된 국민당의 조직은 진정한 민주 원칙에 위배된다면 서 국민당 영도의 국민혁명에 반대했다. 삼민주의에 대해서도 손문의 독창적인 이론임을 부정하고, 국민당의 민족주의가 동맹회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배만 혁명론식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당시에는 실현될 수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부르주아 계급에 유리하고 평민에게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고 보았다. 심중구의 이런 주장은 오치휘가 “동맹회의 혁명 정당 성격을 국민당이 이어받았다”거나, “삼민주의는 아나키즘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논쟁은 아나키스트에게 던져진 문제, 즉 “원칙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진보 세력과 합류할 수도 있는가?”라는 문제를 표면화한 사건이었다. 나아가 이 논쟁은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방향을 결정지은 사건이었다. 오치휘는 젊은 아나키스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국합작의 주장을 견지하여 적지 않은 아나키스트를 국민당과의 합작에 끌어 들였다.

⁵⁵ 沈仲九 <無政府主義者可以加入國民黨嗎?>,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771~789 면.

전선연맹(1926년 11월)으로 다시 개칭하면서 곧바로 일본의 흑색청년연맹에 가입했다. 심지어 흑색전선연맹을 흑색청년연맹이라고 기록한 자료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조선 국내의 경우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아나키즘 단체로는 후기연맹 黑旗聯盟(1925년 3월)과 진우연맹 眞友聯盟(1925년 9월)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 유학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한 것으로, 일본 흑도회 黑濤會와 조선 흑로회 黑勞會의 사상적 맥을 잇고 있었다. 후기연맹은 동경 흑색청년연맹에 가입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전조선 아나키스트 대회를 조직하려 다모두 체포되어 일찍 와해되었다. 후자의 경우 일본 유학생 김정근 등에 의해 대구 지역에서만 들어졌는데, 학술연구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은 박열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그의 옥중 투쟁에 깊이 개입했다.⁶⁹ 진우연맹은 김자문자의 장례식 문제로 대삼영 그룹의 일원이자 박열과도 인연이 있던 울원 일웅(栗原一雄)을 초청했다. 당시 울원 일웅은 흑색청년연맹의 창립 취지서와 통신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략 1926년 4월 12일경 일본의 흑색청년동맹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도 암살 파괴단을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모두 검거되어 김정근은 옥사하고 울원 일웅은 징역 4년형에 처해지면서 와해되었다.⁷⁰ 당시 일본의 흑색청년연맹은 조선 총독부 동경출장소를 찾아가 공식 항의서를 내 “단지 무정부주의 사상을 폄오다”는 사실만으로써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자의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⁷¹

대만의 경우, 흑색청년연맹이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존재했다. 대만 흑색청년연맹을 만든 인물 은 대만에 거주하던 일본인 소택일(小澤一)이다. 그는 대만彰化에서 태어나 대북제일 중학을 졸업하고, 동경에 건너가 수의학 교를 다녔다. 1925년 6월 잠시 대북 臺北으로 돌아왔을 때 대북 무산청년 臺北無產青年 소속의 왕만득(王萬得)과彰化 무산청년 彰化無產青年 소속의 오창주(吳滄洲) 등과 접촉을 가졌다. 당시 대삼영의 죽음에 대만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소택일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다 구류에 처해진 경험이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 노동 운동사 勞動運動社에 참가하고, 동경 흑색청년연맹의 근등헌이, 암좌작태랑 등과 접촉하면서 아나키즘 연구에 몰두했다. 1926년 말 군입대를 위해 다시 대북으로 돌아왔을 때 대북 무산청년의 왕만득, 주화성(周和成), 왕시량(王詩琅), 홍조중(洪朝宗) 및彰化 무산청년의 오창주, 채정상(蔡禎祥) 등과 대만 흑색청년연맹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결국 연맹은 1926년 11월 17일(혹은 12월 17일) 대북시대정공원 大正公園에서 만들어졌는데, 대

⁶⁸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 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2008, 174~76 면.

⁶⁹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185 면.

⁷⁰ 近藤憲二, 앞의 책 62 면.

⁷¹ 布施辰治 <朝鮮眞友聯盟事件>, 「勞動運動」, 1927. 8, 24 면.

인동경흑색청년연맹을만들었다. 동경흑색청년연맹은 1926년 1월 31일관동지방의 17개의아나키즘단체와 7개의노동단체가연합해 700여명의대표로만든조직이다. 창립대회후제 1회연설회를개최했는데, 경찰이통제하자이에반발해가두시위를벌이다일곱명이투옥되기도했다.⁶⁴ 이들은“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자신의손으로해야한다”는슬로건아래행덕추수와대삼영의유지를이어받아의회중심의정치운동이아니라노동자의경제적직접운동에따른순정아나키즘을표방했다. 그리고정치에참가하려는프로레타리아계급의정당운동은민중을죽음으로몰아넣는행위이자인류에대한최대의죄악이라면서, 일체의해방운동은개인의생명력으로부터나온경제적행동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⁶⁵

이연맹은전국적인조직을추구하여관서흑기연맹과중부흑색연맹이차례로결성되었고, 일본의북해도와동북지역등일본전역에서부가조직되었다. 1926년 4월부터기관지로「흑색청년」을발행했는데, 초기기사는주로계급투쟁에초점을맞추고있었고자신들은혁명적소수자라는인식을가지고노동쟁의에깊이관여했다. 그런데 1927년여름무렵팔태주삼의이론이흑련黑聯에영향을미쳐기존의노동조합적아나키즘경향을비판하고단시간내에순정아나키즘으로바뀌면서코민적아나키즘이주류를이루었다. 이런흐름은앞서언급했듯이자련의노선으로이어졌다.⁶⁶ 「흑색청년」은중국관련기사가많은것이또다른특징이었다. 주로중국혁명을지지하는동시에일본의중국출병을반대하는기사들로, 국공분열을전후해일본사회의중국에대한높은관심을반영하는것이다. 이런관심은중국현황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 어떤사람은직접중국대륙으로건너와중일연합활동에참여했다. 특히흑련은일본을넘어식민지였던조선과대만등에도지부를조직하려고했으며,⁶⁷ 중국에서도유사한움직임이보여동아시아규모의국제조직을추구한것으로보인다.

재일한인아나키즘단체흑우회黑友會는흑색청년연맹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다. 몇몇회원이연맹에가입했을뿐만아니라연맹의후원으로조선문제강연회를개최해일본동지가강연하기도했다. 특히팔태주삼은흑우회가개최한연구회에자주참여해아나키즘이론을강의했는데, 여기서는사회혁명에소극적인생디칼리슴을비판하고코민적아나키즘을소개했다. 육흥근과김정근(金正根)은일본의흑색청년연맹의위원회에흑우회대표로참석해한일간의공동문제를논의했다. 이런활동은흑우회가흑색운동사(1926년 5월)로발전하는계기를마련했고, 얼마후흑색

⁶⁴ 近藤憲二, 앞의책 64~65면.

⁶⁵ 警保局保安課〈黒色青年聯盟ニ關スル調〉, 『アナキズム』(續・現代史資料3), みすず書房 1988, 537~38면.

⁶⁶ John Crump, 碧川多衣子譯『八太舟三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90~94면.

⁶⁷ 萩原晋太郎『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173, 176면.

논쟁의당사자가운데한사람인심중구조차 1927년무렵에는본격적으로국민당에협력하기시작했다.

이상을견지하여국민당에불참하느냐현실을인정하여국민당에참여하느냐의선택의문제는얼마후북벌의개시에따라국민혁명이본격화되자일부아나키스트들에의해다시금‘아나키즘과실체문제’라는토론으로발전했다. 북벌과정에서장개석(蔣介石)의쿠테타로국공분열(1927년 4월 12일)이일어나고, 최종적으로북벌의성공에따라국민정부가들어서자정치상황이급변했다. 국민당과공산당의양당구도로재편되면서아나키스트의입지가크게좁아졌다.

당시이석증은“삼민주의를수단으로무정부주의를목표로한다”는안국합작의주장으로아나키스트의국민당가입을권유하고있었다.⁵⁶ 특히 1927~28년무렵에는오치휘를대신하여아나키스트와국민당의합작을유지하는역할을했다. 왜냐하면오치휘는장개석에게지나치게접근해있었고, 공산주의노동운동탄압에적극참여했기에국민당내의아나키스트에게조차그상정성이크게훼손되었기때문이다. 국민당가입을거부하던아나키스트에게이들은모두거짓아나키스트로비치고있었다.⁵⁷

국민당내아나키스트들은안국합작이본격화되면서청년에게아나키즘을전파하고자신들의활동에대한정당성을부여받기위해새로운이론적작업이필요했다. 이를위해「혁명주보」(1927년 5월)를창간했다. 이잡지는이석증이국민당의자금으로만들었으며초대주필은한때국민당과의합작을비판했던심중구였다. 「혁명주보」는아나키즘과삼민주의의관계를사회혁명과국민혁명의관계로파악하고아나키스트와국민당의합작의필요성을선전했다. 점차국민당보수파의언론자유통제정책에반대하여전면적인아나키즘선전을시도했다. 이잡지는금지와박간을반복하다 1929년 9월에제 110호를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비록소책자형식이었지만상당히많은호수를발간한잡지였다.

이석증은「혁명주보」에〈현재혁명의의의〉나〈나의정치철학중당파관〉등을발표하여아나키스트의삼민주의에대한해석을정의하고, 국민당내아나키스트가공산주의를반대하기위한이론적근거를마련했다. 그는〈현재혁명의의의〉에서역사상혁명을네가지로분류했다. 첫번째단계인군주혁명은 1898년의변법운동으로달성된혁명이다. 두번째단계인민주혁명은서구의경우미국·프랑스혁명으로, 중국의경우신해혁명으로각각성취되었다고보았다. 세번째단계인계급혁명(레닌의러시아혁명과같은프로레타리아혁명)으로, 중국의경우무한정부의러시아화정책이이와같은것이라고주장했다. 그리고네번째단계인민생혁명이바

⁵⁶ 陳登才〈房門范天均先生的紀錄〉,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43면.

⁵⁷ 中國少年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中國少年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聲明書〉,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811~12면.

로현재진행중인혁명인데, 서구의경우프루동이주장한‘신세기’혁명이며, 중국의경우손문이주장한삼민주의혁명이민생혁명이라고보았다.⁵⁸

그런데이석증이프루동주의로마르크스주의의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주의, 중앙집권제등을비판하는부분에서“크로포트킨의호조론도프루동의호조주의에기원한다”고설명한다목은중요한사상적변화를보여준다. 그가프루동의새로운정치조직으로재편하자는주장을받아들인것은크로포트킨의총체적인사회변혁을이룩하자는주장보다중국의현실에적합하다고판단했고, 프루동이정치가였다는사실이국민당원인자신의입장을합리화해줄수있었기때문이라고보인다. 이석증의논리에따르면마르크스주의는이미퇴보적인세력으로규정되는데, 왜냐하면혁명은이미 3 단계에서 4 단계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었다. 따라서현재의혁명에서아나키스트는삼민주의자와연합하여공산주의자에대항하는데협조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석증의〈나의정치철학중당파관〉에서는중국의학파를법가와유가, 도가의세가지로분류했다. 그의주장에따르면법가는패도정치이자강권정치를말하는데, 중국의경우이사상상양, 진시황, 서양의경우파시스트나러시아공산주의의전제주의에각각비유할수있다고보았다. 유가는왕도정치이자평화정치로규정했다. 과거중국의요순, 공자나서양의민주주의정신이이러한것들이고, 현재에는손문의삼민주의와루소의정신이이와유사하다고보았다. 그리고도가는인도정치로무치를말하는데, 중국고대의아나키즘, 즉노장사상과비슷하다고보았다. 오늘날에는서양의톨스토이나르클뤼의사상에비유될수있다고주장했다. 이석증은유가와도가의합작을통한법가의극복을희망했다. 이것은전통의재해석에따라혁명이론을재구성한것이다.⁵⁹ 결국이글은공산주의는나쁜것으로, 삼민주의는비교적좋은것으로, 아나키즘은가장이상적인사상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는세계혁명이란프루동주의의마르크스주의타도, 중국혁명이란삼민주의의공산주의타도라는구도를설정하고, 아나키즘과삼민주의의합작으로공산주의에공동대항할것을주장했다.

이석증의이런논조는「신세기」시절부터 1920년대말까지파리아나키스트가해석한아나키즘이론의최종적인결과물로볼수있다. 신세기시절의격렬한반전통주의가이시기에이르러크게퇴색한사실은보면무척놀랍다. 하지만그의주장은공산당과국민당좌파는물론당중심의국가통합을추구하는국민당우파어느쪽에게도불만스러운것이었다. 점차아나키즘활동이국민당의강령아래놓이게되면서아나키스트의계급투쟁

⁵⁸ 李石曾〈現今革命之意義〉,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編『李石曾先生文集』(上), 中央文物供應社 1980, 236~48 면.

⁵⁹ 李石曾〈政治哲學中之黨派觀〉, 「革命週報」第 24 號, 1927. 10. 9.

에대한반대는오히려국민당내아나키스트의활동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⁶⁰

젊은아나키스트들은「혁명주보」의선전을그대로받아들이기에어려웠다. 당시프랑스에있던파국은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간행되던「평등」이라는잡지를빌려첨예하게비판했다. 그는혁명주보사편집자에게직접편지를보내“나는「혁명주보」의주장을반대했으며, 지금도반대한다. … 비록나도무정부주의자이지만”⁶¹이라고했다. 그리고일본의흑색청년연맹에서출판한「흑색청년」에서도“중국의청년아나키스트들은자신들과남경정부내에기생하는이석증, 장계일파의프루동주의와는어떠한관계도없다고성명했다. … 이석증은자칭프루동주의를신봉한다고하는데, 이것은단지공산당식의노동운동을쫓아내려는남경정부의교활한책략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⁶² 이처럼원론에충실한아나키스트는국민당에가입한이른바정당파아나키스트에대해급지않은시각을보내고있었다.

한편 1920년대후반오치휘는여전히삼민주의로국민당을건설하는것이아나키즘사회로나아가기위한교량이라고믿고있었다. 그는삼민주의의핵심은민생주의에있으며, 민생주의가충실히실행되어생산력이고도로발전하면무정부대동사회에다다를것이라고말했다. 오치휘는‘전체인민의혁명’을제기하면서,⁶³ 손문의“혁명이란한두계급에의해서가아니라지식인, 노동자, 농민, 상인계층을포함한전체인민에의해서야한다”라는말을자주인용했다. 그의주장은국민당좌파의계급투쟁론을공격하기위한것이었으나, 이른바‘전체혁명론’은아나키즘운동을통제하는자기모순의요소를안고있었다.

3. 1920년대말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연대활동

흑색청년연맹

일본에서는 1925년초부터프롤레타리아계급정당을만들려는기운이거셴다. 프롤레타리아의정치운동에반대하던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이정당운동을하는것을저지하기위해최초의전국적인연합단체

⁶⁰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1, 276~78 면.

⁶¹ 〈寄「革命週報」編者の信〉, 「革命週報」第 34 期, 1927. 12. 18.

⁶² 〈海外飛報. 世界的運動 一支那〉, 「黑色青年」第 15 期, 1927. 12. 5.

⁶³ 1929년오치휘는아나키즘이상사회의실현을위한삼대혁명三大革命을제창했는데, 교육혁명과물질혁명, 생육혁명이그것이다. 그는삼대혁명을완성시키기위한전제로과학의발달을강조했다(吳稚暉〈讀料汪先生分共以後的噉言〉, 『吳稚暉先生文集』第 1 冊, 117~18 면).

조세현
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교류와연대
적자생존에서상호부조로
2010년

kr.theanarchistlibrary.org

에는한인사회당을한인공산당으로확대개편했다. 그런데한인사회주의자들은중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산주의를잘이해했다기보다는각종사회주의가혼재된사상경향을가졌다. 한연구에따르면재중국한인은1921년쯤공산주의조직을결성했으나, 다수의공산주의자들이아나키즘적사고에서벗어나지못했다고주장한다. 심지어한인공산주의자들은아나키즘을사상적기반으로해공산주의를수용했다고생각한다.⁴⁷

상해한국임시정부와중국의공산주의소조(혹은사회주의청년단)의주소가상해법조계이웃이었던다는사실이나보이틴스키등러시아공산주의자들이한인의움직임에예의주시했다는사실, 특히사회주의청년단조직과정에서등장하는한인사회주의자들 — 김가봉, 박모(朴某), 안모(安某) 등 — 은양자의관계에대한궁금증을더욱증폭시킨다. 북경대학학생으로이대조의토론회에참가했던한인아나키스트김가봉이1920년여름상해에내려와청년단결성에참여한사실은무척흥미롭다.⁴⁸ 어쨌든한인사회당이나사회주의청년단조직과정에서적지않은한인사회주의자가출현하기에상해에거주한한인급진주의자가운데아나키스트들이이미조직적인활동을시작했을가능성은높아보인다. 어쩌면아래의사건들이그들의활동을보여주는단편적인사실이아닌가싶다.

우선재중국한인독립운동가들이외국인과연합해만든단체인삼이협회三二協會의존재에주목할필요가있다. 삼이협회는1920년봄상해에있던중국인한인과러시아인들이조직한단체라고하는데, 여기서‘삼이’란용어는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자주쓰는용어이다. 즉‘삼’은‘삼무三無’로무정부·무종교·무가정을의미하고, ‘이’는‘이각二各’으로“각자능력에따라일하고각자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아나키즘의경제원칙을표현한말이다. 현재이단체의구체적인활동은알수없지만상해임정의이동회, 문창범등이관여했다고전한다.⁴⁹

삼이협회가사회주의를선전하기위해러시아인(혹은한인)을일본에보내『크로포트킨』이라는아나키즘소책자를재일본중국인, 한인노동자에게배포했다는기사도있는데, 그렇다면혹시이단체가사회주의청년단과관련된중국인사회주의자들, 러시아공산당에서파견한보이틴스키등과같은러시아인들, 보이틴스키가계속접촉을시도했던상해임정주변의한인사회주의자들이결성한단체는아닐까? 왜냐하면보이틴스키가

⁴⁷ 한인공산주의운동의해심인물초차 1922년무렵까지는공산주의못지않게아나키즘을선전했다고한다 (이호룡 <한국에서의아나키즘과공산주의의분화과정>, 『한국사연구』 110호, 2000, 168면).

⁴⁸ 사회주의청년단이성립한후항상일본인판서다랑(板西多郎) 과한인박모·안모가참가했다고한다. 이가운데한인안모는보이틴스키와함께상해에왔다는것으로보아러시아에있던한인사회당원일가능성이높고, 일본인판서다랑과한인박모(栢克) 은어떤인물인지현재로서는미지수이다 (楊昭全等編, 앞의책 1483면).

⁴⁹ 이호룡 『한국의아나키즘 (사상편)』 150~51면.

한인을일본에파견해사회주의운동문헌을주고받은사실은중국측의기록에도나타나기때문이다. 자료의부족으로단언하기곤란하짐나단체의명칭으로볼때아나키즘색채가농후한것은분명하다.

얼마후 (1922 년초?) 상해에서한인혁명가들에의해 「투보鬪報」라는한글선전지가간행되었다. 이선전지는고려공산당기관지로알려져있으나, 그내용을검토해보면한인아나키스트의출현을보여주는자료로서도일정한의미가있다. 예를들어첫면에“강권에복종함은죄악이다”라는슬로건을내걸었다는사실만으로도아나키스트혹은아나키즘성향이강한인물들이깊이개입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왜냐하면주로이런표현은아나키스트들이즐거사용하는관용구이기때문이다. 이구호뿐만아니라기사의논조역시대체로아나키즘의색채를담고있다고말할수있다. 이잡지에실린 〈선善의승리는민중의폭력에있다〉 (제 2 호) 라는기사는선명하게아나키즘의입장에서있다. 작자는“폭력에압박받은우리민중이폭력으로서자유를얻으려함은당연한결론”이라면서암살과붕기, 폭동, 부호의사유재산수용, 생산의탈환, 권력자에대한반항, 총동맹파업, 자유출판, 자유항세등폭력수단을투쟁방법으로서찬양했다. 작자가혁명의지도자들은“자기의뜻대로민중을이용하지말고민중의뜻을그대로대표하는자가되라”고주장한대목역시의식적으로민족주의자 (혹은일부공산주의자) 를겨냥해서쓴것으로풀이된다.⁵⁰

〈배일사상론〉이라는기사에서는우리가일본인을무조건배척하자는것은아니며일본인들이우리를압박하고착취하므로배척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글가운데일본정부에대한저항과일본사회주의자및일본의피압박민중과의연대가능성을언급한부분은국제주의로편협한종족주의를벗어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대목이다.⁵¹ 그리고 〈「라·루발트」의창간사〉 나 〈상해중국노동단체조사기〉 등의기사는이잡지가사회주의를지향했다는사실을분명히한다. 물론 〈중국말쓰학설연구사의……〉 같은단체광고는이잡지가공산주의운동과관련있음을보여주는간접적인증거이다. 이처럼자칭고려공산당기관지에아나키즘경향의기사가실려있는것은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가혼재되어있던당시의중국상황을감안한다면충분히납득할수있는일이다. 1922 년초라는시점은비록아나키스트와초보적공산주의자간에균열이일어날시기이지만전면적인분열로발전한시기는아니다. 그런데아쉽게도이선전지가단지 1 부 (제 2 호) 만남아있고, 그것도단지몇페이지지만남아있어구체적인논조를완전히파악할수는없다.

나아나키스트가추구하는사회란“권위에기대지않고스스로조직하는사회”이기때문이다.⁹

[396]

⁹ 이글에서는동아시아전체범위를다루지는못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일부) 지역은다루었지만동남아시아를비롯해베트남이나인도등의활동가에대한내용은별로없다. 국제연대가주로중국대륙에서이루어져이곳에대한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만일본을비롯한다른지역에대한내용보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무엇보다아나키스트의인간적인매력을부각시키기위해생동감있는기술이필요했지만역력부족했다. 남은과제로삼고자한다.

⁵⁰ 不可殺 〈善의勝利는民衆의暴力에在하다〉, 「鬪報」第 2 號, 1922. 3. 25.

⁵¹ 燒也 〈排日思想論〉, 「鬪報」第 2 號, 1922. 3. 25.

를 추구한다. 따라서 각종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들은 즉각적인 권력의 폐지보다는 권력을 정교하게 이용해 권력의 분산을 기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홍규(朴洪圭) 같은 한국의 아나키스트는 위로부터 강제되는 권위로서의 법은 부정하나 자치 공동체 속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⁸ 특히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아나키스트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갈망하던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출발부터 중앙 정부의 권력 없이 자율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 네트워크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상호 소통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21 세기에 들어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초국적 기업 주도 하면서 더 이상 자본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이 없게 되었다. 여전히 자본은 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20 세기의 국민국가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새로운 권력 출현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꿈꾸는 반세계화 운동가들은 최근 수직적 위계 질서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를 통해도 전한다. 특히 아나키스트는 빈부차이가 같은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경제 체제에 반대하므로 그들의 세계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와 용어만 비슷할 뿐 정반대의 입장에서이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에 능숙한 아나키즘의 풍부한 상상력은 다양한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결속할 수 있는 강한 장점이다. 실제로 새로운 아나키즘은 당파적 아나키즘의 길을 버리고 다양한 사회 운동과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문제나 조직 문제를 다루는데 미숙했던 그들이 다른 운동 세력과 공존을 실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20 세기의 경험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나 수평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어려움도 잘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책이 아나키즘을 '무정부 상태'와 동일시하고 아나키스트를 허무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오랜 편견을 벗어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본래 아나키즘이란 관념과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얻는 고유한 속성이 있다. 따라서 21 세기 아나키즘의 재생이란 고전적 아나키즘의 복원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새로운 아나키즘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나키스트 대삼영의 말처럼 "개인이 주체가 되어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백지한 장한 장의 여백에 자신만의 성과물을 성실히 채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

⁸ 박홍규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42~44 면.

한인과 대만인의 연합조직: 평사와 대한동지회

상해의 대만 유학생들은 상해 대만 청년회(1923년 10월), 상해 자치 협회(1924년 5월), 평사(平社)(1924년 3월), 대한동지회(臺韓同志會)(1924년 6월) 등을 만들어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했다. 상해 대만 청년회는 채혜여와 팽화영, 허내창(許乃昌) 등이 주축이었는데, 국민당의 협조 아래 일본을 타도하고 대만이 독립하기를 희망했다. 상해 대만 청년회는 대만 문화 협회, 동경 신민회, 동경 대만 청년회 등과 긴밀히 연락했고, 중국 국민당과 소련 영사관과도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상해 자치 협회는 대만 청년회와 평사에 관련된 채효건(蔡孝乾) 과장 심절, 사설홍(謝雪紅), 임유금(林維金)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 협회 역시 일본의 대만 폭정을 비판하고, 대만의 자결과 독립을 추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인과 대만인 아나키스트의 연대 활동과 관련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체는 평사와 대한동지회이다.

평사는 1924년 3월 말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거주하던 중국인 아나키스트 나활(羅豁)⁵²이 대만과 한인 청년들과 함께 만든 조직이다. 나활의 집에서 평사가 화와 여운형이 협의한 후, 한인 여운형, 윤자영(尹滋瑛), 탁무초(卓武初) 등과 대만인 팽화영, 채병요(蔡炳耀) 및 상해 대만 청년회 간부 허내창,⁵³ 임요곤(林堯坤), 장목진(張沐眞), 유금수(游金水), 오패법(吳沛法), 진전지(陳傳枝) 등이 만들었다. 이 조직은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동아시아 연합 조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만 사회 운동사에서 평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초기의 대만 좌익 단체의 하나로 북경의 신대만안사가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 두 단체가 동시에 출현한 것은 우연으로 보이며, 양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단체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평사도 신대만안사처럼 아나키즘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평사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

⁵² 나활은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다. 1918년 경 일본에 유학을 가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후 활발한 사회 운동을 펼쳤다. 당시 재동경 중국인 위험 인물 가운데 가장 격한 인물로 나활을 지목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주의자 동맹 日本社會主義者同盟 결성 대회에 정식 참가했고, 다음 해 제 2 회 대회에도 참석했으나 해산 명령을 받았다. 결국 자신에 대한 퇴거 명령을 예상하고 귀국했다. 그는 1924년 3월 상해에서 대만인, 한인 연합회 평사를 조직하고, 다음 달 「平平」 순간을 발행했다.

⁵³ 허내창(필명沫云)은 1923년 9월 상해 대학 사회학과에 들어갈 때부터 1924년 8월(혹은 10월) 소련 유학가가 가기 1년 정도 상해에 거주했다. 그는 대만 인과 한인 이 조직한 '평사'와 '대한동지회'에 참가했으며, 「平平」에 〈自臺灣議會到革命運動〉 〈印度獨立運動的發展〉 〈第二次限制軍備會議〉 〈日本對臺灣的武裝大示威〉 등을 발표했다. 얼마 후 허내창은 진독수의 추천으로 소련으로 유학갔다(邱士杰 〈從黎明期的臺灣走向中國改造論〉, 「批判與再造」第 20~21 合冊, 2005),

평사는 「평평平平」(1924년 4월)을 발행하여 같은해 6월까지 총 9호를 출판했다. 현재 다른 아나키즘 잡지에 비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⁵⁴ 「평평」 창간호에는 <발간사>와 더불어 일본공산당원좌야학(佐野學)의 <상해를 경유하며>, 허내창의 <대만의회에서 혁명운동으로>, 진일(眞一)의 <대만은 어찌해야 할까?>, 윤소야(尹蘇野)의 <조선의 민족운동> 등이 실렸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잡지는 주로 대만과 조선에서의 일제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고 독립과 해방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다. 비록 대만 관련 기사가 많지만, 조선 관련 기사도 몇 편 있다.

일본은 자본제국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대만과 조선을 점령한 것이다. 조선에는 육군이 발전할 근거지를 마련해 만주와 몽고를 침략하려는 것이고, 대만은 해군으로 태평양을 넘보려는 것이므로, 열강과 제국주의 경쟁을 전개하는 근거지인 것이다. … 이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대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만인은 동양 피압박 민족의 일원이다. 인도, 조선, 필리핀 등 여러 약소 민족이 현재 독립 운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 만약 대만이 이들을 따라 일어나 동양 약소 민족이 대단결한다면, 동양의 사회 혁명은 눈앞에 있는 것이며, 세계 혁명 역시 성취될 것이다. 동양 혁명은 우선 일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다.⁵⁵

위의 글은 <대만 문제를 다시 논함> (제 2호)의 일부인데, 여기서 작자는 나름대로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면서, 대만과 조선을 비롯한 약소 민족의 단결을 통한 동아시아 혁명을 제안하고 있다.

「평평」은 대만의회 운동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만의회가 개설되더라도 대만인의 해방을 이루어 지지 않으며, 단지 자산계급만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대만이익을 독점하는 일본 자본주의와 신흥 대만 자본가의 타협일 뿐이므로, 대만 무산계급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잡지에서는 대만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식민지의 경제 상황은 일본 자본주의의 결정과 지배를 받으므로 자력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 둘째, 식민지의 자본가와 무산자 간의 차이는 매우 적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으로 독립적인 계급을 형성할 수 없으며, 서로 간에 계급 투쟁도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비록 식민지의 자본가와 무산자 간에 차이가 매우 적지만, 대만에서의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적어질 수도 있다. 넷째, 계급 운동과 민족 운동을 서로 합쳐 사회주의 혁명과 연계할 수 있다.⁵⁶ 이런 분석에 따라 식민지 모국 일본과 식민지 대만과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하나의 구조로, 민족자 산계급은 장차 무산계급화할 운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만이 민족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전체 민족의 무산계급화”에서 찾았다. 「평평」은 사회주

⁵⁴ 「平平」순간은 坂井洋史·嵯峨隆編 『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 第7卷, 綠蔭書房 1994 에 총 9호가 실려 있다.

⁵⁵ 『警察沿革誌』 143~47 면.

⁵⁶ 구사걸(邱士杰)의 <從‘黎明期’的臺灣走向‘中國改造論’에서 분석내용을 인용.

21 세기의 아나키즘 운동 역시 전통적인 아나키즘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지만 운동을 위해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나 폭력 수단 사용 여부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을 드러낸다.⁶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주제에 몰두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다수의 신세대 아나키스트들은 더 이상 국가나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근본적으로 악이라고 해서 단번에 사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국가를 폐지하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정치에 대한 반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정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깨달았는지도 모른다.⁷ 이와 관련해 한 아나키스트는 아나키즘이 “모든 형태의 정부를 거부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아나키즘이 거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신성시되고 강요된 중앙 집권적 권위”라는 형태의 정부이지 행정의 미하는 정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중앙 권력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면서도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국가나 정부를 부정하기보다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국제 연대의 기초 위에 ‘지역’ 간 연합을 통해 새로운 출로를 모색한다. 개인이 직접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일상 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꿈꾸는 것이다. 비록 아나키스트는 지역화로 세계화에도 전하지만 여전히 민족을 단위로 한 사회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전통적으로 아나키스트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의회 제도란 개인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넘겨주어 주권을 상실하는 행위로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표에 의한 선거를 자유의 가치에도 전하는 시도로 간주했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군주제와 천황제, 제국주의 타도가 주요 목표였던 까닭에 일부 아나키스트는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현대의 아나키스트들은 권력이 인간의 본성임을 부정하지 않고 권력의 탈집중화

서야말로 아나키즘의 이상임을 잘 보여준다 (하승우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215 면).

⁶ 구세대 아나키스트들 (츨스키, 북친 등)은 고전적 아나키즘 사상가들 — 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등 — 의 반국가주의·반권위주의·반자본주의 이념을 대체로 계승하는데 반해, 신세대 아나키스트들 (존 체르잔, 하킴 베이, 밥 블랙, 데이비드 왓슨 등)은 고전적 아나키즘 이론을 공부하거나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학술 이론을 경멸하며 ‘직접 행동’을 중시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아나키즘은 “지적이 데올로기의 결과물이나 나라 ‘직접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신념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안상한 <아나키즘 르네상스>, 『아나키즘』 292 면).

⁷ 언어학자이자 아나키스트인 노엄 촘스키 (Noam Chomsky)는 국가를 이용해 좀더 평등한 아나키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국가만 반대하다 보면 훨씬 더 큰 권력을 자본의 수중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세계 개편이나 사회 보장 제도 등은 비록 아나키즘적 변화는 아니지만 그 변화의 바탕에는 아나키즘 사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요소들이 사회 변화를 이끈다고 본 것이다 (노엄 촘스키, 이정아 옮김 『촘스키의 아나키즘』, 해토 2007, 16 면).

는데 실패했고 민간차원의 지역연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동아시아적' 색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본다.⁴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쳐 이어오는 그들의 경험은 21세기 사회에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본문의 내용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사회에 출현한 '적자 생존'을 미덕으로 삼는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괴물에서 저항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들이 '상호부조'의 연대 정신으로 결합한 역사적 사실은 적어도 20세기 말 21세기 초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시금 출몰한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나키즘은 자본과 국가에 대한 근원적 비판 이론으로서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아나키즘과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운동 간에는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자치공동체 운동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는 일본의 신촌운동, 중국의 공독호조단, 한인의 한족총연합회 및 한중일 운동가들이고 루 참여한 천주민단 훈련소 등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반전 운동과 관련해서도 원래부터 아나키스트는 전쟁에 반대한 대표적인 반전주의자들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만들어낸 전쟁 자체를 거부했다.

20세기 초 행덕 추수가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데 고치지 않고 군비 철폐를 주장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아나키스트는 스페인 내전이나 일본의 대륙 침략 이전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전쟁 조차 회의적이었다. 여성 해방 운동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급진적인 여성 해방을 제창했는데 여기서 국가나 정부에 의존하는 여성 운동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문화 혁신 운동과 관련해서도 아나키스트는 오래전부터 정치 혁명과 경제 혁명은 물론 문화 혁명을 꿈꾸는 역사가 있다. 그들은 경제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분야에 권력이 침투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 혁명은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권력에 대한 전방위의 투쟁을 의미했다. 신문화 운동 시기가 중국 아나키즘의 전성기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나키스트는 고금을 막론하고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테러나 폭력보다는 교육이었으며, 오늘날의 자유 교육이나 대안 교육의 선구자였다.⁵

⁴ 한 연구자의 말처럼 "동아시아의 '반란적 정체성'을 논할 때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20세기 동아시아의 급진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와 아나키즘의 역사"인데, 그들은 대단히 "동아시아적"이었다 (박노자 <반란자들의 동아시아를 위하여>,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13면). 물론 아나키스트가 다른 파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인식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아나키스트가 동아시아 인식을 가지고 활동한 것은 아니다.

⁵ 무와부정을 뜻하는 검은색 바탕에 질서 Order 와 아나키즘 Anarchism 의 머리글자 O 와 A 가 겹쳐져 그려진 아나키즘 깃발은 강제나 억압, 지도자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질

의 혁명을 추구하는데, 그 방법은 식민지 인민이 단결해 반일·반제의 민족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첫째, 대내적으로는 전체 민족의 단결을 매우 공고히 한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노농 러시아와 일본의 피압박 계급 및 중국, 한국 등의 피약탈 민족 간에 국제적 연합을 맺어, 반제국주의적 동맹 단체를 형성해 최고의 혁명 투쟁을 전개한다"⁵⁷는 방법을 제시했다.

「평평」은 「신대만」 같은 순수한 아나키즘 잡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잡지에는 한인 공산주의 운동가여운영, 공산주의 경향의 대만인 허내창, 일본 공산당의 지도자 좌야학의 글이고 루보이고, 심지어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건설하자는 번역문조차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경의 기록에 "이 단체는 공산주의 색채가 매우 농후하다"라는 평가에 근거해 평사를 공산주의자의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아나키즘 색채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체의 핵심 인물인 나활은 사천 출신의 아나키스트이며, 노검파 (盧劍波) 같은 중국인 아나키스트의 글이 잡지에 실려 있다. 비록 일부 내용이 아나키즘의 주장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인류 호조를 실행할 것을 중지로 한다"든지 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비판하고 러시아 혁명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 등은 아나키즘과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 준다.⁵⁸ 게다가 회의제를 철저히 부정하는 구절 등도 그런 증거이다.⁵⁹ 「평평」은 적어도 아나키즘과 초보적 공산주의의 혼합 성격을 띤 잡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1920년 대 초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평평」의 의의라면 무엇보다도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던 대만과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만든 잡지라는 점이다. 이 잡지는 비밀리에 대만으로도 운반되었는데, 현지에서는 장위수 (蔣渭水) 등과 연락했다.

한편 평사의 활동이 주춤하던 1924년 가을 북경에서 상해로 내려온 한인 아나키스트 이을규와 이정규, 정화암 등은 영국인이 경영하는 주물공장에 들어가 노동 운동에 참여했다. 정화암의 회고에 따르면 "(이때) 중국 동지 노검파·진위기, 대만 동지 범본량·장홍수 (莊弘秀) 등이 만든 화남 아나키스트 연맹이 노동자에 대한 사상 계몽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하로 만연하는 이립삼 (李立三) 일파의 적색 노동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육불여 (陸不如)·모일파 (毛一波) 등이 교통 노조와 인쇄 공노

⁵⁷ 沫雲 <自臺灣議會到革命運動>, 「平平」創刊號, 6면.

⁵⁸ 당시 「國風日報」의 부간 「學彙」에 이 잡지를 소개하면서 남방 동지가 발행하고 대만·조선 동지가 수명가 입했는데, 그 내용에는 아나키즘 이론이 많다는 기사가 있다 (「學彙」第 379號, 1923. 12. 20). 아나키스트 잡지 「春雷」에도 이 잡지는 상해 동지가 발행했다는 기사가 남아 있다 (「春雷」第 3號, 1924. 5. 1). <五四時期無政府主義報刊一覽表>에서도 이 잡지를 아나키즘 잡지로 분류하고 있다 (張允侯·殷毅·洪清祥·王雲開編 『五四時期的社團』第 4卷, 三聯書店 1979).

⁵⁹ 판정양사 (坂井洋史)는 평사 동인들이 대만의 회개설청원 운동에 반대하는 태도를 아나키스트들이 의회제도에 반대하는 시각에서 바라본다 (坂井洋史·嵯峨隆編 『原典中國アナキズム史料集成』(別冊), 綠蔭書房 1994, 47~50면).

조를 중심으로 상해공단연합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⁶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얼마 후 민국대학이나 그룹의 유서(柳絮) 등도 남하해 이들과 합류했다. 하지만 당시 상해에 거주하던 한인과 대만인 운동가 간에 어떤 구체적인 연대 활동이 있었는지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

대한동지회 臺韓同志會는 1924년 6월 29일 상해남방대학에서 상해임시정부요인등과 상해대만청년회, 상해자치협회 등의 성원들이 만들었다. <대한동지회규약 臺韓同志會規約>에는, “본회는 대만과 한국의 독립을 오나 성하여 자유연방을 건설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 본회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에 기술한 규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그 첫째로 “본회는 대만과 한국의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민족해방의 실현을 추구한다. 무의미한 자치운동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으로 인해 굴복하거나 유약해지는 것을 배격한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추구하므로, 승패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수단을 불문하고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물리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한다”⁶¹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대한동지회의 목적은 대만인과 한인의 호조협력을 통해 “대만과 한국의 독립을 완성하고, 자유연방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의미한 자치운동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대만과 조선에서의 참정권 운동에 반대를 표시했다. 또한 규약 중에는 “회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비록 친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 비밀결사의 성격을 보여준다.

대한동지회는 상해법조계에 있던 상해상과 대학 강당에서 대선인대회 臺鮮人大會(1924년 7월 29일)를 가졌는데, 한인 120명, 대만인 30여명, 중국인 20명, 러시아인 몇 사람이 참석했다. 모임 후 <우리는 중화국민에게 질문함>을 발표해 중국인들이 대만과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할 것을 호소했다.⁶² 이 단체는 참가인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인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직의 활동 범위는 상해를 벗어나지 못했고, 행동역시 선전물을 배포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주의자가 제기한 두 가지 명제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동의하지 않았다. 첫째, 인류사회에는 개인의 절대자유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절대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혁명에 지극히 해롭다. 둘째, 개인의 자발적인 투쟁론은 미신에 불과하며,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건설을 통해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쟁의 결과, 승리의 여신은 “각자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아나키스트의 이상론보다는 “각자 노동에 따라 소비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현실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비록 인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려는 아나키스트의 이상은 영원한 매력을 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유토피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눈앞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쪽에 더욱 공감했다. 하지만 크로포트킨이 20세기 초에 일찍이 남긴 “아나키를 목적과 수단으로 갖는다면 공산주의는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이 목적과 수단이 없을 때 공산주의는 개인의 노예화를 시도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라는 예언처럼 들리는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아나키즘의 실패 원인으로 전쟁에 따른 사상 운동의 압살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내셔널리즘의 시대에 벌어진 제 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아나키즘 세력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제 2차 세계 대전의 결과 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이 크게 쇠퇴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20세기 후반은 또 다른 전쟁, 즉 냉전의 시대로 아나키즘 운동은 그 침체가 가지 속되었다. 동아시아의 상황도 대체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궤를 같이 했다. 본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의 경우 1920년대 초 아나-불논쟁으로 분화가 일어나고, 국공합작에 따른 분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국공분열 과정에서의 개편으로 위기에 처했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전쟁 속에 부침이 계속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아나-불논쟁을 겪었고, 대삼영의 학살과 사상 운동의 탄압을 경험하면서 192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분열했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 일본의 파시즘화와 전쟁 발발은 운동의 숨통을 막아버렸다.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아나-불논쟁이나 전쟁 상황 모두 그렇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사상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책임이 틀림없다.

아나키즘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다시 금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 3의 길로 주목받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라는 격변을 체험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론의 하나가 바로 아나키즘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비록 20세기의 아나키즘 운동이 정치 권력을 다루

⁶⁰ 정화암 『이조국어디로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66~67면.

⁶¹ <臺韓同志會規約>, 1924. 6. 27(『警察沿革誌』, 150~51면 인용).

⁶² 같은 책 148면.

³ 포트 크로포트킨 <공산주의와 아나키즘>, 백용식 옮김 『아나키즘』, 개신 2009, 269면.

매개교류, 버크먼과골드만같은구미아나키스트의동아시아아나키스트와의다양한교류, 대삼영·석천삼사랑·암좌작태랑등과한인·대만인과의교류, 조선과대만아나키즘운동의시작을알린신재호와범본량의교류, 파공과유자명의영원한우정등무척다양했다. 이책에서는기존에별로주목하지않았던러시아아나키스트이바노프·폴레보이·스테파니·에로센코등과한중일아나키스트와의교류를약간이나마다루었다. 그리고대만인의아나키즘운동역시연구되지않았던주제로재중대만인아나키스트범본량과임병문의활동을언급했다. 특히중국대륙에서독립운동을하던한인과대만인간에는남다른연대의식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둘째, 민족과국가를초월한다양한국제연대조직과단체들이다. 일본인의금요강습회와중국인의사회주의강습회간교류중만들어진아주화친회, 제일한인·중국인·대만인유학생이만든급진주의단체신아동맹당, 유법근공검학운동으로상지오디는중국인청년의프랑스유학운동, 러시아사회주의자의지원아래결성된사회주의(자)동맹, 한인·대만인의연합조직인평사, 동경을중심으로결성된국제조직흑색청년연맹, 상해를중심으로만들어진국제조직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상해노동대학과천주민단후련소에서한중일합작, 한중아나키스트의공동전선인한일구국연맹등을들수있다. 동아시아사회에서는아나키즘이마르크스주의보다먼저사회주의사조의주류를점했기에이와같은다양한연합조직들이출현했고, 민족주의·공산주의와경쟁하면서민족해방과사회혁명사이에서전전했다.

셋째, 아나키스트의국제주의와관련해상호부조론과에스페란토의수용과정이다. 동아시아아나키스트에게상호부조론은국제연대의이론적근거이며, 에스페란토는국제연대의실천적도구였다. 20세기아나키스트는상호부조론을매개로국수주의·제국주의이론을비판한대표적인집단이었는데, 동아시아최초의반제국주의단체인아주화친회부터제국주의의침략에대항해결성한흑색청년연맹이나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까지다양한사례들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사회진화론·상호부조론·계급투쟁론등이혼재된가운데전개되는동아시아진화론수용과정을살펴보면, 우리는민족주의자(혹은제국주의자)의사회진화론과마르크스주의자의계급투쟁론가운데아나키스트의상호부조론이한자리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울러에스페란토는세계를하나로 묶는실천적도구로여겨졌기때문에동아시아사회에서에스페란토운동은처음부터아나키즘의역사와공유하며뚜렷한족적을남겼다. 아나키스트는세계각국의사회주의자들이연합하거나대동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는이언어를학습하는일이중요하다고믿었다.

일반적으로동아시아아나키즘운동의실패원인으로공산주의와의경쟁에서패배한사실을들고있다. 본문에서는아나·불합작과논쟁에대한중국의사례를통해몇가지사실을알수있었다. 아나·불논쟁에서마르크

4. 광주지역

중한호조사와 「광명」

광주의한인혁명가들은비록소수였지만의열단원같은급진주의자들이많았다. 아마도그들은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민족주의자·공산주의자·아나키스트들이혼재되어있었을것이다. 불완전하나마중한호조사라는단체와「광명光明」이라는잡지를통해그실체에어느정도접근할수있다.

1921년초부터중국각지에서중한(국민)호조사라는이름의단체들이만들어지기시작했다. 이런단체들은장사·안경·한구·귀주·운남등에만들어졌으며, 중국과조선의운동가들이항일운동차원에서결합한전국적인활동이었다. 이단체에참여한중국인청년들가운데는훗날중국사회에큰영향을미치는인물들이적지않았다. 예를들면청년모택동(毛澤東)은하숙형(何叔衡)과함께호남장사에서한인혁명가들과중한호조사를만들어자신은통신부주임을, 하숙형은선전부주임을맡았다. 같은해5월에는그본부에해당하는중한호조총사가상해에만들어졌다. 상해의경우조선측은임정요인과독립운동가들이, 중국측은국민당인사나혁명적청년들이주요회원이었던것으로보인다.⁶³ 본래호조라는용어부터가아나키스트들의개념이일반화된것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그들의활동에주의할필요가있다. 그런데광주지역에서는이와는약간다른이름의단체가먼저등장해이채롭다. 1921년1월아나키즘색채가강한군벌인진형명(陳炯明)의군대가광주를회복하고손문이광둥에서비상대총통에당선되었다. 상해임정은여운형을광주에파견하여군정부에축하메시지를전달하고, 곧이어박은식과여운홍등도광주로파견했다. 이런임정대표들이광둥지역의유력자들과중한협회中韓協會라는단체를만든것이다.

중한협회는정식으로성립대회(1921년9월27일)를열어선언문에서20세기를군群的세계로규정하고군의진화는호조를근본으로한다면서, 중한양국의상호협조를목표로제시했다. 이단체는국민당인사화상해임정인사가주축이되어결성한듯하나, 기본적으로는중한호조사와는다른별개의조직이었다. 손문은중한협회에소속된한인청년들을이용하여각지에서암살활동을실행하려했다. 암살대100여명과운영경비를마련하게하고, 필리핀인한명을고용해폭탄제조술과사용법을가르쳤다. 그리고암살대는총140여명이었는데중국인한명과한인세명이한팀을이루어각지에파견할계획이었다고한다.⁶⁴ 대중적기반이없는한인독립운동가들의경우테러라는방법을선호하는것은어찌면당연한현상이

⁶³ 배경한 <손문과상해한국임시정부>, 「동양사학연구」 56호, 1996, 82면.

⁶⁴ 楊昭全等編, 앞의책 1480면.

며, 중국의 정치가들이 한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어쨌든 암살대에 다수의 한인이 가입했고, 중한 협회가 그 중요한 기반의 하나였다면 중한 협회의 한인들 가운데 아나키스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던 중 김진용(金晉鏞)은 「광주일보」 사장 사영백(謝英伯)과 모임을 갖고 중한호조사(1921년 11월 10일)를 따로 창립했는데, 사영백을 사장으로 선출하고 잡지를 발행할 것을 결정했다.⁶⁵ 당시 광주에 파견되었던 상해 임정의 대표들도 성립 대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중국 각지의 중한호조사(혹은 중한 협회)에 소속된 한인들은 중국인과 별도로 몇 가지 간행물을 출판했는데, 우선 「신한청년(新韓靑年)」(1920년 3월 1일)과 상해에서 창간된 「진단(震壇)」(1920년 10월 10일) 및 광주에서 창간된 「광명(光明)」(1920년 12월 1일)이 남아 있다.⁶⁶ 앞의 두 잡지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반면, 「광명」은 정치 성향이 조금 다르다. 이 잡지는 조선 독립과 만일 운동에 관한 기사들과 함께 아나키즘적 사회혁명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다. 중한 협회와 중한호조사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광명」을 출판한 단체는 분명하지 않다.

「광명」은 〈발간선언〉에서 “우리 광명월보는 중한 인민이 조직한 유일한 언론기관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한 양국의 의사를 교환하고 민치를 촉진하기 위한 언론기관이다. 우리의 이월보는 평민적이고 공리적이며 유산 계급의 신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권을 배제하고 인도주의를 고취한다”는 아나키즘 특유의 관용구를 사용했다. 여기서 잡지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리적이어야 하며, 유산 계급의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점은 사회주의 경향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다.⁶⁷ 또한 〈발간사〉에서는 “광명월보를 발간하는 것은 세계혁명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고 강권을 소멸시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혁명 잡지임을 천명했다.⁶⁸

이 잡지는 조선 민족의 독립과 자주의 쟁취를 염원하는 것 말고도 여가 지기서 아나키즘의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반드시 강권 정부를 전부터 도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든지, 민족주의 혁명의 현실의의를 부정하고 “세계주의적 무강권 운동”을 고취하는 대목 등이 그렇고,⁶⁹ 우리의 적은 일본 반동 통치자이지 일본 인민들은 아니라든지 세계 각국의 여러 사회주의 혁명 당과의 연합을 주장한 것도 그렇다.⁷⁰ 특히 노동 운동을 포함한 사회주의 운동 혹은 사회 혁명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평

⁶⁵ 石源華編著, 앞의 책 118면.

⁶⁶ 中共中央編譯局研究室編『五四時期刊紹介』第3卷, 三聯書店 1979, 179면.

⁶⁷ 新甫〈發刊宣言〉, 「光明」第1卷第1號, 1921. 12. 1.

⁶⁸ 隱貞〈發刊詞〉, 같은 책.

⁶⁹ 李大能〈告韓國的朋友〉, 같은 책.

⁷⁰ 劍耕〈壯烈哉韓國的人民〉, 같은 책.

책을 마치며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연대의식이 어떤 사회사상보다도 뚜렷하다. 아나키스트의 이런 특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19~20 세기의 민족주의의 시대부터 21세기 탈민족주의 시대까지 관통하는 정신이다. 19 세기의 프루동은 열렬하게 프랑스를 찬미했고, 바쿠닌도 한때 슬라브 민족주의자였으며, 크로포트킨조차 러시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 기본적으로 국제 연대를 통해 민족과 국가 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프루동이 자신을 연방주의자라고 부르거나, 바쿠닌이 중앙 집권화와 연방주의를 대립시켜 이해하거나, 크로포트킨이 상호 부조론에서 연방주의 사상을 전파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대체로 서양의 아나키스트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코뮌들의 연합이고, 경제적으로는 노동 조합의 연합이다. 이런 연합주의는 지역과 국가 범주를 넘어 국제주의로 나아가 연합의 정신으로 여러 국민(민족)들을 재편하여 인류 통일을 추구한다. 결국 아나키스트의 연합주의는 국제주의를 거쳐 식민지 민족 해방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¹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역시 어떤 정치 집단보다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에 대한 수평적 사고에 노력했는데, 그들의 국제주의는 대체로 동아시아라는 범주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더라도 독립되면 혁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진정한 사회 혁명은 곧 동아시아 범주를 기반으로 세계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교류와 연대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잊어버린 역사 사실에 대해 복원하고자 했으며, 특히 동아시아 아나키즘 운동과 20 세기의 시대사조인 민족주의와의 관련성에 주목했다.² 본문에서 다룬 내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아나키스트 간의 교류이다. 프랑스 아나키스트 르클뤼·그라브와 중국인 혁명가 이석증·오치휘 등과 시공을 뛰어넘는 교류, 일본 아나키스트 행덕추수와 중국인 유학생 유사배·하진등과의 교류,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나키스트 사복과 대삼영의 산록 태치를

¹ 다니엘 게렝, 하기락 옮김 『아나키즘』, 중문출판사 1985, 134~41면.

² 최근 한 주목할 만한 연구에서는 아나키즘의 프리즘을 통해 필리핀의 민족주의 운동을 분석하면서 아나키즘 같은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옮김 『세길발아래에서 — 아나키즘과 반식민지주의적 상상력』, 도서출판 길 2009).

한편해방된조국으로귀환한한인아나키스트는미국과소련에의해분할군정이실시되자아나키즘사회건설이우선이나, 민족적주권쟁취가우선이나는문제에직면했다. 그과정에서진보적민족주의세력과동맹을맺고독자적인세력결집에나섰지만미소냉전때다른남북분단과한국전쟁으로말미암아실패했다. 임시정부를따라귀국한유림은독립노동당이라는정당을만들어제도권정치에참여해야아나키즘에서의일탈이나아니나의논쟁을일으키기도했다. 권력의미신으로부터민중을해방시키고, 산업의분산화와노동자·농민의자치를통해자유연합사회를건설하겠다는꿈은냉전과열전사이에서무너졌다. 결국휴전이후에는문화계몽등을통한후진양성에주력하는등제한적인형태로나마운동의명맥을이어나갔다.⁸⁶

(志平) 의 〈직접행동〉에서말하는직접행동론은마르크스주의자의혁명방법이아니라노동조합적아나키스트의개념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노동수단과생산원료의코뮌소유를주장하는것이냐, “각자능력에따라일하고각자필요에따라소비한다”는원칙에따라자유생산과자유소비를하자는주장은전형적인아나키스트의경제논리이기때문이다. 본래직접행동론이라는개념자체가행덕추수가체제한이래아나키스트의혁명방법으로채용된것이다.⁷¹ 비록아나키스트·공산주의자·국민당원의글이혼재하지만, 적어도이대능(李大能)과경매구, 지평이라는작자는아나키스트임이분명하다. 오히려국민당원진공박(陳公博)이민족의독립과해방보다는경제건설에주력하자고주장한것이잡지의기본논조와는다른이질적인글에속한다.⁷²

그런데이잡지가중국인과한인이함께출판한잡지이지만, 주로중국인필자가많고한인필자가소수였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⁷³ 더구나「투보」처럼한호밖에남아있지않아구체적인분석이쉽지않다. 하지만광주의중한호조사나「광명」을매개로한한중혁명가들의연대가한인운동가들에게아나키즘을전파하는연결고리가되었을것이다.

한인들은손문과장개석의도움으로광동대학이나황포군관학교에다수입학해교육과군사훈련을받을수있었다. 하지만그들은손문사후장개석의국민정부가북벌北伐을개시하자자신들의의지와무관하게이내전에동원되었다. 얼마후다시국공내전國共內戰이일어나자여기에도동원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후반부터중국사회에서계속된북벌과국공내전같은전쟁상황은한인독립운동가로하여금항일독립운동이외에중국정치문제에깊이휘말리게만들었다. 재중국한인아나키스트들도이런운명은피해갈수없었다.

대만혁명청년단

동경에서공부하던급진적인청년장심절은팽화영, 범분량, 임정록등과교류하면서사회운동에발을들여놓았다. 장심절은상해로건너간후에“대만은대만인의대만”이라는관점을가지게되면서대만에서전개되던대만의회청원운동이지나치게온건하다고생각했다. 그는다시광주로 옮겨가서중산대학에입학했는데, 이때광동대만청년단선전부장을역임했

⁷¹ 志平 〈直接行動〉, 같은책.

⁷² 陳公博 〈對於韓國新建設的我的希望〉, 같은책.

⁷³ 「光明」이아나키스트잡지에가깝다는사실은당시「互助」第2期(1923)에서중국의아나키즘잡지를열거한목록에「光明」이들어간다는사실에서도알수있다. 또한『五四時期刊紹介』에서아나키즘잡지항목에「光明」이분류된사실에서도간접적으로알수있다.

⁸⁶ 이문창 『해방공간의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머리말.

다. 광주의대만청년은 불과 40 여명으로 한인혁명가들처럼 대부분은 황포군사학교나 중산대학에 있었다.

광동에 있던 대만유학생은 국공합작 이래 북벌이 진행되자 중국혁명을 목격했다. 공산주의자사문달과 아나키스트 장심절 등 20 여명은 중산대학에서 광둥대만유학생연합회(1926년 12월)를 결성하고, 홍소담(洪紹潭) 과장심절, 곽덕금(郭德金), 장월징(張月澄), 임문등(林文騰)을 위원으로 뽑아 매달 연구회와 강연회를 가졌다.⁷⁴ 연합회 성립대회에서 한대만학생은 “대만은 중국의 토지이며, 대만인역시 중국인이다. … 우리들은 고뇌하는 대만인을 위해 비로소 혁명을 연구했고,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일치 힘을 깨닫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중국과 대만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대만청년의 사고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그런데 연합회는 오래지 않아 주도권이 넘어갔고, 결국 장심절의 제안으로 대만혁명청년단이 따로 만들어졌다.

대만혁명청년단은 임문등과 곽덕금, 장심절 3인이 강령을 기초한 비밀결사단체로, 임문등의 책임 아래 「대만선봉」이라는 잡지를 펴냈다. 창간호에는 손문의 초상과 유언, 대계도(戴季陶)가 대만학생에게 강연한 〈손소산과 대만〉 등을 실어 대만에 대한 손문의 생각을 게재했다. 같은 호에 장심절이 쓴 〈대만은 어떻게 혁명할 것인가〉라는 글이 실렸는데,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라! 우리들은 혁명이 아니면 활로가 없다. 우리들은 맹목적으로 주저앉아 최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순 없다!”라고 절규했다.⁷⁵ 그리고 한인 이영준(李英駿)이 쓴 〈한한국청년이 대만혁명동지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짧은 글도 있다. 〈대만선봉〉의 구호 가운데 “고려 독립혁명을 원조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광주에 있던 한인 청년들과 접촉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⁷⁶ 이 단체는 대만의 회개실청원운동을 소극이론이라고 철저하게 비판하고, 일본제국주의와의 어떠한 타협도 배척하면서 대만 독립을 위한 혁명운동의 깃발을 내걸었다. 청년단원들은 중국혁명의 성공이 전세계 피압박민족의 혁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중국혁명이 성공해야만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의 대만민중해방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훗날 장심절이 “북경의 「신대만」, 상해의 「평평」, 광주의 「대만선봉」이 계속 출판되어 해협을 사이에 두고 혁명의 바람이 대만으로 불었다”라고 회고한 것은 중국에서의 대만좌익활동이 대만사회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⁷⁷

1927년 5월 장심절은 대만으로 돌아와 혁명기금을 모집했다. 이 무렵 장개석이 반공청당 反共清黨을 시작하자 국민당은 대만혁명청년단을 좌익단체로 규정해, 대륙은 물론 대만과 일본 등 각 지역의 청년단원들을 무려

은좌익진영의 세력도 임정에 참가하면서 정치방면에서도 기본적인 통일전선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44년 9월 중경에서 열린 각혁명당과의 통일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좌우모두 임시정부 밑으로 통합하는 것을 합의했다. 각혁명당파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에 이르자 국민정부의 제안으로 중한문화협회 中韓文化協會가 만들어졌다. 이 사건은 중국국민정부가 비로소 한국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⁸³

끝으로 해방 이후의 상황을 한두마디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전후 戰後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은 1946년 5월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아나키스트 연맹을 창설하고, 기관지로 「평민신문」을 간행하면서 재기했다. 1925년에 흑색청년연맹이 조직되어 불과 1여년만에 해체된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조직된 전국적 조직이었다. 각지역에서도 다양한 기관지를 펴냈지만 느슨한 조직형태여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한 아나키스트는 전후 아나키즘의 특색에 대해 전전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들이 이론을 경시하는 경향이 농후했고, 아나키즘의 이론이 너무 다양해 조직의 통일과 단결이 어려웠으며, 자칭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조직에 받아들여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⁸⁴ 비록 1968년 11월에 연맹은 해산되었지만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의 패망 직후 중국에 남아 있던 한인 아나키스트 유립과정화암, 허열추(許烈秋), 유자명, 유서등은 상해에서 중국인이 석증, 주세(朱洗), 파금, 필수작 등과 함께 한중무정부주의자대회를 열어 국제적 유대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이석증은 청말부터 이어오던 백과전서운동을 다시 시작해 『세계학전 世界學典』을 편찬설계하면서 한인 아나키스트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민족과 국가의 대소나 성쇠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가 들어간 전문적인 책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학전관이었다. 이때 정화암과 이하유(李何有)는 이석증과 오치휘 등의 도움을 받아 조선어학관을 설립하고 여기에 신채호 학사를 설립했다.⁸⁵ 그러나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국공내전 國共內戰을 거치면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자 아나키스트들은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지하로 잠복하여 조직적인 활동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⁸³ 항일전쟁이 한창이던 계림과 중경 시절에도 파금과 유자명의 우정교류는 이어졌다. 일본의 패전 후에 유자명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남았다. 그는 호남성에서 원예학자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국제우인 國際友人’이라는 칭호가 붙여 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훗날 유자명에게 자서전을 집필하도록 권유한 사람도 바로 파금이였다.

⁸⁴ 向井孝 〈戰後日本のアナキズム運動〉, 「アナキズム」第7號, 2006(1976), 77~79면.

⁸⁵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393면.

⁷⁴ 『警察沿革誌』, 210~11면.

⁷⁵ 莊永明 『臺灣百人傳』第1卷, 時報出版 2000, 202면 재인용.

⁷⁶ 『警察沿革誌』, 225~27면.

⁷⁷ 許世概 『日本統治下の臺灣』, 玉山社 2005, 364면.

죽전선론은일본과조선에서는거의제기되지않았다. 왜냐하면중일전쟁이발발한시점은조선은물론일본에서의한인운동이쇠락한상태였기때문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한구에서군사조직인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1938년 10월)를조직하고김원봉을단장으로선출했다. 유자명은지도원의한사람으로선출되어전시대일선전공작담당을맡았다. 당시김원봉은“외국각지에있는민족무장부대를연합하여통일적인민족혁명군대를창건하여민족해방전쟁을실행한다”는취지아래국민정부에게획안을제시했으며, 이것이받아들여져조선의용대창건식이열렸다. 조선의용대는기관지「조선의용대」를발간하여각전투지역에서활동하는의용대의소식을전했다. 유자명은조선민족전선연맹을기초로좀더민족통일전선을확대하고자했다. 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사이를부담없이왕래할수있었던그는중경에서한국임시정부와조선민족전선연맹과의통일문제를놓고협상을했으나이견차이를좁히지못했다. 한편평화암등일부한인이나키스트들은안휘성남부로이동해한중합동유격대를조직해유격전을 폈다. 그들은한간제거공작과학도병귀순공작, 구미인포로구출공작등활발한활동을전개했다.

같은시기중국관내에는좌익계열의조선의용대와우익계열의광복군말고도비록소수이지만아나키스트중심의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가있었다. 전지공작대는나월환(羅月煥)등아나키즘계열의청년이중심이되어 1939년 10월중경에서조직했다.⁸¹ 이조직은「한국청년」을간행했는데, 여기서한중양민족이연합해공동으로항일의기치를걸고공동의적을타도하자고주장했다. 전지공작대의주요임무는중국항전에대한협력과선전활동, 첩보활동, 무장부대의조직, 혁명사상의고취등이었다. 얼마후나월환이우파에게피살당하는비극이있었으나해체되지않고꾸준히활동했다. 이공작대는서안에서중국인을대상으로가극〈아리랑〉을공연하여한중친선에기여했다. 1940년 9월한국광복군이창설하면서전지공작대는한국광복군제 5지대로편입되었다. 그리고 1941년에는다시조선의용대가한국광복군에편입되어우선군사방면에서통일전선이이루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중경으로옮겨가전열을정비할즈음유자명과유림(柳林)⁸²이아나키스트를대표해임정에참여했으며, 민족혁명당과같

⁸¹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대해서는박환, 앞의책 187~225면참조.

⁸² 유림은 1919년상해에망명하여봉천과북경등지에서활동하다성도대학에유학했다. 아나키스트로서신민부新民部와의연결을시도했으며,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을결성하고인재양성차원에서의성숙義誠塾을경영하다체포되었다. 6년간의투옥후석방되어다시중국으로건너가중경에서임시정부에참여했다. 이즈음원론적인아나키즘조선에서민족전선의참가로생각을바꾸었다(김희곤〈단주유림의독립운동〉, 「한국근대사연구」제 18집, 2001 가을참조).

64명이나체포했다. 법원판결에따르면임문등은 4년형, 광덕금은 3년형, 그리고장심절은 3년형(2년으로감형)을받았다.⁷⁸ 장심절은투옥시절에전향섭영을요구받았으나단호하게거절했다. 그후그는어떠한주의나정당에도참가하지않겠다고다짐했는데, 그럼에도각종사회운동과희극운동에는열심히참여했다.⁷⁹

한편장지락의회고에따르면 1925년광주에갔을때한인은 60여명에불과했으며대부분의열단의테러리스트였다고한다. 그런데다음의기록은대만인과한인이나키스트의접촉가능성을보여준다.

(광주에서) 1926년에우리들은‘동방피압박민족연합’을조직했다. 여기에는조선청년연맹, 인도지나민족당, 대만인, 개인자격으로참가한인도인등이들어가있었다. 이연맹은대회를열었다. 대만대표들은돌아가자마자일본측에체포되었다. 그중임손기(林孫記)는아직도옥에감혀있다. 그는대만에서‘노동자농민해방동맹’을조직했던것이다. 당시대만에는무정부주의자와공산주의자들이많이있었는데, 그들은우리한국인들과밀접한연락관계를가지고있었다. … 왜냐하면일본이공동된지배자였기때문이다. 그당시는동양여러국가의모든혁명단체들이서로자주연락을취하고있었다.⁸⁰

여기서등장하는동방피압박민족연합은아마도 1927년 2월한인김규식(金圭植)·유자명·이광제(李光濟)·안재환(安載煥), 중국인육광록(陸光錄), 인도인간다신·비이신신등이남경에모여만들었다는단체같은조직일것이다. 하지만시기(1926년혹은 1927년)나장소(광주혹은남경)에약간의차이가있어문제의여지가있다. 위의인용문에서도알수있듯이그들은동방민족이제국주의의침략에서벗어나완전한자유독립을도모하기위하여동양의각피압박민족의연합체를결성하고자했다. 회장에는김규식이선출되었고기관지로「동방민족」을발행했다고전하는데, 이단체내에한인과대만인의교류가있었을가능성이높다. 현재로서는위의글에등장하는대만인임손기라는인물이나노동자농민해방동맹에대해서는분명하지않다.⁸¹

⁷⁸ 楊碧川, 앞의책 101~102면.

⁷⁹ 장심절은 1929년수감되어 1930년 8월출옥했다. 출옥후문화운동으로전향해 1930년대만연극연구회를조직하고 1934년대만문예연맹의위원장을지냈으며, 「臺灣文藝」를발행했다(林慶彰『日治時期臺灣知識分子在中國』, 臺北市文獻委員會 2004, 151면).

⁸⁰ 김산·넴웨일즈, 앞의책 130~31면.

⁸¹ 장지락의재중한인이나키스트가가장활발하게활동한시기는 1921년부터 1922년까지라는회고는설득력이있다(김산·넴웨일즈, 앞의책 94면).

5. 1920년대 후반한인과대만인이나키즘운동

중국과일본에비해조선과대만의아나키즘운동이시기적으로늦어진 것은기본적으로식민지였던조선과대만이중국과일본에비해서양문물을접할수있는기회가더뵈기때문일것이다. 게다가식민지적상황은한인과대만인들에게강력한민족주의적열망과독립국가의수립이라는과제를안겨주었다. 이런특수한상황이정부와국가의존재를비판부정하는아나키즘을받아들이는데장애물로작용했을것이다. 1920년대에본격화한조선과대만의아나키즘운동은 1920년대후반에도일본과중국대륙및국내에서계속이루어졌다. 이시기와관련한기존연구가있으므로여기서는간단히정리소개하고자한다.

박열의대역사건으로침체되었던흑우회는소규모활동을지속하다 1926년 2월다시활동을재개했다. 순정아나키즘을표방한일본아나키스트들이조직을재정비해흑색청년연맹을발족시키고 「흑색청년」을발행하자,⁸² 흑우회회원최규중(崔圭悤)과장상중, 정태성등은흑색청년연맹에도가입했다. 그리고흑우회가개최한조선문제강연회에암좌작태랑과근등이, 팔태주삼, 망월계(望月桂) 등을초청하기도했다. 이는한일아나키스트의꾸준한교류의한단면을보여준다. 흑우회의오랜전통은국내의흑로회, 흑기연맹(1925년 3월), 진우연맹(1925년 9월)등과같은조직결성에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흑우회는국내는물론만주와중국에도연락망을가지고있었다.

흑우회는흑색전선연맹으로이름을바꾸었다가다시흑풍회黑風會(1927년 2월)로개명했다. 흑풍회는노동계로진출해조선자유노동자조합朝鮮自由勞動者組合을결성하는데성공했다. 이조합은“노동자의해방은노동자자신의힘으로한다”는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오랜전통을따르고있었다. 그리고흑풍회는재일한인노동단체가운데최대규모였던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과도밀접한관계를맺었다. 이동맹은 1927년 9월중앙집권주의를비판하고자유연합의조직으로나갈것을결의했다. 당시동경말고대판大阪에도조선계자유노동연맹朝鮮堺自由勞動聯盟, 대판자유노동연맹大阪自由勞動聯盟, 동방노동연맹東方勞動聯盟등과같은한인노동조합활동이활발했다.⁸³ 이곳은이념투쟁보다는노동운동과일상투쟁이주류를이루었고고순흙(高順欽)과최선명(崔善鳴), 김태업(金泰燁)등에의해주도되었다.

⁸² 1927년을전후해일본의「黒色青年」에는중국아나키즘관련기사가급증했다. 이잡지는중일연합을통한군벌자본가의타도및자주자치사회의건립을호소했다(玉川信明, 앞의책 255~59면).

⁸³ 萩原晋太郎『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 現代思潮社 1969, 124면. 그밖에도재일조선인노동단체로는조선본소자유노동조합朝鮮本所自由勞動組合(1927), 흑색노동자연맹黒色労働者聯盟(1928), 극동노동조합極東勞動組合(1929)등이있다.

동으로책임져야하므로, 공동의적을타도하고동아시아의평화를정립시켜야하는것도중국과조선양민족의공동적인사명”⁷⁵이라고했다.

유자명은〈조선민족전선연맹결성과정〉에서“연맹의성립배경을민족의총단결을강조하게된역사적조건변화때문”이라고설명하면서, “이연맹을조선혁명대중의상위영도단체로만들려는것이아니고, 단지연맹을가장완전하고만족할만한통일전선의한출발점으로만들생각”이라고했다.⁷⁶ 그리고〈조선민족전선연맹창립선언〉에서는“조선혁명은민족혁명이고, 그전선은‘계급전선’이나‘인민전선’이아닐뿐아니라, 프랑스나스페인의이른바‘국민전선’과도엄격히구별되는민족전선”이라면서, “조선민족은자연적으로특수한형상을갖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조선의혁명도반드시그특수성이있는것이다. 이것은누구도부정할수없는바이다. 그러나조선문제도세계문제의일환에불과하다. 그래서조선의혁명에도반드시국제적인공통성이있다는것이다. 이또한누구라도부인할수없는것”이며, “그렇기때문에모든피압박민족의연합전선이필요한것이고, 필연적이어야한다”⁷⁷고했다. 여기서유자명이조선사회의모순을계급모순이아닌민족모순으로파악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는데, 이런태도변화는주목할만하다. 그는혁명운동은시간과지점과조건에따라변화하기때문에 1880년대의러시아와 1920년대의조선은비교할수없으며, 같은시대라도일본의아나키스트와조선의아나키스트는서로다르다고생각했다.

당시유자명은한인독립운동세력의단결을토대로중국항일전쟁을발판으로삼아한인독립운동을국제적반시즘투쟁의차원으로끌어올리려했다.⁷⁸ 이과정에서재중한인아나키스트의국가관에변화가찾아왔다. 과거타도대상으로만삼은국가와정부존재를부분적으로인정한것이다. 뿐만아니라민족전선을수용하면서사유재산제와중앙집권적조직체를일부인정했다. 이는민족전선의결성을통해민족혁명을일차적으로달성하고, 그다음에아나키즘사회를건설한다는단계론적구상에근거한것이다. 이와관련해한연구자는이런국가관의변화를아나키즘본령에서의일탈현상으로이해하며,⁷⁹ 다른연구자는민족전선이아나키즘의‘자유연합’조직원리에위배되지않는다고해석해입장차이를보인다.⁸⁰ 그런데민

⁷⁵ 〈창간사〉, 「조선민족전선」 창간호, 1938. 4. 10(위의자료집 56~58면).

⁷⁶ 〈조선민족전선연맹결성과정〉, 「조선민족전선」 창간호(위의자료집 59~62면).

⁷⁷ 〈조선민족전선연맹창립선언〉, 「조선민족전선」 창간호(위의자료집 51~55면).

⁷⁸ 한상도, 앞의글 152면.

⁷⁹ 이호룡, 앞의글 245~46면.

⁸⁰ 김성국〈유자명과한국아나키즘의형성〉, 「한국사회사상사연구」, 나남 2003, 311면.

윙통제및신념이필요하다. 그러나현재유럽의인민선선에는그것이없다'고말하고있지만, 이를인정할수는없다. 왜냐하면인민선선자체가조직의형식이고, 통제의방법이며, 인민선선정강자체가바로일종의신념이기때문"이라면서, "인민선선운동이코민테른의책동에의해진전되고있다는듯이단정하는것도곧 3·1 운동이윙슨의자결주의주장에의해일어난것이라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피상론"이라고답변했다.⁷⁴

여기서기억해야할사실은아나키즘이'Internationalism(국제주의)'을추구한다고해서반드시'Nationalism(국민(민족)주의)'의정반대에서있다고도도식적으로판단하면곤란하다는점이다. 동아시아사회에서사회주의(아나키즘)가수용되던 19세기말과 20세기초는바로근대적자와공동체의식에기초한국민(민족)주의가형성하던시기와거의일치한다. 이른바첫번째'세계화'의시대라고부르는이시기에는자본과노동은물론사상과문화까지도다양하고복잡하게'이동'하면서그물처럼얽혀있었다. 그후 20세기에들어와서도제국주의침략에맞서아나키스트와민족주의자가심각한갈등없이상호결합하는사례가종종나타난가답이여기에있다. 이경우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관계설정문제는국가적·지역적·정치적·문화적맥락에따라섬세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거꾸로아나키즘과공산주의의관계는양자모두국제주의를지향한사회주의사조임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혁명의헤게모니를놓고초기의합작관계가단절되자분열과논쟁을거쳐화해불가능한상황으로까지나아간사실은앞에서이미언급했다.

때마침중일전쟁이발발하자민족전선결성의요구가더욱강해졌다. 전쟁발발직후인 1937년 9월중순한중아나키스트들이결성한중한청년연합회中韓青年聯合會라는단체는「항전시보抗戰時報」를창간하고테러활동을추구했으나민족전선론이제기되면서테러를중지했다. 그리고남화한인청년연맹은조선혁명자연맹으로개조하여민족전선을실행으로옮기기위해여러좌익계열독립운동세력과협상을계속했다. 조선혁명자연맹은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등과함께몇차례회의를거친후에마침내같은해 12월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결성했다. 유자명은조선혁명자연맹의대표로선출되었고기관지「조선민족전선」의주필겸편집인을맡았다. <창간사>에서"중국의항전이만약실패한다면, 조선민족의해방은기대할수없을정도로막막하게될것이고, 조선민족의노력여하도또한중국민족의최후승리에영향을줄것이다. 과거중국과조선양민족이받은치욕과손실은반드시우리들이공

⁷⁴ 「남화통신」 제 11 호, 1936. 11(충주시·충주 MBC 『유자명자료집』 1, 耕慧舎 2006, 48~50 면).

흑풍회는얼마후또다시흑우연맹黑友聯盟(1928년 1월)으로재편했다. 1927년봄부터신간회新幹會결성과민족협동전선운동이나타나자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간의갈등이고조되었다. 아나키스트는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의연합에대해민족해방이아닌자신들의권력욕때문이라고비난했다. 흑우연맹은상애회相愛會같은친일노동단체나공산주의자의노동단체와무력충돌을일으켰다. 이들은조선동흥노동동맹, 자유청년연맹과연합해「흑색신문」을발행했다.⁸⁴

중국관내에남아있던아나키스트들은코민적아나키즘을본격적으로지향하기위해 1928년 2월(혹은 3월)경에상해프랑스조계화광병원에서유명무실해진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개편해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을만들었는데, 이회영과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유서, 한일원(韓一元), 윤호연(尹浩然), 안공근(安恭根) 등이참여했다. 그해 6월부터「탈환奪還」이라는잡지를간행했는데, 탈환의영문표기가'Conquest'라는사실에유의한다면크로포트킨의저서『빵의쟁취 The Conquest of Bread』에서따온것임을추측할수있다. 이잡지의출판목적가운데하나한국노동자협회를통해세계각국의아나키스트에게한국아나키스트의활동상을알리고자한것이였다.

만주에서는한인사회를기초로이상사회건설이시도되었다. 아나키스트김종진(金宗鎭)은만주로가서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1927년 7월)을조직했다. 그는김좌진(金佐鎭)을실득해신민부新民部를이용한아나키즘적코민사회를건설하기로결정하고,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를만들어자유연합원리를기초로한인사회를개편했다. 이단체는혁명근거지를건설하기위해의목적인사업들을추진했다. 하지만공산주의자에의해김좌진과김종진이차레로암살되자급속히와해되었다. 당시중국본토에서는다수의한인아나키스트들이김종진의활약에고무되어만주지역으로이동하려는계획을세웠으나결국발로끝났다. 하지만이런통합의흐름은나중에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의참여로이어졌다.

1920년대후반국내에서조직된대표적인아나키즘단체는원산의본능아연맹本能兒聯盟(1926)과노동자자유동맹勞動者自由同盟(1927년 9월)을들수있다. 본능아연맹은공산주의자와청년운동의주도권을둘러싸고무력투쟁이있었으며, 신간회결성과맞물려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간에격렬한논쟁이일어나자신간회에반대했다. 국내최초의아나키스트노동조합으로평가받은노동자자유연맹역시원산에서만들어졌는데, 일본의영향을받아코민적아나키즘과노동조합적아나키즘을국내노동운동에적용하려했다. 하지만이들도공산주의자와같은갈등을빚었

⁸⁴ 김명섭, 앞의책 179~210 면.

다. 한인의 경우는 1920년대 초에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을 거의 동시에 수용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협력기간이 무척 짧았고, 곧바로 민족해방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대립 충돌했다. 국내에서는 조선노동공제회가 분열하여 흑로회와 조선노동연맹회로, 일본에서는 흑도회가 분열하여 흑우회와 북성회로, 중국에서는 의열단이 분열한 것이 대표 사례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가리켜 혁명이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아 공산독재를 획책하는 또 하나의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내에서 1927년을 전후해 아나키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논쟁이 불거져 자문학계에서도 이루어진 아나-불논쟁은 비교적 알려져 있다. 이른바 김화산·권구현·이향을 중심으로 한 아나키스트와 한설화·윤기정·임화등 카프 KAPF 동인과의 프롤레타리아 문예 논쟁이 그것이다.⁸⁵ 상호 부조의 이상으로 적자 생존의 현실을 넘어서려는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삼는 예술분야에서 지지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제시대 한국문학에서 김화산과 권구현 같은 아나키스트 문인 말고도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로 알고 있는 여러 문인들이나 심지어 카프의 공산주의자 가운데에서도 아나키즘 문예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1930년대의 농민문학에서도 아나키즘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관서흑우회 關西黑友會 (1928년 4월) 가 관서동우회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관서흑우회는 공산주의자의 중앙집권 노선에 반대해 자유연합 노선을 주장했으며, 생디칼리즘을 받아들여 순정 아나키즘을 비판했다. 그들의 주도로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 朝鮮共產無政府主義者聯盟 (1929년 말) 을 만들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순정 아나키스트와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 여기에 경찰의 압력이 더해져 실패로 끝났다. 아나-불합작의 붕괴 이후 한인 아나키스트는 전국적인 조직 결성에 노력했는데, 국내에서 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밖에 또 다양한 아나키즘 조직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한편 192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별 독자적인 조직 구축은 물론 국제적인 아나키스트 단체를 결성하려고 시도했다. 한인과 과대만인 아나키스트가 합작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A 동방연맹과 그 회원인 신채호와 임병문 등이 일으킨 국제위체사건 (1928년 4월) 등이 있다.

신채호는 A 동방연맹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북경 우편관리국외국위체계에 근무하던 임병문과 함께 외국위체를 위조하기로 했다. 임병문은 외국위체 200매 (총 6만 4천원) 를 위조인쇄해 북경 우편관리국을 통해 일본과 과대만, 조선, 만주 등지에 있는 주요 32개의 우편국으

방운동의 최선의 책략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각각 각파의 반성과 각오를 축성하고 있다”⁷¹고 민족전선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곧이어 〈민족전선 결성을 촉구한다〉 (1936년 12월) 라는 글에서는 “현제 구라파에서는 파쇼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인민전선의 신기운이 폭발하고 있다. 이 인민전선의 형태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서는 민족전선 형식으로 표현되어 그 민족의 총역량을 연합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에서 인민전선이 승리를 거두고 민중 안에 뿌리를 내려 맹렬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례를 봐도 인민전선 혹은 민족전선은 가장 현실에 적합한 투쟁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선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 평등을 탈탈하고 만인공영의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먼저 최대의 적인 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운동도 전개할 수 없다”⁷²면서 민족전선 결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같은 호의 〈민족전선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도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과 김원봉 (金元鳳) 중심의 민족혁명당이 연합할 것을 촉구하면서, 두 당의 통일전선에 걸림돌이 되는 “당파적 미봉” “각정당의 배경문제” 그리고 “감정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나름의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 아나키스트의 노선 변화가 중국에 소개되면서 한인 아나키스트의 노선 변화로 이어졌고, 민족해방을 달성한 후 아나키즘 사회혁명을 추구한다는 단계론적 발상을 받아들여면서 민족전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⁷³

유자명을 비롯한 한인 아나키스트의 제국주의 비판은 반파시즘 투쟁을 위한 민족전선 운동으로 나아갔으나,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단위 주체로서 민족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했다. 어쨌든 이런 행보는 아나키즘의 새로운 발전이나, 아니면 변질이냐라는 문제를 남겼다. 유자명의 민족전선 결성 주장에 대해 조선 민족혁명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 결과 1937년 10월 남경에서 남화한인 청년연맹은 조선혁명자연맹 朝鮮革命者聯盟 (일명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으로 개조하고 일차적으로 조선 민족혁명당과의 연합을 추진했다.

한편 민족전선 움직임에 대해 한국국민당의 냉심군 (冷心君) 은 아나키스트가 스페인 같은 인민전선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고 문제를 제기하자 유자명은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게 신경이 과민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민족혁명당을 아나키스트가 원조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양당이 연합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인민전선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유자명이 인민전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냉심군이 ‘혁명’은 전투이고, 전투에는 조직규

⁷¹ 舟 〈민족전선의 가능성〉, 「남화통신」 제 11호, 1936. 11.

⁷² 〈민족전선 결성을 촉구한다〉, 「남화통신」 제 12호, 1936. 12.

⁷³ 최해성 〈1930년대 스페인 인민전선과 한국 독립운동의 민족협동전선〉, 「스페인어문학」 42호, 307, 310면.

⁸⁵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202~14면 참조.

한인아나키스트의민족전선참가

1930년대전반기의한인아나키즘운동은항일테러활동으로규정할 수있는데, 일제의대륙침략이본격화되자투쟁방식에변화가찾아왔다. 한번의극적인테러나폭동만으로일본제국주의를전복시킬수는없으며, 오히려자본주의의붕괴과정은오랜세월이걸리는지루한과정이라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이제테러리즘의시대가지난것은분명했으며, 조직과질서의필요성이명백해진것이다.

1936년에들어오면서남화한인청년연맹은기관지「남화통신」의발간을통해민족전선결성문제를제기했다. 유자명은이잡지에여러편의논문을실어자신의정치주장을밝혔으며이론가로서의명성을쌓아갔다. 「경칩」을통해중국인아나키스트의항일전쟁관의변화추이를읽을수있다면, 「남화통신」을통해재중한인아나키스트의항일전쟁관을읽을수있다. 현재「남화통신」은1936년에나온불과몇호만남아있다. 창간초기의「남화통신」은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를모두비판했고, 조선의독립문제는조선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의문제가자사회혁명의일부라고선전했다. 창간호에서는“민족독립운동그자체의정신이고상하고수단방법이아무리정당하다해도이것이정치운동인이상정치의근본적모순과오류를범할수밖에없는것이다. 정치운동가제군! 사리사욕을떠나진실로민족독립과피압박민중의해방을위해운동하려한다면정치운동을버리고민중해방운동인사회혁명운동으로재출발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명심하라”⁶⁸고주장했다. 이처럼처음에는남화한인청년연맹이김구의한인애국단과합작한사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대체로민족주의자와의연합에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

그런데「남화통신」은1936년여름부터민족전선문제를제기하기시작했다.⁶⁹ 〈우리청년의책임과사명〉(1936년6월)에서“피압박민중의해방은정치운동에의한것이아니라진정한혁명운동(혁명적수단으로기성제도를무너뜨리고전민중을기반으로한혁명적건설)에의해서만달성할수있다는것, 식민지운동에서는내부의세력대립보다는내부가일치단결하여외부의적에게대항하는연합전선을취하는것이당면과제라는새로운인식을가져야한다”⁷⁰고언급했다. 〈민족전선의가능성〉(1936년11월)에서는“우리들조선혁명운동의현단계에있어서민족전선의필요와확대에통감한다. 그것은민족전선만이민중해방운동의진로를타개하는지침이기때문”이라면서, “유럽에서의인민전선의승리는국제적인반향을일으켰으며, 식민지혹은반식민지에서는민족의총단결이민족해

⁶⁸ 有何 〈정치운동의오류〉, 「남화통신」 제1호, 1936. 1.

⁶⁹ 한연구자는민족전선출현배경을국제정세의인식변화, 스페인인민전선의승리, 조선의내부조건성숙, 각당파의이해관계등에서찾고있다(박환, 앞의책 151~55면).

⁷⁰ 何 〈우리청년의책임과사명〉, 「남화통신」 제6호, 1936. 6.

로발송했다. 신채호와임병문, 이필현(李弼鉉) 이각지역에서돈을찾아오기로했는데, 임병문이조선과만주지역을맡고, 이필현은일본지역, 신채호는대만지역을각각맡기로역할분담을했다. 임병문은만주의대련은행에서위체2천원을장동화(張同華)라는가명으로찾아서북경의이필현에게부치는데성공했다. 이어고무뎀그는계속해서일본신호神戶로가서일본은행에서2천원을찾으려다일본경찰에게포도되었다. 신채호도자신이책임진1만2천원을찾기위해일본을거쳐대만의기류항에도착했으나, 이미그를기다리고있던경찰에게포도되어대련으로압송되었다.⁸⁶

이것이널리알려진국제위체사건으로신채호와임병문, 이필현말고도의열단원이종원(李鐘元) 등네명이체포되었다. 신채호는공판에서동방연맹에“이필현의소개로가입했는가?”라는질문에“아니다”라고하면서1926년여름대만인임병문의소개로가입했다고대답했다.⁸⁷ 그가임병문에게혐의를미룬까닭은임병문이체포된지너달만에옥중에서폐병으로이미세상을떠났기때문인듯하다. 어쩌면“동방연맹의주장이임병문의것이였다”는신채호의증언을그대로따른다면, 실제로이조직에서임병문이중요한역할을담당했을가능성도높다. 이사건은1920년대말한인과대만인아나키스트의연대활동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다음으로1920년대후반대만의상황을살펴보자.⁸⁸ 대만문화협회는급진파의영향아래사회사상을연구하다접차아나키즘과공산주의의영향력이증가했다. 그러던중대북무산청년들은「대만민보」(1926년8월1일)에〈공개장〉을실어문화협회의대만의회개설청원운동을비판하면서문협과의정치적갈등을드러냈다. 무산청년파는청원운동을비판하며, “실현불가능한망동을사실로여기게하지만실은자본주의와제국주의를인정하는것에불과하므로, 우리무산계급당은이와같은불철저한주장에반대한다”고했다.⁸⁹ 아나키즘경향의무산청년들은연운경과왕민천(王敏川)⁹⁰의지도아래문화협회에가입해문협을좌경화했다. 연운경의무산청년파는1927년1월임시대표대회에서문화협회의주도권을장악함으로써협회는사상과조직, 행동면에서좌경화에성공했다. 이른바대만근현대사에서의‘문협文協의1차전향’이이것이다.⁹¹ 당시총

⁸⁶ 신용하 『신채호의사회사상연구』, 한길사 1984, 205~206면.

⁸⁷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315면.

⁸⁸ 대만내의아나키즘운동에대한소개로는줄고 〈1920년대대만내아나키즘운동에대한시론〉(「동북아문화연구」 13호, 2007) 이있다.

⁸⁹ 連溫卿 『臺灣政治運動史』, 稻鄉出版社 1988, 137~38면.

⁹⁰ 왕민천은일본으로유학가서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법학과를졸업한후, 대만으로돌아와사회운동에헌신했다. 대만문화협회창립멤버이자대만흑색청년연맹에도가입한바있어, 초기에는연운경과더불어아나키즘경향을띠었다. 그는사회교육과부녀운동에관심이많았다(楊碧川 〈王敏川〉, 「臺灣近代人物集」 第1卷, 1983, 73~87면).

⁹¹ 연운경은문화협회의주도권을장악한후농민운동과노동운동의조직화에주력했다. 그러나1929년11월대만공산당의반대로문화협회에서제명되었고, 그의영향력이강한

독부의 〈문화협회대책〉에 따르면, 문화협회의 1 차분열과정중대만인의 사상과 범은 온건파, 온건파중사회주의경향, 민족자결과, 무정부주의자, 망동파, 투기파등여섯가지로분류했다. 여기서아나키스트그룹가운데대표인물로는평화영과연온경을꼽고있었다.⁹² 바로이무렵대만흑색청년연맹사건이터진다.

앞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일본의흑색청년연맹의영향아래대만흑색청년연맹이만들어져세력의확장을시도했다. 이연맹은대만에거주하던일본인소택일(小澤一)이일본에서아나키스트와접촉한후대만의대북무산청년을중심으로만들었다. 얼마후 〈대만흑색청년연맹선언〉을발표해다음같이주장했다.

권력은곧법률이고, 법률은곧통치이며, 통치는곧국가이다. 권력이있기에통치자와피통치자가나뉘어졌다. 권력은인류자유를말살하는기계이다. 모든죄악과근심과정의롭지못한것들은권력이므로일체의권력을소멸하지않으면자유를얻을수없다. … 우리들은오직직접행동만이인간해방의유일한수단이며, 폭력과압살이가장뛰어난혁명수단이라고생각한다. 우리들은장차후기아래서죽기를맹세한다.⁹³

이연맹은위의글처럼“우리들은오직직접행동만이인간해방의유일한수단이며, 폭력과압살이가장뛰어난혁명수단이라고생각한다. 우리들은장차후기아래서죽기를맹세한다”라고하며순수한아나키스트임을자처했다. 이러한무산청년의결집은대만남북을상호연결해‘중남부선전대’(1926년 12월)의성립을가져와사방으로혁명을선전하려고시도했다.⁹⁴ 그러나일본경찰은조직이창설되자마자다수의관련자를체포해와해시켰다. 특히대만흑색청년연맹의지도자였던소택일은형기만료후출옥해일본으로가던중선상에서자살했다. 이연맹은대만좌익운동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

대만아나키스트들이연극운동에중사하며아나키즘을선전하는사실은특색중의하나이다. 장유현(張維賢)은성광사星光社(1925)를중심으로신극을통한악습제거와풍속개량에힘썼다. 성광사들이끈장유현은대만신극의대표인물로젊은시절부터아나키즘을신앙했으며, 희극운동을통해민중계몽에앞장섰다. 1927년성광사가경비부족으로해체되자일본에건너가동경에서연극을공부하던중산록태치등과접촉했다. 그는일

대북지부가폐쇄되었다. 그후정치무대에서물러났지만산록태치와석천삼사랑같은일본아나키스트와지속적인우정을나누었다(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編輯委員會『日本アナキズム運動人名事典』, 株式會社ぼる出版 2004, 715~16면).

⁹² 楊碧川, 앞의책 180~81면.

⁹³ 〈臺灣黑色青年聯盟宣言〉(王乃信等譯『臺灣社會運動史—1913~1935年』第4冊, 19면재인용).

⁹⁴ 흑색청년연맹은대북, 신죽, 창화지부와‘중남부선전대’로나누어져있었다. ‘대만흑색청년연맹조직표’는같은책 169면에나와있다.

사해흥구공원에서열린일본군의천장절경축행사에서尹奉吉(尹奉吉)의폭탄테러(1932년 4월 29일)가있었다. 김구(金九)가尹奉吉을시켜홍구공원폭파계획을준비하던같은시기에남화한인청년연맹의유자명과정화암도비슷한계획을준비했다. 그런데이일을맡은백정기가왕아초로부터폭탄은구입했으나천장절기념식장에들어가는입장권을얻지못하면서불발로끝났다. 유자명은홍구공원거사이후에도살벌한상해에그대로남아서활동을계속했다. 그해말한인아나키즘운동의지도자이회영이밀정의밀고로체포되어고문끝에사망했다. 이에유자명의남화한인청년연맹은남은여력으로밀정들을입달학원등에유인해처형했다. 그후에도한인아나키스트들은옥관빈과이용로같은친일부역자에대한처단사업은계속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은일본공사유길명이국민당정부요인을매수하려고육삼정六三亭이라는음식점에서연회를베폰다는정보를입수하고, 그에대한암살을시도한이른바유길공사사건(혹은육삼정사건, 1933년 3월 17일)을일으켰다. 이거사는계획의유출로실패했으며현장에서체포된백정기와원심창두명은무기징역, 이강훈은 15년을연도받았다. 그후유자명은상해의입달학원을떠나남경으로가서새로운사업을준비했다. 한편김창근(金昌根)과오면직(吳冕植) 등이결성한상해혈맹단上海血盟團이라는조직도아나키즘계열의단체로 1936년 3월일본요인을암살하려다발각되어치열한시가전끝에체포되어주모자들이처형되었다.⁶⁶

일본내의사상운동과노동운동이한계에부딪히자일부한인아나키스트들은적극적인항일투쟁을전개하기위해중국으로진출하기시작했다. 대표인물로는이달(李達)과원심창등이있다. 이달은가장먼저중국에진출한인물로이미 1920년대에중국에건너왔고, 남화한인청년연맹에가입해흑색공포단의단원으로활동했으며, 뒤에서언급할 「남화통신」의주요논객으로도활약했다. 그리고원심창은동경의흑우회와흑우연맹, 조선동흥노동동맹에서활동한유명한재일한인아나키스트였다. 그는여러차례구속과석방을반복하다 1931년 4월일본을탈출해상해로망명했다. 그역시남화한인청년연맹에가입하고흑색공포단의단원으로활동했다. 원심창은남화한인청년연맹에의해시도된유길공사사건에백정기, 이강훈등과함께참가해재일한인아나키스트들을열광시켰다.⁶⁷ 이들의중국진출은 1930년대항일무장투쟁에활기를불어넣었다.

⁶⁶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363~76면.

⁶⁷ 이달은 1932년에는조선혁명간부학교의교관으로있었고 1938년에는조선혁명자연맹과조선의용대에가입해중앙위원으로활동했다. 그리고원심창은유길공사사건으로사형판결을받았으나형무소복역중해방을맞이했다(김명실『재일한인아나키즘운동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197~98면).

남화한인청년연맹은산하단체로남화구락부를두었다. 이때부터한이나나키즘운동의중심이북경에서상해로옮겨졌으며, 유자명이일하던입달학원이연맹의근거지역할을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의활동중주목되는것은국제연합전선결성에박차를가한점인데, 특히한중연합투쟁이두드러진다. 동방무정부주의연맹회원인중국인왕아초(王亞樵) 화화균실(華均實) 이이회영(李會榮)과정화암(鄭華岩)에게항일공동전선을제의해왔다. 이에호응해 1931년 10월말상해프랑스조계에서한이나나키스트일곱명(이회영·정화암·백정기등), 중국이나나키스트일곱명(왕아초·화균실등) 및일본이나나키스트전화민(田華民, 佐野)·오수민(吳秀民, 伊藤) 등이모여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을조직했다. 이연맹은 (1) 적군경기관및수용기관의조사, 파괴, 적요인암살, 중국인친일분자숙청, (2) 중국각지의배일전선을위한각문화기관의동원, (3) 이상에관한인원및경비의구체적설계등을목적으로삼았다. 항일구국연맹은선전부와연락부, 행동부, 기획부, 재정부의 5 부를설치하고우선조선을해방시킨후일본과중국각지에이나나키스트사회를건설한다는전망을가지고활동계획을세웠다.⁶⁴ 이때유자명은연맹의기관지「자유」 발간에참여했으며, 파급도이들도왔다고하나분명하지않다.

항일구국연맹은 1931년 11월중순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이라는테러단체를조직했다. 흑색공포단은“현사회의모든권력을부정하고새로운세계적인류가인생의모든방면에서자유와평등을향유할수있는새로운사회의수립”을강령으로삼았다. 이조직은국제연대의취지에맞게조선인부·중국인부·일본인부를두었고, 후에대만인임성재(林成材)와미국인존슨이합류하면서국제적연합조직으로의확대를꾀했다.⁶⁵ 흑색공포단은잠시사용한명칭으로비록외국인들이참가했으나사실상항일구국연맹같은단체였으며남화한인청년연맹의멤버들이다수를구성하고있었다. 한국측의정화암과이회영이지휘했으며, 중국측의왕아초가재정을담당했다. 이들은민족주의나공산주의계열보다소수였으나테러라는방식을통해압도적으로무력이우세한일본에저항했다. 항일구국연맹은하문과천진의일본영사관에폭탄을던졌으며, 일본국적의대형선박을공격하기도했다. 그리고일본에유화적인태도를보이던남경저부의외교부장왕정위(王精衛)에대한암살을시도했다. 하지만제 1차상해사변(1932년 2월)이일어나고, 왕아초와화균실이장계석의처남송자문(宋子文) 암살미수사건의주모자임이드러나홍콩으로도피하자연맹은무력화되었다.

⁶⁴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340면.

⁶⁵ 박환, 앞의책 136면; 김명섭 <한이나나키스트들의사상교류와반제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49집, 2006, 60면.

본이나나키스트노동운동을목격했으며, 특히공산주의노동조합과의대결에깊은인상을받았다. 그후대만으로돌아와다시민봉사民烽社를세워이나나키즘적예술론을추구했다. ‘민봉극단선언’을보면극단의목적이새로운사회를창조발전시키고“인류가마땅히지녀야할진정한생활”을추구하려는데에있음을알수있다.⁹⁵

그리고대만에거주하던일본인도원등병위(稻垣藤兵衛)를중심으로고혼연맹孤魂聯盟(1926) 같은독특한단체가만들어졌다. 고혼연맹은‘인류의집’을만들어사회운동을전개했는데, 그특징이라면허무주의가충만한단체라는사실이다. 성광사도고혼연맹의소속극단이되었는데, 장유현은“고혼이란생전에는고독하고사후에도의지할곳이없는영혼을말한다. 그비참과슬픔이마침우리들무산계급농민의현실과같다. 우리는고혼연맹을조직해광명과무산계급해방운동을추진하고자한다”⁹⁶라고말했다. 이연맹은「비대만非臺灣」(1928년 3월)을간행했다. 일본의이나나키즘단체와연락하며활동을강화하던중 1928년 7월연맹관계자가조사받고가택수색을당했다. 연구이외에뚜렷한증거가나오지않아흔적석방되었지만이때사실상소멸되었다.⁹⁷

그후창화지역의이나나키스트를중심으로전국적인조직망을재건하고중국, 일본과의연락망을갖추면서대만노동호조사臺灣勞動互助社(1929)를만들었다. 대만노동호조사는범본량의신대만안사와대만흑색청년연맹이래대만무산청년의새로운출발을알리는것이였다. 창화무산청년파는본래이나나키즘과공산주의두가지사회혁명사상이혼재되어있었다. 창화천공묘天公廟에서열린문화협회강연회에서공산주의자들이이나나키스트와의협의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행사를추진하자서로간에대립이고조되었다. 1928년말창화천공묘에서공개적인이론투쟁대회를열었는데,이나나키스트는상호부조를가지고공산주의자의계급투쟁을반대했고, 거꾸로공산주의자는계급투쟁을가지고상호부조를비판했다. 하지만이들의격렬한논쟁은감정의골만깊어진채성과없이끝났다.⁹⁸ 다음해 9월대만문화협회가창화에서연특별지부대회에서공산주의자오석린(吳石麟) 등은고의로무산청년파가회의에참석하는것을방해했다. 결국주천계(周天啓)와채정상(蔡禎祥) 등은문형을탈퇴하여자유

⁹⁵ 대만희극운동연구자양도는“장유현의일생은‘흑색청년’이나나키스트의전형적인모습을방불케했다”고평가했다(楊渡『日據時期臺灣新劇運動(1923~1936)』, 日報出版 1994, 6면).

⁹⁶ 같은책 75면.

⁹⁷ 당시일본에서발행한「自由聯盟」의〈臺灣之無產運動〉(1928. 9. 1)이라는기사에는, “대만에는자유연합주의를신봉하는조합은없으며, 오직대북인쇄공회에약간그색채가있지만그렇다고무정부주의단체라고볼수는없다. 그러나극소수이지만박해와폭압에저항하는운동이있는데, 이것이고혼연맹이다”라고보도했다(連溫卿, 앞의책 222면재인용).

⁹⁸ 王乃信等譯『臺灣社會運動史—1913~1935年』第4冊, 30면.

연합방식에 따라 별개의 아나키즘 단체인 대만노동호조사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노동호조사 참가자 대부분은 창화무산청년파로 옛 흑색청년연맹의 구성원이었다. 호조사의 이론은 비교적 정교하여 대만민중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고 전하는데, 과거의 흑색청년연맹과 호조사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두 조직간의 인과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호조사는 중국 대륙과 일본 내지의 아나키스트 단체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대륙과는 상해와 하문, 복주 등지의 아나키스트들과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들간의 교류는 문건으로도 남아 있다.⁹⁹ 예를 들어 재중국대만무정부공산주의연맹在中國臺灣無政府共產主義聯盟의 이름으로 뿌린 <6·17 대만도치정기념선언六·一七臺灣島恥政紀念宣言> (1931년 6월 17일)에서는 대만자치지방연맹의 주장을 사기라고 비난하고, 민중당이 주장하는 전민운동도 기회주의 정치운동이라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문화협회는 이미 타협적인 정당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의회 정치 아래의 무산계급 정당 주장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협내공산주의자들은 비록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지만 또 다른 제국주의자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즉 공산주의자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주장은 실제로는 독재 정치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선언문은 아래와 같은 글로 마무리한다.

우리들은 반드시 민중의 용감하고 자발적인 역량에 의존해 일체의 재야의 야심가들을 소멸시키고, 어떠한 일체의 강권과 착취가 없는 진실한 공산적 자유사회 즉 무정부공산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대만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들 폭탄의 폭음 소리는 일본 강도의 각종 정치와 경제 기구에 울릴 것이며, 반드시 자본가들은 모두 총에 맞고 칼에 죽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미래의 6월 17일은 반드시 강권계급이 공포에 떨며 죽음을 맞이하는 날일 것이며, 우리들 피압박노동자 계급이 직접 행동과 폭동 시위를 실행하는 날이 될 것이다. ... 6·17은 우리들의 행동 개시의 날이며 반항의 날이다!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날이다!¹⁰⁰

총독부가 1931년 8월 대만공산당을 일제히 검거할 때, 채추종(蔡秋宗)이라는 청년을 체포하면서 그에게서 권총과 실탄 및 대량의 아나키즘 문서들을 발견했다. 이에 일경은 대만노동호조사의 주요 인물 14명을 체포하여 법원으로 이송했다. 이때 채추종은 옥중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호조사 조직은 와해되었고, 대만내 아나키즘 세력은 급속히 쇠퇴했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이나 조선 모두 1920년대가 아나키즘 운동의 전성기였다. 1920년대 후반의 한인과 대만인 아나키즘 운동은 반전에 대

⁹⁹ 같은 책 37면.

¹⁰⁰ <六·一七臺灣島恥政紀念宣言> (1931. 6. 17) (王曉波編『(新編) 臺灣抗日文獻選』, 海峽學術出版社 1998, 313면).

을 입기도 했다. 상해에 잠시 머물다가 1927년 6월 무한으로 옮겨 중국인 과인도인, 한인등이 참여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⁵⁸에 조선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유자명은 인도인의 밀고로 한때 무한감옥에 6개월간 억류되었다.

1928년 8월 남경으로 돌아온 유자명은 마침 이곳으로 옮겨 운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인 사들을 만났으며, 저명하고 교육가인 광호생(匡互生)⁵⁹과도 친분을 쌓았다.⁶⁰ 그는 중국인 동지 진범예(陳範預)의 초청으로 천주여명중학에서 한학기 정도 수업을 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천주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만든 단련소(단련소)가 있었다. 다음해 조광호생이 창립한 상해 입달학원으로 옮겨가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는 아나키즘적 교육 방식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쳤다.

중국내 한인 아나키스트 지도자들이 다수 죽거나 체포된 상태에서 일본이나 국내에서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중국, 특히 상해로 모여 들었다.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아나키스트들도 중국 대륙으로 철수했다. 그리고 재중국 한인 아나키즘 운동의 분수령이 된 북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점증하는 일제의 압력, 위기에 처한 운동의 진로,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와의 관계 설정 등 운동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각지에서 모인 운동가 20여명이 오랜 시간 논의했다. 만주사변이 일어날 즈음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⁶¹이 결성되어 유자명을 의장으로 선출했다.⁶²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0년대 중국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한인 아나키즘 단체로 "(1) 우리 조직은 절대적으로 자유연합에 기초한다, (2) 일체의 정치운동과 노동조합 지상주의 운동을 부인한다, (3)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4) 거짓도덕적 종교와 가족 제도를 부인한다, (5)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한다"⁶³라는 강령을 걸고 자유연합사회의 실현을 추구했다.

⁵⁸ 이 단체에 대해 국제적 아나키즘 단체라는 설 (金柄珉·朱霞 <國際友人 柳子明的生平與意識世界>, 『東疆學刊』, 2004. 3) 과 중국 정부가 생활이 곤란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단련 단체라는 설 (安奇 <采寫『柳子明傳』的緣起與經過>,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2005. 1) 이 있다.

⁵⁹ 광호생은 호남성 출신으로 1915년 북경사범대학에 입학해 아나키즘 성격의 공학회 工學會를 조직하고, 5·4 운동에 참가해 조여림(曹汝霖)의 집담장을 넘은 이른바 조가루방 화사건의 주인공이다. 대학 졸업 후 장사에서 청년들을 교육하다 상해강만에서 입달학원을 창립했다.

⁶⁰ 유자명 『나의 회억』, 요녕인민출판사 1984, 11면.

⁶¹ 남화한인청년연맹에 대해서는 박환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과 그 활동>, 『한민족 독립운동사 총론』 1992; 이호룡 <일제강점기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 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제 35집, 2003 등의 연구가 있다.

⁶²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0년 4월 20일 결성되었고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조직개편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이호룡, <유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 53호, 2004, 235~37면).

⁶³ <재상해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강령규약과 선언>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 아나키즘 운동사』, 선인 2005, 162면 재인용).

3. 항일전쟁중의재중한인아나키스트

유자명: 테러활동에서무장투쟁으로

1920년대말재만한인무정부주의자연맹과한족총연합회의활동이 좌절되어만주에서의의이상촌건설운동이실패하자중국대륙에서는급진적인항일투쟁으로노선전환이이루어졌다. 그리고만주사변이터지자한인아나키스트는화북지역에항일무장근거지를만들계획을세웠다. 북경민국대학이나그들의활동이전해지는데, 유서는중국동지들과항일선전공작과동시에암살단을조직해활동을벌였으나큰효과는없었다고한다.⁵⁴ 그리고 1932년말중한의용군연맹中韓義勇軍聯盟을만들었으나열화가합락되자목적을이루지못했다. 당시한인운동가들은사람을파견해만주국의괴뢰황제인부의(溥儀)를암살하여했으나뜻을이루지못했다고전한다.⁵⁵ 1930년대에들어오면서한인아나키스트는민족주의세력에비해소수이고공산주의세력에의해영향력이약화되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일제에대항해다양한중연합투쟁을전개했다. 여기서는이시기의대표적인한인아나키스트인유자명⁵⁶을중심으로정리하고자한다.

유자명은 1919년 6월중국상해로망명했다가같은해 12월잠시서울로귀국했는데, 이즈음크로포트킨의서적을탐독했다고알려져있다. 1920년대초에아나키즘을받아들인그는 1924년봄의열단에가입해조직내연락과선전을책임지는이론가로활동했다. 그가신채호(申采浩)에게부탁해작성한〈조선혁명선언〉(의열단선언)은대표적인항일선언문으로아나키즘적급진이론을의열단에접목한것이다. 같은시기유자명은중국내최초의한인아나키즘조직인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도참여했다.⁵⁷ 그런데의열단의테러활동은다른독립운동가의반대에직면했으며, 점차공산주의색채가강화되었다. 본래아나키스트에게있어서테러같은폭력은개인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억압적이고권위주의적인제도의폭력에대한대응으로서그의미를지닌다. 의열단이상해에서광주로이동하면서개조회의가열렸지만, 유자명은아나키스트의입장을견지했다. 그는광주에서상해로돌아가는배를탔다가해적을 만나충상

한깊이있는논의, 민족주의와공산주의에대한체계적인비판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1920년대 초반의 사상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공산주의자와의 투쟁 과정에서 더욱 세력이 약화되어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소멸 상태에 놓였다는 점도 외형상 유사하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부 급진 청년들만이 참여한 데 비해, 조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하고 전투적이지 않았나 싶다. 대만 아나키스트는 무장 투쟁보다는 선전 활동에 주력했고 단체가 조직된 후에는 곧바로 탄압을 받았는데, 이는 망명하기 힘든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만은 근등헌이·암좌작태랑·산록태치 등과 같은 일본인 아나키스트의 영향은 물론, 소택일·도원 등 병위 등과 같은 대만 거주 일본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특징이 있다.

⁵⁴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386~87 면.

⁵⁵ 〈訪問范天均先生的紀錄〉,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46 면.

⁵⁶ 중국에서 간행된 유자명의 『나의 회억』 과 국내에서 원고 그대로 간행된 『한혁명자의 회억』 은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략 1945년까지는 대동소이하다. 『나의 회억』 은 독립운동 관련 내용만 편집해 발간한 것으로 1945년 이후 대만에서의 활동과 1950년 이후 대륙에서의 농학자로서의 활동 등이 생략되었다 (오강환 〈해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편 『한혁명자의 회억록』, 1999).

⁵⁷ 당시 유자명이 상해에 있어 가입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이호룡 〈유자명의 아나키스트 활동〉, 『역사와 현실』 53 호, 2004, 231 면).

제 6 장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반 파시즘 연대 투쟁과 운동의 굴절

1. 파시즘 통치하의 일본인과 재일한인 아나키스트

일본 무정부 공산당의 건설과 붕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일본 아나키즘 운동은 순정 아나키즘과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순정 아나키즘은 원칙에 반하는 불순 요소를 제거하는 부정의 논리로서, 마르크스주의 뿐만 아니라 생디칼리즘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은 자치와 자유연합을 통해 개량주의적 조합을 혁명적 조합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었다.¹ 대체로 순정 아나키스트가 산업 사회 이전의 목가적인 농촌에서 이상 사회의 모델을 발견했다면, 노동조합적 아나키스트는 산업 사회의 생산력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긍정하고 미래의 이상향을 찾을 것이다. 물론 이들 모두 중앙 집권화된 정부와 대규모의 자본에 의해 억압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노동 운동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 운동이 침체하자 아나키즘 계열의 전국 노동조합 자유 연합회(自聯)와 일본 노동조합 자유 연합 협의회(自協)는 모두 분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양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도시의 노동 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된 것과 달리 농촌에서 아나키스트 농민 운동이 활발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본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개인 간 투쟁을 강조하는 사회 다윈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크로포트킨주의의 특성은 동아시아의 사회 풍토에 걸맞았으며, 특히 도시보다 농촌을 이상화하는 경향은 일본에서 이른바 '농본적農本的 아나키즘'을 출현하게 만들었다. 보통석 천삼사랑(石川三四郎)의 사상을 농본적 아나키즘이라고 부르며, 혹은

¹ 일본의 아나키즘을 테러리즘, 크로포트킨주의,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게 도식화한 견해가 있다. 그래서 대삼영(大杉榮)의 사상을 좌파 크로포트킨주의라고 하고, 암좌작태랑(岩佐作太郎)·팔태주삼(八太周三)의 사상을 우파 크로포트킨주의라고 구분하기도 한다(大澤正道『アナキズム思想史』(龜田博〈アナキズム運動史, 參考文獻·讀む〉14면 재인용)).

시아문제가기도 했다.⁵⁰ 파금은 스페인 전쟁을 보통 내전이 아니라 파시스트 독재에 대한 전체 인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판단해 스페인 아나키스트의 영웅적 투쟁을 선전함으로써 중국인의 항일 정신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항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⁵¹ 특히 이 혁명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아나키스트들이 생산을 효과적으로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어 그로서는 아나키즘의 실험장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⁵²

전쟁의 와중에도 파금은 『크로포트킨 전집』과 바쿠닌의 저작 등을 출판해 여전히 아나키즘 이론을 소개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었다. 1938년에는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만인의 안락〉을 번역했고, 1940년에는 『크로포트킨 자서전』 『러시아·프랑스 옥중기』 『빵과 자유』 『전원·공장·작업장』 『윤리학의 기원과 발전』 등을 출판했다. 이 시기에 나온 ‘크로포트킨 전집’(10권) 가운데 파금이 직역한 책이 무려 다섯 권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그가 크로포트킨을 존경하고 크로포트킨주의 자임을 자부하는지 알 수 있다.

1920년대의 청년 파금은 애국주의 야말로 인류 진화의 장애이며 정부는 인민의 고난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귀국한 이후 1930년대에 들어와 점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일 전쟁 8년 동안 중국의 각지를 전전하며 목격한 파괴와 살육은 국가와 전쟁에 대한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최고로 고양되던 전쟁의 와중에도 파금은 아나키스트로서 국제주의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고, 각 민족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궁극적 이상이라 여겼다.⁵³ 그는 인류 역사의 발전은 정의의 위대한 투쟁의 역사라는 인식 아래 항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우리는 파금을 아나키즘의 보편성과 국제주의를 죽을 때까지 유지한 인물로 평가한다.

⁵⁰ 齊藤孝編 『스페인 내전 연구』, 형성사 1981, 328면.

⁵¹ 박난영, 앞의 책 169면.

⁵² 아나키스트에게 스페인 내전은 산업 단위로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여부를 실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스페인 내전에서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을 연구한 루돌프 로커는 “아나키즘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위대한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라고 평가했다(Rudolf Rocker, Anarcho-Syndicalism, Pluto Press 1989(1938년 초판)).

⁵³ 박난영, 앞의 책 177~78면.

에게칭신하거나공납하도록만들지않을것이다.”⁴⁴ 이처럼그들은항일 민족해방전쟁과아나키즘혁명을통일시켜인식했다.

‘전면항전’은전민이항전을실현해야만전민이자유로울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을항일전쟁이정부간의전쟁이아니라전민민의항전이라는전제아래“항전의승리는인민에게자유를주기위한것이며, 적어도민주의 자유를실현하는것”⁴⁵이라고정의했다. 그들은전쟁시기에는“민권을강화한조직만이험난한혁명공작을담당할수있으며, 이것이우리아나키스트들이항전투쟁에서투쟁의일원으로서최대의임무”라고말했다. 어떠한혁명공작도민중으로부터분리된다면, 더욱이무산의노농민중으로부터분리된다면성공할수없다고보아조직강화를아나키스트의최대임무라고인식했다. 「경칩」의편집자들은자신들이국가주의자들과는다르고공산당의정책에도불만이있다고말하지만항일민족통일전선의일원임은기꺼이인정했다.⁴⁶ 아울러국민당도정책을바꾸어항전을촉진하라고주장했다. 당시일부아나키스트들은여전히반전입장을고수했고, 다른일부아나키스트들은국민당과의합작을견지했다. 「경칩」은 1939년에정간되었다.

노검파는성도에서다시「파효破曉」잡지를펴내어 1941년까지출판했다. 「경칩」이주요항전을주장했다면, 「파효」는사회개량특히부녀해방을주장했다. 「파효」에서는아나키즘의이론과현실의차이를일부인정하면서아나키즘혁명의즉각적인실행을유보하고사회개조와정치자유를주장했다. 「경칩」과「파효」는 1949년이전에나온중국아나키스트최후의영향력있는잡지로알려져있다.⁴⁷

한편파금은 1937년말부터 1939년초까지대여섯종의‘스페인문제총서’⁴⁸와스페인내전을소개한화보『스페인의여명』『스페인의피』『스페인의고난』『스페인의서광』⁴⁹을번역출판했다. 이처럼스페인문제에 주목한가담은당시의국제정세와관련이있었다. 즉 1936년 10월부터 1937년 11월사이에일본과독일및이탈리아는방공협정을체결했고, 스페인내전에서승리한프랑코정권도이에가세하면서세계적인차원에서파시즘의결합이나타났다. 따라서스페인내전은이제유럽뿐만아니라아

토민철학土民哲學이라고도불렸다. 그는“진화론, 생존경쟁론이생겨난이래문명의이상은‘자연의정복’에있었다. 자연의정복은곧땅의파괴이다. 땅의파괴는곧우리자신의파괴이다. 문명생활이인간생활의퇴폐를초래하는가닭은바로거기에있다. 문명생활은바로땅에대한반역이다”²라고말하면서“토민의최대이상은자신과동료의자유이다. 평등의자유이다”라고선전했다.³ 이런경향은암좌작태랑이나다른아나키스트에게서도나타났다.

그런데 1920년대후반아나키스트의농민운동은순정아나키즘의영향으로매우급진적이었다. 예를들어도시의노동자를포함해도시는농촌을착취한다고본다든지, 혁명운동의주력을농민으로보고장래사회의기초를농민으로삼는다든지, 자급자족을추구하며도시의폐지를기다린다든지하는주장들이팽배했다.⁴ 이런생각은크로포트킨이말한지주와국가, 은행가, 상공업자들이농민을착취한다는주장을더극단으로몰고간것으로보인다. 하지만크로포트킨은도시나노동자에대한반감은없었으며, 농업과공업의조화로운발전을낙관했다. 1930년대에들어와서일본의농본적아나키스트가운데일부에게존의반도시적태도를비판하고대중투쟁을중시하는흐름이나타났다.

영목청지(鈴木晴之)를비롯한 14명의아나키스트가 1931년 2월 농촌청년사제 1 차회의를열고, 그해 6월「농촌청년」을창간했다. 이들은순정아나키스트를관념론자라고비판하고운동가들이농촌으로내려가토지를점수하고지주를추방한후도시의자본주의경제와관계를끊자고했다. 지방에서자치조직을결성한후국가권력과싸우자는것이다. 농촌청년사의아나키스트는기존조직론에도비판적이어서자주적인행동을강조하며이미결성된조직의해체를주장했다. 이른바“필요에따라모이고끝나면해산하자”는것으로, 이것을“아래에서위로, 주변에서중심으로의부정! 결성에서분산으로! 집중에서자주분산행동으로!”라는명제로요약했다. 이들은각지역의연대와동시다발적봉기를통한혁명을추구했으나, 제 1차농촌청년사사건(1932년초)이일어나자그해 9월자진해산했다.⁵ 이사건후농촌중심에서탈피하여다시노동자중심으로운동방향이전환되었다.

⁴⁴ 尹立芝 〈以戰爭去反對戰爭〉, 「驚蟄」第 2 卷第 1 期, 1938. 1(위의자료집 877~78 면).

⁴⁵ 吳漣 〈抗戰諸局面〉, 「驚蟄」第 2 卷第 4 期, 1938. 4(위의자료집 879 면).

⁴⁶ 胡慶雲, 앞의책 328~29 면; 路哲, 앞의책 327~33 면참조.

⁴⁷ 蔣俊·李興芝 『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 山東人民出版社 1991, 84~87 면.

⁴⁸ 스페인문제총서에는『스페인의투쟁』(1937), 『전사두루티』(1938), 『스페인』(1939), 『한국제지원병의일기』(1939), 『스페인의일기』(1939), 『바르셀로나의 5 월사변』(1939) 등이있으며, 대부분파금이번역했다(李濟生編著, 앞의책 82 면).

⁴⁹ 加斯特勞等 『巴金選編配文反法法西斯畫冊四種』,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5 참조.

² 가노마사나오, 김석근옮김 『근대일본사상길잡이』, 소화 2004, 231~32 면재인용.

³ 三原容子 〈農本의 아나키즘과石川三四郎〉, 『日本教育史論叢 — 本山幸彦教授退官記念論文集』 1988, 487 면.

⁴ 三原容子 〈戰前 아나키즘運動의 農村運動論 1 — 自連派〉, 『京都大學教育學部紀要』 第 31 號, 1985, 98 면.

⁵ John Crump, 碧川多衣子譯 『八太舟三と日本のアナキズム』, 青木書店 1996, 198~206 면.

일본아나키즘운동에운동도비교적활발했다. 공산주의자와프롤레타리아문제논쟁을벌인아나키스트들은신거격(新居格)과추산청(秋山淸)등을중심으로「문예해방」을통해정치운동을배격한문예해방운동을전개했다. 이들은볼셰비키의정치주의문학이나부르주아의탐미주의문학도아닌인간의근본에입각한인간성해방의문학을제창했다. 전국적인조직망을갖춘해방문화연맹(1933년12월)을결성하여다른아나키스트진영에적지않은자극을주었는데, 이연맹은아나키스트세력의통합과농촌운동의자립화에노력했다.⁶

한편일본아나키즘단체의통합움직임이1932년여름부터나타났다. 자련은일상투쟁의강화를통해관념적편향을극복하고경제투쟁의중요성을다시강조하는쪽으로노선이정리되었고, 자협역시노동조합제일주의의한계때문에운동이침체된점을인정했다. 이들은자유연합주의를재확인하고, 전략전술의확립이필요하다는대공동의인식을가지고통합작업에박차를가했다. 결국1934년자협이자련에정식복귀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⁷ 그런데자협의자련으로의복귀선언으로노동운동의활성화를기대했으나여전히통합조직은노동자로부터고립되어고전을면치못했다.

1931년부터1945년까지15년간은전쟁시기이다. 일본의과시즘세력은1931년의만주사변을시작으로1937년의중일전쟁을거쳐1941년의태평양전쟁까지전쟁을계속확대해나갔다. 특히만주사변의발단은일본의군국주의가본격화하는사건으로일본아나키즘운동의전환을가져오는중요한사건이었다.⁸ 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이나대만에서의아나키즘운동도만주사변의전개와더불어쇠퇴했다. 1929년11월조선국내에서비밀리에결성된전국적아나키스트조직인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동맹은1931년초일경의해동맹의존재가발각해체되면서운동은급속히쇠퇴했다. 1930년대이후에는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의잡은충돌이일제당국에게탄압의빌미로작용했으며, 독서회활동및출판활동으로겨우명맥을유지했다. 대만역시대만총독부가1931년8월30일대만공산당을일제히검거할때, 한청년을체포수색하는과정에서대만노동호조사의존재를알아냈다. 이때일경은대만노동호조사주요인물을일제히검거하여사실상대만내아나키즘운동은소멸했다.⁹

⁶ 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독립운동 — 일본에서의투쟁』, 이학사 2008, 258~59면.

⁷ 小松隆二 『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 靑木書店 1972, 217~19면.

⁸ John Crump, "The Anarchist Movement in Japan", ACE Pamphlet, No. 8, Pirate Press 1996, 8면.

⁹ 출고 <1920년대대만내아나키즘운동에대한시론>, 「동북아문화연구」 13호, 2007, 293~94면참조.

토론이일어나는계기를제공했으며, 결국일부아나키스트들이국민혁명에참가하는결과를가져왔다. 노검파는민봉사말고도중국소년무정부주의자연맹과공단주의연구회를조직했으며, 파금지립다수의아나키즘관련저작들을번역했다. 「민봉」이장개석과국민당에대한반대와외국합작비판으로1928년말금지당하자노검파는성도로이주하여활동을계속했다.

노검파는사천성에서항전시기아나키즘운동의대표적간행물인「경칩驚蟄」(1937년4월)을장이겸(張履謙), 모일파(毛一波)등과함께창간했다. 이잡지는전쟁중아나키스트의정치적관점의변화를읽을수있어유용하다. 오랫동안아나키스트들은그들의이상을현실에어떻게적용할것인가에대해고민해왔는데, 「경칩」의내용을살펴보면이와같은논란에대한초보적인결론을발견할수있다. 노검파는“아나키스트는그들의원칙을사회각계층에침투시키기위해, 각방면의구사회의세력을일소하기위해순수한아나키스트조직내에서만국한해공작해서는안된다. 아나키스트들은반드시암흑의세상으로나아가야하며, 반드시대중에게로나아가야한다”⁴²고주장하면서, 정치투쟁을반대하는구호를거두어들이고정치투쟁을이용해자유를쟁취해야한다고선전했다.⁴³ 사천의아나키스트들은당면한가장절박한문제가민족의생존이라는데에인식을같이하면서, 과거의원론적인태도를버리고현실투쟁에투신할것을역설했다.

「경칩」은항일전쟁에대해서도적극적인입장을취했다. 여기서아나키스트는모든전쟁과군대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단지침략자와압박자가발동한전쟁에대해서만반대할뿐, 반침략과반압박의전쟁에는찬성한다고했다. 따라서각정파가연합해항전하는것에동의하면서전쟁으로전쟁을반대한다는전략을채용했다. 이에따라「경칩」은‘항전제일’과‘전면항전’이라는두가지구호를제창했다.

‘항전제일’은혁명전쟁으로침략전쟁을반대하자는것이다. 그들은자신들의항전이민족주의자의항전과는분명히다르다고구분했다. “첫째, 우리들은이번일본의중국에대한침략은완전히자본제국주의사회발전의필연적인추세라고인식한다. 따라서중국사회가자본제국주의의길로나아가지않도록해야한다. 우리들의항전은세계혁명을위한항전인것이다. 둘째, 우리들은분명히세계혁명을위해전쟁에참여하므로말할필요도없이전쟁중에약간이라고‘민족영웅’을만들어대중을노예화하거나대중을압박하지않을것이다. 더욱이우리들은일본제국주의를악마의궁전에서축출한후에도중국의마왕을다시제위에올리고대중들로하여금그

⁴² 盧劍波 <工作的態度>, 「驚蟄」第3卷第1期, 1939(위의자료집 1021면재인용).

⁴³ 黎民 <無政府主義與中國抗戰>, 「驚蟄」第3卷第5期(위의자료집 889~96면).

행들을 열거하면서, 산천균이사회주의외투를벗고낭인의본모습을드러냈다고비판했다. 또한친구인무전박(武田博)에게보내는〈일본친구에게〉, 석천삼사랑에게보내는〈존경하는벗에게〉등의글을연달아써서일본지식인의자기반성을촉구했다. 뿐만아니라중국의항전과조선의독립을동일한문제로서여겨한인이나키스트와독립운동가들에게아낌없는성원을보냈다.

상해를침략한일본인은“하나도남김없이중국을타도하자”라고했다. 그러나우리는침략자를우리의국경밖으로쫓아내기만하면된다. 또한조선은자유를얻어야하며조선의독립은우리항전의결과가운데하나가되어야한다. 현재조선의형제들이우리의항전에참가하고있기때문에장차우리도그들이자유를얻는것을도와줘야한다. 조선을다시중국의보호에두려고생각하는것은극단적국가주의자의몽상이다. 극단적국가주의자의견해는침략자나다를바없기때문에우리는그들의관념을바로잡아주어야한다.³⁹

파금이쓴‘항전삼부곡’의제1부인『불』에서도유자명을비로한상해한인독립운동가의잔영이질게깔려있다. 이미오랜동지적관계를맺고있던유자명도파금이항전간행물「눌함吶喊」「봉화烽火」를창간했을때〈중국동포에게고하는글〉을게재했고, 여기에는남화한인청년연맹의간행물「남화통신」의내용들이소개되었다.⁴⁰ 파금은중국이라는국가의한계를넘어서일제에저항하던한인이나키스트들과연대를도모했다. 그는1930년대의국제정세를파시즘대반파시즘의구도로읽고있었다.

항일전쟁시기중국이나키스트의전쟁관을알기위해파금말고도주목할만한또다른사람으로는노검파가있다. 파금과매우절친했던노검파는사천출신으로5·4운동시기에아나키즘을받아들인후남경에서「민봉」(1923)을창간했다. 남경시절의「민봉」은주로국제아나키즘을선전하고군벌정부를비판했다. 얼마후상해에정착해다시「민봉」(1926)을부활시켰는데, 이시절의「민봉」은아나키즘을선전하면서도정치적으로국민당과공산당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두었다. 민봉시절노검파는아나키스트들의원칙주의를겨냥해“야심을가진정당들은서로정권을투쟁하고있는데, 그들(아나키스트)은이른바고답파로정치물문지않는다. …또한정치투쟁에도참가하지않는다. 실제로정당들이서로정권을다투는시대에그들은여전히한무리의방관자”일뿐이라고자기비판한바있다.⁴¹

민봉사는미국의엠마골드만, 프랑스의장그라브·폴르클뤼, 일본의산록태치·암작태랑등과연락하고있었다. 그회장그라브는아나키스트가실제문제에주목하도록제안하는글을써서‘아나키즘과실제문제’란

일본본토의아나키스트가운데일부는운동의침체원인을강력한지도조직의부재에있다고판단하고노동운동과농민운동, 문예운동등을통제할중앙집권적조직이있어야한다고생각했다. 특히테리리즘경향이강했던이견민웅(二見敏雄)은무조직과무계획의방침은낡은방법이라며방법론적수정을제기했다. 이에따라1933년12월초이견민웅과상택상부(相澤尙夫), 입강범(入江汎), 식촌체(植村諦), 사미실(寺尾實)등은일본무정부공산당日本無政府共產黨(1934년1월30일)의전신인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日本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을결성했다. 이단체는중앙집권적조직을추구하고민중독재론을인정하는등이전에없었던조직형태를취했다.¹⁰ 이런변화에는1930년대초유럽에서반파시스트전선으로결성된프랑스와스페인의인민전선활동이알려지면서영향을받은측면이있을것이다.

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은곧이어일본무정부공산당으로명칭을변경했다. 연맹은자율자치적이상사회로나아가기위한방안으로중앙집중화된지도조직이필요하다는주장을제기했다. 이들은종래의무조직, 무계획적인활동방침과종파주의활동을비판하고, 강제력있는중앙조직과계획적전술을채용하는이른바방법론의수정을제안했다. 현재의정치상황이언론과출판, 집회, 결사의자유가봉쇄된파쇼시대이므로혁명운동에필요한강력한비밀결사가필요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일본무정부공산당은평상시에는아나키즘사상을선전계몽하고노동자농민의경제투쟁을지도하여이들을정치투쟁의장으로끌어올리고자했다. 그리고사회혁명의시기가도래하면지도부를결선행해무산대중들을일거에무장봉기시켜혁명을수행한다음, 권력주의자들의반혁명기도를저지하며혁명적코민을수호해야한다는방침을세웠다. 그들은모든권력은경제적기초와대중적지지가필요한데, 권력이란꾸준히강화되고영구화하려는경향이있으며, 권력의강화란집중의해이루어진다라고보았다. 프롤레타리아국가도권력의강화로소수자에게집중하며, 경제적발전을기초로영구화하려한다고생각했다. 이런권력의모순은점진적발전을통해해결할수있는데, 레닌의말처럼어느시점에사라지는것이아니라인민의부단한투쟁을통해폐기된다고했다. 비약없는권력의소멸은없다는것이다.¹¹

중앙집행위원회가만든당의강령(1934년9월)에는여덟가지의내용을담고있었다. (1) 권력정치와자본제의폐지, (2) 완전한지방자치제의확립, (3) 사유제의폐지, (4) 생산수단과토지의공유, (5) 은행제도의철폐, (6) 노동자농민의생산관리, (7) 교육문화의향유, (8) 인위적인국경의철폐등이그것이다.¹² 이들은중앙집행위원회-지방위원회-지구위

³⁹ 巴金〈國家主義者〉, 『巴金全集』第13卷, 240~43면.

⁴⁰ 류연산, 앞의책 312면.

⁴¹ 〈無政府黨人在時代中〉, 『民鋒』第3卷第2期, 1928(蔣俊〈盧劍波先生早年的無政府主義宣傳活動記實〉,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1020면재인용).

¹⁰ 小松隆二, 앞의책 232~34면.

¹¹ 〈日本無政府共產黨〉(1935).

¹² 秋山清『日本の反逆思想』(秋山清著作集)第2卷, 株式會社ぼる出版 2006, 190면.

원회순의조직체계를갖추고중앙집행위원회내에는서기국과정치국, 조직국, 군사국, 재정국을설치했다. 비록중앙집권조직을만들었지만조직내의자유로운발언은허락되었고, 의사결정은만장일치의원칙을기본으로삼았으며, 다른조직에결정을강요하지않는자율원칙은유지하기로합의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관동지방위원회와관서지방위원회를차례로결성하고, 합법적조직활동이외에도비합법적자금모집활동도전개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내부의반발에도불구하고운동자금과무기구입을위한비합법운동을위해특무기관을설치하기로했다. 이에따라일부당원들은은행과우체국을습격했다. 중국에서간행한 「남화통신南華通訊」(1936년 1월)에는〈일본무정부주의사건〉이라는제호아래, “(일본무정부공산당은) 첫째로자금조달을위해동경, 대판등의은행과우체국을습격하고, 둘째로일본, 중국각중요도시를활동무대로하여국제조직을결성한후자본주의제국주의타도와민중혁명을촉성할것등을결정했다. 이에따라작년 11월 1일일본동경의신정은행과대판은행을습격했으나실패하여많은무정부주의자들이검거되었다. 이사건으로인해극비리에준비중이던대사건이사전에발각되었다”¹³라고전하고있다. 이처럼일본경찰은일본무정부공산당의존재를파악하고 1935년 11월부터관련자 400여명을일제검거하면서조직이와해되었다.¹⁴

한편 1935년 11월부터 1937년까지몇차례에걸쳐제 2차농촌운동사건이일어나약 300여명의농민운동관련아나키스트들이구속되었다. 이들은과거와달리‘아래로부터위로’혹은‘주변에서중심으로’라는자유연합의원리를비판하고, ‘현縣의일은현縣에서’혹은‘마을의일은마을에서’라는자주분산을주장했다. ‘농민속으로’가아니라‘농민속으로부터’라는그들의생각은비밀결사같은조직형태를부정했음에도불구하고, 일본정부로부터전국적인비합법결사로규정되어대대적인탄압을받았다.¹⁵

1930년대에들어와도시의노동운동, 농촌의농민운동및일본무정부공산당의건설과붕괴는전반적인일본아나키즘운동의쇠퇴를가져왔다. 특히일본에서나타난충격적인현상은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대량사상전향사태였다. 1933년 6월일본공산당의지도자좌야학(佐野學)과과산정친(鍋山貞親)의전향성명이후일본공산주의자의이른바‘전향의논사태현상’이나타났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의궤멸후아나키스트의대표인물가운데한사람인암좌작태랑의전향선언도큰충격을주었다.

¹³ 〈일본무정부주의사건〉, 「南華通訊」第 1 號, 1936. 1.

¹⁴ 김명섭 〈한일아나키스트들의사상교류와반제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49 집, 2006, 57~58 면.

¹⁵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篇)』, 형설출판사 1978, 422 면.

중국인아나키스트의항일전쟁관

1930년대는전세계적으로이데올로기의시대였다. 각종이데올로기의모순이적나라하게드러난곳이바로스페인내전이였다. 이내전의특징이라면아나키스트사회주의자및공산주의자들이함께인민전선을형성해반파시즘투쟁에참가하면서공화파내각을수립한사실이다. 아나키스트입장에서보면이내전은대규모로아나키즘이상을실험해볼수있었던장이였다. 일반적으로아나키스트는민중주의자와공산주의자와의연합을의미하는통일전선에비판적이였다. 그러나 1935년제 7차코민테른대회에서국제반파시즘노선과인민전선전술이채택되고 1936년 2월스페인에서인민전선이선거에승리했을뿐만아니라, 6월프랑스에서도인민전선정부가수립되자생각이변화가일어났다.³⁷ 특히스페인내전에서아나키스트들이인민전선에참여해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보면서크게 고무되었다. 스페인아나키스트의노선변화는지구의반대편에있던중국의아나키스트들에게도민중주의와공산주의를배격하던태도를바꾸는전기를마련했다.

스페인에서독일과이탈리아의지원아래프랑코(F. Franco)가군부쿠데타를일키자내전으로발전했다. 이내전에다수의아나키스트가참가했다는사실은원론적으로반전의입장을지지하던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항일전쟁에참가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쳤다. 아나키스트는원칙적으로전쟁에반대하지만약소민족의제국주의에대한해방전쟁까지반대하지는않는다고생각하게되었다. 전쟁이라는극단적인상황이변화할수없는것처럼보이던아나키즘의반전원칙을순식간에바꾸어버린것이다. 파금에게도이러한변화가나타났다.

1937년노구교사건이발발하자, 파금은“나는아나키스트이다. 어떤사람은아나키스트가전쟁에반대하고무력에반대한다고말한다. 이것은반드시옳은일은아니다. 이전쟁이강권에반대하고침략에반대하기위해일어난것이라면, 이무력이민중을옹호하고민중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 아나키스트도전쟁에참가하고, 무력을사용해야한다”³⁸고선언했다. 파금은식민지가제국주의로부터해방되기위한전쟁, 약소민족이강대국에반항하는전쟁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다면서일본민중들도적을분명하게인식해야하며중국의형제와전쟁을해서는안되고먼저국내의적을타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

파금은일본의저명한사회주의자산천균(山川均)이석방된뒤갑작스레전향한후발표한〈지나군의야만성〉(1937년 9월)을읽고분개했다. 그는〈산천균선생에게〉라는글을통해일본군이중국에서일으킨만

³⁷ 한상도 〈유자명의아나키즘이해와한중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7 권 1 호, 2008, 150~51 면.

³⁸ 바금 〈只有抗戰這一條路〉, 『巴金全集』第 12 卷, 544 면.

1930 년대에도 에스페란토 운동은 여전히 아나키즘 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상해에서 육식해와 구성백, 황존생(黃尊生) 등은 중국 세계 어학회(1931년말)를 만들어 전국 규모의 아나키스트 조직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오치휘와 이석중, 채원배(蔡元培)의 지원을 받아 각 지역 대표자 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세계 어학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단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 1930 년대에 광주 지역의 에스페란토 운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광주 세계 어학회는 담록 단踏緣團과 소식회 素食會, 윤교단 輪教團 등을 만들어 에스페란토 선전과 동시에 아나키즘 활동을 펼쳤으며,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국민당과 연계해 에스페란토 번역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1931년에 광주에 온 일본 아나키스트 원내량인(原奈良人, 중국명 林盛之)의 에스페란토 전파 활동도 전해진다.³⁴

1934년 11월 일본에 건너간 파금은 잠시 석천삼사(石天三事)를 만나기도 했다. 석천삼사(石天三事)는 1927년 상해 노동대학 부교장이었던 심중구³⁵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상해 노동대학에서 산록태치(山鹿泰治), 암좌작태랑 등과 함께 강의를 했다. 상해 노동대학에 3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서양 사회 운동사를 가르쳤으나, 당시 파금은 프랑스에 있었기에 그를 만나지 못했다. 1933년 석천삼사(石天三事)가 두 번째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파금은 처음 그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 후자는 중국의 양심을 대표하는 파금과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석천삼사(石天三事)의 이 만남을 주목하기도 한다.

1935년 8월 일본에서 귀국한 파금은 문화생활출판사³⁶의 편집을 맡아 『문학충간』과 『문화생활충간』을 출판했다. 특히 문화생활충간 시리즈의 초기 책들은 아나키즘과 관련 있는 것이 많다. 본인이 저술하거나 번역한 『옥중기』 『러시아 허무주의 운동사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파금은 버크먼의 『옥중기』 같은 저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야기를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았다. 즉 “진정한 혁명가의 일생은 그의 생명으로 인민의 희생을 대신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은 없다. … 혁명가의 생명은 인민에게 속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생활과 향락을 즐길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파금은 버크먼의 순교자적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격에 크게 감화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³⁴ 王炎 〈無政府主義與世界語〉, 『廣州文史資料』 第 5 輯, 1962, 549~52 면.

³⁵ 심중구는 5·4 운동 시기부터 절강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였으며, 국공합작 시절에는 아나키스트의 국민당 가입에 불만을 품고 오치휘와 논쟁을 한 바도 있다. 그는 일본과 독일 을 유학하고 귀국해 상해대학, 상해 노동대학, 입달학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석중이 지원하던 『革命週報』가 창간되었을 때 잠시 주편을 맡았다. 그는 유자명과도 친분이 깊었던 인물이다.

³⁶ 문화생활출판사에 대해서는 李濟生 編著 『巴金與文化生活出版社』, 上海文藝出版社 2003 참조.

암좌작태랑은 대삼영을 이은 순정 아나키즘의 지도자였으나 『국가론 대강』(1937년 2월)을 발간해 기존 사상에서 크게 변화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우선 국가와 천황을 부정했던 종래의 입장을 공개 비판하고, 일본은 서양이나 중국과 달리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자연생성적인” 특수관계라고 인정했다. 때문에 통치자 인 천황과 피통치자인 국민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상적인 일본 국가가 형성된다는 주장을 폈다.¹⁶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비판했던 아나키스트가 가족제도의 외연적 확대를 천황제 체를 받아들인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후자는 암좌작태랑이 적극적으로 친정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전후 일본 아나키스트 연맹에 참가한 사실을 들어 그의 전향은 위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어쨌든 그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실은 분명하다.¹⁷

그밖에 일본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한때 아나키스트였던 가등일부(加藤一夫)의 전향이었다. 그는 1920년대 전반 일본 사회주의 동맹의 발기인이자 아나키스트 단체 자유인 연맹(自由人聯盟)의 중심 인물이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농본주의를 주장하다가 갑작스레 1930년대 중반에는 천황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가등일부는 서양의 물질문명보다 일본의 정신문명이 우월하며, ‘일본신앙’과 ‘천황신앙’을 제창했다. 여기에는 농촌 농업 중심의 일본적 특징으로도 시공업적 서양 문명을 비판하는 농본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¹⁸ 즉 농촌 자치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전향의 논리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나키즘 운동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일본 무정부 공산당과 농촌 운동사 및 해방 문화 연맹의 해체로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였다. 일본 정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재일한인 아나키스트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선택의 기로에 섰던 아나키스트

일본은 구미 제국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에 대항해 아시아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대동아 공영권을 선전했다. 이러한 파시즘적인 아시아주의에 대해 일본과 전쟁 중이던 중국은 물론 식민지 한국과 대만의 민족주의자들이 운데 일부가 현혹되어 동참했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들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투쟁했다.

¹⁶ 김명섭, 앞의 책 278 면.

¹⁷ 秋山清 『反逆の信條』, 北冬書房 1973, 259 면.

¹⁸ 三原容子 〈加藤一夫の思想 — アナキズムから天皇信仰への軌跡〉, 『社會思想史研究』 第 14 號, 1990 참조.

재일한인이나키스트단체후우연맹은일본은물론중국의아나키즘운동과도유대를강화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양여주(梁汝舟)의요청에호응해후우연맹회원인이종봉(李鐘鳳)을상해로파견하기도했다. 그들은「흑색신문」창간호(1930년 8월 1일)에“불합리한현사회에대하여혁명적행동으로돌진하라”는표제를달았으며, 중국의한인이나키스트활동에대한기사를자주게재했다. 후우연맹과아나키즘계열의사상단체들은만보산사건(1931년 7월)이발생하자일제의중국침략을규탄했다. 상해에서유길명(有吉明) 암살미수사건(1933년 2월)이발생해원심창(元心昌) 과백정기(白貞基), 이강훈(李康勳) 등이제포되자이들에대한구원운동도전개했다. 「흑색신문」은일제의아시아침략을규탄하고한중양민족의궤기를촉구하는등다양한선전사업을전개했으나, 신문을출판하는즉시압수되는과정을반복하다가결국 1935년 5월폐간되었다. 비슷한시기홍성환(洪性煥) 과한하연(韓何然) 을중심으로자유코문사가만들어져「자유코문」(1932)을발행했으나, 얼마지나지않아역시자금난으로폐간되었다.

1920년대후반재일한인이나키즘단체는노동조합적아나키즘이나니라주로순정아나키즘의입장을견지했다. 하지만자원이모든노동자가협력하여자본가계급에대한대중투쟁에나서야한다면서일상투쟁을중심으로투쟁해야한다고주장하자, 한인사회에도영향을미쳤다. 1930년대재일한인사상단체의세력은과거보다약화되었지만한인노동자가늘어나면서상대적으로노동운동이활발했는데,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의활동이대표적이다. 이동맹은중앙집권조직을배격하고자유연합주의를고양했으며정치운동을배격한노동계급의해방을추구했는데, 점차노동조합적아나키즘의색깔이두드러졌다. 이에비해순수사상운동의중요성을강조해왔던후우회와후우연맹및조선자유노조를중심으로한한인들은순정아나키즘의입장에서있었다. 일본노동단체의통합분위기에힘입어한인노동단체들도통합운동에활기를띠기시작했다.¹⁹ 1934년 1월에는재일한인의대표적인아나키즘단체‘조선일반노동조합’을결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의경우처럼재일한인노동운동은침체에서벗어나지못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한인사회에도조직을확대했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조선인부를설치하고조선동흥노동동맹과조선일반노조, 조선합동노조등 3개의노동단체를통일시키고자했다. 하지만한인노동단체의통합은실패했다. 그나마조선동흥노동동맹의한국동(韓國東) 과이동순(李東淳) 이나후우연맹의홍성환과진록근(陳綠根) 등이일본무정부공산당에가입하는성과가있었다. 이것은재일한인이나키스트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는데, 중앙집권론적조직론과민중독재론이출현한것이

테러를찬성하지않아서아나키즘과테러리즘을직접연결하는시도에는반대했다. 물론소설속테러리스트의영웅적희생정신에강한애정과동정심을품은것은분명하다. 이로인해행동이결여된아나키스트라는자책과고통이파급의전반기인생을관통하고있었다.

일본본토의경우일본무정부공산당같은활동이 1930년대중반까지전개되었으나중일전쟁의발발과더불어거의자취를감추었다. 이와달리중국대륙에서는비록세력이약화되었지만꾸준한활동이이어졌다. 전시상황에서국민당정권의사상통제가강화되자대부분의아나키즘잡지들은출판금지처분을받았다. 아나키즘을선전했다는이유로금지된서적이나잡지로는「동방」『최근베를린에서열린제 4 인터내셔널에대한연구』「무정부공산월간」및파금이편역한『자본주의에서아나키즘으로』등이있다.³¹ 그럼에도불구하고 1930년대의운동은“실과같이끊어지지않은채”계속이어졌다. 양빙현(梁冰弦) 과정패강(鄭佩剛) 은상해에서「회명월간晦鳴月刊」(1930년 8월)이라는사회문화잡지를출간했으나곧정간당했다. 같은해여름정패강과노검파(盧劍波), 파금, 위헤림등중국의아나키스트 10~20여명은항주서호에모여아나키즘선전문제를고민했다. 이회의를통해「시대전時代前」이라는문학을위주로하되아나키즘도선전하는월간지를출간하기로결정하고, 파금과위헤림이주편을담당했다. 파금의친구위헤림은산서출신으로일찍이일본으로유학가서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문학부사회철학과를졸업했다. 그는파금과함께프랑스유학중‘아나키즘과실제문제’토론에참가했으며국제적인아나키스트와도교류가있었다.³² 이들이편집한「시대전」은 1931년 초상해에서창간되어불과 6호만을출판하고정간되었다.³³

파금의다양한문학창작활동은따로언급하지않겠지만그의대표작『가』를비롯한대부분의문학작품속에아나키즘의영향이질게베인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뿐만아니라에스페란토작품의번역과소개에도많은관심을기울였다. 프랑스에서귀국하자마자상해에스페란토학회에가입한그는얼마후이학회의이사로선임되었다. 대표적인에스페란토잡지「녹광」에〈에스페란토문학론〉을발표한바있는파금은 1932년 2월에이잡지의출판을맡았다. 이시기에에스페란토로많은글과작품을번역해발표했다.

³¹ 胡慶雲『中國無政府主義思想史』, 國防大學出版社 1994, 314 면.

³² 위헤림은「學叢」와「民鋒」등에많은글을투고했다. 1928년복건성천주의여명고중에서교편을잡았으며 1930년대초파금과「時代前」을편집했다. 그는중앙대학사회학과교수로재직했고, 항일전쟁시기에는국민당활동에참여하는한편변정학연구에몰두했다.

³³ 鄭佩剛〈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事實〉, 葛懋春·蔣俊·李興芝編『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70 면.

¹⁹ 구승회의『한국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245 면.

년귀국후 1930 년말까지그는문학창작보다는번역에더욱심혈을기울였다.²⁷

파금은청년시절부터유서(柳絮), 심여추(沈茹秋), 유자명등과같은한인이나키스트와친밀한관계를가진것으로도유명하다.²⁸ 대표적인한두가지사례를소개하면아래와같다.

우선파금이 1925 년경북경대학입시를준비하기위해북경에갔을때「학취」의편집자인심여추를알게되었는데, 그의소개로유서도알게되었다. 그후폐병에걸려입시를포기하고상해로내려온파금은유서의요청으로〈공개적편지〉(1926 년 3 월) 를쓴다. 여기서그는한인이나키스트에대한깊은우정과함께국가의경계를넘어서세계의민중이연합해정부와자산계급을타도하자는내용을담은글을실었다.

다음으로상해에서파금은한중일이나키스트들이교유하던등몽선(鄧夢仙) 의화광병원을치료차자주찾았다. 화광병원을중심으로한국과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등 7 개국대표 200 여명의이나키스트들이 1928 년 6 월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결성하고기관지「동방」을간행한사건은앞서언급했다. 여기서파금과유자명의첫만남이이루어졌다고전해지지만분명하지않다.²⁹ 그후파금은입달학원에정착한유자명을논설을통해알게되었고, 유자명도소설을통해파금을알게되었다. 어쩌면파금은유서와심여추등을통해간접적으로유자명을알고있었는지도모른다. 당시유자명은같은학교의숙소에서머물던파금의동생인이채신(李采臣), 파금의친구인여류작가나세미(羅世彌), 그의남편마종용(馬種融) 과절친한관계를맺고있었다.³⁰ 특히이채신은유자명의극적인인생이야기를파금에게전해주어〈머리칼이야기〉(1936 년 6 월) 라는단편소설의주인공으로삼는게기가되었다고전한다.

파금은 1930 년대로들어와본격적인창작의길로나아가문학가로서의명성을쌓아갔다. 그는노동운동이나농민운동에직접참여한적이없고, 아나키즘계열의비밀결사에참여한적도없었다. 파금은주로서작과번역활동을통한사상선전에주력했는데, 중국현대문학에서테러리즘에관한가장많은글을쓴작가라는데에서도알수있다. 하지만공개적으로는

관련성을얼마나불편해하는가를알수있다. 사실이책은중국에서가장체계적으로아나키즘을선전한책가운데하나였다. 그밖에파금이곽말약(郭沫若) 의마르크스주의를비판한논문도빠져있다(陳思和〈巴金的意義〉,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2000. 4).

²⁷ 한연구자의통계에따르면, (1933 년이전) 파금이번역한 20 여종의단행본가운데무려 17 종이아나키즘과관련있는것이라고한다(陳思和·李輝, 앞의글).

²⁸ 박난영, 앞의책 403~34 면참조.

²⁹ 유자명이쓴『나의회억』에는화광병원에서파금을처음알게되었다고하지만, 파금은“등몽선의병원에서조선인망명자를만나지않은것같다”고하여아마도친구로서의교류는아닌듯하다(嶋田恭子〈巴金과한국아나키스트들〉, 『한국아나키즘운동의궤적과 21 세기전망』, 1995, 26 면).

³⁰ 류연산『류자명평전』, 충주시여성문화연구회 2004, 302~304 면.

다. 그들은일부무정부공산당의주장을받아들여중앙집권적조직의지도아래정치투쟁을전개하여정치권력을장악하고, 민중들이이상사회를건설할동안반혁명세력의반격을분쇄하기위해민중독재를실시해야한다고선전했다. 이것은아나키즘의기본원리에서는상당히이탈한것이지만한인이나키스트들은일본무정부공산당조직이불세비키와는다르다고믿었다. 조직운영에서자유연합과자유발의원칙을인정했고, 프롤레타리아독재의문제도지극히제한적이라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의한연구자는 1930 년대중반이후재일한인이나키스트운동이“아나키즘본령에서의일탈이일어났다”고평가한다.²⁰

한인이나키스트도일본사회주의자의연이은사상전향사태에영향을받아일부가전향했다. 대표인물로는현영섭(玄永燮) 과장상중(張祥重), 최학주(崔學柱), 고부득(高富得) 등이있다. 특히일본과중국, 조선올오가며연락책을담당하던현영섭의변절은충격적이였다. 현영섭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출신인고급엘리트였다. 1931 년여름원심창을찾아상해로건너가남화한인청년연맹에가입했으며, 이연맹에서의외국문헌의번역, 기관지사설의집필, 내외운동의소개및연락등다양한활동을펼쳤다. 그는원심창과백정기에게자금을제공했으며, 원심창의부탁으로일본에잠입해재일한인이나키스트와연락을가졌다. 국내에돌아와서도상해와계속소식을주고받았으며, 다시 1933 년말일본으로건너가아나키즘선전에힘썼다. 그런데 1935 년 11 월동경경시청에체포되어조사받다가무혐의로풀려난이후갑작스레변절한것이다.²¹ 현영섭은〈정치론의한도막〉(1936 년 8 월) 이라는글을통해사상전향을밝혔으며 1938 년 1 월친일단체인녹기연맹綠旗聯盟에가담해본격적인친일활동을벌였다. 그는『조선인의나아갈길』이라는책에서조선역사에대한반성, 민족주의및공산주의에대한비판, 조선인의일본인화와조선어의폐지등을주장했다. 그밖에도여러친일단체에참가해내선일체의이론가로활약했다.²²

심지어재일한인이나키스트를상징하는박열조차전향의혹에쌓여있다. 1934 년 5 월이후사상적동요를가져와모두세차레의감상문을통해전향을선언했다고알려져있으나, 이에관한적지않은반론이존재한다.

중일전쟁이전에합법적인아나키즘계열의노동운동이나농민운동은거의괴멸되었다. 우선자유청년연맹이 1935 년 11 월해산했고, 오랜전통을자랑하는흑우연맹도 1936 년 3 월해산했다. 조선동흥노동동맹시바지부도 1936 년 4 월해산을결의했다. 중일전쟁이후일본과조선에서

²⁰ 이호룡『한국의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294 면. 이에대해일본무정부공산당이공산주의의프롤레타리아독재를받아들인적은없으며, 여전히기존의아나키즘적원칙에충실했다고보는입장도있다(김명서, 앞의책 264~65 면).

²¹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編, 앞의책 415 면.

²² 김명섭, 앞의책 279~81 면참조.

의활동이어려워지자재일한인아나키스트들은중국으로진출해테러및무장투쟁에합류하든지, 일본에잠복해비밀결사나학생운동으로명맥을유지했다. 결국조선동흥노동동맹등에서활동했던문성훈(文成勳)과이종문(李宗文) 등이비밀결사를통한운동의재건을준비했으나 1940년 12 월건달회建達會사건이일어나면서모두검거되었다. 일경은남아있던한인아나키스트들이자금과무기를구입해폭력봉기계획을세운‘폭력혁명음모사건’이라고발표했으나다소신빙성이부족하다. 이사건을마지막으로사실상재일한인아나키스트운동은막을내렸다.

2. 일본의대륙침략과중국인아나키스트

파금: 혁명과문학사이에서

중국학계에서는중국아나키즘운동의범주를보통 1900년대초부터 1930년대까지로잡아 1930년대를‘몰락기’로보는데반해한국학계에서는 1920년대를한인아나키즘운동의‘조직기’로보고 1930년대이후를‘전투기’로설정하여적극적으로평가하려는경향이있다. 이런차이가나타난 까닭은중국학계의경우중국공산당사중심의시각에서, 한국학계의경우민족해방운동차원에서아나키즘운동을바라보기때문일것이다. 여기서는전쟁에따른사상운동의압살이라는 1930년대의상황에주목하고자한다. 전쟁이라는극한적인상황에서아나키즘운동이약화되었을지는몰라도여전히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이더욱격렬한투쟁양상을띠었다는사실은부인할수없다. 특히중국내아나키스트들의테러와무장활동은한중연합투쟁이란국제연대활동의맥락에서이루어졌다.

한중아나키스트의반파시즘연합전선의활동을양국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파금(巴金)과유자명(柳子明)이라는두인물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파금과유자명은동아시아아나키즘역사의후반부에가장오랫동안변함없이아나키스트로서활동했던인물일뿐만아니라, 다양한저술들을통해각자나름의전쟁관을피력하고있기에주목할만하다. 게다가두사람은오랜동지적관계를맺고있었다.

1927년 4·12 쿠데타이후장개석의국민당정부는공산당원에대한대대적인탄압을전개했다. 이때오치휘(吳稚暉)와이석증(李石曾) 등원로아나키스트와유석심(劉石心)과구성백(區聲白), 황릉상(黃凌霜) 등을비롯한일부아나키스트가국민당에협력했고, 이에반대한다수이아나키스트들은나름대로독자적인활동을계속했다. 이시기는 5·4 운동이래새롭게성장한젊은아나키스트들이출현했다. 파금을비롯해위혜립

(韋慧林), 심중구(沈仲九), 필수작(畢修勺) 등이대표인물들이다.²³ 이들은국민당과공산당양당체제로개편되면서침체한운동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했는데, 주로국민당의검열과통제를피해국외아나키즘저작을번역출판하는일에심혈을기울였다.

파금은중국아나키즘역사의후반부에가장오랫동안선전활동을전개했던사람가운데하나로여러차례자신이변함없는아나키스트임을표명한작가이다.²⁴ 그런데대륙학계에서나온파금관련글에서는 1930년대부터그가아나키즘활동을별로하지않은것으로묘사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 청년파금이처음활동을시작하던 1920년대중반무렵은공산주의노동운동의급속한발전에따라노동조합적이나나키즘의영향력이점차쇠퇴하던시기였다. 그래서인지파금은원론적인입장에서아나키즘이론을선전하면서테러같은극단적인방법에대해막연한동경을가졌다. 프랑스유학시절(1927년 1월부터 1928년 12월까지)에는좀더중국 의현실에주목했지만전혀순수한아나키스트임을자부했다. 그는단편적인논문말고도동료들과함께『아나키즘과실제문제』같은저서를저술해야나키즘과국민혁명의관계에대한자신의견해를밝혔다.

1928년 12월말프랑스에서상해로귀국한파금은자유서점에서일했다. 이서점은프랑스유학생출신인주영방(朱永邦)을중심으로젊은아나키스트들이모여만든곳으로아나키즘관련저작들을전문적으로출판했다.²⁵ 여기서첫번째로출판한책이파금자신이번역한크로포트킨의저서『빵과자유』였다. 이책은프랑스로유학가기전에이미『빵의약취』라는제목으로초벌번역이이루어졌는데, 본래『전원·공장·작업장』『현대과학과아나키즘』『상호부조』등과더불어크로포트킨의대표작가운데하나였다. 파금은크로포트킨주의자임을자처했으며자유서점에서크로포트킨전집(10권)을계획하고자유소총서출판을준비했다. 같은시기주목할만한또다른작업은미국아나키스트알렉산더버크먼의『아나키즘 ABC』에근거해『자본주의에서아나키즘으로』(1930년 7월)를완성한일이다. 버크먼의책은미국의노동자들에게아나키즘의기본원리를설명하기위해쉽게쓴글로, 파금은프랑스유학시절부터이책을원본으로삼아중국현실에맞추어아나키즘이론을소개하고자준비했다.²⁶ 1929

²³ 파금의아나키즘에대한연구는陳思和·李輝〈怎樣認識巴金早期的無政府主義思想〉, 『文學評論』, 1983. 3; 山口守·坂井洋史『巴金の世界』, 東方出版社 1996 등이대표적이다. 국내연구로는박난영『혁명과문학의경계에선아나키스트파진』, 한울아카데미 2005 등이있다.

²⁴ 담조음(譚祖蔭)은중국에서“아나키즘이론을연구한사람은황릉상과파금이다. 그들은적지않은아나키즘관련문장을쓰고번역했다”고회고했다(路哲『中國無政府主義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90, 275면).

²⁵ 陳丹晨『巴金的夢』, 中國青年出版社 1994, 90면.

²⁶ 중국문학계에서『巴金全集』을출판할때파금의대표적인아나키즘저작인『자본주의에서아나키즘으로』를전집에서의도적으로뺀사실만보더라도파금과아나키즘과의